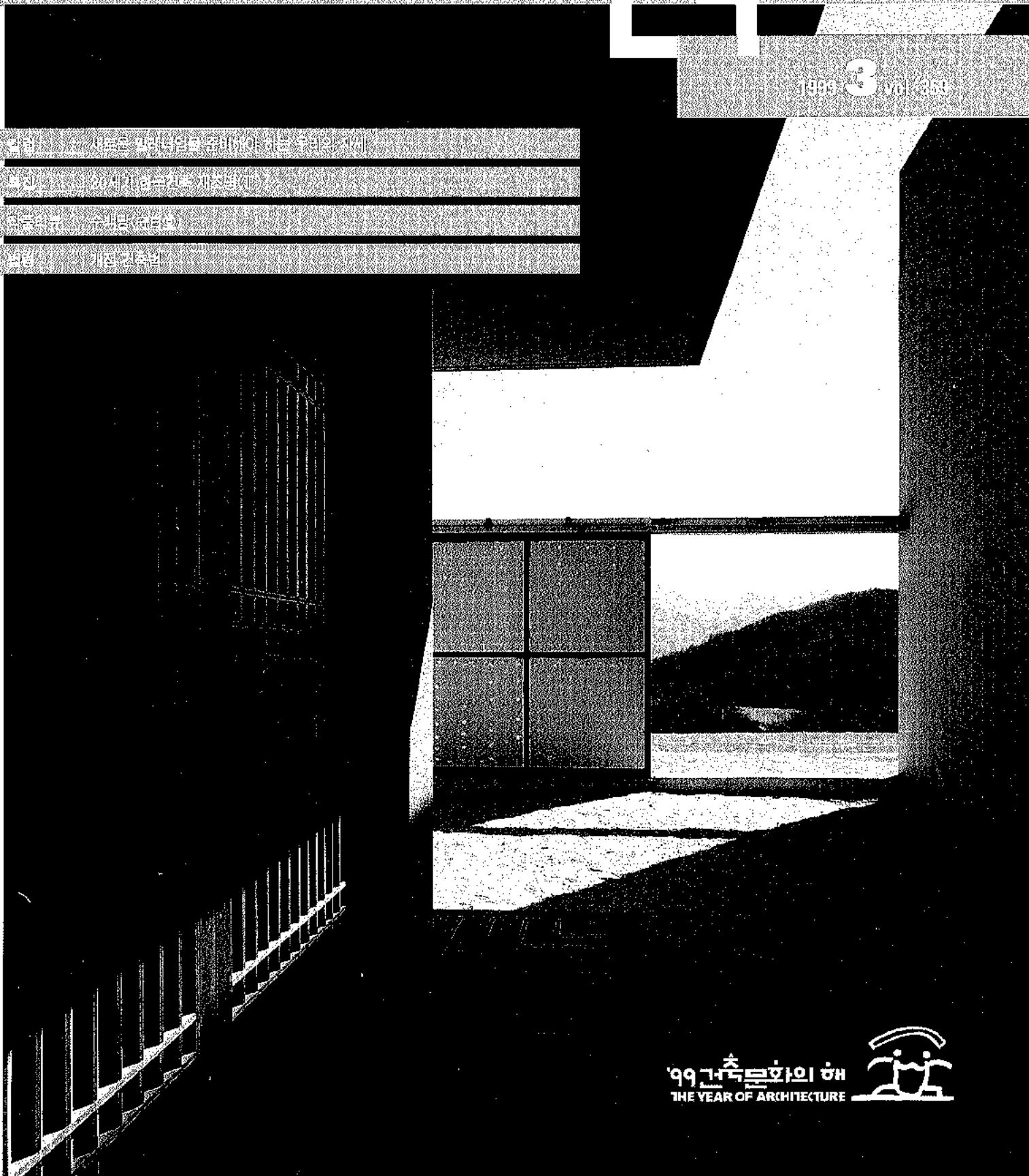


# ବ୍ୟା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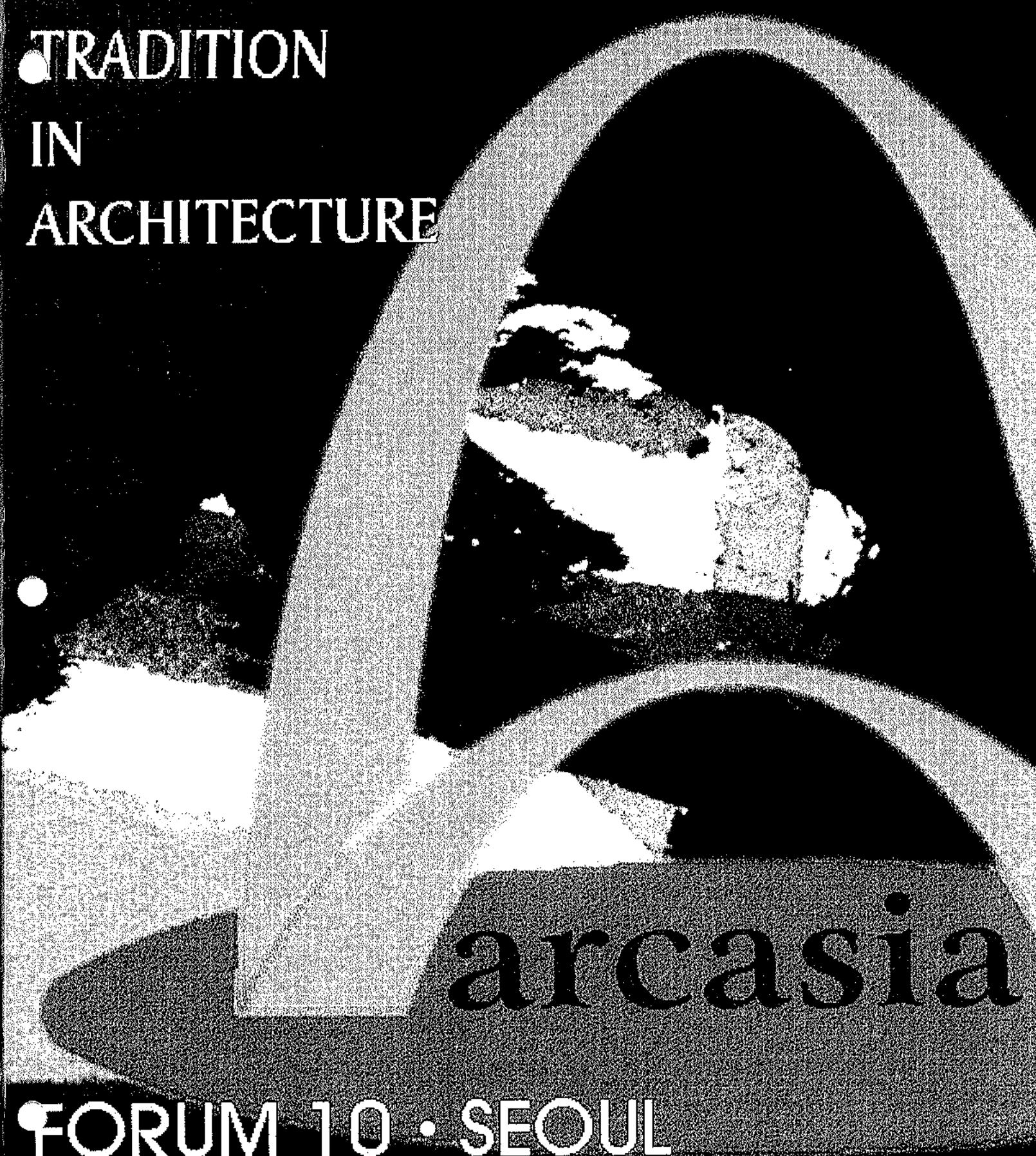
ମେସିହା ୩  
୧୯୯୫ ମୁହୂର୍ତ୍ତ



୭୭ ବ୍ୟାଜା  
THE YEAR OF ARCHITECTURE



TECHNOLOGY  
&  
TRADITION  
IN  
ARCHITECTURE



aurasia

FORUM 10 · SEOUL

SEP 12-17, HOTEL INTERCONTINENTAL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대한건축사협회

# 플러스 버추얼 찬스

Virtual Reality CAD System

- 사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한  
범용 CAD - UniCAD

uniCAD

- 100여 종 이상의 문서, 도면, 이미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출력 가능한 통합 뷰어 - UniVIEW

uniVIEW

uniARCH

- 건축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건축설계 전용 CAD - UniARCH

uniMECH

- 기계표준 라이브러리를 내장한  
기계설계 전용 CAD - UniMECH

uniMECH

# uniCAD 시스템을 구입하시면 퍼지드레이션을 드립니다

UniCAD 2.0 출시 및 20,000 사용자 확보 기념 사은 행자로서,

**UniMECH** 번들 또는 **UniARCH** 번들을 구입하시면

CAD전문가용 삼성매직스테이션을, 패키지를 5 세트 이상 구입하시면

실리콘그래픽사의 **NT Workstation**을 드립니다

새도약, 새출발 — 삼성SDS와 함께 준비하십시오

## 한스1 UniMECH Bundle ₩ 2,585,000 (VAT 포함)

· UniMECH + UniVIEW 2D & 3D + 훈민정음 2000

## UniARCH Bundle ₩ 2,585,000 (VAT 포함)

· UniARCH + UniVIEW 2D & 3D + 훈민정음 2000

· 한정 2,000 Copy에 한하여 사은품으로 매직스테이션과 함께 UNITEL 3개월 무료이용권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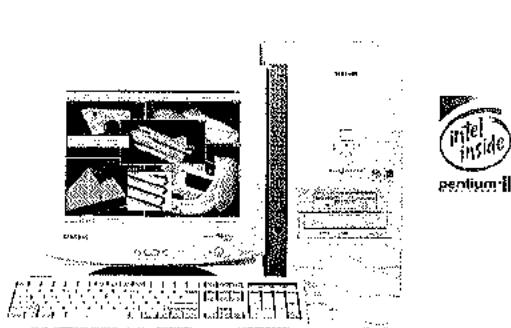
## 한스2 UniMECH 5 Copy 또는 UniARCH 5 Copy ₩ 9,950,000 (VAT 포함)

· 한정 500 Copy (100 Set)에 한하여 사은품으로 5Copy 당 SGI NT Workstation 1대를 드립니다.

## 한스3 CAD Idea 공모전 ('99. 4. 15까지)

· 접수 : E-mail ID : unicad@samsung.co.kr · 유니텔 : unic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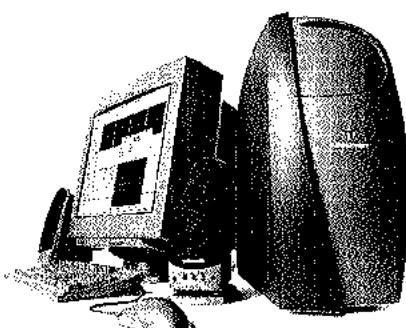
· UniCAD 사용의 개선점, 불법 S/W 근절 아이디어, 웹사이트 개발 아이디어에 응모자 중 100명에게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2매,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제공합니다.



## M2350-CAD

M2350-CAD 주요사항 (17" 모니터 포함)

- 350MHz奔腾II 프로세서
- 64MB SDRAM 메모리
- 512KB 캐쉬메모리(CPU내장형)
- 3.2GB UltraDMA HDD
- 32배속 CD-ROM드라이브
- ISA 3D사운드
- 퀄컴비스
- 56Kbps초고속 팩스모뎀
- S/W : Windows98, Norton Anti-Virus



## NT Workstation

Silicon Graphics 320 비주얼 워크스테이션 주요사항 (17" 모니터 포함)

- Cobalt 그래픽 칩셋을 사용한 통합 비주얼 컴퓨팅(IVC) 아키텍처
- 최대 2개의 인텔奔腾II 프로세서(350MHz)
- 10/100 이더넷, IEEE-1394, USB, 전문가용 비디오 I/O 기분 장착
- 미디어소프트 Windows NT 워크스테이션 4.0 운영체제
- 128MB SDRAM메모리 · 6.4GB HDD · Graphic Development Tool Kit

### 대리점 및 교육 전문점 모집

문의처: (02) 3429-2214 / 2817 · URL: <http://www.unicad.co.kr>

서울/케이인스/02)861-7805 서울/인터브레인/02)548-4721 수원/신룡COM/033)1221-7755 강원/김진정보/055)1267 5559 광주/경동시스템/062)228-5900  
서울/삼진네트워크/02)503-0894 서울/디지털파워/02)3775-0614 대전/해성/042)533-5171 경원/케이엔티/055)260-5341 광주/우진정보/052)265-4300  
서울/SOS Eng./02)2638-0685 성남/서현컴퓨터/0342)715-4366 대구/컬드캐드뱅크/053)566-0160 무산/포천정보/051)301-1611 전주/전주컴퓨터랜드/0652)711-5010

후원: 한국기계설계제도협의회, 한국CAD/CAM학회

협찬:



2월 8일 개정판 수록

# '99년 건축법규 CD-ROM 출시

## 한글 97로 보고서 작성

건축법 및 관련법들을  
필요한 사항만 편집하여  
바로 보고서나 허가서류  
등을 작성 할수 있습니다.

## 실무자들을 위한 편집

건축법 제1조부터  
83조에 대한 조문별  
해설을 따로 제공하여  
실무자들이 쉽게 관련조항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 AutoCAD R14의 상호운용

AutoCAD R.14 내의  
메인메뉴에 자동 삽입되어  
도면작업시 법규검토가 가능하여  
작업능률이 향상됩니다.

## '99 architecture law

## 완벽한 상호관련성

법 / 해설 / 질의회신 / 판례, 행정심판 /  
소례 / 관련법령 / 행정기관 안내 /  
법규자료실등 조문에 대한  
상호관련성 파악이 쉽고  
편리합니다.

'99.2.8 개정 건축법규 CD-ROM을 구입하시는분께는 '99.5.9 개정예정인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이 수록되는 건축법규 CD-ROM을 무료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정가 30,000원)

MARU-NET

(우)442-74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 아주대학교 정연시원센터 201호

Tel:0331-216-8353 Fax: 0331-216-8354

URL:www.MARUNET.co.kr Email:marunet@unitel.co.kr MARUNET@chitell.net maru21@chollia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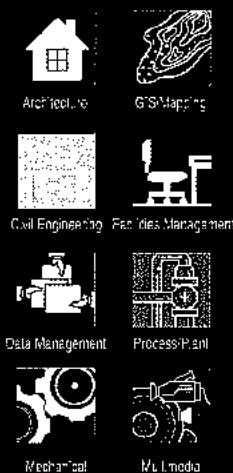
개발사 : Geo-Tech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400 갤럭시빌딩 3층 Tel : 02-576-4516 Fax : 02-577-1999

국내 최대 CAD/CAM/CG/GIS 기술세미나  
**Autodesk Solution '99**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뉴 밀레니엄-

**오토데스크 솔루션 '99에 초대합니다**



21세기를 준비하는 오토데스크사의 새로운 디자인 솔루션과  
뉴 밀레니엄의 핵심역할인 AutoCAD 2000이 국내에 첫 선을  
보이는 뜻깊은 자리, 오토데스크 솔루션 '99로 오십시오.  
오토데스크가 "Design 2000"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국내 최대 규모로 개최하는 오토데스크 솔루션 '99는  
오토데스크의 밀레니엄 야심작 AutoCAD 2000을  
비롯 CAD/CAM/CG/GIS 등의 전 신입 분야에  
국내외 최고의 솔루션들이 한자리에 충만해집니다.  
뉴 밀레니엄 디자인 솔루션 정보를 한자리에  
오토데스크 솔루션 '99에서 디자인 솔루션의 미래를 읽으십시오.

- 행시일 1999. 3. 18(목) ~ 19(금)
- 시 간 오전 9:30 ~ 오후 5:40
- 장 소 서울 잠실 롯데월드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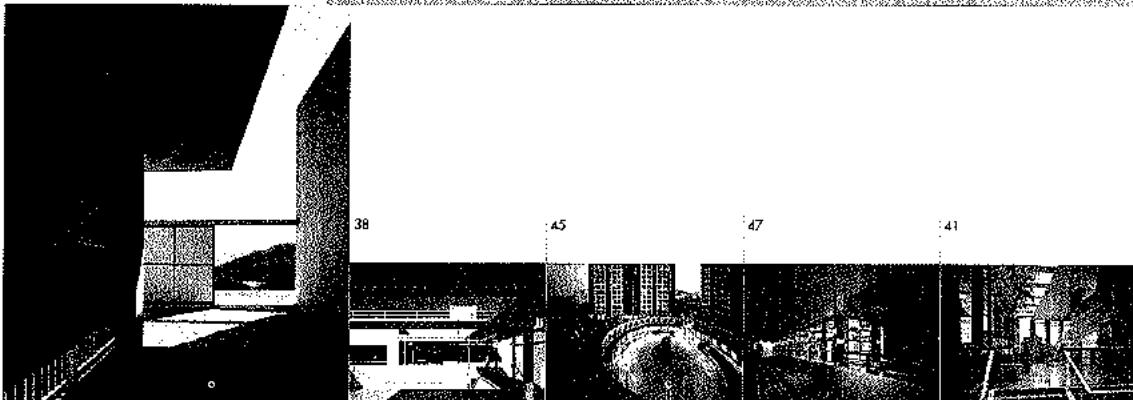
• 주 쇄 (주)오토데스크코리아

- 사전등록을 하시면 지장 좌석 배정, 우선 접수 등의 특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전등록, 자세한 행사 일정 및 조시 내용은 오토데스크코리아 웹사이트(<http://www.autodesk.co.kr>)를  
참조하시거나 오토데스크 공인 출판업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미나 및 전시에 참석하신 고객께는 다양한 경품을 드립니다.



대한건축사협회 발행 1999년 3월호. 총권359호

국내 14,900 원외 16,900 원



수백당(守白堂, 승호상 作)

발행인: 이의구  
편집·기획: 편찬위원회  
위원장: 장양순  
위원: 김정희, 조인숙, 조현군, 최동규

편집·취재: 정호상, 조한국,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침립일: 1965년 10월 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 581-5711~4  
팩스밀리: (02) 586-8823  
인터넷주소: <http://www.kira.or.kr>  
E-mail: hsjoung@kira.or.kr  
hkjin@kira.or.kr

U. D. C: 69/72(054-2): 0612(519)  
인쇄인: 이봉수/정문사 (02) 266-4555

Publisher: Lee Eui-Koo  
Editorial Member: Chang Yang-Soon, Kim Joong-Hwee, Cho In-Souk  
Cho Hyun-Goon, Choi Dong-Kyu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6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 581-5711~4

Fax: (02) 586-8823

U. D. C: 69/72(054-2): 0612(519)

Printer: Lee Bong-Soo(Cheong Moon Printing Co.)

칼럼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	김정철	10
시론	재량권과 우리의 할 일	장양순	14
작품리뷰 / 수백당(守白堂)	대담: 빈 것과 차위질의 의미 비평: 이상한 집에 스며든 자의식적 겸박성	승호상 정인하 이종건	16 26 34
회원작품	사색의 집 도시개발공사사옥 한국답배인삼공사사옥 도곡 우성캐릭터 199 도산 안창호 기념관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 강원도립대학 실험실습동	(주)삼우설계 (주)종합건축 건원 (주)종합건축 건원 한현호·지승선 김자호·오동희 이용호 이각표+한광호	38 40 42 44 46 48 50
작품노트	지어지지 않는 꿈, 지어지는 건축	김석환	52
기고	인·허가 비리체결에 있어 건축사의 역할	리인철	56
아카시아	아카시아 포럼이란?	조인숙	58
특집 / 20세기 한국건축 재조명(Ⅲ)	20세기 한국건축의 연대기적 정리 - 20세기초의 한국건축 - 근대적 이념형을 찾아서 - 감성과 인식의 시대 20세기 한국건축의 조명과 전망 -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의 미래상 - 우리의 모더니티: 20세기에 남겨둔 문제들 - 지나온 20세기와 새로운 21세기를 내다보며	윤인석 정인하 김병윤 원정수 조성룡 민선주	62 68 72 76 78 81
건축정보	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 표준안		90
해외건축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3)	김미상	96
건축마당	협회소식 건축계소식 현상설계 해외설치동향 법령 전시리뷰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999년 1월분) 제시판		103 104 108 112 118 122 124 126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4-6840 · 강북구건축사회/803-3425 · 강서구건축사회/040-7168 · 관악구건축사회/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노원구건축사회/933-0076 · 등대문구건축사회/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송파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6040 · 연등포구건축사회/68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89-1486 · 풋로구건축사회/737-3090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종로구건축사회/437-7356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금천구건축사회/859-1568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6-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74-8836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863-8002 · 곤명건축사회/(02)684-5843 · 구리지역건축사회/(034)655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1)664-13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755-541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8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2)894-4121 · 인천건축사회/(036)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40)449-2086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5)661-6149 · 이천지역건축사회/(030)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3)657-6149 · 오산건축사회/(033)375-82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5)338-9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9)1653-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531-5708 · 속초지역건축사회/(039)633-5081 · 청월지역건축사회/(037)374-2660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742-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6)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084

옥천지역건축사회/(0475)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847-33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66-4088

공주시역건축사회/(041)854-303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904-3357 · 부여지역건축사회/(046)9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651 · 충성지역건축사회/(045)632-2756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은지역건축사회/(0671)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852-3/9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6-9944 · 364-76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2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01)743-2437 · 여수지역건축사회/(0662)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2)365-615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9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61)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4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61)563-1412 · 상주시역건축사회/(0582)535-6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853-021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634-5560 · 영천지역건축사회/(0563)334-6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974-7025 · 풍화지역건축사회/(0562)244-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시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0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6644 · 미창지역건축사회/(0551)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27)355-1323 · 사천시역건축사회/(0593)833-9779 · 양산시건축사회/(0523)384-32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1)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3)52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7)941-4500 · 하동지역건축사회/(0505)883-40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2-2233

## Column

In Preparation for the New Millennium	Kim Jung-Cheol	10
<b>Focus</b>		
Discretionary Power and Our Responsibility	Chang Yang-Soo	14
<b>Review / Subaeck-dang</b>		
Interview The Meaning of 'Contentat' and 'Contenu'	Seung Hchich-Sang	16
Critique Self-conscious Frugality Immersed in a Strange House	Jung In-Ha	26
	Lee Jong-Gun	34
<b>Works</b>		
A House of Meditation	Samoo Architects & Engineers	38
Seoul Metropolitan Development Corporation Headquarters	KunwonPlanners,Architects & Engineers	40
Korea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Headquarters	KunwonPlanners,Architects & Engineers	42
Dokok Woosung Character 199	Han Hyun-Ho & Jee Seung-Sun	44
Dosan Memorial Center	Kim Ja-Ho & Oh Dong-Hee	46
Anyang Youth Training Center	Lee Yong-Ho	48
The Laboratory Hall of Kangwon Provincial Junior Collage	Lee Gak-Pyo & Han Kwang-Ho	50
<b>Design Note</b>		
The Unbuilt Dream, the Built Architecture	Kim Suk-Hwan	52
<b>Feature</b>		
The Role of Architects in Exposing Unlawful Registration and Licensing	Lee In-Cheol	56
<b>ARCASIA ②</b>		
Introduction ARCASIA Forum	Cho In-Souk	58
<b>Special Feature /</b>		
<b>Looking Back on Korean Architecture in 20th Century(Ⅲ)</b>		
- Korean Architecture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Yoon In-Suk	62
- In Search of a Modern Ideal Form	Jung In-Ha	68
- The Age of Sympathy and Recognition	Kim Byung-Yoon	72
- The Future Vision of Our Architecture	Won Chung-Soo	76
- The Modernity of Our Own - The Unsolved Problems of the Twentieth Century	Jo Sung-Ryong	78
- Looking Back on the Twentieth Century, and Looking Forward to the Next One	Min Sun-Ju	81
<b>Information</b>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90
<b>Overseas Architecture</b>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3)	Kim Mi-Sang	96
<b>Architects' Plaza</b>		
KIRA News		103
Archi-net		104
Competition		108
Overseas Journal		112
Laws & Ordinances		118
Exhibition		122
Statistics		124
Bulletin Board		126

# 새로운 밀레니엄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의 자세

In Preparation for the New Millennium

김정철 / (주)정림건축

by Kim Jung-Chul

## 건축계의 현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 IMF 경제체제하의 건축계는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렇게 암울한 터널을 지나야 끝이 보이게 될런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전쟁터의 초토화라는 표현을 TV자료화면을 통하여 보아왔지만 이렇게 심한 초토화를 예측한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기에 황당과 허탈을 느끼게 되는지도 모르겠다. 설계사무실은 있되 직원이 없으며 설사 직원들이 있다해도 할 일이 없는 참담한 상황이 일년 넘게 계속되어왔고 앞으로도 더 계속될 전망이니 건축가들이 모여 앉으면 나오느니 한숨이고 입을 열면 걱정들 뿐이다. 누구하나 예외없이 이런 상황이다보니 땅을 살 수 있는 사촌도 있을 수 없고 비가 아플 일도 없어졌다. 차라리 배라도 아풀 정도로 일부에서나마 잘 나가는 설계사무소가 늘어났으면 하지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 공장과 사무실이 텅텅 비어있는 상황에서 신축을 계획하거나 증축을 하겠다는 건축주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빈 공간이 다시 채워지고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언제쯤 반전될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일 것이다.

설계경기의 현장설명때는 수십에서 수백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고 이를 이용하는 발주처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유도하여 최소의 설계비로 건축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설계비의 하한선을 유지시켜주었던 설계비 기준이 없어지게 되었고 부가가치세마저 신설되었으니 앞으로 건축설계는 공짜로도 가능한 세상으로 바뀌어 건축가들을 더욱 암담하게 만들고 있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카르텔을 없애고 건축사들 스스로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설계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는 이론상으로는 그럴 듯하나 현실적으로 설계비 덤팡을 유도하여 조악한 설계를 양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몇 끼를 굽은 사람은 도둑질도 불사하는 법이며 노느니 쌌 설계비를 받고 설계해 주겠다는 건축사가 없으

리라는 법이 없다. 건축을 문화로써 생각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으며 기술 근처에도 뭇가는 행정대행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또한 떨쳐버릴 수가 없다.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 건축을 문화와는 거리가 먼 공학과 기술의 변방쯤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건축문화 개념의 대중화실현의 계기를 만들어 건축을 문화로 인식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기대하던 건축문화의 해가 지금인데 주변환경은 아무리 들러보아도 어려움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 돌아본 30년

춥고 배고프고 누울자리가 변변치않던 시절이 불과 30여년 전인 60년대 초였고, 젊은이들을 용병(?)으로 베트남에 파견할 수밖에 없던 시절이 있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시작으로 잘 살아보려는 노력은 세계가 감탄할 정도의 경제기적을 이루어 제3세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아사(餓死)가 사라지고 이곳저곳의 공장골뚝에서 연기를 뿜어대기 시작하더니 경부고속도로가 개통(1970)되고 미포아파트(1962), 한강맨션아파트(1969), 반포주공아파트(1973), 잠실주공고층아파트(1977)가 준공되었으며 삼일로빌딩(1970), 무역전시관(1980), 63빌딩(1985), 무역회관(1988) 등이 속속 도시를 채워나가 지금 서울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대도시의 도심은 고층빌딩으로 가득차고 지방의 중·소도시에까지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어 지난 30년동안 세워진 건물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물량이었다. 몇 년만에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고 비단 고국의 모습에서 경탄과 자부심을 느꼈다. 올림픽(1988)과 대전엑스포(1993) 개최를 전후하여 체육, 문화시설이 확충되었고 과천, 목동, 일산과 분당 등에 대단위 단지개발이 이루어졌다. 인천국제공항(2000년 준공예정)과 경부고속철도(2004년 준공예정)는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의 거리를 가깝게 만들게 될 것이며 이렇게 건축분야의 팔목할만한 성장의 중심에는 항상 건축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건축가들의 땀과 노력이 도시의 면모를 바꿔놓았고, 밤을 낮 같이 일해야 하던 시절이었고 외국의 건축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규모의 설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그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좁은 국토를 벗어나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과 동남아 등 세계를 향한 우리 건축사들의 작업이 활발했던 행운의 기간들이기도 했다.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건축설계의 황금어장이 펼쳐 있었고 건축가들의 수확은 앞으로는 영원히 기대하기 힘든 기회의 시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과 개발의 화려한 청사진은 경제제일주의와 개발우선의 논리를 임태하였고 이에 편승한 건축행위는 질보다는 양적인 팽창의 결과를 낳는 부정적인 면도 없지않던 시절이었다. 공장 골뚝에서는 실새없이 연기를 뿐어대고 논 한 가운데 세워진 고층아파트는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山河)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삼천리 금수강산(錦繡江山)은 온데 간데 없어지고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몇 군데 국립공원에는 사람과 자동차의 홍수로 몸살을 앓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비록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도시와 국가 모습을 만드는 중심적 역할을 한 지난 30년동안의 건축사들 노력은 과소 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몇 차례의 불경기로 건축분야의 어려움이 없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앞만보고 달려온 지난 날들이었고 의적인 성장을 거듭한 날들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조들과 선배들이 20세기에 걸쳐 한 일보다도 더 많은 일을 우리 건축가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낸 지난 30년이었다.

## 새로운 밀레니엄을 향하여

20세기의 마지막해인 올해도 두달이 이미 지나 버렸으니 이제 10개월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한 건축계의 준비기간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IMF라는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건축계가 황폐화되었다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미룰 수도 없는 일이고 현실을 한탄한다고 누구하나 도와 줄 사람도 없다. 스스로가 극복하고 인내하며 새로운 천년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이다.

농번기(農繁期)가 있는가 하면 농한기(農閑期)가 있게 마련이며 업동설한의 농한기 뒤에는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풍요를 예고하는 봄철이며 농번기인 것이다. 가을수확으로 얻은 짚으로 새끼를 고고 기마니를 만들면서 새로운 농번기를 대비하던 업동설한의 작업이 우리 선조들이 하던 일이었다. 새로운 천년을 맞기 위해 기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일, 비록 업동설한의 농한기가 길어진다해도 이 기간을 뜻있게 보내는 슬기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앞만보고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훌리고 노쳤던 일을 헌기지식이라도 주어지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새로 시작되는 세기에는 훌린 것이 반복되지 않는 준비의 기간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다. 앞만보고 달린 사람은 지금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지, 제대로 온 길인지 조차 확인할 겨를이 없게 마련이다. 어차피 남는 시간인데 차분하게 뒤를 돌아보고 지금의 위치를 확인 한 후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정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건축을 예술과 문화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생각으로 건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우리 스스로가 건축을 기술의 변방쯤으로 생각하면서 지나온 것은 아닌가? 기술로 생각했다면 앞으로 맞게 될 21세기를 대비한 기술을 얼마나 축적해 왔는가? 스스로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부분들일 것이다. 연연이 이어질 건축의 발전을 위해 후배들을 얼마나 육성해 왔으며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축가상(建築家像)을 만들어 왔고 지금도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까?

한 일도 많지만 해야 할 일도 아직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건축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복부인이라는 신조어(新造語)를 탄생시킨 데도 일조를 했다면 이제 건축을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건축을 문화의 일부분으로 인식시키는 데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인 규모의 건축은 있었지만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건축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부분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다. 물가에 편승해 올라가기만 한 인건비에 상응하는 기술이 없으니 세계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건축계의 곳곳에 만연해 있는 거품을 걷어내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의 하나이다.

설계해야 할 대상이 없다고 시간은 멈추어주지 않는다. 훌리가는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없는 일이나 가는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는 슬기만이 필요한 때인 것 같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오히려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미루어왔던 일과 해야 할 일을 찾아 바쁘게 움직여도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을 준비를 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인 것이다. 지난 30년간 훌리고 지나온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 좋은 시절(?)이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건축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립하고 인식시키기 위하여 법적인 정의를 뛰어넘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건축가로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고 바쁘게 지내는 준비기간으로 보내야 할 것 같다.

## 건축문화의 해를 맞이하여

"인간의 삶은 존엄하다. 그 존엄한 삶을 담는 건축 또한 존엄하다. 건축은 모든 문화행위의 바탕이 되고 동시에 그 시대를 총체적으로 표상하는 문화자산이다. 건축가는 예술적 능력과 고유한 철학을 갖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사회와 환경을 만들려는 전문인

이다. 또한 그 시대, 그 지역의 역사, 경제, 사회, 문화를 건축으로 창조하는 실천인이며, 인류공동의 절대적 사명인 환경보전의 전면에 서는 시대의 중인이다. 지난 30여년 건축은 우리 경제발전을 주도한 주역이었다. 그러나 화려한 개발과 성장의 뒷면에는 전통적인 문화 가치가 심하게 왜곡된 질곡의 역사가 있었고 환경윤리가 무시된 채 급속히 진행된 근대화 운동으로 경제제일주의, 개발우선의 논리 그리고 이에 편승한 이기주의에 의해 건축과 도시는 비인간화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국토와 자연환경은 무모하게 파괴되어 우리와 우리 후손의 생존조차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 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천년의 첫 세기가 열리는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다. 근대산업사회와 종언과 정보문화 사회의 시작을 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경제성장만이 삶의 질의 향상이 아님을 깊이 반성하고 인간환경의 본원적 가치를 새로이 구축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감으로 오늘의 위기를 의식전환의 기회로 바꾸어야 한다. 이제 건축은 모든 시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적 대상으로 되돌려져야 한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선조들의 위대한 건축문화유산, 개발된 과학기술, 축적된 경제력 그리고 확고한 정체성에 근거한 철학의 기반위에 이 시대, 우리의 건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이다

문화가 일상을 채우는 새로운 세기, 지혜의 시대를 여는 새출발에 모두 함께 하자.”

이상은 지난 1월29일 '99건축문화의 해' 선포식에 있었던 선언문 내용이다. 모처럼 한 우산 3단체가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건축계가 단결하여 한 목표, 한 목소리를 만들고 부단한 노력이 지속될 때 건축문화의 정착이 가능 할 것이다. 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장의 신문 인터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건축계 스스로도 국민들의 건축에 대한 의식과 관계없이 건축문화 정착에 장애요인을 제공해온 측면이 없지 않았으며 건축문화 대중화와 건축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부단하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후진적 건축문화를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건축문화의 해를 통해 단합된 건축계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건축문화 개념의 대중화 실현에 이를 수 있도록 건축계의 총화(總和)가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 건축계의 가장 어려운 때에 빛을 얻어 치루는 일파성(一過性) 잔치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려운 가운데 맞이하는 건축문화의 해이기에 더욱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여 건축계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건축이 건축문화로 인식되고 나아가 건축문화 개념의 대중화 실현이 가능하도록 진력(盡力)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며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는 건축계 행사를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선언문 내용이 선언으로 그치는 결과라면 건축에 대한 국민적 이해는 더욱 멀어지게 될 것이며 건축문화의 대중화는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문화의 특성은 단시간에 제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제는 노력과 주변여건에 의해 기적 같은 일도 이루어지지만 건축문화는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노력을 필요로 한다. 건축문화의 해 당년도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갈 부분이 있게 마련이다. 금년이 건축문화의 정착을 위한 첫 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진정으로 국민들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로 가꾸어 나가려는 건축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산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는 것이라고 한다.  
지적 작업을 하고 있는 전문인인 건축가에게는 육체적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신 건강이다. 지독한 불경기는 건축가의 재산을 잃게 할 수는 있지만 명예와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신적인 내실을 기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소비와 사치가 난무하는 거품시절에는 뒤돌아보지 못했던 정신적인 여유를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준비기간으로, 건축문화의 해를 뜻있게 준비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투자해 우리 모두의 염원인 건축을 문화로 인식하고 인식시키는, 한단계 도약하는 발판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 재량권과 우리의 할 일

### Discretionary Power and Our Responsibility

장양순 / 본협회 편찬위원장, 동명건축

by Chang Yang-Soon

지난달 MBC의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에서 '건축사의 도전' 이란 방송보도를 본 건축사라면 누구나 화제의 주인공인 리인철 건축사의 용기있는 행동에 찬사와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리인철 건축사는 충남 아산시에서 10년간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회원이다. 그는 아산시에 제출했던 건축허가 2건이 부당하게 불허되자 이를 감사원에 진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를 충남도에 위임했고 충남도는 적당히 일버무림으로써 이 부당한 조치를 더 이상 호소할 길이 없게 되자 지난 1월 21일자 한겨레신문 1면 광고를 통해 대통령께 공개적인 직소를 하게 된 것이다. 그러자 시사매거진 제작팀이 이를 심층 취재하기에 이르렀고 2월 첫주 「건축사의 도전」이란 제목으로 방영하게 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필자는 물론이고 협회에도 각지의 건축사들로부터 "대단히 통쾌하다", "격려해 주라", "협회 차원에서 지원하라"는 등 동감을 표시하는 전화가 쇄도했다.

신문광고 내용은 2건의 허가를 불허한 시유를 들고 이의 부당성을 법리로써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으며 기재는 계편이고 관은 관편이 된 상급기관에 대해 엄중조치를 요구하는 서한으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이나 상세히 알리고 하는 분은 PC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우리들이 당면하는 사안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신문광고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다만 우리는 리인철 건축사가 광고문의 서두에서 밝힌 자유재량권과 저간의 건축사계 인허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한다.

자유재량(自由裁量)이란 일반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짜임들의 범위안에서 독립된 판단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는 입법재량, 사법재량, 행정재량이 있는 바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행정재량이다.

행정재량은 법의 구속을 받는 기속행위와 받지 않는 재량행위로 나뉘어지고 재량행위는 다시 사법심사를 받는 법

규제랑 행위와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 자유재량 행위로 세분할 수 있다. 후자는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법률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초법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이다. 다시 말하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재량권 한계의 일탈) 법의 취지(평등원칙·비례원칙 등)에 어긋나게 행사하면(재량권 남용) 위법이 되는 것이다.

우리 건축사들중 적지않은 수가 리인 철 건축사의 경우와 같이 자유재량이라는 미명하에 재량권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법 내지 편법적 부당함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정작 자유재량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에서는 법률을 경직되게 적용함으로써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져야 했던 경험들이 있다. 탄원 광고문과 같이 부당함을 법리에 의거하여 따지고 들면 “악을하면 행정심판을 하라”는 말을 꽤나 듣기도 했다. 이러한 경우를 당할 때 우리들은 어떻게 대처 했는가? 행정소송하면 몇 년이 걸리고 이겨 본들 그 사이에 경제적 손실이 더 크니 허가청의 의견이나 요구를 따를 것을 건축주에게 권하며 타협 아닌 타협을 유도하고 씁쓸한 웃음을 짓지 않았던가.

한국이 IMF시대를 맞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인허가 업무의 복잡성과 어려움에 있다고 한다. WTO시대에는 어느 나라 자본을 막론하고 이를 최대한 자국(自國)에 끌어들여 고용창출에 힘써야 하는데 한국에 투자하려 온 기업인들은 공장허가 내려다가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왕정시대의 관존민비사상과 일제시대 식민지 수탈행정의 전통과 사상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되는 방향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민원을 해결해야 하는 민본·민주주의와 국제관계가 뿌리내리지 못한 사유다. 그렇기에 행정에 자유재량이 인정되는 이유가, 입법자가 장래의 모든 사태에 대응할 상세하고도 합리적인 규정을 두기 어렵고 개개의 사정에 맞는 유연하고도 합리적인 해결이 필요하기 때문인데도, 우리는 유연 대신 경직, 합리 대신 불합리한 경우를 많이 당해 왔다.

이런 사연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방송머리에 “건축사라면 시나 건축과를 상전으로 모시는 것으로 알려졌던 터라…”란 멘트를 시작으로 「건축사의 도전」이란 타이틀을 내걸었던 취재기자 및 PD를 통해서 일반인도 공통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우리에게 설계를 의뢰하는 건축주들은 언제부터인가 허가를 빨리 내는 건축사를 유능한 건축사로 여기게 되었으며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가려는 건축주의 요구에 순응하는 건축사를 높이 평가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건축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퍼져 있는 이러한 부조리와 불합리들은 근본적으로 타락 탈법을 초래하게 되었다.

법규정에만 맞으면 건축할 수 있게 미관심의도 없애는 마당에 규정에 맞게 신청한 노인 휴양시설이 「콘도」로 변신할까봐 허가를 불허한다면 어불성설이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미리 법을 바꾸든가 아니면 추후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필요는 있다. 호구지책일지라도 일부는 위에 언급한 대로 법은 맞더라도 양심에 어긋나는 경우를 만들기도 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일은 건축사의 공개 고발에 이어 아산시의 해명서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박문이 신문지상을 통해 계속됐으며 그는 현재 검찰에 아산시를 고발한 상태다. 행정부에서 해결이 안됨에 따라 사법부에 심판을 의뢰한 것이다. 결과야 조만간 들어 나겠지만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우리는 관의 재량권에 대해 이번 기회에 좀 더 확실히 해두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용기있는 회원들이 계속 나와야 할 것이며 이런 판례들이 모아져 허가업무에 있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체계화하려면 협회가 주축이 되어 재판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거나 승소시 격려금을 지급하고 협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문서로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회원 또한 독불장군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협회와 논의하여 좀 더 완벽한 준비로 싸워야 할 것이다.

WTO의 출범, 협회가입 자유화 등 내외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우리는 일부 회원들의 협회 무용론 등 내부 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협회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힘없는 얼룩말들 조차 위기에 처하면 무리지어 머리를 맞대고 맹수의 공격을 막아내지 않는가

작품하는 우리는 어차피 개성이 누구보다 강하다. 멀리서 백사장을 보면 뭉쳐있는 것 같아도 들어 뿐리면 날개가 되어 버리는 모래와 같이 우리는 할기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협회가 시멘트 풀이 되어 결속해야 한다.

힘이 따르지 않는 정의가 무용지물이 됨을 3.1운동의 역사에서 배운 바 있다.

98년의 수주실적은 97년 대비 60%나 줄었다. 금년이라고 더 좋을 것 같지도 않다.

어려운 때 일수록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자.

하나씩 하나씩 바로잡아 나기다 보면 침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는가.

# 수백당(守白堂)

작품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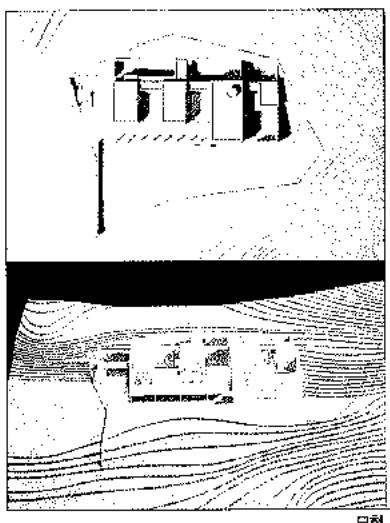
review

Subae-d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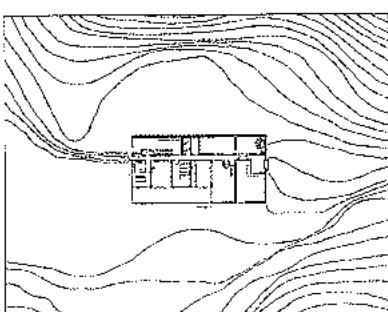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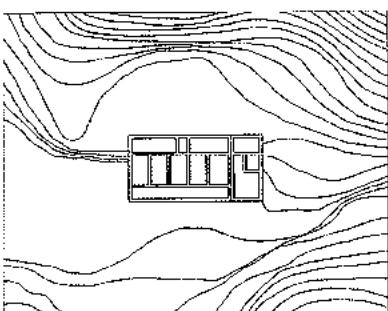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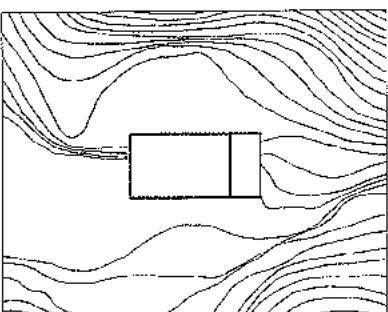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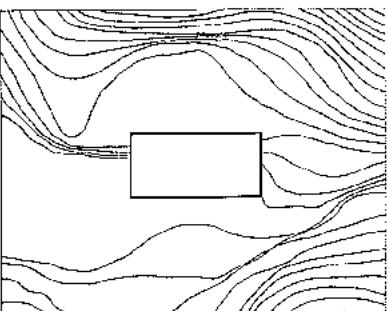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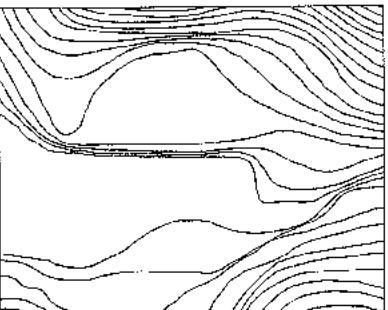
승호상 / 종합건축사사무소 이로재  
Designed by Seung Hchih-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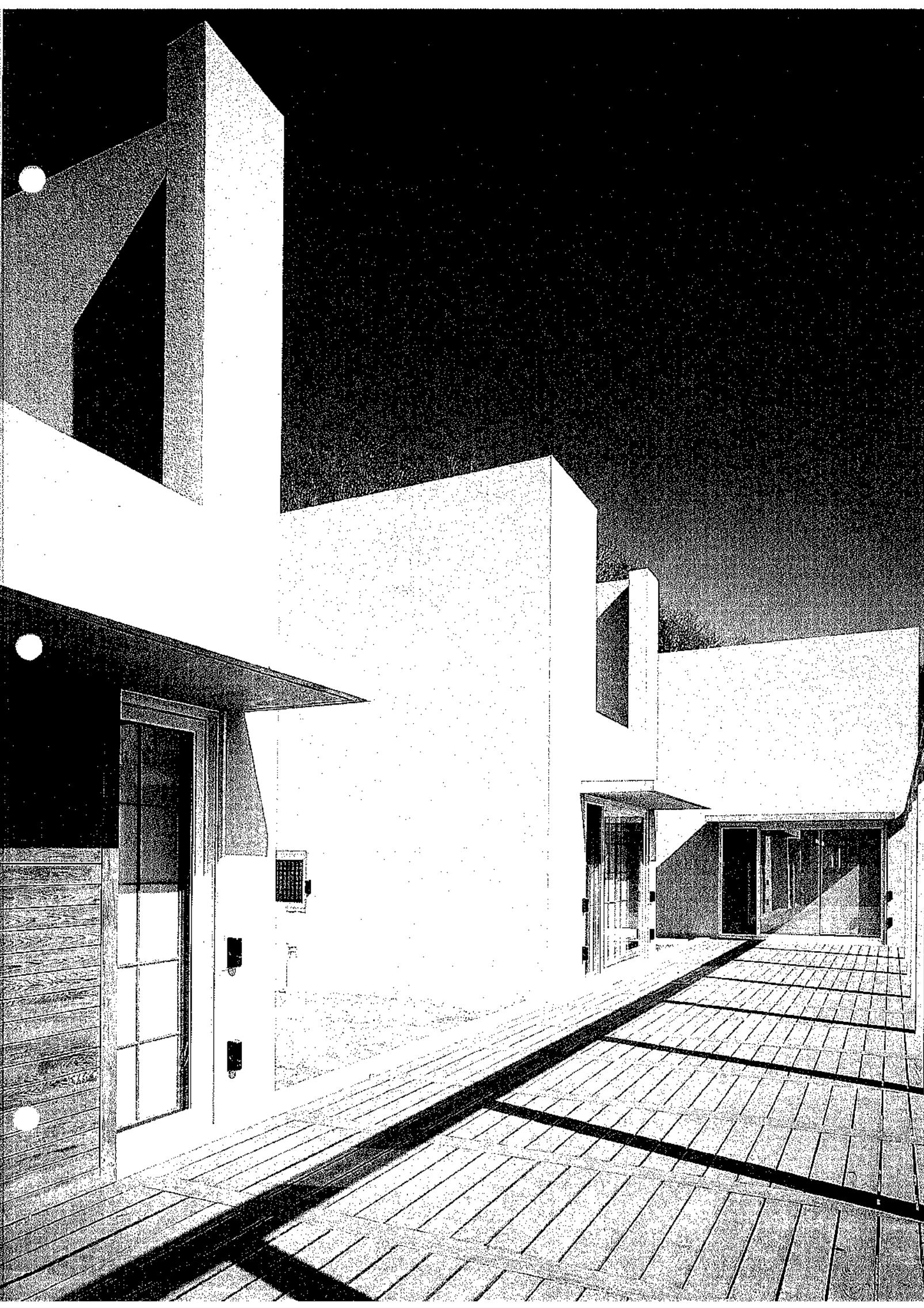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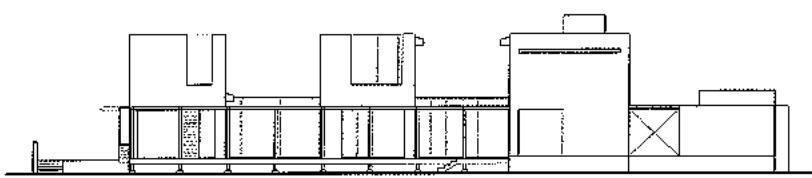
위치	경기도 가평군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주용도	주거 및 작업실
대지면적	1,162.0m <sup>2</sup>
건축면적	165.5m <sup>2</sup>
연면적	199.2m <sup>2</sup>
건폐율	14.2%
용적률	15.3%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6.6m
외부마감	드라이버트
내부마감	비단-비닐계슈트, 장판지 벽-아크릴계 페인트, 한지 천정-아크릴계 페인트, 한지
구조설계	ALT구조
기계설비	세종M.E.C.
전기설비	명진전기
시공	삼협종합건설(주)(김연홍)
설계기간	1997. 10. ~ 1998. 3.
공사기간	1998. 4. ~ 1998. 12.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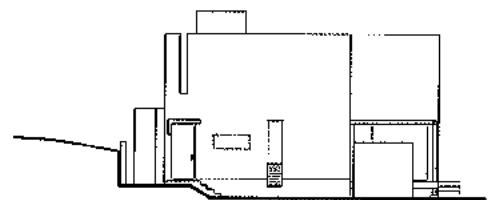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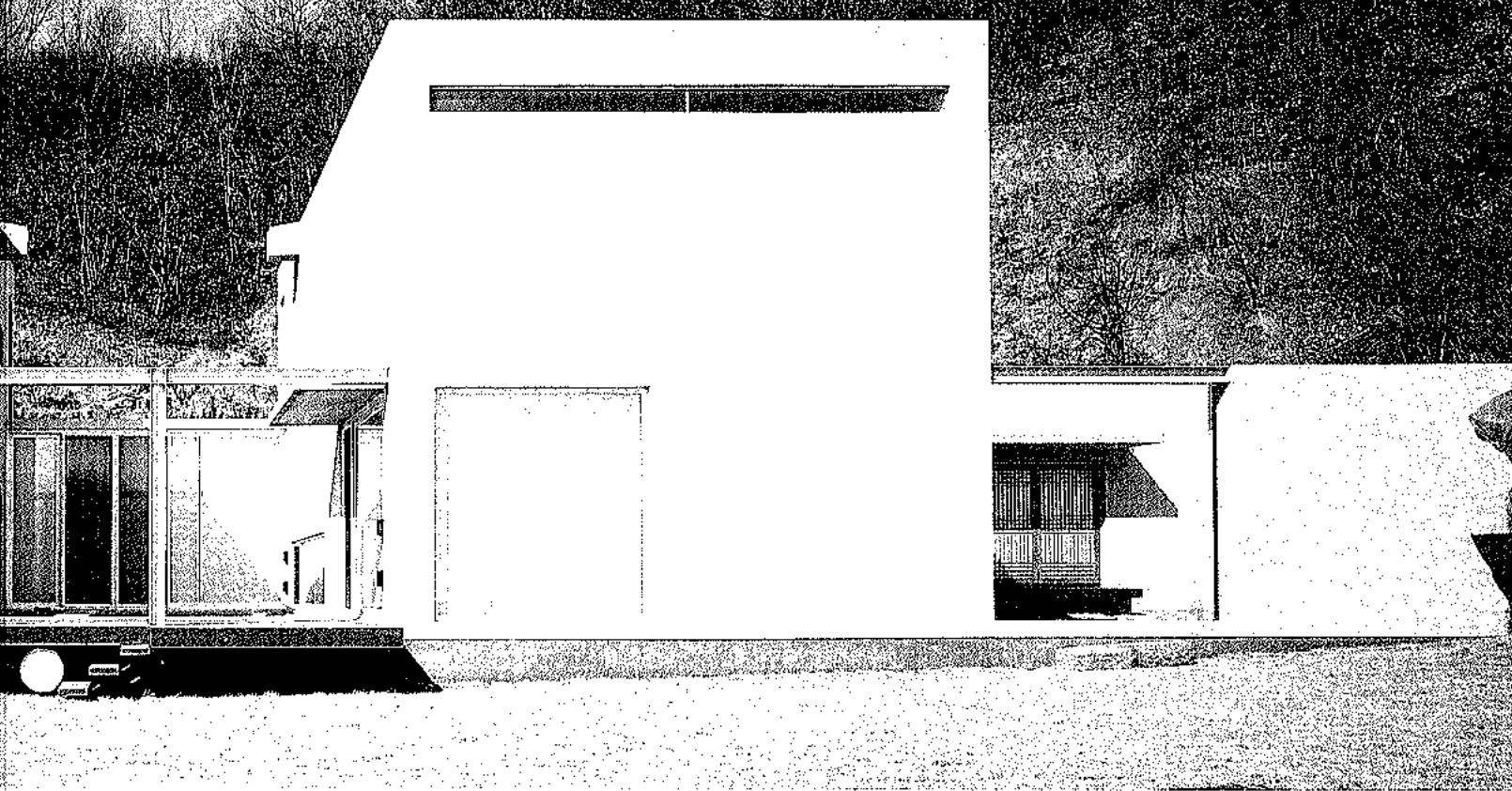


남쪽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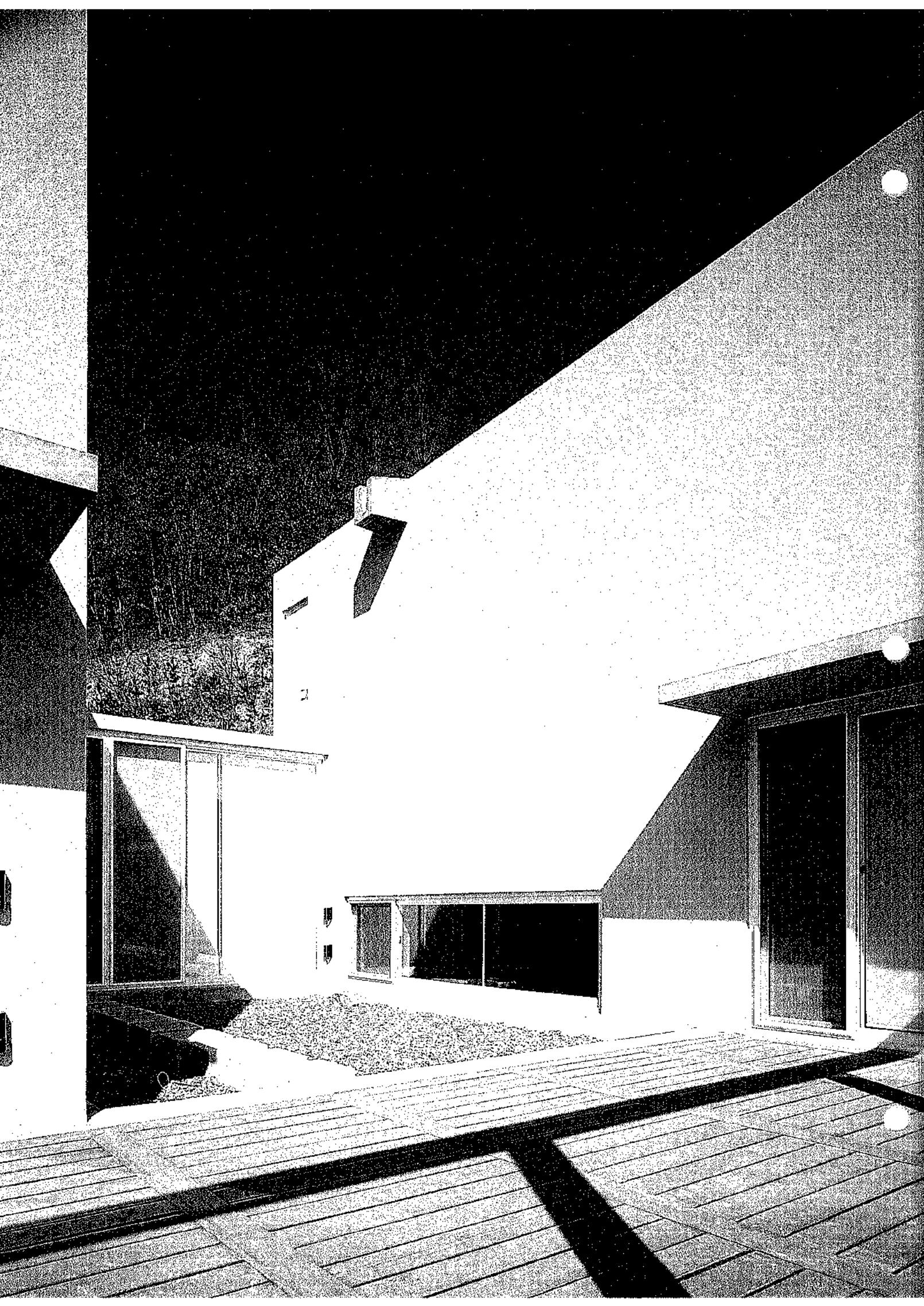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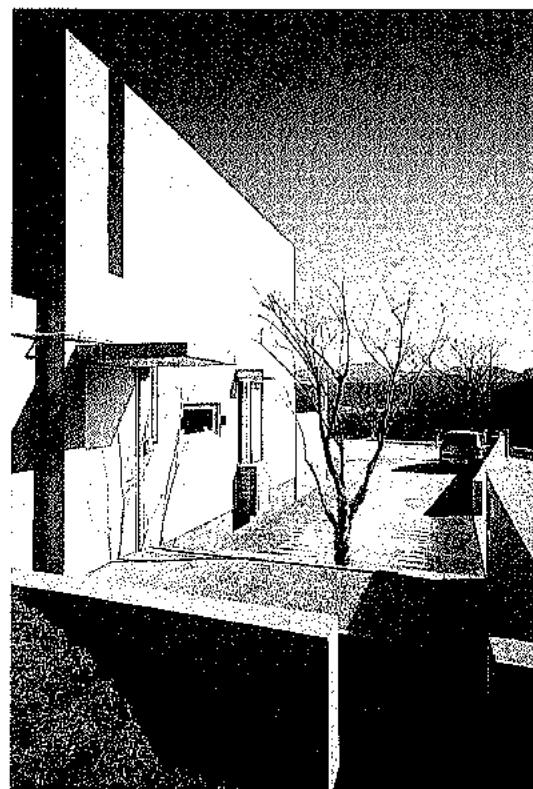


서축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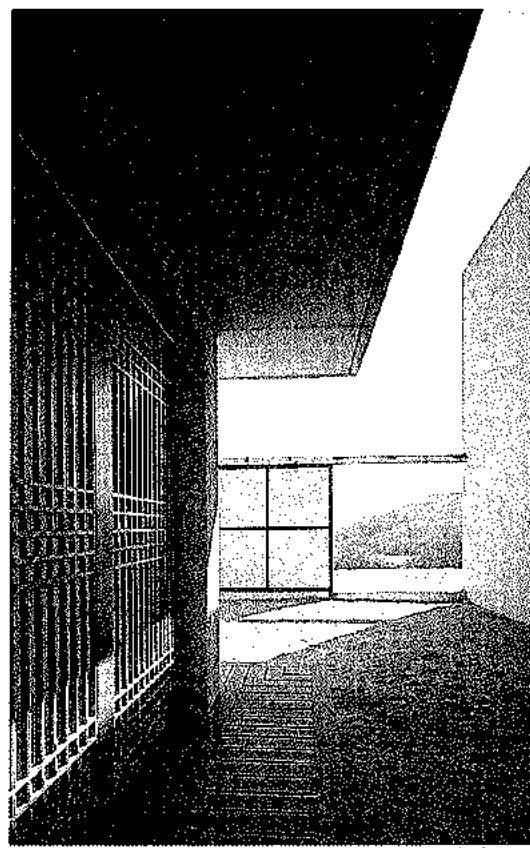


남쪽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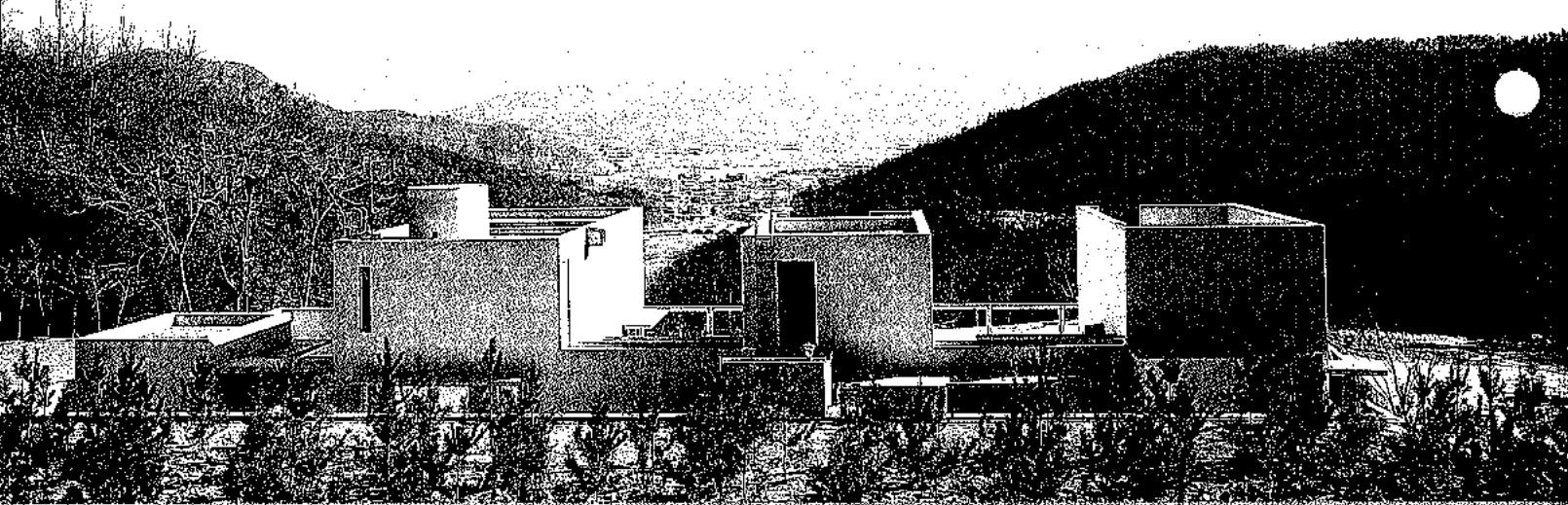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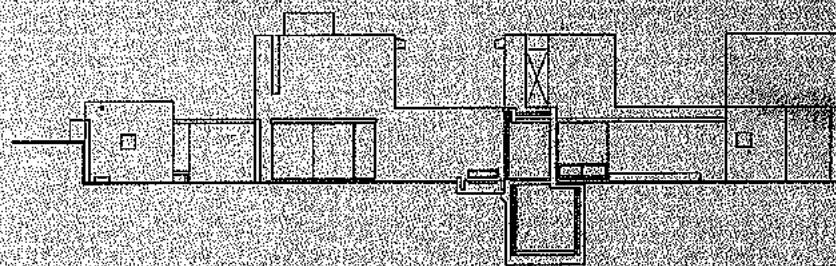
북동측에서 식당을 바라봄



루방에서 흥미탕을 통해 전면을 바라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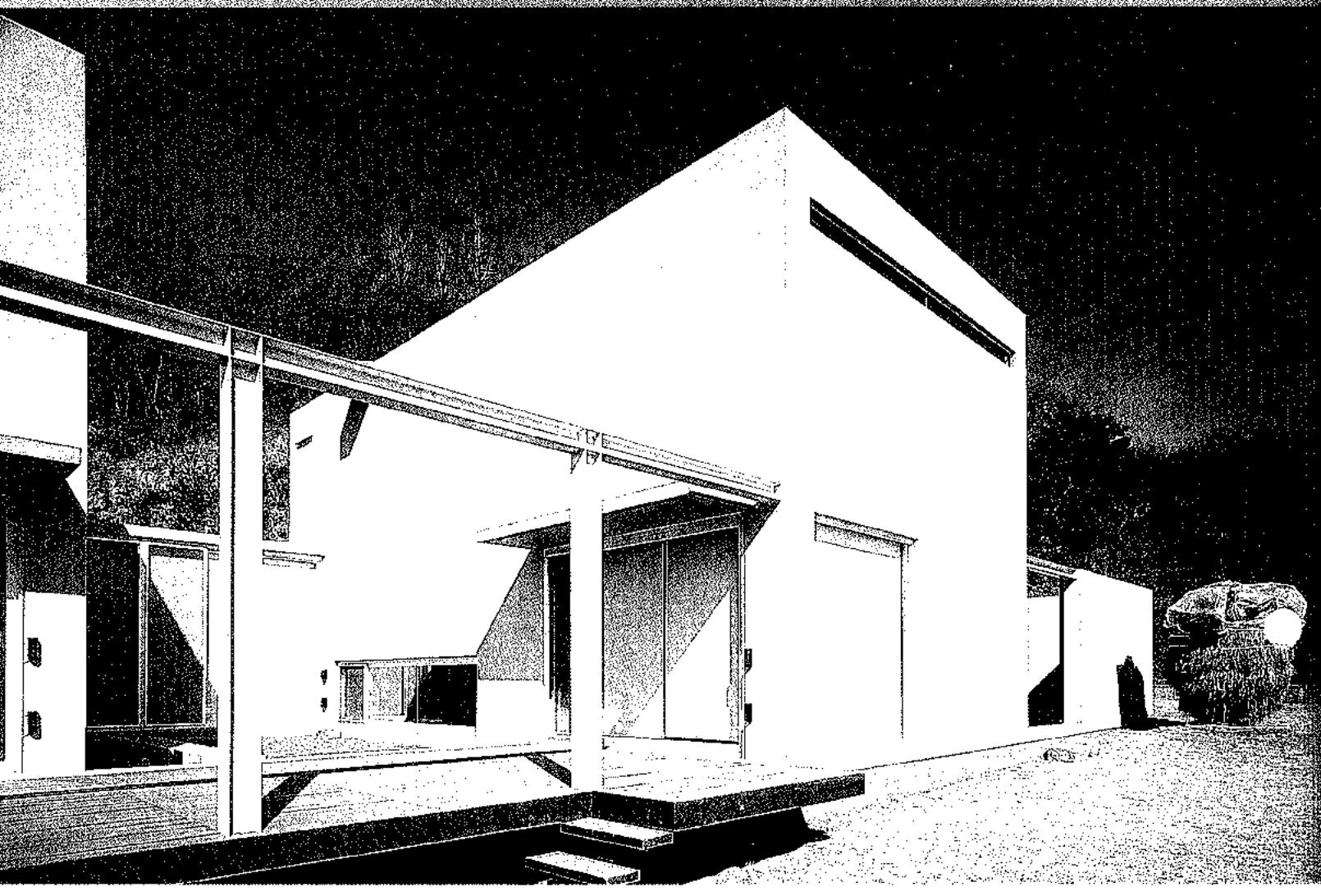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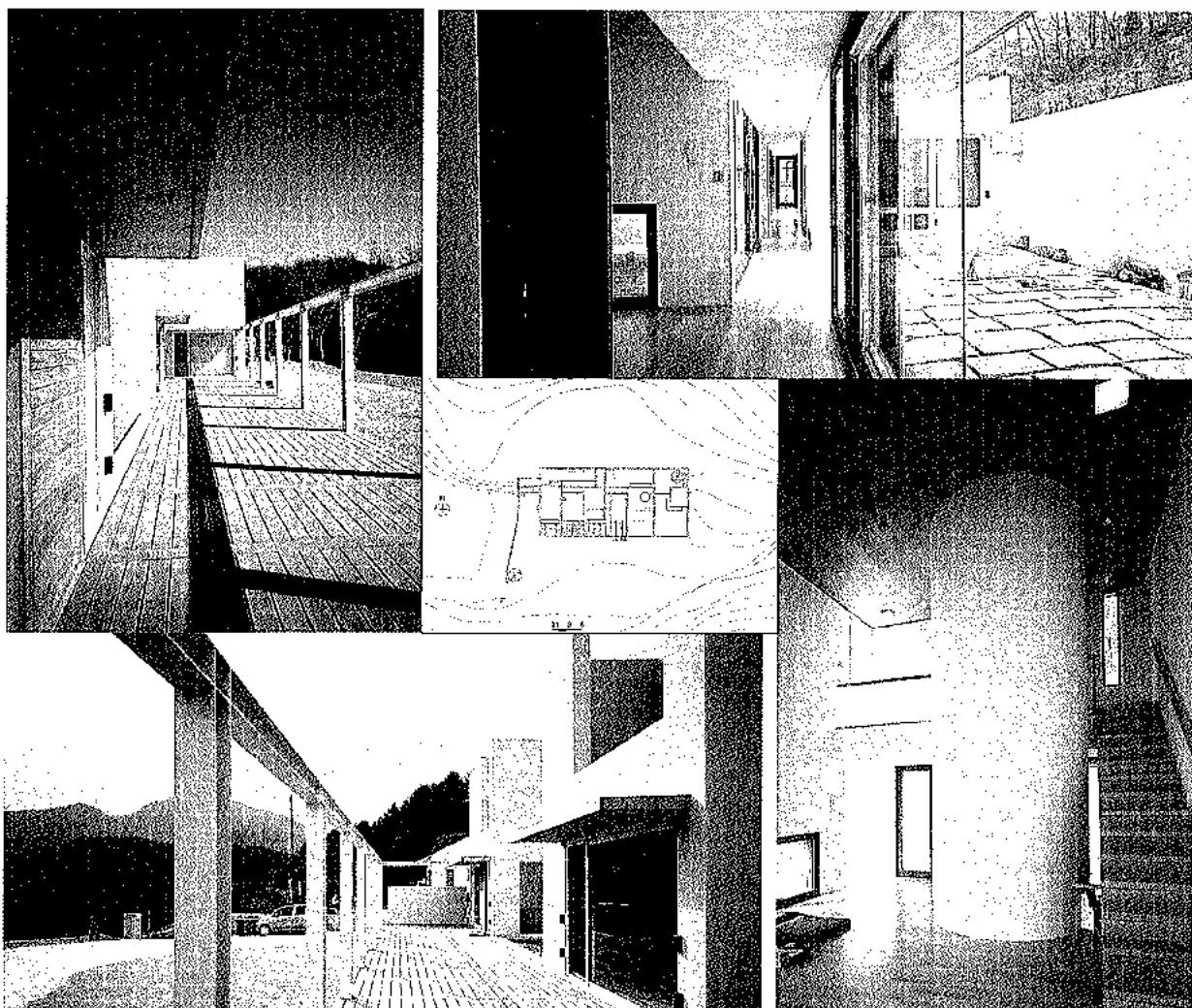
마을 테라스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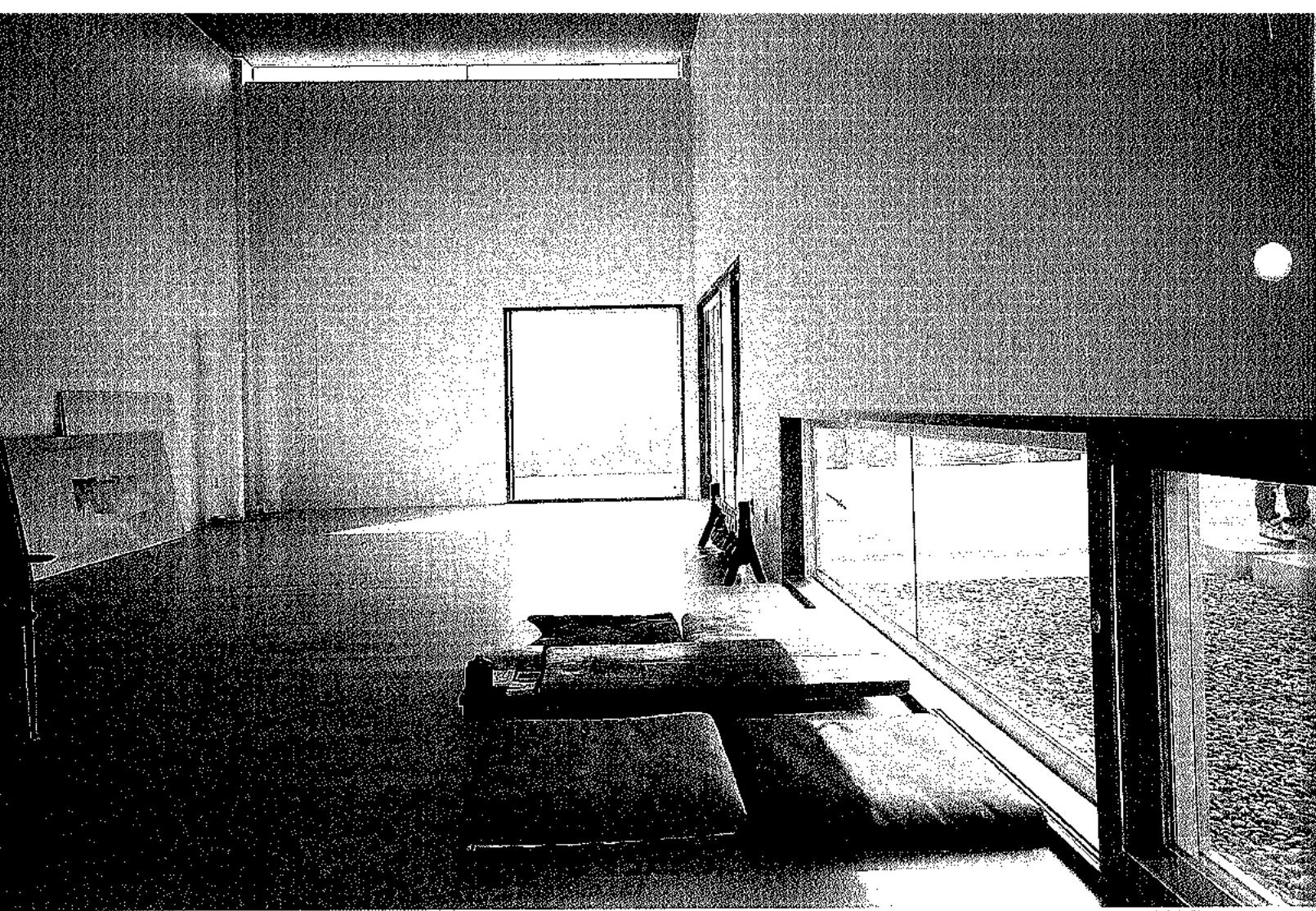


마을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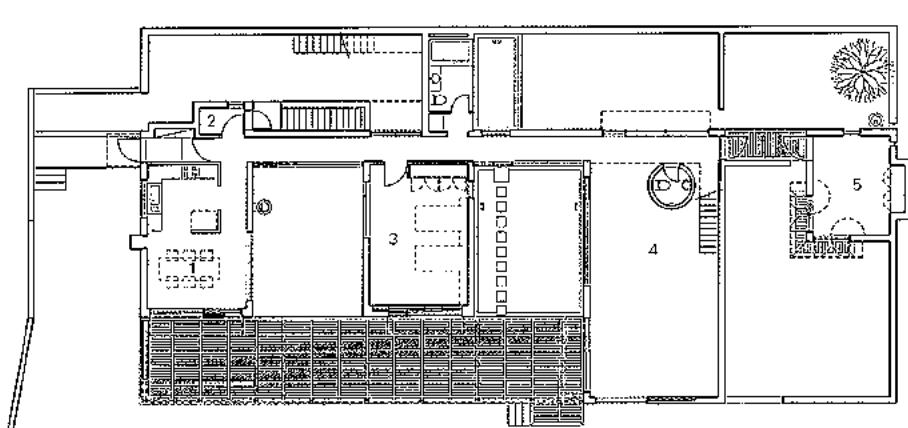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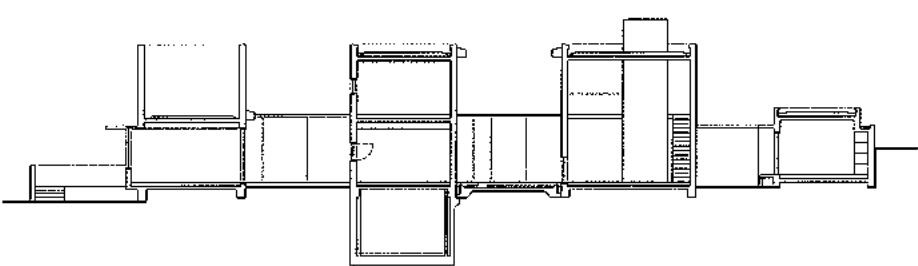
남쪽에서 본 수 공간이 있는 계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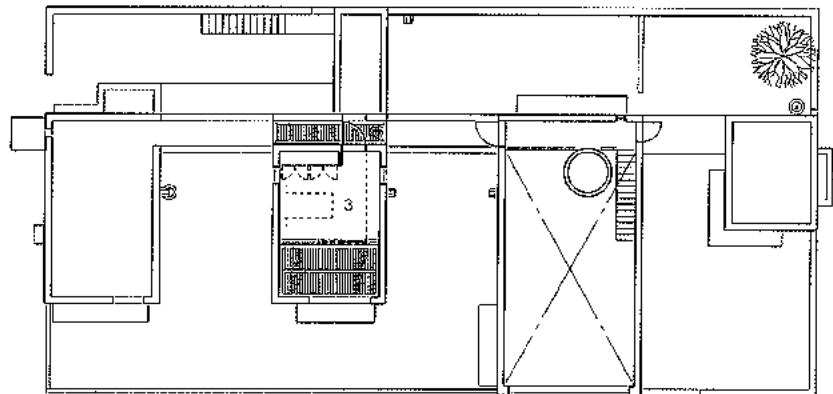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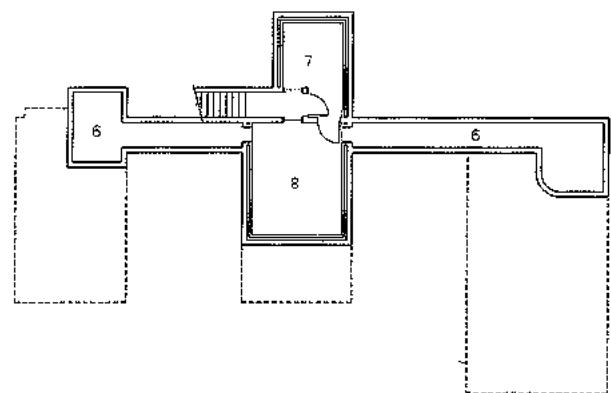
작업실 내부



**Location** Kapyung-kun, Kyunggi Province  
**Area Classification** Semi Agricultural Area  
**Function** Housing and Workshop  
**Site Area** 1,162.0 m<sup>2</sup>  
**Building Area** 185.5 m<sup>2</sup>  
**Total Floor Area** 199.2 m<sup>2</sup>  
**Building Coverage Ratio** 14.2%  
**Gross Floor Ratio** 15.3%  
**Stories** 2 Stories, 1 Basement Floor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Maximum Height** 6.6m  
**Exterior Finishing** Drivit  
**Interior Finishing** Floor-Vinyl Sheets, Oiled Floor Paper  
 Wall-Acrylic Paint, Traditional Wallpaper  
 Ceiling-Acrylic Paint, Traditional Wallpaper  
**Structural Design** ALT Engineers  
**Mechanical Installations** Sejong M. E.C.  
**Electrical Installations** Myungjin Electricity  
**Construction** Samhyub Construction, Ltd  
**Design Period** Oct 1997-Mar 1998  
**Construction Period** Apr 1998-Dec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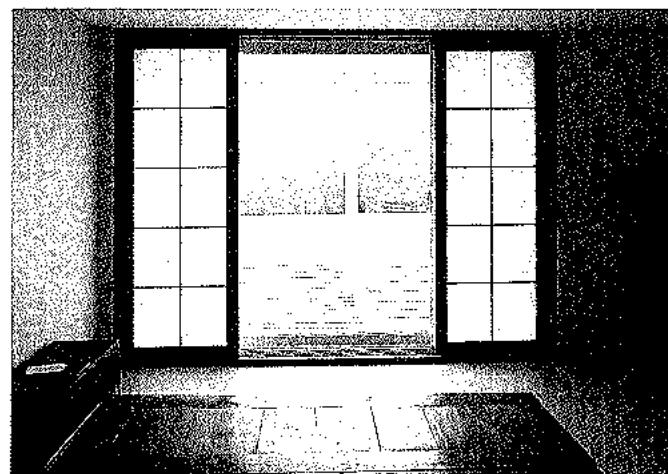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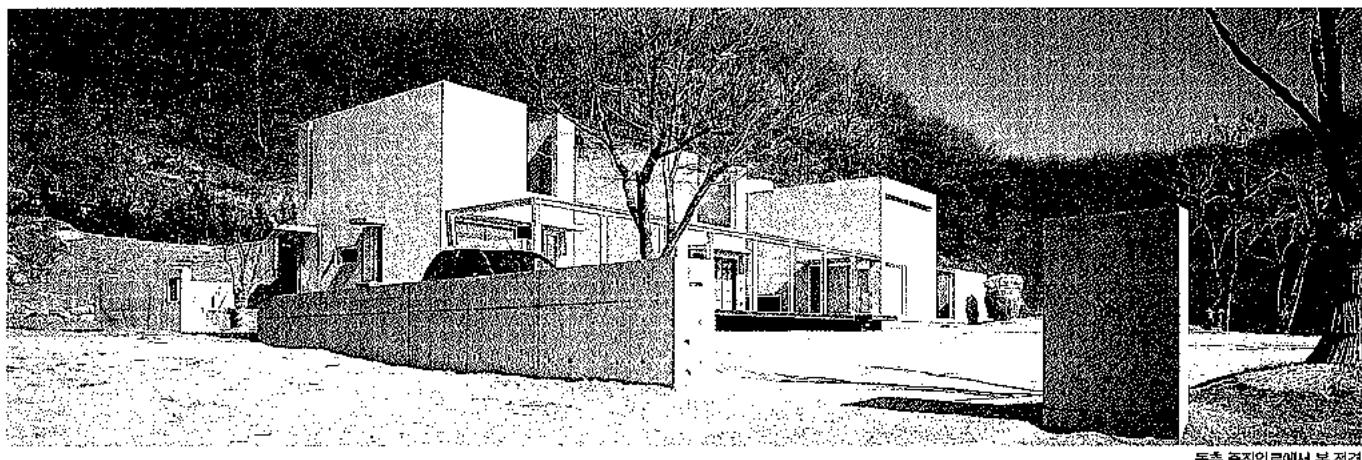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식당에서 테라스를 바라봄



침실에서 테라스를 바라봄



동쪽 주진입로에서 본 전경

빈 것과 채워짐의 의미  
The Meaning of 'Content' and 'Contenu'

건축사 / 승효상(이로재건축)

대담자 / 정인하(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Jung In-Ha & Seung Ichioh-Sang

일시 / 99. 1. 13.(수) 15:30

장소 / 이로재건축



대담광경(왼쪽: 승효상, 오른쪽: 정인하)

—— 이 글은 승효상소장이 영국북런던대학(건축실내디자인 학부) \_\_\_\_\_  
의 객원교수로 체류중인 관계로 잠시 귀국해 대담한 내용입니다. ——

정인하 \_\_\_\_\_ 지난번에 집을 들리셨는데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구경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들이 생겨서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승효상의 주거개념은 수출당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집에 대한 자료를 스크랩해서 모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발표하면서 기존의 개념과는 다른 변화랄까, 새롭게 시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효상 \_\_\_\_\_ 이 집은 수출당하고 주인도 다르지만 놓인 위치도 다릅니다. 수출당이 도시주택을 생각하고 만들었다면, 이 집은 시골주택을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이 집은 주말주택이나 전원주택과 같은 낭만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닌, 즉 세컨드 하우스의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그런 의미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고 생각했고, 집주인이 공직생활을 오래하다 은퇴를 하고 여유가 생겨서 거거하는 집이니까, 집도 그런 분위기가 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관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수출당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시지각적인 퍼스펙티브가 있는 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사람이 건축공간을 산책하기 위해, 한사람의 관찰자나 사는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 움직임의 루트를 생각하며 설계한 집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출당은 하나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은 여러 개의 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옛날 우리집을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다시 얘기하면 투시도가 서양사람들이 사물을 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만 우리나라 건축공간의 경우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한 부분에서 집을 소요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을 가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의 완성된 공간을 갖는 집이 옛날집의 속성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하고

고려했습니다. 이 두가지 관점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정인하 \_\_\_\_\_ 이 질문은 저 자신을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이 글을 읽는 독자를 위한 질문인데요, 집을 지을 때 건축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시 반영될 만한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있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승효상 \_\_\_\_\_ 건축주가 은퇴한 공직자이고, 부인은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 거실이 따로 필요한게 아니라 작업실이 있는 60평정도의 집을 요구했습니다.

정인하 \_\_\_\_\_ 여기서 60평이라고 한 것은 법적 개념이죠? 이동수 부소장과 얘기했는데, 60평이 허가가 필요없고 다만 신고만으로 가능한 면적이라고 하던데요.

승효상 \_\_\_\_\_ 그 개념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외의 나머지는 건축주가 저에게 모두 일임했습니다. 요즘 건축주들은 설계를 맡기기에 앞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인하 \_\_\_\_\_ 일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축주와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분은 저를 모르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알았는데, 집주인은 상당한 문화적 소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승효상 \_\_\_\_\_ 건축주 두분 다 전통 기행도 많이 하고, 안목도 높고, 가지고 있는 수집품도 비싸서라기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취미도 격조가 높습니다. 굉장히 풍격이 있는 분들이죠.

정인하 \_\_\_\_\_ 그래서 그런 농담을 했습니

다. 주변에 지어진 전원주택들이 승소장님의 작품에 비하면 창고같아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많이 쌓일 것 같다고요. 실무자들과 이야기를 나눠 본 결과, 초기 컨셉에서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이 일관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승효상 두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지 뒤쪽에 있는 땅을 짍 짓는 도중에 사, 초기의 대지 여건하고 조금 틀려졌습니다.

정인하 그게 디자인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승효상 뒤에도 집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으면서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이 집으로 인해 뒷집의 시선에 방해가 안되게끔 일층으로 했습니다. 그런 변화에 2층에 아들 방이 하나 더 있으면 한다고 도중에 건축주가 요구했습니다. 그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개념은 일층건물로 해서 땅에 완전히 밀착되게 짓는 것인데, 이층이 되어서 집이 솟아 났거든요. 애초에 세운 개념과 틀려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공간의 재마는 더 많아진 것이 틀림없고,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건축주가 저에게 모두 일임한 상태라 이것으로 인해 집 전체의 모양이 흐트러지면 2층을 안 올릴려고 했지만, 그냥 요구를 받아드리면서 애초 집을 지표에 달라붙게 만든다는 생각은 바꾸었습니다.

정인하 대지의 조건이 좋아보입니다. 사이트를 보고 생각하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승효상 맨 처음 사이트를 봤을 때 이 집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사이트를 봐도 안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집은 생각이 났습니다. 시골에서 경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계라고 하는 것이

주위의 산세 등 지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축이 하나의 신념이 되는 틀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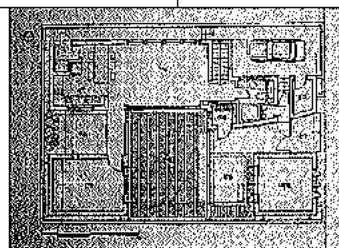
정인하 신념이라고 함은?

승효상 스스로의 한계를 가지고 땅 안으로 쭉 깨지는 제2의 대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그러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변이 다 트여지고 넓고 해서, 스스로 성격을 정했습니다.

정인하 그 부분이 약간 불만이긴 해요. 공간에 대해 애길 하자면, 이 건물을 보자마자,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떠났구나 생각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과거에 대한 향수를 갖고 있어도 우리가 현재 만들고 있는 집들은 더 이상 과거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머리에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한가지 떠올랐던 사실은, 너무 마당이란 개념이 객체처럼 대상으로만 취급된 느낌이예요. 옛집 같으면 공간은 건축과 동일자처럼 포함되어서 하나의 전체의 개념으로 온전하게 이해되는데 여기서는 너무 계획되는 대상으로만 파악되는데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효상 그것은 마당이라기 보다는 방이 12개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5개의 내부 방과 7개의 외부 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것을 마당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골집에서의 마당의 개념과 도시집에서 마당개념은 다릅니다. 도시집은 그것이 유효하고 필요한데, 시골의 마당이란 도시주택처럼 마당이 그렇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주위 자연이 있으니까 모두 방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정인하 그런 맥락으로 들으니 이해는하는데, 마당이란 존재 자체가 옛날 한옥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데 여기서는 표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존재와 표상이 갈리지고 더 이상 일치할 수 없는 간극이 보이니까 제가 처음 옛날로 돌아갈



수출당 1층 평면도



성복동 K씨 주택 스케치

수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이 시대에서 마당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표상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점은 아까 말씀하신 방의 개념하고는 다른가요?

승효상\_\_\_\_\_ 약간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독락당을 가보면 시골집의 전형적인 마당이 발견됩니다.

정인하\_\_\_\_\_ 저하고 생각이 다른게, 마당이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제2의 대지하고, 외부공간을 마치 방처럼 생각하고 설계했다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어떤 한국 전통적인 공간의 개념을 계속해서 승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생각하신 문화적 개념인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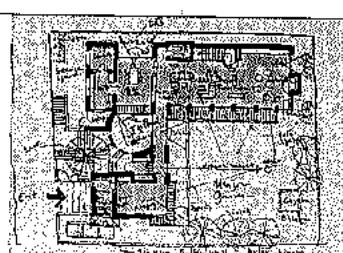
승효상\_\_\_\_\_ 전통의 개념은 아닙니다. 항상 전통적인 개념을 승화시킨다고 생각해서 저의 건축에 그런 소명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작은 땅을 가진 도시주택이 아닌 매우 넓은 땅이 있으므로 우선 땅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까지 건축화가 되어야 하는지부터 출발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건물의 대지를 보면 뒤에 산이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평평한 데도 있고 산도 있고 밑에 내려가면 밭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굳이 전통적인 개념의 마당을 안 만들어도 자연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오소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땅을 정리하고 그 안에서 공간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문제였습니다. 이 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면 새로운 것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있겠습니까만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새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설계할 때, 15m x 30m 프레임을 짜고 거기에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문방이 하나 있잖아요. 약간 생활과 떨어져 있는 그런 정신적인 공간을 나누고, 거기에 여러 개의, 요즘 서양에서 말하는 개념하곤 조금 틀리지만, 인테리어 랜드스케이프처럼 여러 개의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스페이스를 꾸린 다음

에 거기에 하나의 루트로 연결시킨 것이 이 건물입니다. 어떤 것은 내부공간이 되고 어떤 것은 외부공간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이 외부공간과 서로 만나서 작용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정인하\_\_\_\_\_ 제가 좀 약간 의아스러웠던 것은 테라스(마루마당)입니다. 그게 스스로 한계를 설정한 틀의 경계이죠. 그 경계 밑에 있는 잔디나 정원하고 뚜렷하게 구별되도록 한 것은 설계의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찌보면 설계 개념상으로는 명료한 경계를 결정하는데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인간의 활동을 고려하면 이 경계가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 단의 높이 차도 70~80 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을 둔다는 게 너무 개념적인 접근이 아니었습니까?

승효상\_\_\_\_\_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계 바깥의 나머지 땅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 나머지 땅은(누가 집을 짓는다, 땅을 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에 의해서 눈도 오고 빛깔도 변하고 해서 틀 내부와는 다른 세계입니다. 독락당은 은퇴한 사람들이 사는 은자의 집입니다. 이 집을 설계하면서 독락당을 염두에 두고 설계한 것은 아니고,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다 보니 독락당이 생각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이미지에서 독락당의 마당들도 다른 마당하고 굉장히 다른 형식의 마당입니다. 내부화된 마당 같은게 많습니다. 가다보면 계정은 자연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소위 주고 받는 관계, 이런 관계와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독락당에 관한 글도 읽어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인하\_\_\_\_\_ 한국건축에서 자연과 건축이 만나는 것을 보면 예매모호하게 상호 관입되는 모습도 보이는 데, 여기서는 너무 명료하게 분리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떤 전통적인 감성이나 느낌에 의한 공간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상당히 개념에 의한 추상화된 공간접근인 것 같습니다. 이 점도 자연환경이 펼쳐져 있고, 건물이 그 펼쳐진 자연 속으로 삽입되는데, 과연 승소장님의 방법이 바람직한 태도인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효상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개념적인 집이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가 자연스럽게 융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집의 성격상 주인의 성격이나 이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생각을 볼 때 그런 한계를 갖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인하 내부공간을 구성하는게 사람의 움직임이라든지 움직임에 의해 체험되는 시지각적인 장면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연결하는 연결공간이 너무 단순하게 일자로 쭉 가니까 묘미나 재미가 반감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승효상 주택은 관람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거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선에서 다른 동선으로 가는 스페이스의 흐름을 주려는 식으로 이 집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 가서 머물면서 생활을 합니다. 공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중요하게 고려한 집이라 루트를 따라가면서 공간을 즐기리라는 생각은 일체 없었습니다.

정인하 그런데 2층까지 올라가는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고르비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축적 산책로의 이미지를 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집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이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다.

승효상 아무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각 통로에서 루트에서 쳐다보는 경치도 공간마다 다 르고 그랬는데, 그 흐름에서 보는 공간이 중요한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내부 공간 안에 집주인이 있을 때 안공간과 바깥공간, 또 집주인이 바깥공간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바깥공간과 안공간 그리고 이 둘이 만들어내는 공간의 변화가 중요했지. 그 움직임의 루트에 의한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장인하 평소에 설계하실 때도 그랬습니까?

승효상 이번에만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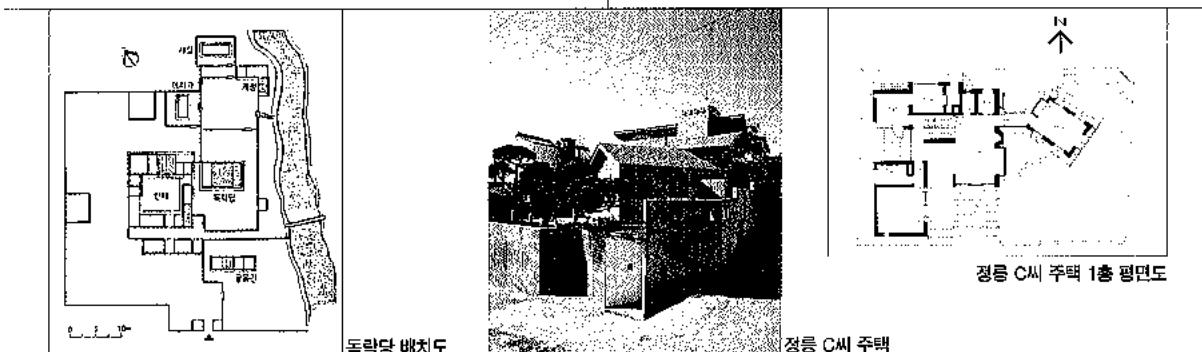
정인하 다른 어느 작품에는 움직임에 대한 고려가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승효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정인하 <빈자의 미학>이라는 책을 보면 건축이 도시에 대해 닫혀있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주택작품을 보면 외외로 닫혀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계도 그렇고 제 생각엔 폐쇄적이라는 느낌도 듭니다. 여기서 열려짐하고 주택에서의 경계 또는 닫혀진 것하고는 다른 개념입니까?

승효상 그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출당도 보면 닫혀진 집이라 보지 않고, 기본적으로 담이 없으니까 담으로 주변환경을 막겠다는 의지가 없으니까 오히려 골목길 기운대로 끌어들여서 지지만 강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집에서는 우선 주변환경, 자연환경의 크기라는게 있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이 어떠한 공간의 범위내에서 손을 대어야 할지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우선과제였고, 자연과의 연결은 어떤 식으로든 예를 들면 모양이나 이론상으로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은 건축이고 나머지는 내가 관여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 자연이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경계에 관한 문제였지 다른 어떤 자연친화적으로 어떻게 하자 그런 뜻은 없었습니다. 빈자의 미학에서 이야기하는 오픈개념과 이 개념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인하 승소장님의 작품과 김수근선생과의 작품을 자연스럽게 비교하게 됩니다. 김수근선생에 대해 연구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공간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 차



이가 나는 점은 안과 밖의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이라는 것이 안과 밖의 경계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경계를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느냐, 밖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고, 안을 어느 정도까지 설정하고, 또 이것이 안되면 안과 밖의 투명한 관계, 중간적, 매개적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것이 건축공간을 다루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적어도 김수근 선생의 주택작품을 볼 때는 안쪽으로 내부공간을 많이 수용하는 편이고 그것이 수용하고 나서 안과 밖에 대한 투명성을 가지고 소통하도록 하는 디자인 전략을 갖는데 비해, 승소장님의 경우는 안쪽에 수용하는 기능들이 최소한의 의미만 가지고(이번 작품에서 특히 잘 나타나지만) 나머지는 밖의 공간에서 처리해서 소통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효상 대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설계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의 새로운 체취도 담기고 변화되어서 그 사람 방식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서 특히 주택의 경우에선 프레임만을 제시합니다. 그렇게도 바꾸어 봐야 쉽사리 바꾸지 못할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을테니까요. 우선 그런 생각 때문에 먼저 보이드(Void)한 부분부터 계획을 해놓고 나머지를 계획합니다. 보이드 부분에 대해선 나도 잘 모르고 손대선 안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 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에서도 많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인하 그것은 일종의 네가티비즘하고 상통되는 것입니까? 음(陰) 중심주의랄까요?

승효상 내가 아는 한 부분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인하 건축에서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그 사이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먼저 결정하고, 거기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행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의해 규정이 되고 영향을 받고, 그 성격이 거기서부터 규정되는 그런 것 말입니다. 대부분 건축에서 존재하는 것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행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공간이나 비어있는 것에 대해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승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으로 생각하니까 이 건물의 본질 자체가 잘 파악되는 것 같습니다.

2층 아들방이 프로그램상에 늘어난 부분이라 했는데 접근이나 위치가 모호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또 불편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를 고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한 것입니까?

승효상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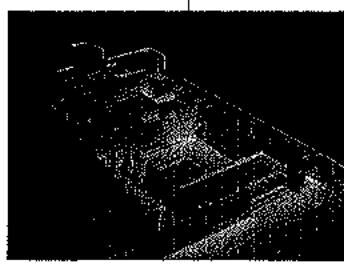
정인하 앞으로도 주인이 고치지 않고 작업실을 지나 외부로 난 통로를 통해 다닐까요?

승효상 주인은 불편한 것도 좋아합니다. 불편한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방도 밖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것을 이해하고 있고, 동선이 긴 것도 이해합니다. 단 한가지 보안때문에 바로 실내에서 방으로 들어가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래서 충분히 불편을 즐기신 다음 도저히 웃견딜 때 그때 고치자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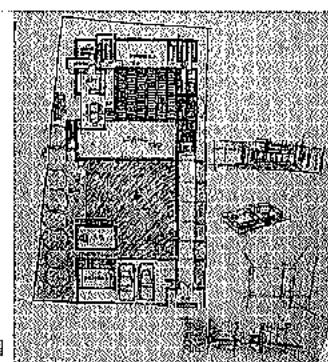
정인하 사랑방, 문방이라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김수근선생과 비교되는데, 김수근 선생은 문방이란 공간 자체가 즉흥적이고 이벤트가 일어나는, 에너지가 충만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대담도 하고 창조적인 에너지가 넘쳐나는 솟아나는 곳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선 문방의 공간이 가장 후미진 곳에 위치합니다. 이 점이 김수근선생과 승소장님의 차이라고 생각되



정릉 C씨 주택



분당 단독주택 모형



분당 단독주택 평면 스케치

는데, 상당히 은둔적이고 적막한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데, 이는 공간시각에서 나온 문방의 개념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승호상** 문방은 사유를 위한 공간입니다. 교류를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사유를 즐길 수도 있겠지만 미당자체도 흙으로만 있었으면 싶었고, 문방 앞에 벽으로 둘러쌓인 부분도 지금은 개구부가 있는데 원래 설계에서는 다 막았습니다. 벽만 보기금 했는데, 건축주가 조심스럽게 요구해서 낮추게 되었습니다.

**정인하** 그게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개구부가 생겨서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왕래가 가능한 턱높이가 되다 보니까요. 문방이란 것의 성격이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승호상**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문이니까 얹지로 출입을 하자면 하겠지만 그 집을 잘 모르는 사람은 못 들어올 것입니다. 문도 단다고 하니까. 그건 출입을 위한 문이 아니고 개구부를 뚫어서 안에서 밖을 바라보는 풍경을 만드는 프레임입니다. 워낙 완전히 막혀져 있는 벽을 쳐다보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공간이었으니까. 문방이라고는 하지만 옛날 집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 자신도 손님을 즐겨하는 분이고, 또 그 방은 손님들이 오면 게스트 룸으로 사용하게 될텐데… 손님들이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정신을 잘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정인하** 건축가가 이 공간을 만들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느낌을 줍니다.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 언급이 될 것이고 이게 건축사적으로 의미를 가질 것이라 생각하셨는지 고의로 골탕을 먹인다고 할까 쉽게 이해가 안 갑니다. 다른 건 명료하게 떨어집니다. 공간이라든지 매스를 블어있고 길의 체계라든가 중간에 연결하는 복도라든지 논리적으로 명료한데, 그 부분은 건물하고 미당하고 뒤쪽에 있는 나

무가 있는 마당이 애매모호하게 처리된 것 같습니다.

**승호상** 그것은 아니고, 15m x 30m의 프레임을 두고 한 것으로 이것은 생활하는 하위 개념의 공간 또는 상위의 공간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체계는 가지지만 다른 어떤 취향이 있고, 이 생활을 즐겼지만은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결코 골탕을 먹이거나 건축사적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인하** 모형이나 사진이 없어 정확하게 생각나진 않지만 뒷문하고 통하는 문과 문방앞에 있는 마당하고 뒤쪽의 문이 애매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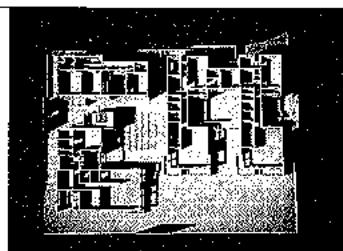
**승호상** 우선 문방 앞의 창호지 코너에 있는 문은 완전히 접어서 들어가지고 비깥의 흙 마당하고 같은 공간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으로 계획했고, 뒤에 있는 또 하나님의 스페이스는 완전히 이쪽과 성격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정인하** 그것은 바라보는 공간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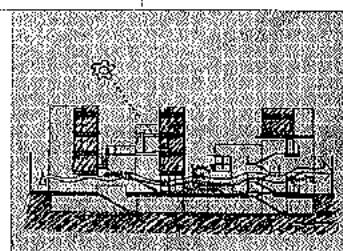
**승호상** 그것은 문방이라는 내부공간을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전실, 전실의 개념이 담긴 공간입니다.

**정인하** 전실치곤 너무 무겁지 않나요.

**승호상** 일단 문방으로 들어오면 그 공간을 실내에선 알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면 또 하나님의 전실이 있고, 다시 그 위에 매개 역할을 하고 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문방으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문방 공간이 독립적이면서도 열면은 그 앞의 흙마당과 함께 다른 공간을 만들고, 이런 구분이 공간의 변이적 성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쳐다볼 수 있게는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방안에서 뒤쪽으로 창을 하나 뚫은 것은 또 하나님의 스페이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분당 연립주택



분당 연립주택 스케치



놀원 별당

정인하\_\_\_\_\_ 아까 다양한 퍼스펙티브의 시점을 말하셨는데, 그게 창의 위치와 관계가 있습니까?

승효상\_\_\_\_\_ 창의 위치에 대해 많이 고심했습니다. 크기나 높이, 위치 등을 결정하는데… 그 공간 내부에서 볼 때, 바깥에서 볼 때와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안에서 좋을 때 바깥에서 볼 때가 좋지 않고, 또 공간을 연결시키려면 다르고해서 수시로 변경시킨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정인하\_\_\_\_\_ 작업실 같은 경우 전면에 조망을 위한 큰 창이 있고, 위에는 체광용 창이 있습니다. 옆에는 외부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발 높이 정도되는 창이 있습니다. 그 창도 높이를 결정하는데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승효상\_\_\_\_\_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옆에 물이 있는 마당이 있는데, 옆을 쳐다보기 위해 앉으면 또 다른 공간이 생깁니다. 지나갈 때는 밑에서 빛이 들어오고, 풍경으로 느껴지지만 만약에 큰창을 만들었으면 앉으나 서나 같은 공간인데 낮춤으로써 다른 느낌을 갖는 공간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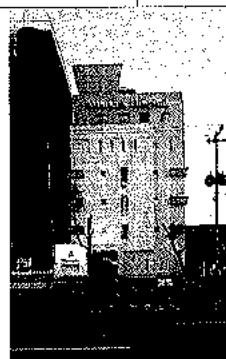
정인하\_\_\_\_\_ 그럼 좌식생활을 기본으로 했습니까?

승효상\_\_\_\_\_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위치에 패치카가 계획되었습니다. 패치카를 만들어 놓고, 패치카 불을 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닥에 앉게 만들었는데, 입구에서 들어올 때 글뚝이 시선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없애 버렸습니다.

정인하\_\_\_\_\_ 건물밖으로 솟아나온 철골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성복동 주택에서도 나온 것인데, 그것은 물론 철재는 아니지만 격자형의 프레임 같은 것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문 291



영동제일병원

승효상\_\_\_\_\_ 그게 이집에선 중요한데, 15m x 30m 의 프레임을 확실히 결정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외부 경관에 틀을 부여하는 것이면서도 내부로 끌어들이는 경관하고 외부에 있는 경관하고 다르다고 하는 걸 확연히 나타내주는 아주 유효한 도구입니다. 그럼으로써 마루가 달려있는 또 하나의 스페이스의 경계가 설정됩니다.

정인하\_\_\_\_\_ 그런 모티브가 없어도 마당, 테라스 만으로도 어느 정도 경계가 설정될 것 같은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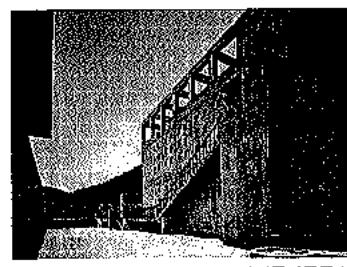
승효상\_\_\_\_\_ 그것은 평면적인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공간적으로 힘들 것입니다.

정인하\_\_\_\_\_ 제 생각에 문방 앞에 흙으로 된 마당이 음영때문에 썩 기분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앉아서 내부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볼 때는 좋은데,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고 그 곳에 음영이 져서 우리가 이야기 하는 사랑방과 같은 따듯함이 없어서 어찌보면 건축가가 이 부분에 대해 생각을 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승효상\_\_\_\_\_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완성은 안되었지만 흙이 거칠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작업실의 뒷 벽인데 창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흰 벽으로 그냥 내버려 두려고 했습니다.

정인하\_\_\_\_\_ 벽이 갖는 의미는 알겠는데, 마당에서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음영이나 그림자에 의해서 말입니다.

승효상\_\_\_\_\_ 그림자는 일단 수시로 바뀌고, 그 마당은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하면 그런 변화를 담기 위해 원초적 상태로 그냥 있었으면 합니다. 모든 현상이 수시로 변하니까 장식을 한다든가 혹은 고치는 것은 안했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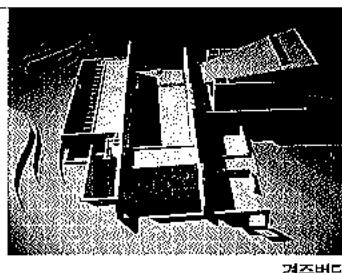
당진돌마루공소

정인하\_\_\_\_\_ 건물재료에 대해서 말하자면, 옛날 수출당에서 쓰인 재료와 동일합니다. 드라이 비트를 사용하셨는데 수출당이 도시속에 있는 주택이라면 이는 자연 속에 있는 것인데, 재료가 동일해서 그런지 도시적인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깔끔하게 시공된 측면이 더욱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건 의도된 것이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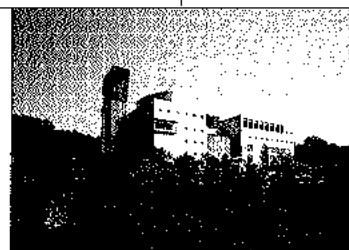
승효상\_\_\_\_\_ 우선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건축주가 경제적 사정때문에 비싼 재료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수출당도 짐작사처럼 쌈가격으로 지어달라고 해서 아주 쌈 재료를 썼습니다. 그보도 흰집이 되어야겠다는 생각, 백색의 집을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 이름도 수백당으로 정했는데 그 의미라는게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게 바탕이고 그 위에 굉장히 많은 세월이나 삶이 기록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백색이 영원불변토록 유지됐으면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더럽혀져도 되고 더구나 햇빛, 비바람에 의해서도 수시로 변할 것입니다.

정인하\_\_\_\_\_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집에서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은 조경인 것 같습니다. 조경은, 설정하신 경계 내의 것과 자연을 연결시켜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령 연못도 설치되어 있고 수공간도 있는데, 어떤 의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승효상\_\_\_\_\_ 조경이란 개념보다 인테리어 랜드스케이프란 개념입니다. 설정한 영역 속에 여러 가지 형태 요소들이 있는데 이것이 건축적 조경입니다. 결국은 인테리어 룸도 조경이라 생각해서 만들어진 것인니까요. 경계를 나누고 뒤에서 물이 담겨져서 앞으로 흘러 보내서 물이 머물러 가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각 인테리어 룸들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재질에 의해서 다른 형태의 액티비티가 일어나도록 기본적인 성격은 나누어놨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주법당



순천향대학 도서관



대학로 문화 공간

정인하\_\_\_\_\_ 한국에서 수공간을 이용한 조경개념은 대부분 실패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용자 측면에서는요?

승효상\_\_\_\_\_ 이것이 실패할 이유가 없는 것이 물을 가지고 조경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물을 잠시 담았다가 다시 흘려 보내는 것인니까 담기 싫으면 인담으면 됩니다. 겨울에는 물 못 담잖습니까? 그냥 자갈이깔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인하\_\_\_\_\_ 김중업 선생이 인도에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공간에는 물을 사용해서 디자인적 요소로 이용하여 했습니다. 지금 보면 그게 제대로 유지되는 공간이 없습니다. 한국정서에 물이라는 것이, 연못처럼 내버려둬도 계속 존재하고 유지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인위적인 흐름을 만든다는 자체는 권리가 필요하고 계절이 바뀌면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승효상\_\_\_\_\_ 물 양이 많을 때나 그렇습니다. 물 양이 10cm, 20cm 정도이니까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물의 공간이라 생각하지 않고, 마감재료로 보고 있으니까요. 물과 더불어 어떤 생활을 즐긴다는 것보다는 미간재료적인 개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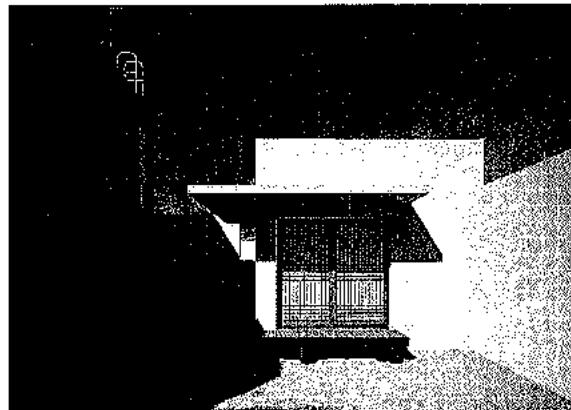
정인하\_\_\_\_\_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승효상\_\_\_\_\_ 수출당, 수백당을 가지고 책을 낼 예정입니다.

정인하\_\_\_\_\_ 그 책이 나오면 개념이 보다 명확해지겠군요. 감사합니다.

## 이상한 집에 스며든 자의식적 검박성(儉朴性) Self-conscious Frugality Immersed in a Strange House

이종건/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수  
by Lee Jong-Gun



참 이상한 집이다. 길다란 복도에 방들이 주며 니처럼 달아 불어 있다. 나 아닌 세계의 신체를 한껏 꺼안아 그 부딪힘의 감각에 전신을 온통 노출하고 싶은 듯, 덩어리들이 꼬치에 끼인 채 산등성이에 산적처럼 놓여있다. 어찌 보면 건축이라는 자아(自我)의 핵에 집착한 고집 덩어리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그래 늘 빼앗기만 하던 바로 그 자연과 마침내 화해하고 있는 몸짓인 듯하다. 그런데 달리 보면 건물이라는 그 운명의 탓으로 오로지 주어진 한계 안에서만 하우적거려야 했던 자연에 대한 그 끊어오르던 템족을, 사지(四肢)를 있는 데까지 벌려 드디어 해갈하고 있는 듯도 하다. 이상한 집이다. 주변의 요상스런(?) 집들과 비견할 때, 그리고 흔히 보고 생각해 온 우리의 집들에 견주어, 도무지 집 같지가 않다. ‘언덕 위의 하얀 덩어리’는 지붕뿐 아니라 집에 관한 상식적 기호들을 온통 소거해버려, 마치 어느 사설 미술관인 듯하다. 고고한 순백이 그렇고, 철저한 직각체계가 그렇고, 육체와 어울리지 않는 도열해 있는 철골 격자 틀이 그렇고, 기차같이 기다란 반복된 덩어리 몸짓이 그렇다.

What a strange house. Rooms, as if they were pockets, are hung along a long hallway. As if to expose the feel of impact caused by the collision when caressing the body of an outerworld, masses are laid fully exposed along the mountain ridge. In a way it seems it has emancipated from an obstinacy, the obsession of clinging on to the nucleus of architecture, and at last reconciled with nature, the plunderer. But in other ways, its destiny to struggle in the boundaries as a building and the lustrous thirst for nature seems to have been cooled off by spreading its limbs as far as possible. Strange indeed. Compared to the surrounding awkward houses and the houses we normally confront and imagine, it does not seem like a house in the least. The “white mess upon the hill” has utterly deleted not only the roof but the usual codes regarding a house. Its lofty pure white, firm perpendicular system, the steel lattice frame lined up discordantly with the whole system, and the elongated, repeated masses actually suggest some kind of a private muse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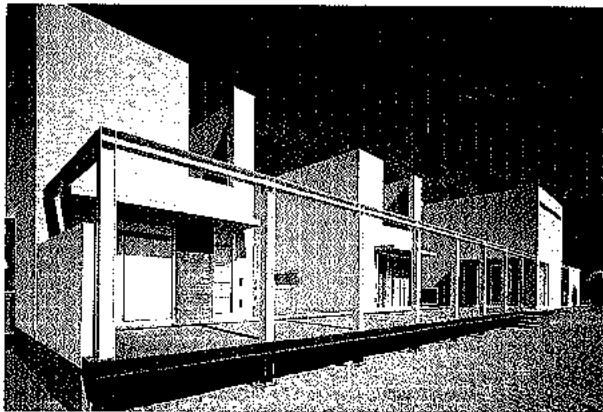
What a strange house. Yi-Rem-Si(the signifier) suddenly encounters the alien soul, Faust, embodied by Um-Jik-

참 이상한 집이다. 이름씨는 움직씨가 체현(體現)하는 이방인의 정령, 파우스트를 ‘좋지에’ 만난다. 움직씨에 따라 수평으로 터져 확장하는 우리 공간의 살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어디를 가나 깊이를 투시하는 눈으로 인해, 이름씨는 공간을 포착하고 공간을 점령하고 공간을 조작한다. 움직씨는 영혼을 삼키고 이름씨는 그 속에 자신을 소멸한다. 불같은 눈, 그것이 확장하는 깊이의 긴장, 그리고 그 깊이를 잠식해 들어가는 움직씨. 그것이 생산하는 것은 무엇인가? 파우스트의 꿈은 어디까지 가서야 멈출 것인가? 공간을 정복해 온 인간의 역사, 그 궤적의 갈피 갈피에는 감미로운 음모가 복병처럼 숨어 있다. 거주자에게 돌려 준 빈티며, 사무라이의 정적이며, 폭포의 정열이며, 음습함의 비음이며, 선과 면의 유희며, 플라톤의 매스며, 기하학의 구성이며, 선비의 고매함이며, 조선의 방문이며, 아! 수많은 이방인들의 숨소리들이 뒤섞여 육체를 회룡한다. 우리는 언제부터 공간을 깊이로 소유하기 시작했던가?

참 이상한 집이다. 단순한 덩어리 속의 예기치 못한 화려함의 복병은 육신을 떨게 하고, 빙자(賓者)라는 수식

Si(the signified). The flavor of our traditional spacing which explodes and expands horizontally by Um-Jik-Si cannot be seen. Instead, Yi-Rem-Si with eyes that can perceive depth wherever it stands, seizes space, occupies space, and manipulates space. Um-Jik-Si swallows the soul and Yi-Rem-Si dispenses itself in it. Fiery eyes, the intensity of depth it expands and that depth being invaded inch by inch by Um-Jik-Si. What makes of it? Where will it be for Faust's dream to come to an end? Among the pages of the history of men, men who have been conquering space, a sweet and seductive plot has been hidden as if an ambush. The empty lot returned to the inhabitant, the silence of a samurai, passion of the falls, the damp emptiness, the play of lines and planes, platonic mass, the geometrical composition, the loftiness of a gentlemen, the visit of Chosun, all the gasps of numerous aliens are blended, mocking our flesh. When did we start to possess space in the form of depth?

What a strange house. The unexpected ambush of fanciness inherent in a simple mass causes the body to shiver and the extravagant taste of a bourgeois concealed



어로 은폐한 부르주아의 고매한 취미가 정신을 흔미하게 한다. 사방마다 풍광이 액자에 담기고, 보이는 비움은 천란한 옷을 입고 있다. 텅 빈 벽에 실루엣처럼 붙은 계단과 수직 원통의 아름다움. 가느다란 하늘 틈새 빛과 눈 아래 잘린 바깥 세계들. 어디를 둘러보아도 빈틈을 찾을 수 없다. 졸스러움은 정녕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 바친 수고가 그 얼마나 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것들의 부족함으로 인해 겪어야 할 앞으로의 수고는 또 그 얼마나인가? 나는 지금 빈한(貧寒)함으로 위장하고 있는 호화로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편리한 듯 뽐내는 이면의 불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참 이상한 집이다. 삶을 담는 건축이 아니라 건축을 담는 삶이란, 그리고 거주할 자가 아니라 거주방식을 정해 준 자가 존재하는 집이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집이 예술의 대상이 되어버린 상황은 얼마나 이상하며, 건축가의 활동의 역사가 여전히 '자의식 강화'의 경로를 밟고 있는 것은 또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이제 나는 승효상이 아니라 승효상

under the name of poverty fogs the mind. The beautiful sceneries are enclosed and framed in every direction and the visible emptiness is draped with dazzling clothing. The stair and the vertical cylinder attached to the vacant wall, as if a silhouette, emanates beauty. The sky light peeps in from a narrow opening and the outside world is cut off below sight. Not one trace of a flaw can be found, anywhere. Truly no poorness seems to exist here. How much effort was needed to accomplish all this? But still, how much more effort will be needed because of the deficits from what has not yet been found? Here, I am talking about the splendor disguised in indigence. The inconvenience underlying in superficial comfort.

What a strange house. Life accom-modating architecture, not architecture containing life. Isn't it strange that the house exists for the one who determines the way of living, not for the inhabitant? The situation that a house has become the subject of art and the history of the architect's activities is still following the steps to 'consolidate self-consciousness' is awkward indeed. Now I meet the codes of Seung, not the person

의 기호를 만난다. 그가 만든 건축은 단번에 알 수 있다. 건축기가 양식이 아니라 기호가 된 사실, 더구나 그것을 살림집에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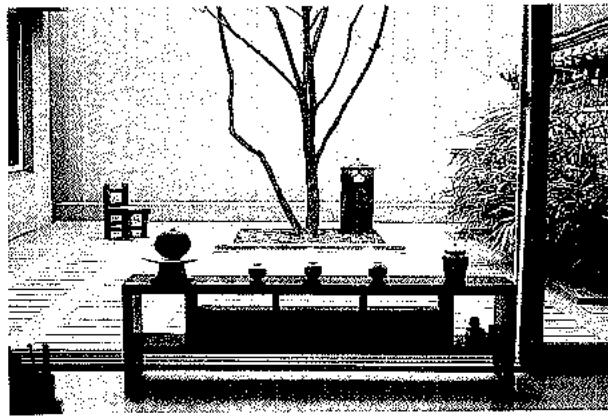
참 이상한 집이다. 자연을 한껏 품은 이 집에서, 바로 그 자연을 두께 없는 껍질로 만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사방을 자연으로 둘러친 이 집에서, 자연의 속을 보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참으로 근사한 풍광을 향해 열어 둔 이 집에서, 그 풍광의 그리움과 애절함을 느낄 수 없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얕게 보고도 깊이 느끼는 '마음의 자연', 그것이 피워 올리는 정감의 연기를 바로 이 집에서 맡을 수 없는 것은 얼마나 이상한 것인가? 열어둠으로써 오히려 닫아버리는 이 이상함, 그것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

집이란 무엇인가? 무엇보다 우선 그것은 은신(隱身)의 터일 것이다. 여기서 '신'이라 함은 우리의 몸뚱어리요, '은'이라 함은 숨기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집에서 은신하는 것은, 내충외간(內充外簡)한 예(禮)를 이루어 경(敬)을 통해 존재의 고향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집은 바로 그렇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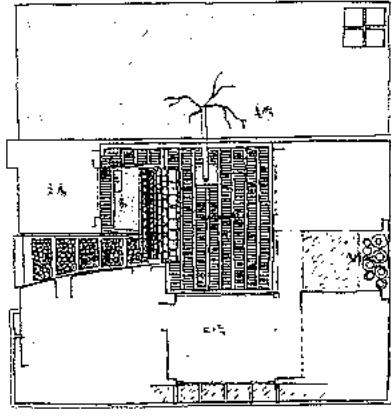
Seung. His works are surely recognizable. The fact that an architect has become a code, not a style, and especially to find that in a house is bizarre.

What a strange house. How strange that the house embracing nature meets that nature in a form of the most thinnest shell. How strange that the house surrounded by nature in all directions, cannot see through that nature. How strange that the house open to such beautiful scenery cannot feel the affection and sorrow that lies in it. How strange that the 'nature of spirits', which is felt deeply even when shallowly seen, cannot be found. The scent of affection which should arouse is missing here. This awkwardness of opening, that actually closes and shuts off. What on earth is its identity?

What is a house? Above all it would be the place of concealment. In other words, it is needed to hide our bodies. Why do we hide in these houses? To find the origin of our existence through respect and that, by accomplishing the courtesy of inner fulfillment with simplified images. Isn't that the reason why a house always reveals itself as a sophisticated yet



수줄당



수줄당 평면스케치

때문에 늘 심간(深簡)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집이 물리적인 형체를 넘어 무엇인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러한 존재의 비밀일 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은 세계를 바라보는 통로며 자연을 대하는 문턱이 아닌가? 세상살이에 지친 육신을 거두는 곳도,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곳도, 잊었던 저 너머의 세계를 떠올리는 곳도, 그리하여 마침내 삶의 진정성(真正性)을 발견하는 곳도 바로 집이 아닌가? 집은 삶과 죽음의 노정에 있지 아니한가? 그러므로 집은 늘 마음에 거(居)하지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집의 아름다움은 정신의 화롯불에서 피어나지 육감에서 비롯하지 아니한다.

이상하다. 그런데도 우리는 집안에서나 집밖에서나 늘 집이 없는 부랑아로 살아간다. 집을 짓고자 하나 재산을 짓고, 집을 가지고자 하나 허영을 가지고, 집을 만들고자 하나 이념을 만들고, 집에 거하고자 하나 자만에 거하고, 집안에 안식코자 하나 자아 안에 머문다. 왜 사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를 탐문해 가는 마음의 집이 아니라, 보고 보이며 현시하고 정복하며 주장하고 드러내는 육신의 집을 짓는다. 그리하-

fundamental presence. If a house has a meaning above its physical properties, it would be in the secrets of this kind of existence. And that is why a house is the pass way in seeing the world and the doorway towards nature. Isn't the house that very place where we harvest the tired human body that has been tortured through life all along? The place where we refill the sense of emptiness, where we reminisce the forgotten world so far away, and then finally discover the sincerity of life. Is not this what should be of a house? The house lies together with human on a road connecting life and death. This is why the house is a subject to the human mind, not the human body, and, the beauty of a house blossoms from mental imaginations, not from the sensualities of fle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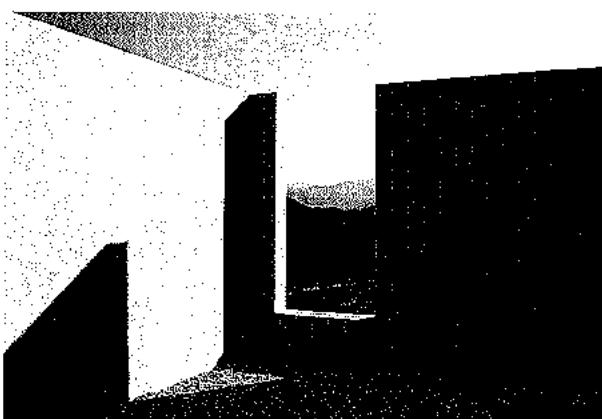
Idiosyncratic. Either inside or outside the house we always seem to be homeless. We wish for a home but seek property, we wish to build a house but make an ideology, we wish to live in a house but reside in arrogance, we wish to rest in a house but remain in ego. We should build a house of the mind that inquires why we live and how we should, but instead a

여 드디어 자아라는 또아리를 틀 단단한 껌질을 만든다. 다들 집을 짓기보다 자신을 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을 짓고도 집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집안에 살면서도 집밖을 서성이고 있다.

내가 보기에도 차라리 수줄당이 더 나은 것 같다. 설령 과도한 문 구조물이며, 연극 세트 같은 공간이며, 어중간한 복도며, 전시장 같은 거실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야(閒雅)한 긴장을 어느 정도 머금고 있다. 살다가 손 불 여지들도 좀 남아 있다. 그만큼 수줄(守拙)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의 틈바구니에서 긴 한숨과 고요함과 기다림의 순간들을, 마음만 먹으면 거머쥘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비해 수백당이 모자란다면 아마 덩어리의 크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매스를 손가락처럼 벌일 수밖에 없는 근거의 모호함에서부터 앞에 단을 두어 틀을 친 것이나 뒤에 계단을 두고 응답의 미당을 마련한 바로 그 모양새에 이르기까지 온통 작위적이며 거북함이 배어 있다. 좋지에 등장한 철골 틀이나 단순한 계단을 위해 받친 철골 등阿里도 어색하다. 옥상의 돌들이 수상하고 배수의 드라마를 위

house of the flesh that sees, shows, reveals, conquers and insists, is built. So, at last, the ego is covered with a shell harder than steel. Everyone is trying to build themselves, not a house. That's why we cannot possess the house we ourselves have built. Though we live inside the house we are wandering outside.

In my point of view Seung's before work, Sujol-dang, seems much better. Even though its defects, the excessive door structure, the artificial stage like space, the ambiguous hallways and the exhibition hall like living room, it still pertains an elegant tension and has some room for improvement. As the name Sujol says, it stands as a house with modesty. Also it has the ability to catch the moments of serenity, anticipation and sighs of the city. Maybe it's the size of the mass that makes Subae-dang somewhat inferior to its predecessor. The vague reason for spreading the masses as if they were fingers, framing the building by placing a platform in the front, the placing of the stair in the back and the way the shady court is set. They are all so artificial and uncomfortable. The suddenly appearing steel frame and the steel part supporting a simple stair



한 돌 받침들이 이곳저곳에 널려 있어 귀하지 아니하다. 도대체 어느 땅 조각 하나 투명함으로 남아 있는 곳이 없고, 안온함으로 채운 곳이 없다. 그러니 한 쪽 구석에 밀쳐둔 사랑방이 오히려 아름답게 보인다.

산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닐까? 세속에 정주하기 위해 스스로 연출한 과장과 허식의 자태를 벗어버린 채 청랑(晴朗)한 하늘을 보며 아생(野生)의 대지에 누워, 고요히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온갖 삶의 때를 벗어 마침내 순수한 존재(Pure Being) 곧 무(無, Nothingness)로 귀환하기 위한 여정이 아닐까? 시(時)가 마치 말의 사원이듯 집은 곧 우리 삶이 물의 가람이 아닐까? 그렇다면, 집이란 곧 다시 환속할 수 있는 도량을 키우는 터가 아닐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그려함에 이르는 연습이요 실천의 방편이지 않을까? 혹은 구체적인 자기확인이 아닐까?

수백당은 곱고 아름답다. 그런데 수백당이라는 집이 곱고 아름답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집을 육육(肉慾)에 기대어 지으면 그만큼이나 다른 것을 잃는 이치 때문

are also awkward. The rocks on the roofs are dubious, and the erratically placed rocks supporting the water route seem vulgar. Not one piece of land is left lucid and calmness is not to be found. As this is so, relatively, the sa-rang-bang(room) driven all the way to the corner rather seems beautiful.

What's the point of living? Isn't it the journey of peeling off the cover of exaggeration and ostentation, we have directed to settle down in a vulgar world, and lay down in the wilderness watching the pure sky, and calmly retrospect oneself, to refine all the filths of life and ultimately return to a pure being, that is, nothingness? As poetry is the temple of words, isn't a house the river of life? It would be possible to say that the house is a space where the generosity needed, to return to nothingness can be broaden. Building a house is the method to train and accomplish this returning, and simultaneously, allows the concrete self affirmation of oneself.

Subaek-dang is charming and beautiful. But the house Subaek-dang is not charming nor beautiful. It is because of the truth, that if a house is built upon the desires of flesh it is apt to

이다. 그리고 건축가가 자신의 자아를 비우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결과다. 누구나 집을 소유하고자 욕망(慾望)한다. 그리하여 집을 가진 자는 많다. 그러나 우리 중 진실로 집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진정한 집. 그것은 영혼의 철과 나무와 흙과 불과 물로 짓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집은 작가가 자신의 세계를 자신의 방식으로 현시(顯示)하는 대상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습작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백당 앞에서 내가 건축가에게, 그리고 집의 의미를 진정 찾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음의 세 구절이다. 사물로부터 '떨어져' 다시 한 번 사물의 진실함을 궁구(窮究)하고자 하는, 그리하여 드디어 고담(枯淡)의 미(美)를 온전히 향수(享受)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妙는 平淡에 있고,

妙는 淺近에 있고,

妙는 一水一石에 있다.

(香譜畫 중에서)

lose that much. And when the architect does not desert his ego this is an inevitable consequence. Everybody longs to possess a house, and most have succeeded. But among all of us, who has truly possessed one? What is a true house? Wouldn't that be made with the spirit of steel, wood, soil, water and fire. So a house should not be the object of the architect willing to reveal his/her own world through his/her own ways. Moreover, it should never be a studying case of the architect's interest. The following three phrases is what I wish to say to the architect of Subaek-dang and to all the people who truly wish to find the sincere meaning of a house. To the person who is willing to take a few steps from the matter, and once again pursue the truth lying in the matter, and then at last, enjoy the integrated beauty of candidness.

Excellence lies in the ordinary and the candid

Excellence lies in the frugal and the n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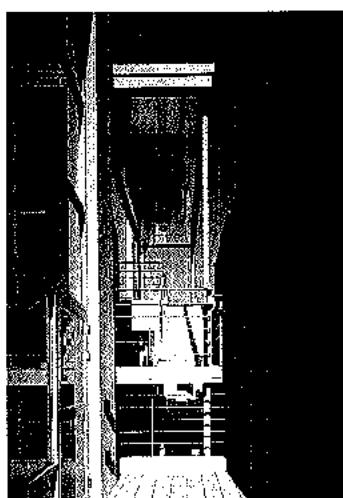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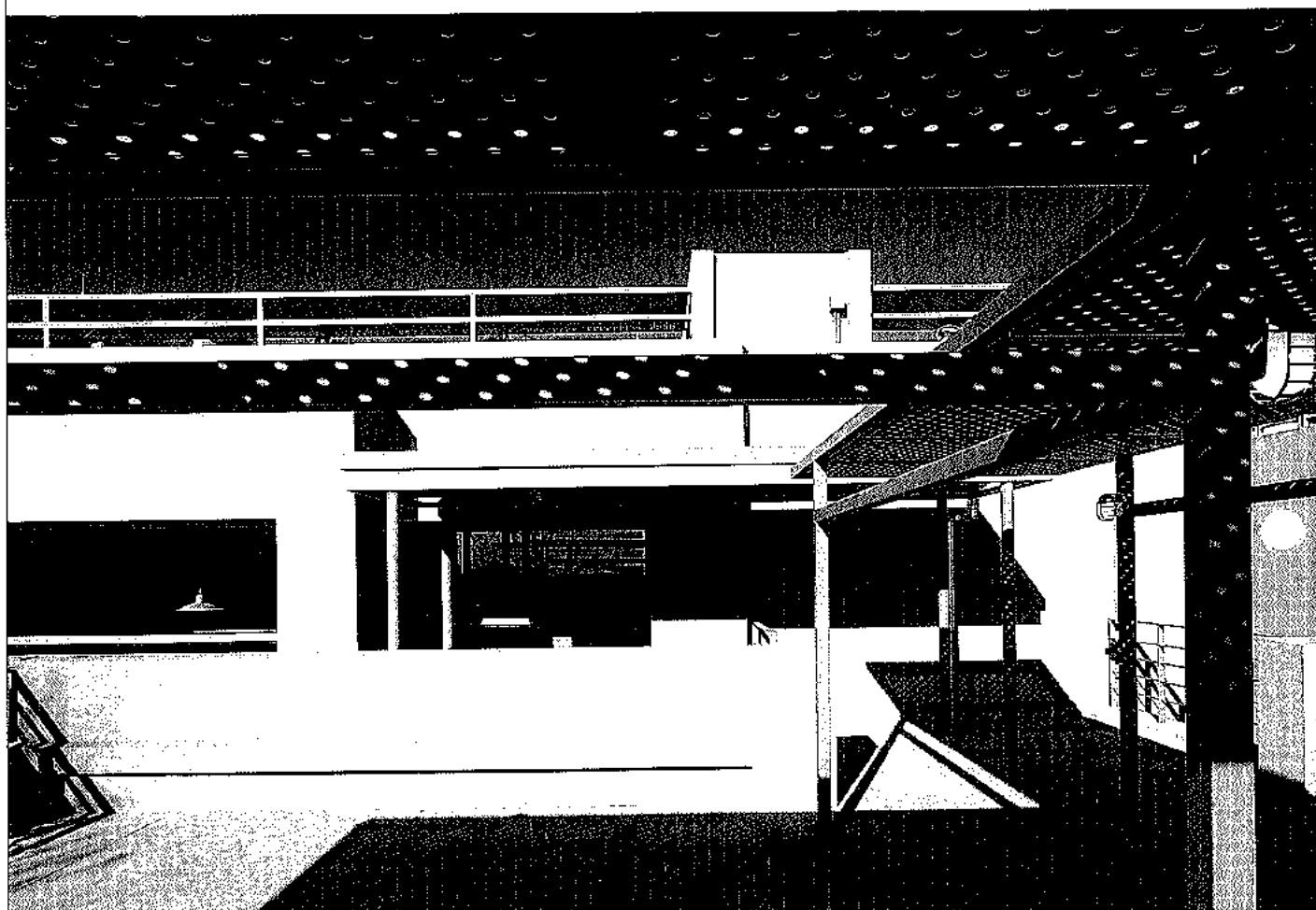
Excellence lies one in water and one in stone

# 사색의 집

## A House of Medit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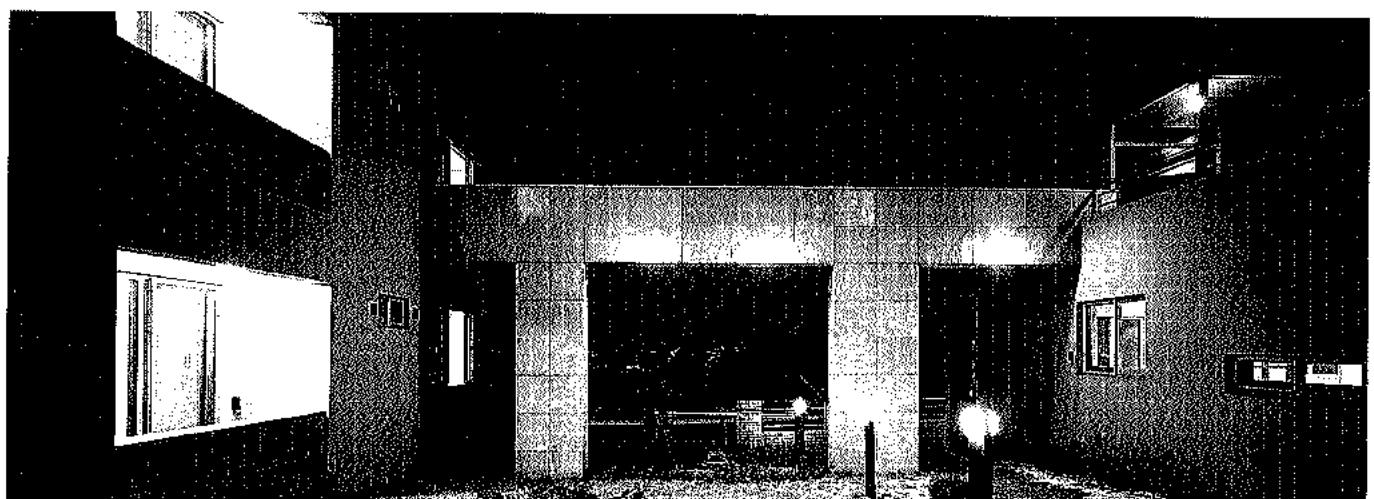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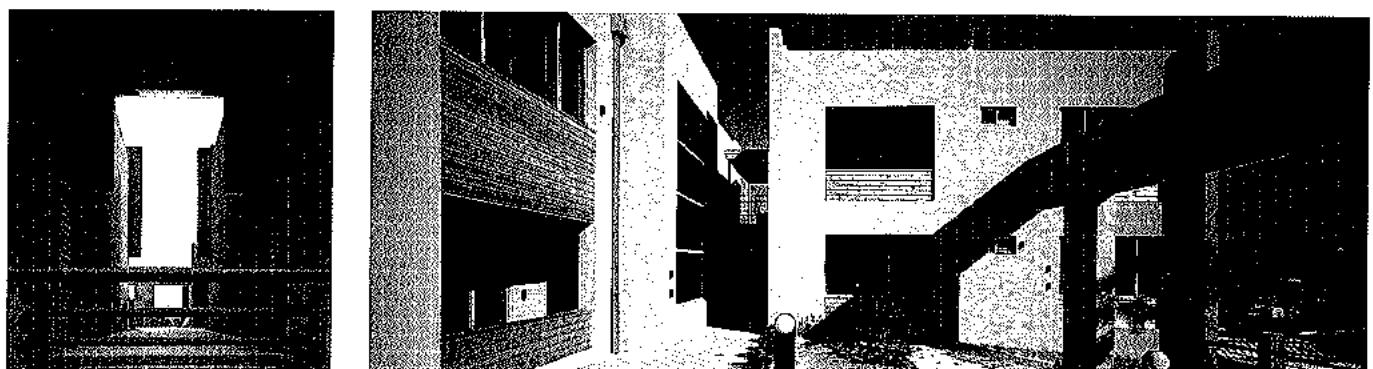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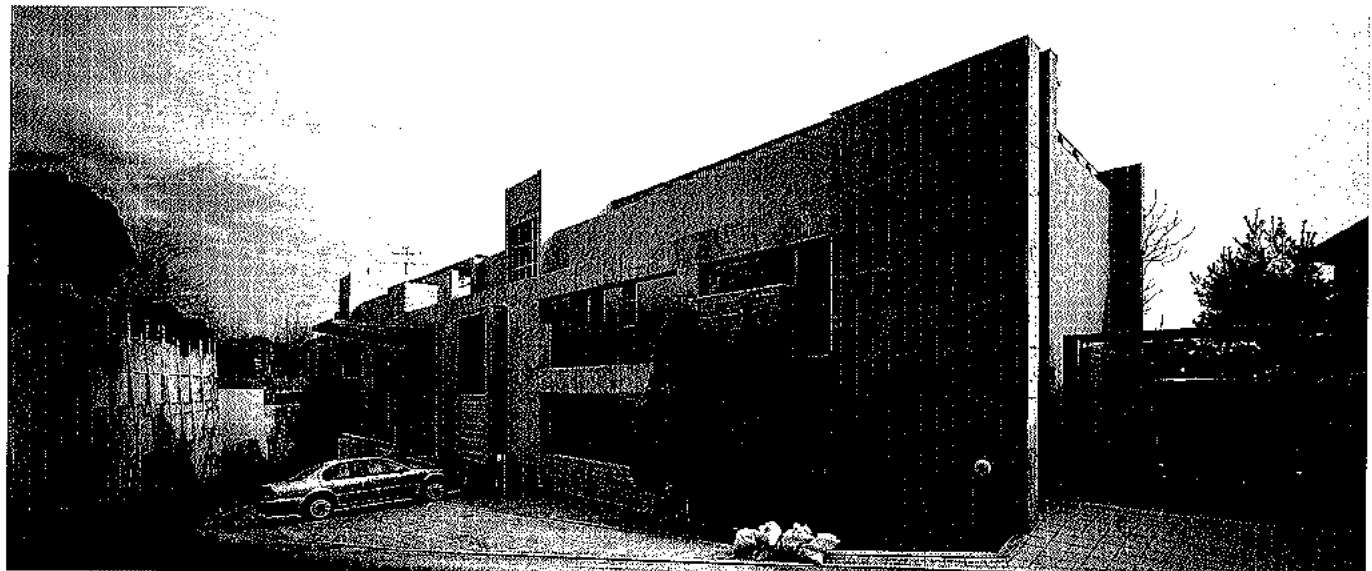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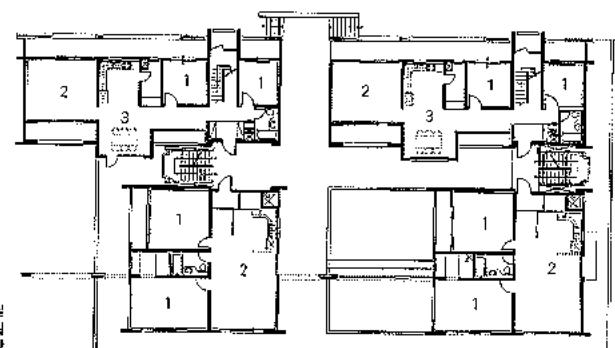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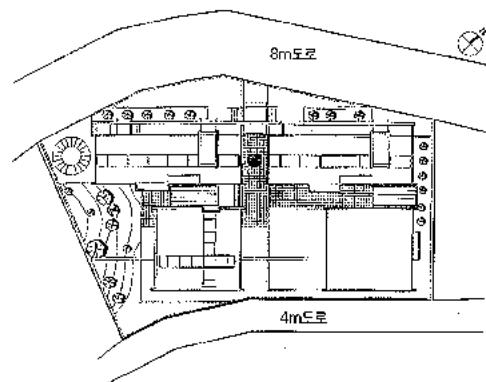
(주)삼우설계

Designed by Samoo Architects &amp; Engineers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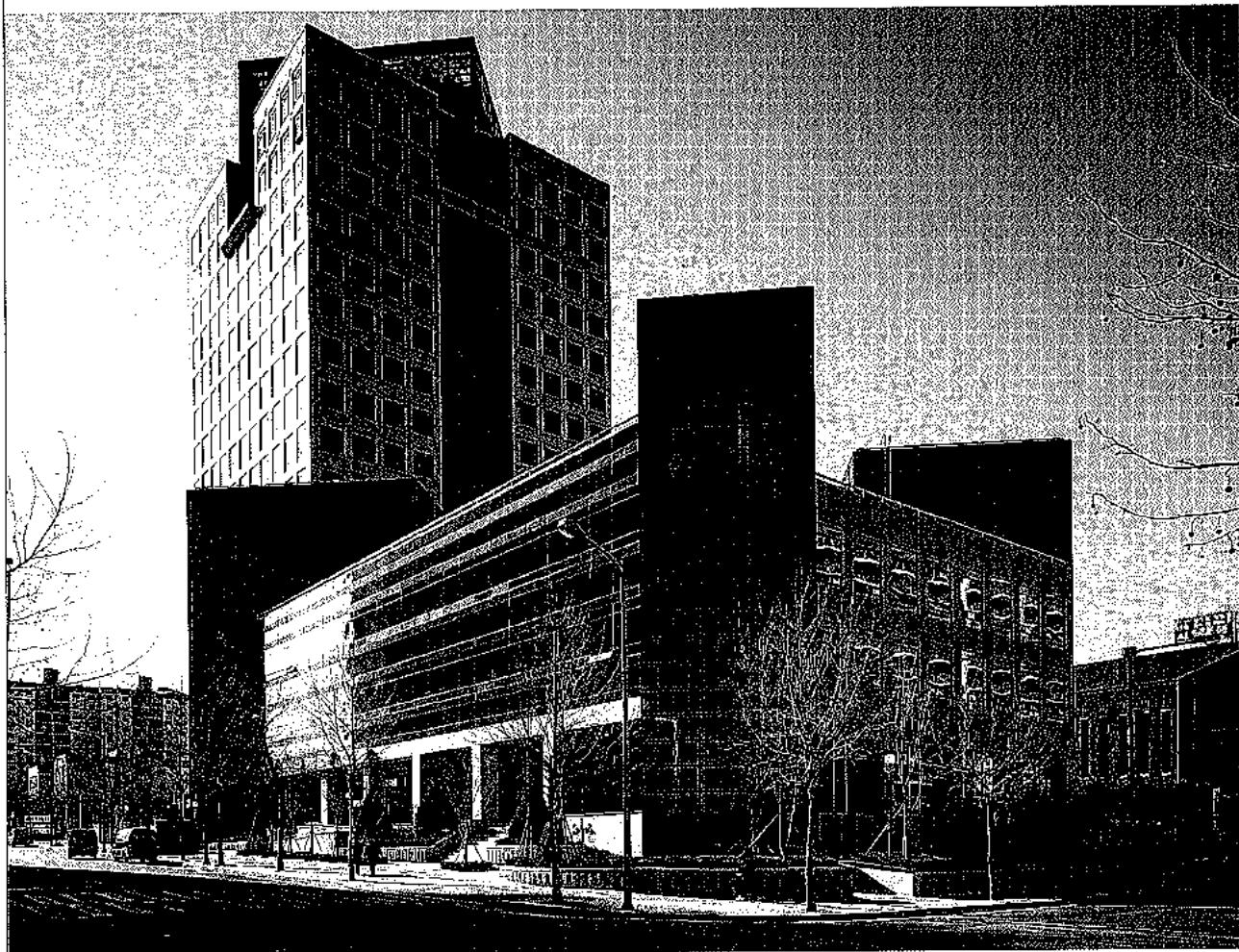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응산구 한남동 746-9	대지위치	서울시 응산구 한남동 746-8
지역지구	전용 주거 지역	지역지구	전용 주거 지역
대지면적	730.9m <sup>2</sup>	대지면적	465.8m <sup>2</sup>
건축면적	255.70m <sup>2</sup>	건축면적	227.99m <sup>2</sup>
연면적	489.86m <sup>2</sup>	연면적	618.51m <sup>2</sup>
건폐율	34.98%	건폐율	48.95%
용적률	42.18%	용적률	84.15%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규모	지상2층, 지하1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THK30 샌드스톤	외부마감	드라이비트, THK30 샌드스톤



# 도시개발공사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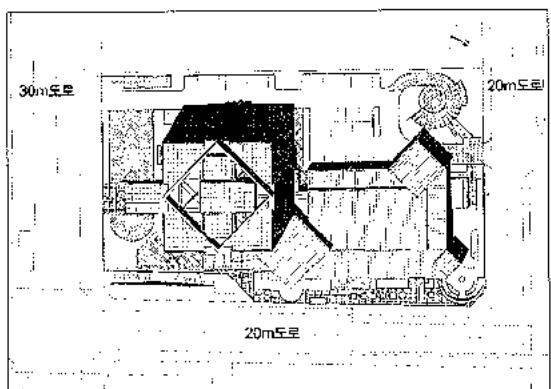
## Seoul Metropolitan Development Corporation Headquarters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Designed by Kunwon Planners,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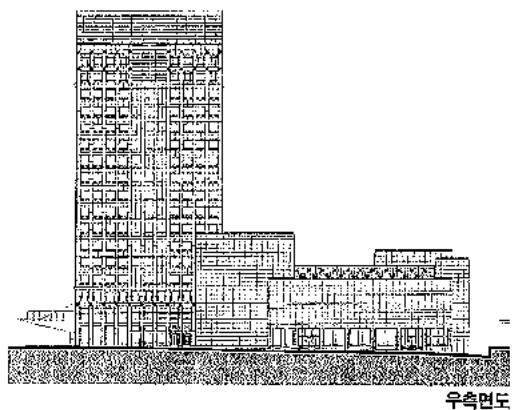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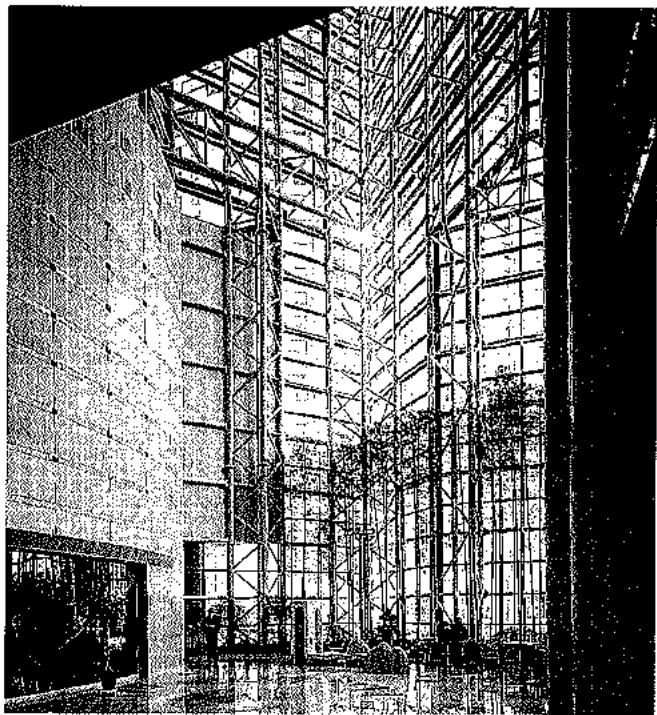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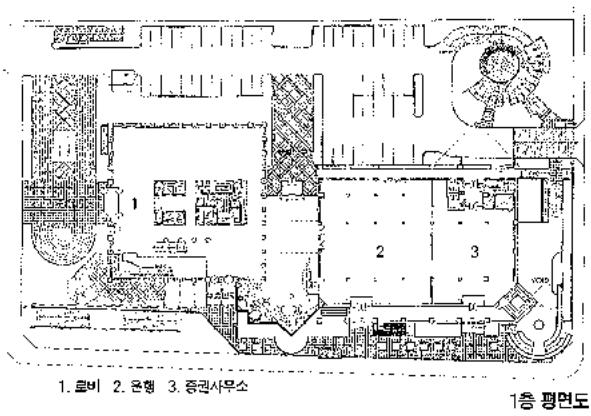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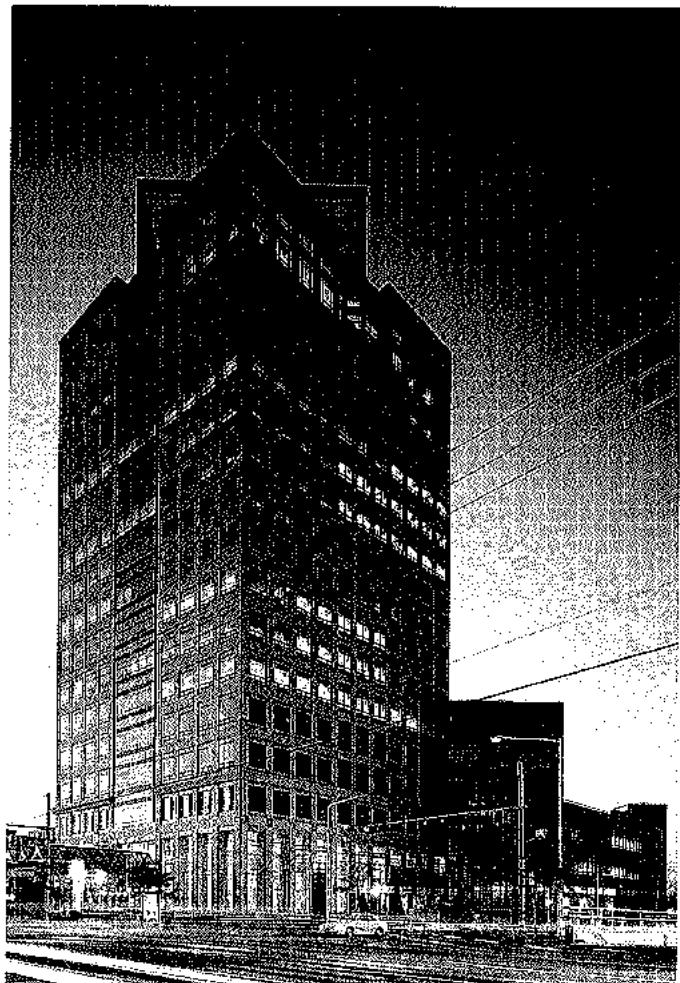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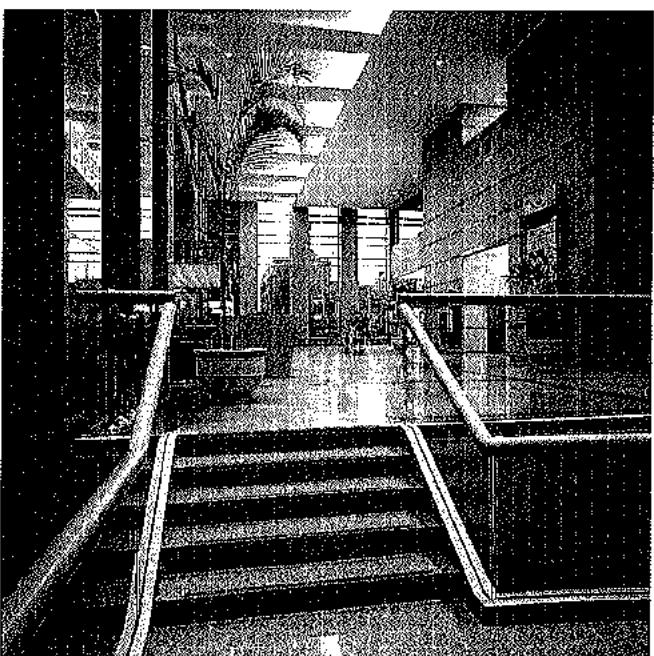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5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관립집회시설
대지면적	9,238.50m <sup>2</sup>
연면적	43,745.41m <sup>2</sup>
건축면적	3,443.04m <sup>2</sup>
건폐율	37.27%
용적률	272.67%
규모	지하3층, 지상16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마감	파스텔 복층유리, 화강석 베너구이
시공	벽산건설(주), 삼익건설(주), (주)신일건설



배차도



우측면도



1층 평면도



#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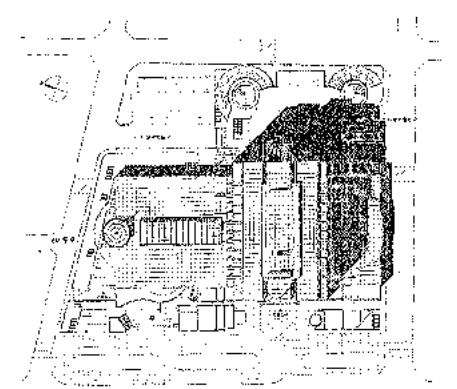
Korea Tobacco & Ginseng Corporation Headquarters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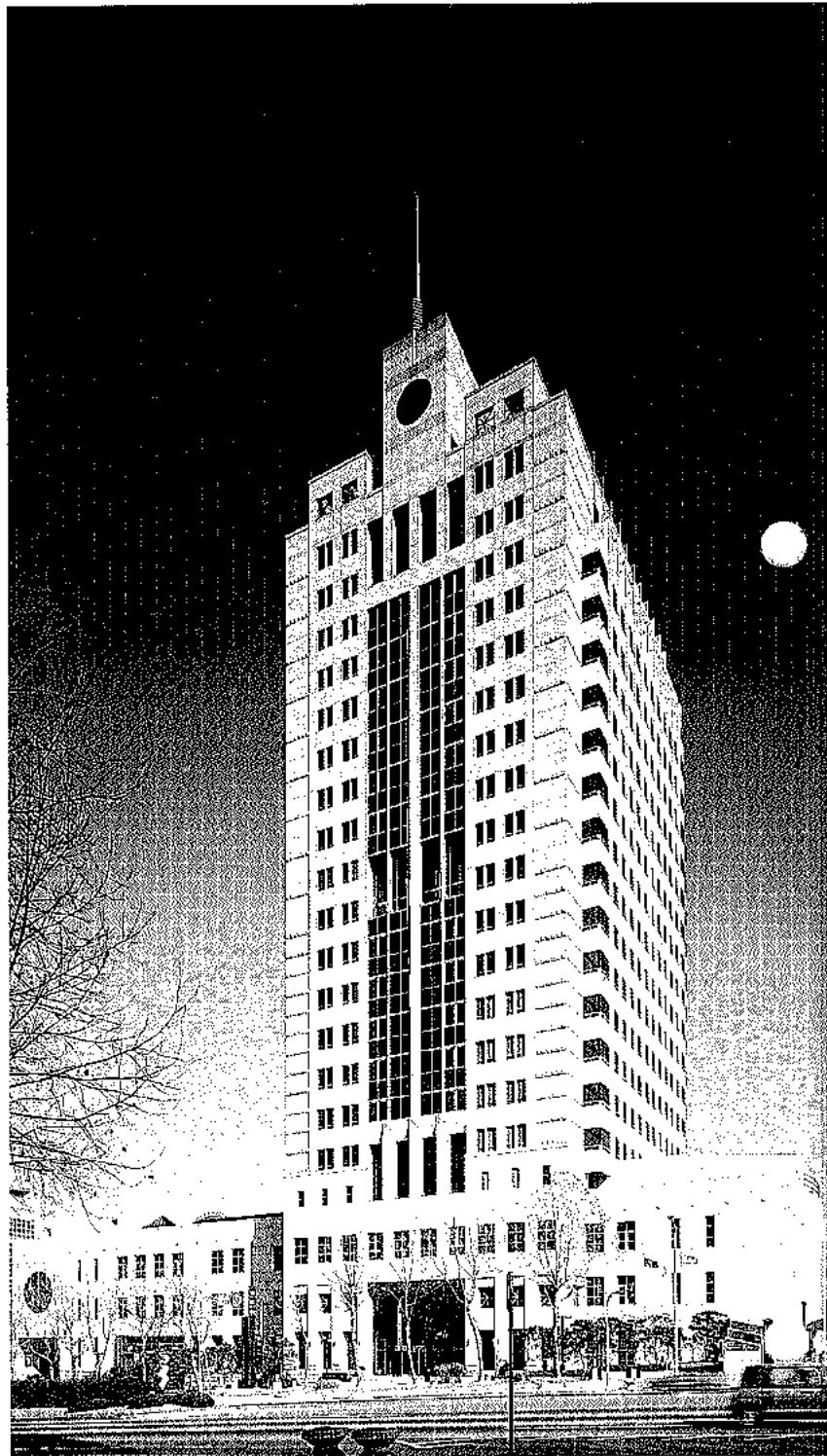
Designed by Kunwon Planners, Architects & Engine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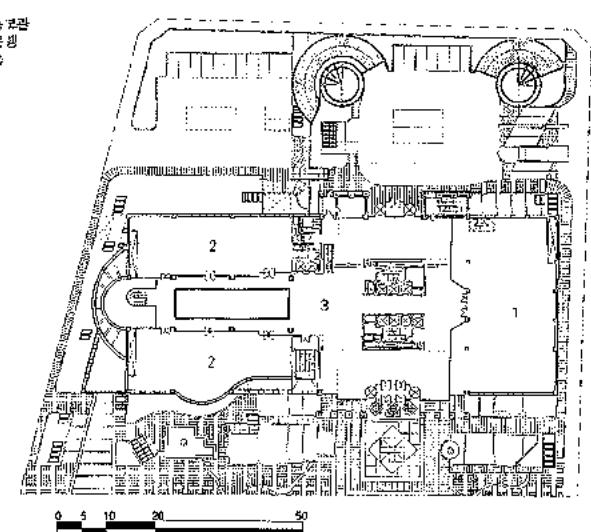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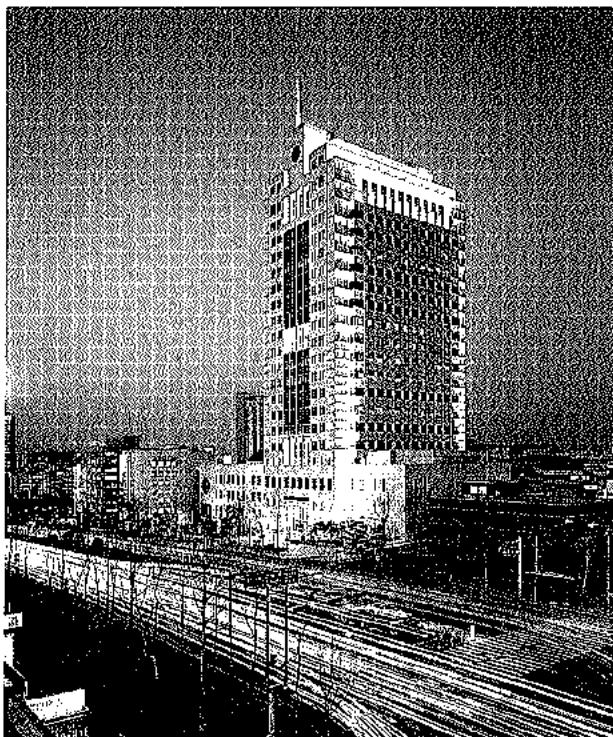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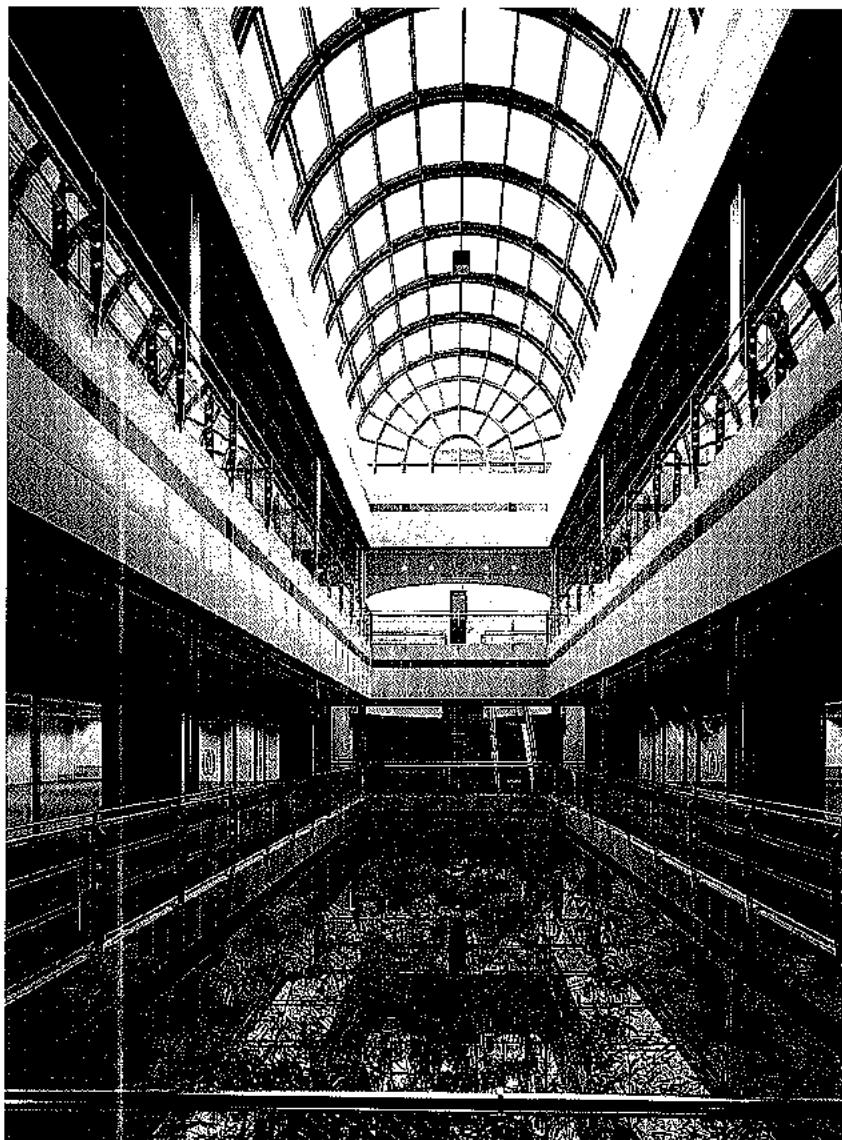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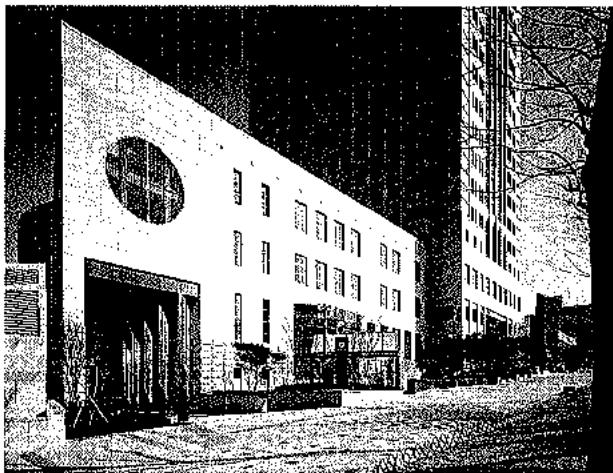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02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도시설계구역, 주차장정비지구, 미관1종지구, 공용시설 보호지구
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전시시설
대지면적	9,548.60㎡
연면적	71,276.94㎡
건축면적	3,854.42㎡
건폐률	40.37%
용적률	355.58%
규모	지하6층, 지상20층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주요미감	파스텔 복층유리, 회강식 베녀구이
시공	쌍용건설(주)
조경면적	1,680.03㎡
공개공지	698.90㎡



배치도





1층 평면도

# 도곡 우성캐릭터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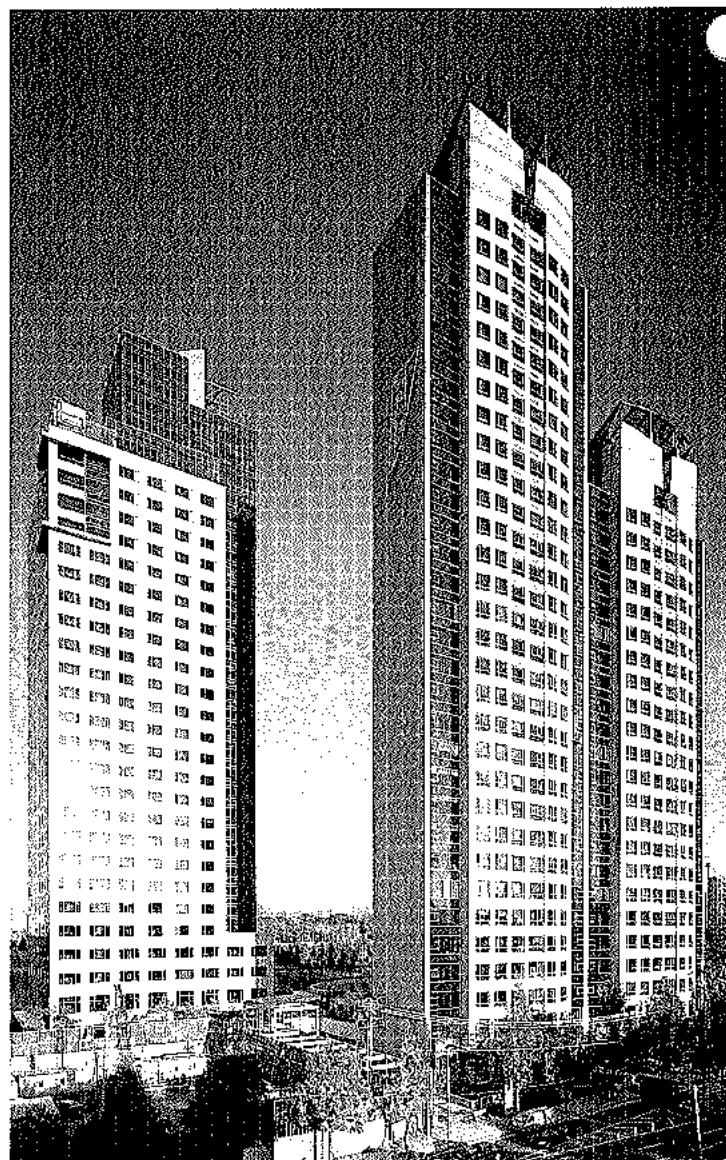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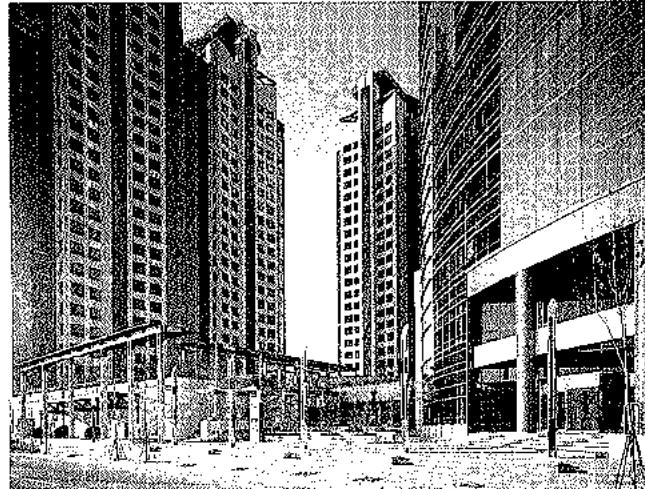
## Dokok Woosung Character 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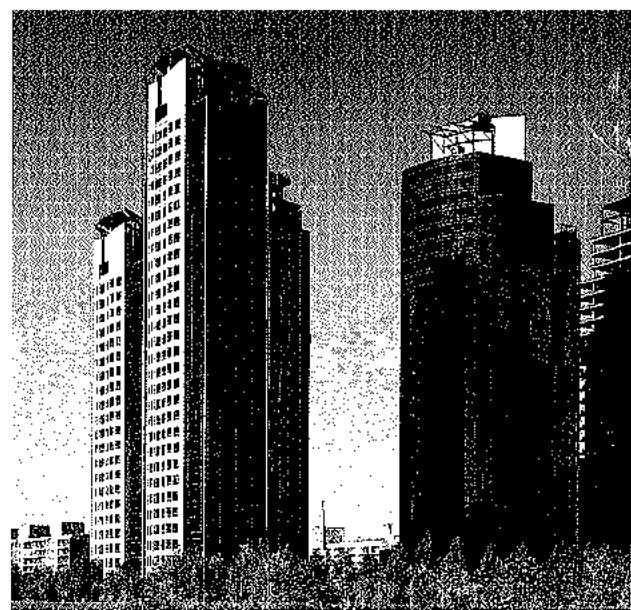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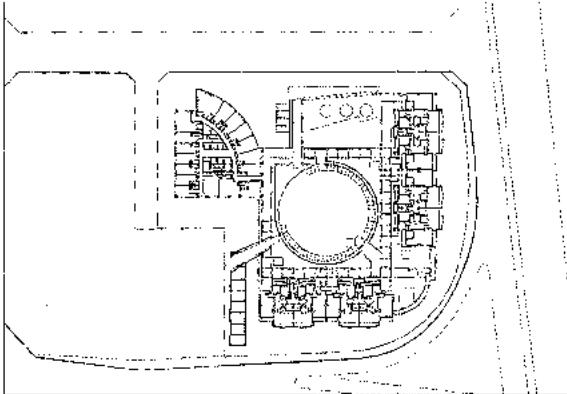
한현호 · 지승선 / (주)건원국제건축  
Designed by Han Hyun-Ho & Jee Seung-Sun

이 프로젝트는 일반화된 주상복합시설과 다른 몇 가지 시도들이 초기 계획안에서부터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었다. 먼저 기능별 고유의 형태미가 잘 표현되도록 주거와 상업시설을 3개의 타워로 계획하여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활기있는 가로공간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중심원형 광장은 도로와 단지 사이, 상가 · 업무시설과 주거사이의 전이공간으로서 더불어 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의 외부공간을 설계하였다. 그리고 각자의 방향성을 갖는 3개의 타워로 설계하여 건물간의 상호간섭을 배제하였으며, 동시에 각 동이 독립적인 일조와 조망을 갖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 시설에 따라 영역별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복합건축에서 간과되기 쉬운 주거의 장소성을 확보하고, 세대 진입을 위한 통로 기능과 놀이, 쉼터, 산책 등의 여가행위가 이루어지는 199세대 고유의 마당을 설계하였다. 끝으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벽식 아파트 구조에서 탈피하여 생활의 변화에 따른 평면의 가변성을 위하여 주거부분은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 골조방식을 도입하였다. 이는 활력에 보다 안전하며 횡변위에 대한 저항이 매우 커 철골조보다 거주성 및 경제성에 있어 철선 우월한 주거 골조방식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시도들이 건축적인 개념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 속의 기억될 장소가 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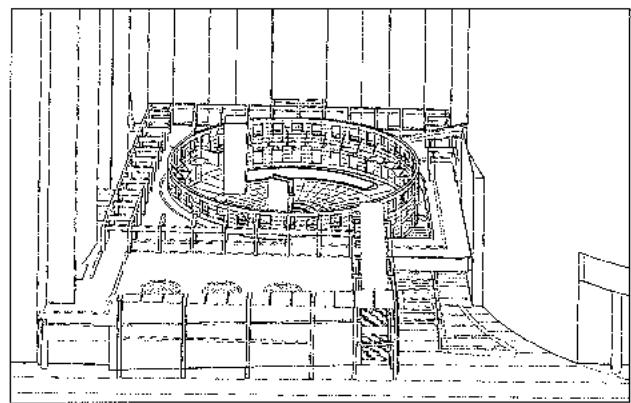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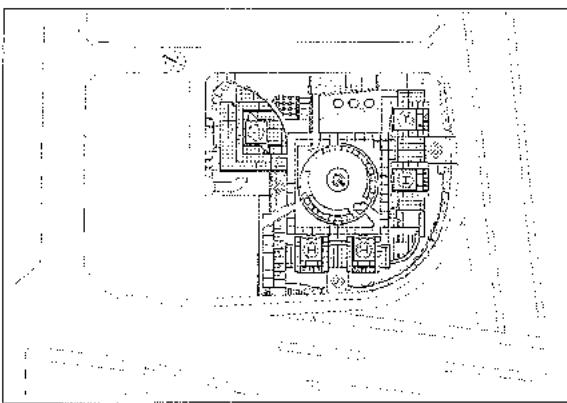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 부대복리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0,690.50m <sup>2</sup>
건축면적	5,956.28m <sup>2</sup>
연면적	100,496.73m <sup>2</sup>
건폐율	55.7%
용적률	620.3%
구조	고강도콘크리트조(주거), 철골조(업무)
규모	지하4층, 지상31층
외부마감	고탄성방수막도료, 알루미늄복합페널, THK24컬러복층유리
분양세대	아파트/199세대, 오피스텔/434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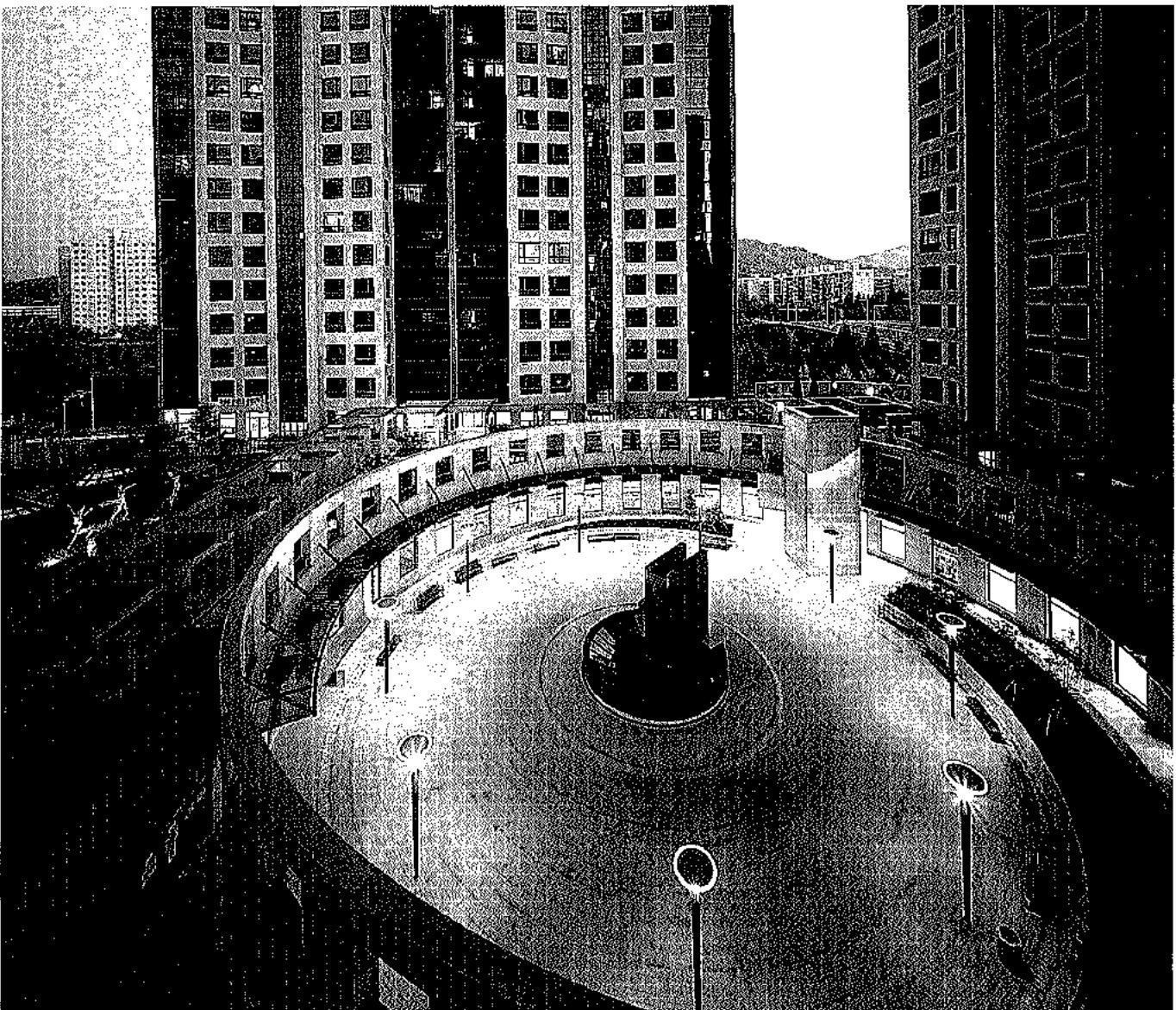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중앙광장 액소노메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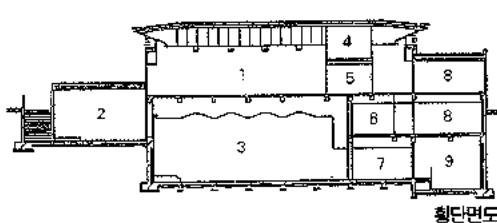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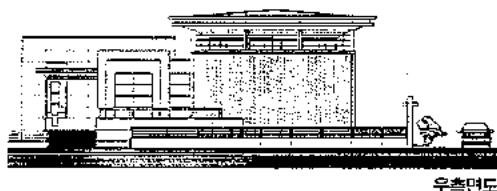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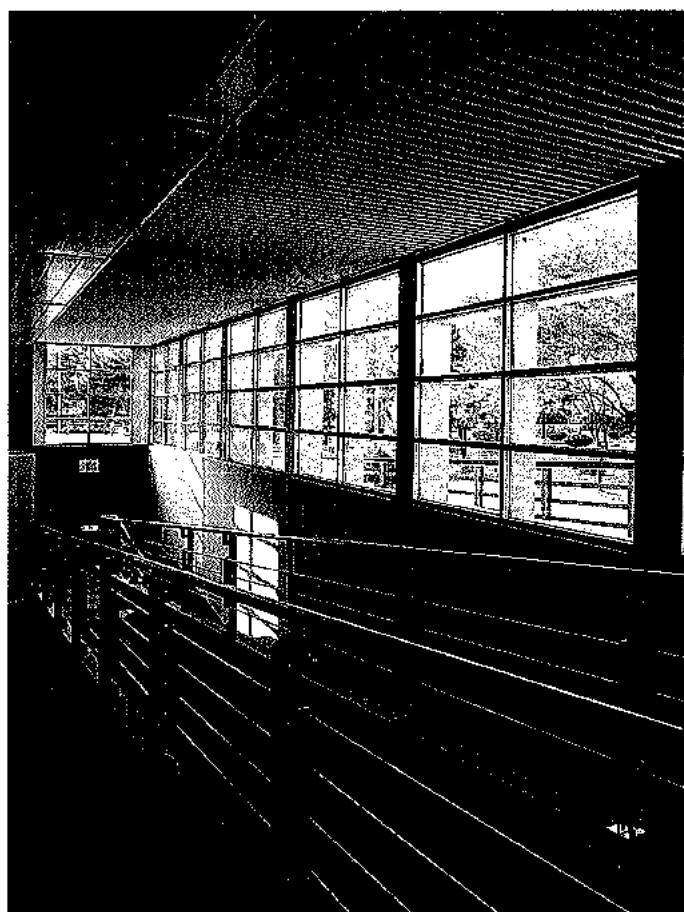
# 도산 안창호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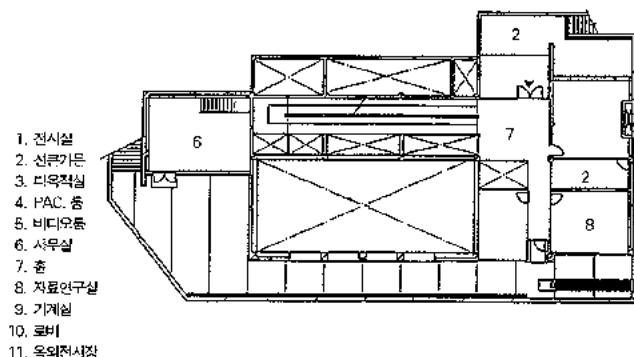
Dosan Memorial Center

김자호 · 오동희 / (주)간 · 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a-Ho & Oh Dong-H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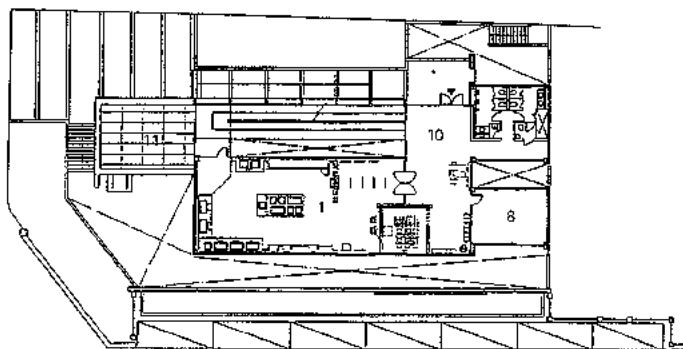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49-9 도산공원내  
**용도** 전시시설  
**대지면적** 29,816.50㎡  
**건축면적** 383.82㎡  
**연면적** 988.65㎡  
**건폐율** 1.29%  
**용적률** 1.17%  
**구조**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 지상1층  
**외부마감** 바닥/종자갈심기  
 벽/아연도금 Corrugate페널 위 불소수지 도장  
 지붕/폴리테크 페널 위 스테인레스 박판  
**내부마감** 바닥/스톤코트, 우드플로링, 리바타일  
 벽/수성페인트, MDF위 무늬목  
 천정/수성페인트, 암면텍스, 금속천정재  
**설계담당** 정재권, 전해룡, 손기현  
**인테리어** 구조·감리 (주)간·삼건축  
**전시기획** 한집디자인  
**전기설비** 세진전기  
**기계설비** 복성설계  
**건축주**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시공** 포스코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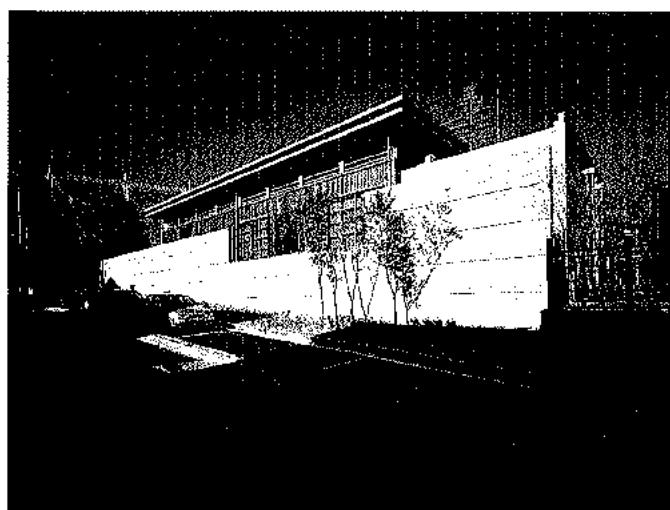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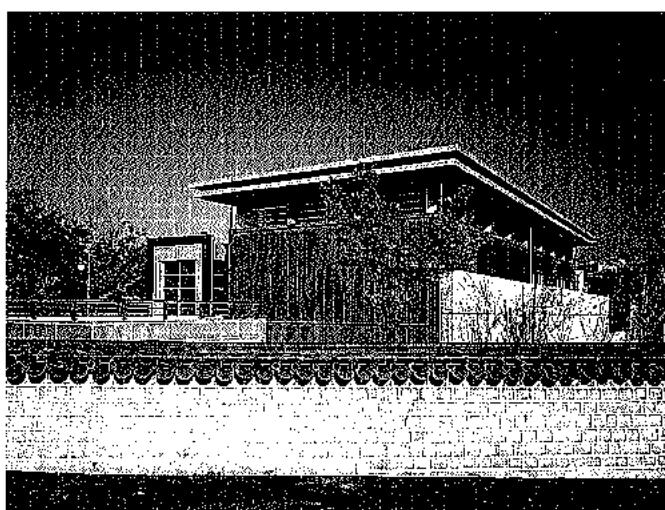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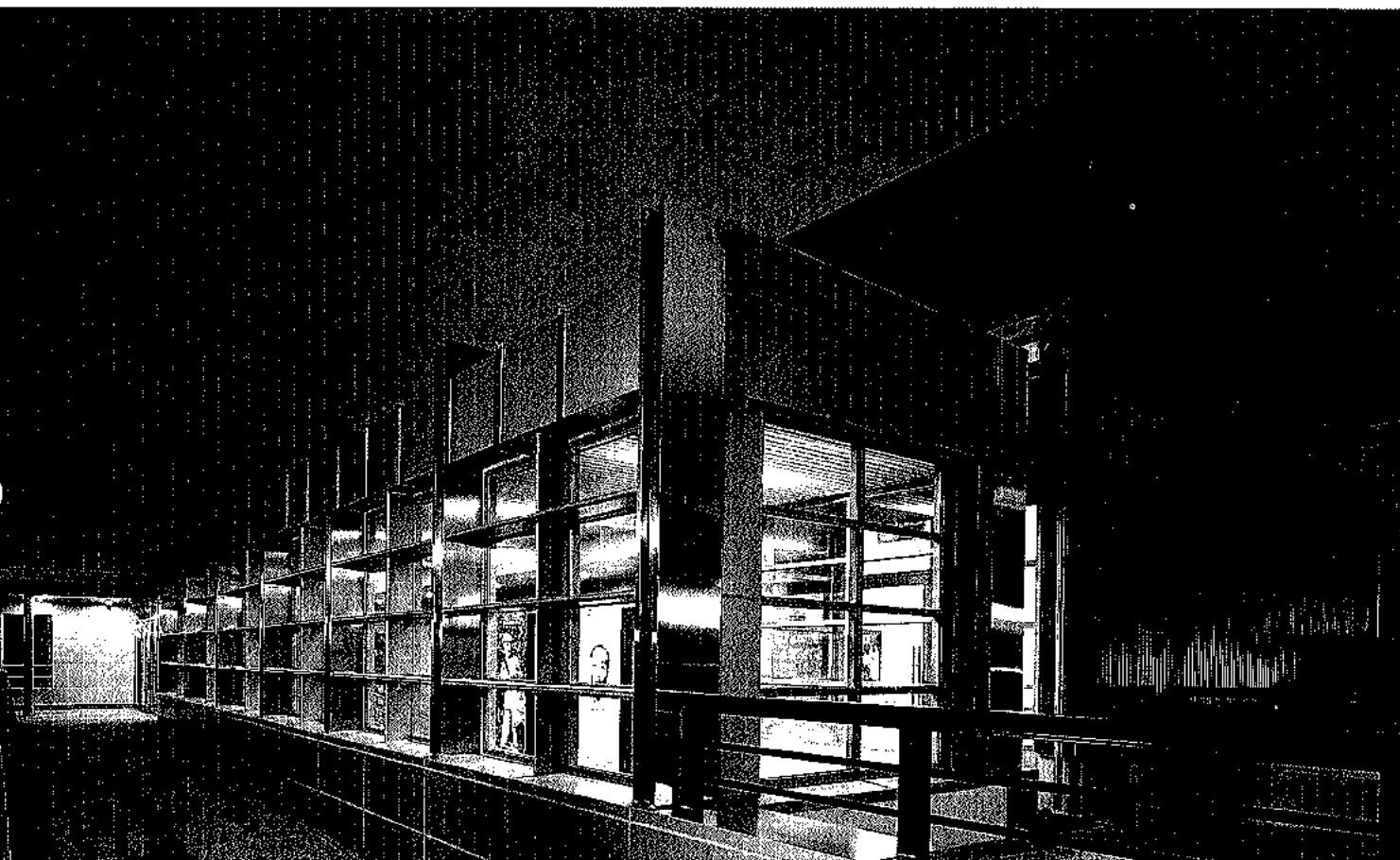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안양시 청소년 수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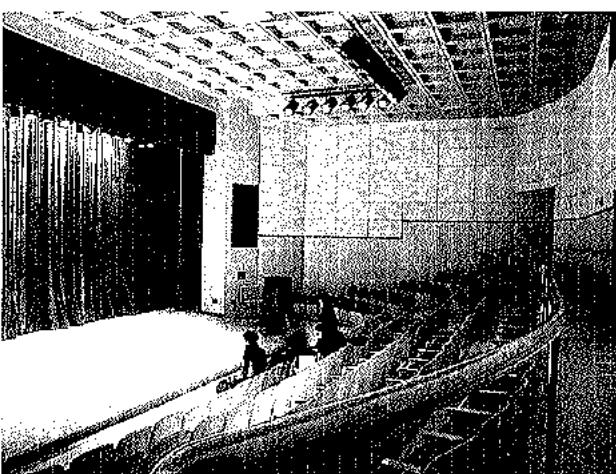
## Anyang Youth Training Center

이용호 /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Lee Yo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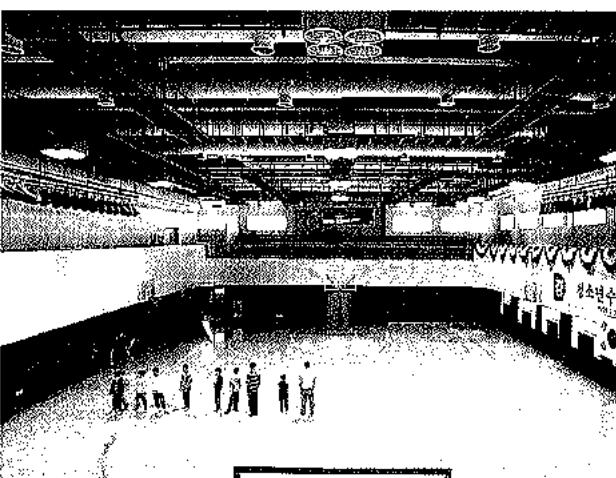
이 프로젝트는 1992년 현상설계 당선작으로, 안양 평촌 신시가지 지역의 사회복지 시설단지내에 연차적으로 계획된 보훈회관,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에 이어 마지막으로 지어진 청소년 수련관이다. 현상설계 당시 계획의 전반에 걸쳐 프로젝트의 성격과 대지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기존에 계획된 건물과의 조화와 21C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청소년들의 보다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디자인 컨셉이 동시에 요구되었다. 배치계획에 대한 기본 컨셉으로는 자칫 산만해질 수 있는 대지에 각각의 건물을 매개할 수 있는 광장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 광장의 중심을 지나는 Focus 를 두기 위해 기존 건물이 향하고 있는 소점을 향하여 배치 하였으며, 반원의 Mass를 기존 건물에서 대칭으로 차용함으로써 두 개의 분절원이 마주 보게 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건물과의 통일감을 유지하고, 부정형의 대지에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건축적 형태에 대하여 주 이용고객인 청소년들과 지역주민을 고려하여 간결하면서도 단조로움을 탈피하기 위해 분절원과 직사각형의 Mass를 결합시키는 수법으로 형태의 수준을 끌고 있으며, 화강석의 질감에 유리와 금속재료를 접목시켜 차갑고 Sharp한 재질이 돌보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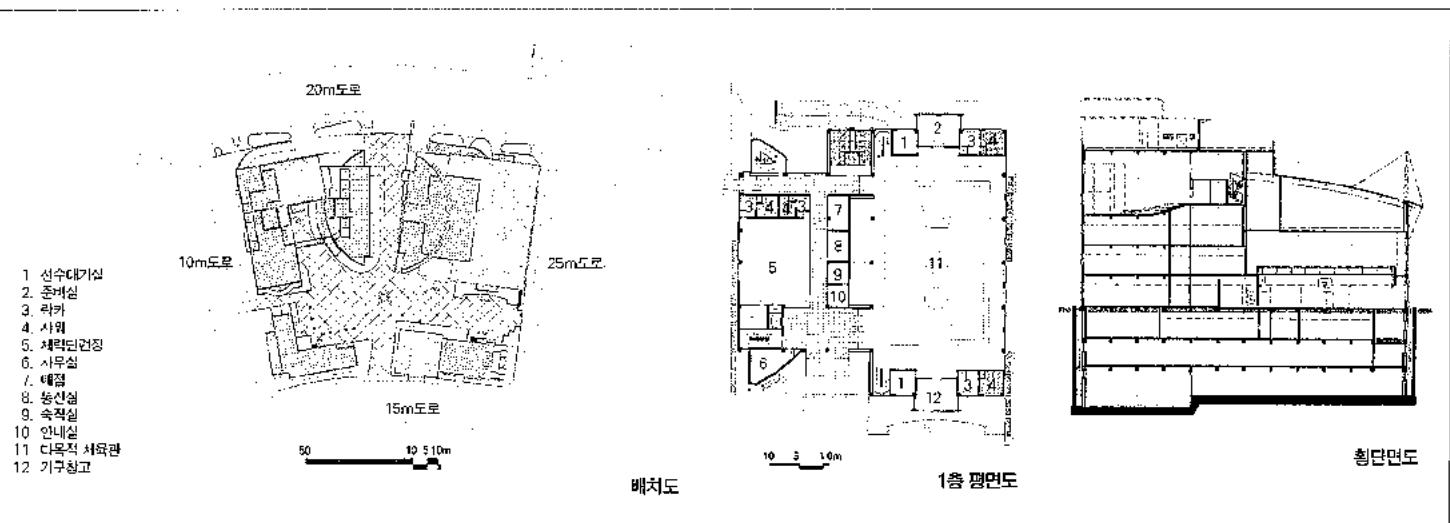
그리고 다소 형태주의적으로 부풀려진 캐노피디자인과 애경을 고려한 육외조명 및 오브제는 청소년의 이용 욕구를 한껏 부추길 수 있을 것이다. 설계가 진행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가운데 비로소 안양 청소년 수련관의 개관을 맞이하여 이 계획이 사회복지 시설로서 지역사회의 Core 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길 바란다.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6
용도	청소년수련시설
대지면적	11,311.00m <sup>2</sup>
건축면적	4,502.60m <sup>2</sup>
연면적	23,378.02m <sup>2</sup>
건폐율	39.73%
용적률	114.11%
구조	R.C조, SRC조
규모	지하3층, 지상4층
외장재	지붕/콘크리트슬리브, 경량페널, 외벽/T30화강석버너구이, 창호/100불소수지코팅, AL-BAR, T16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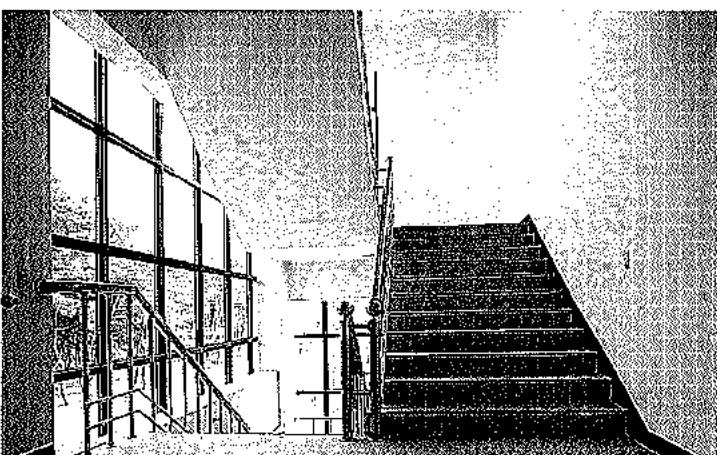
## 강원도립대학 실험실습동 The Laboratory Hall of Kangwon Provincial Junior Collage

이각표/ (주) 엠 & 이 건축+한광호/ (주) 종합건축 산  
Designed by Lee Gak-Pyo & Han Kwa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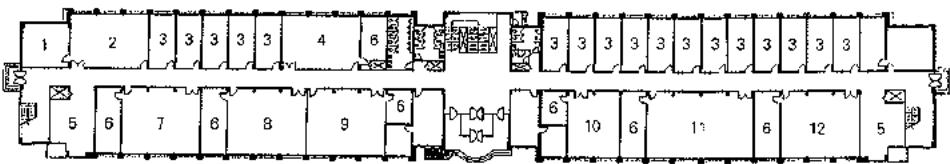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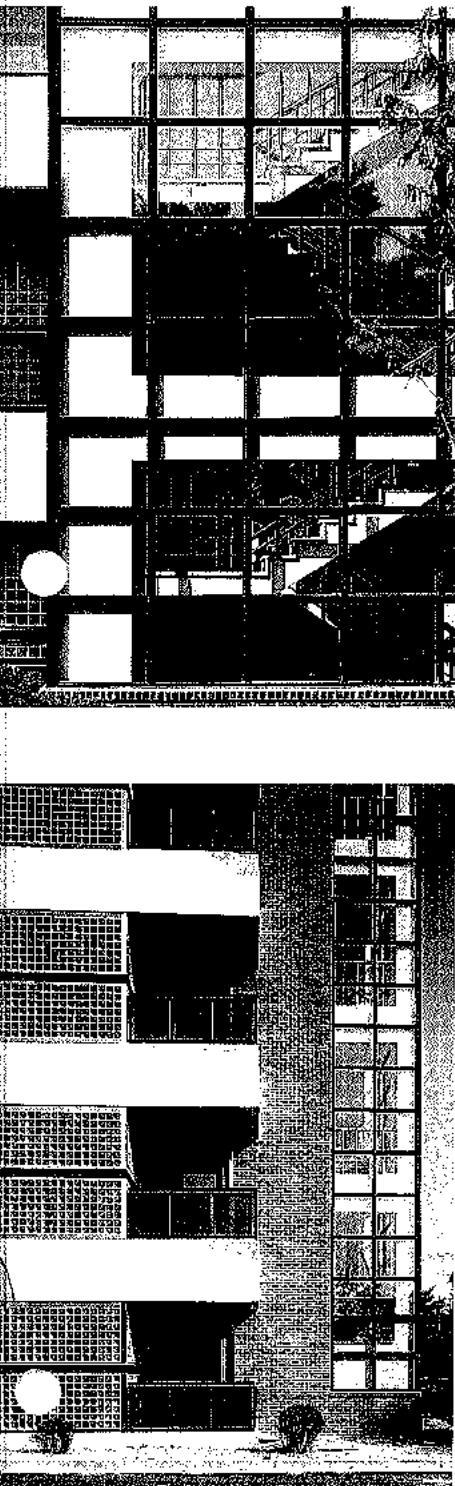
대지위치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교황리 8-2외 5필지
건축면적	A / 2,292.71m <sup>2</sup> B / 488.90m <sup>2</sup> C / 858.70m <sup>2</sup>
연면적	A / 9,066.88m <sup>2</sup> B / 488.90m <sup>2</sup> C / 792.00m <sup>2</sup>
규모	A / 지하1층, 지상4층, 옥탑층 B.C / 지상1층
외부마감	A.B / 벽면재 치장생기, T12 컬러복층유리 C / 본타일 마감



1. 준비실      7. 수족관리실  
 2. 아류양식 실험실 8. 수산물회초 동물시험실  
 3. 연구실      9. 해조류임식 실험실  
 4. 수질분석 실험실 10. 해양측량실  
 5. 층계실      11. 해양수리실험장  
 6. 준비실      12. 해양도장을험장



1층 평면도



# 지어지지 않는 꿈, 지어지는 건축

## Architecture and Dream

김석환 / 건축사사무소 터·울  
by Kim Suk-Hwan

### 일없는 시절의 건축가

오늘 이 시대에 건축가와 일 그리고 직업으로서 건축을 생각하면 참으로 대책없이 느껴진다. 오늘 날 경제난 속에 가장 위축된 분야가 건축이다. 외환 위기가 닥친 이래 가정 살림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지경인데 집을 지을 엄두를 내기란 더욱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건축가들은 어려움을 내색조차 하길 꺼리며 조용히 지내고 있는 듯 하다. 간혹 설계를 의뢰받는 일이 있어도 실시되지 못하고 계획으로만 그치기 일쑤어서 하고 있는 일조차 가상인지 현실인지 애매한 느낌이 듦다. 공사를 착수한 후 중단되어 1년이 넘게 방치된 현장도 있고, 하기 받은 후로부터 1년동안 착공을 못하여 하기가 취소된 프로젝트도 있으며, 실제 지어진 건물도 부도가 나고 사람이 살지 않아 금새 폐허화 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경제 회생에 무책임할 만큼 능력없는 건축가가 지켜보며 지나야 하는 세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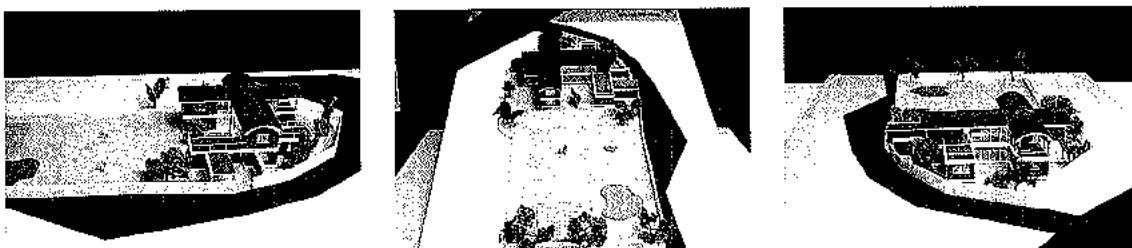
나는 주어진 일이 없어도 늘 설계를 한다. 현상설계에 참여하기도 하고 지인들이 정래 짓겠다고 하여 계획안을 만들기도 한다. 꼭 실시될 거라는 확신은 없어도 단지 그냥 만드는 것이 좋아서 한다. 고정적인 수입이 확보되는 직업인이 아닌 채 취미생활자처럼 가상의 건축을 만드는 것이다. 일이 없어 지내다 보면 문득 생존 능력도 없이 세상에서 있는 듯한 불안감이 느껴진다. 그러나 오히려 이럴 때 만드는 일은 설계기간에 쫓기지 않아서 좋다. 건축은 지어질 가망 없어도 즐거운 도취에 빠

질 수 있는 작업이다. 나에게 실시될 프로젝트가 없다고 해도 막상 한가한 일상도 아니다. 일이 없더라도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 순간으로서는 똑같이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알뜰한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가보지 않았던 국토의 이곳저곳에 있는 문화 유산을 답사도 하고, 특설 강좌도 듣고, 이런저런 전시와 세미나에도 제법 쫓아 다녔다.

### 문득 꿈을 꾸게한 정읍의 주택계획

작년초 정읍에서 건축을 하는 친구로부터 주택을 설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지역에서 유자로 알려진 사람의 집인데 시간의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였다. 내 친구는 건축주의 처남과 친구 사이로 그래도 나를 잘 보아서 하는 말인 듯 하였다. 친구에게서 들은 바대로 내년이나 지을 것이라고 하니 시간에 쫓길 일도 아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만들었다. 소식을 들으니 건축주는 현재 얼마전에 지은 건물의 건축법 위반 시비로 시달리는 중이어서 더욱 빨리 진행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이 주택은 나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한 프로젝트이다. 도시내에 지어지는 건물을 설계하다 보면 건폐율 한도내에서 빼듯이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 고심하기 심상인데, 이 프로젝트는 그와 달리 600평이나 되는 너른 대지에 건물을 마음껏 배치하며 설계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처음 건축을 시작하고 공부해 오는 동



안 나는 브 꼬르부제가 주장한 근대건축의 사고로 훈련되어 왔다. 그러나 그에 관한 답사 이후 몇 년전부터 우리 것을 알아야 하겠기에 한국 전통건축의 답사를 다니면서 우리 전통 건축이 외부공간과 관계맺는 자연 친화적인 면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특히 영선암의 미당은 사람이 저절로 수행되게 할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전통건축은 목구조가 형성하는 간을 모듈로 하는 질서의 간결하고 명쾌함과 외부공간의 융합되어 자연의 정취를 담아 끌어안는 형식에서 건축의 높은 격을 이루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나는 이 집에서 그러한 우리 전통건축의 장점을 계승함과 아울러 근대건축이 추구한 편리함을 함께 성취한다는 생각으로 계획하였다. 우선 넓은 대지 여건을 살려 건물의 내부가 둘을 둘러싸며, 건물과 외부와의 접촉이 많아지도 록 하고 켜와 켜사이에 자연이 놓이도록 하였다. 이러한 내외부 공간이 교류되게 한 것은 이전에 설계한 곤지암 주택에서도 도 채용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넓은 대지를 이용하여 규모가 커진 상태로 풍성한 이야기를 꾸며 보고 싶었다. 내부공간은 부분적으로 1, 2층을 오픈시켜 공간의 변화를 주고 위치구분에 따른 기능별 독립성을 높게 하였으며 내부공간과 연관된 다양한 성격의 외부 공간을 두었다. 건물의 외부 형태는 단순한 보울트 구조로 하여 단순하고 정직한 형태의 힘이 느껴지게 하였다.

그러나 이 집은 끝내 실현되지 못하게 되었다. 작업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나는 서울의 딸에게 올라온 집주인의 부인을 만나서 안을 보여주며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미 다른 사람과 설계계약을 하였다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의 노력이 수포가 됐다는 생각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 나가는 것을 느꼈다. 작품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지라도 안 만은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너무도 아쉬워서 정읍에 내려가 실시 설계안을 허가난 설계도를 보았다. 사실 설계가 잘 되어졌으면 하고 바랐다. 그러나 기대와는 멀어 보였다. 그 후 나는 건축주가 요구한 스타일에 다시 실용적인 설계안을 만들어 내려가 보여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하사였다. 이미 허가 난 것과, 안을 설명을 하여도 그 의미를 읽지 못하여 더 할 말이 없었다.

### 설계면제와 농촌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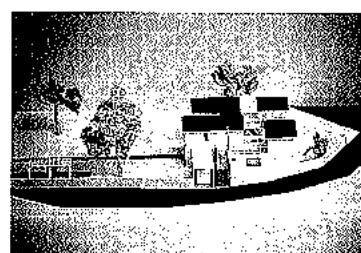
92년부터 농림수산부에서 주관한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의 시행으로 많은 집이 새로 지어졌다. 과거에도 농어촌의 새마을 사업으로 초기지붕을 스테이트 지붕으로 개량한 일이 있었으나,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사업은 집을 단순히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아주 할 마을을 조성하고 집을 새로 지어 아사하게 하는 농촌의 모습이 탈바꿈 되는 일이다. 해당 지역 관청에서는 자신들의 지역 사업이라고 생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 농민들에게 자금을 융자해 주고 표준도면을 이용하면 설계를 따로 할 필요도 없으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시공업자만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되도록하여 계획기간내에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었다.

1993년에 나와 동문 사이인 공무원 중에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 같이 새로 이룩된 마을을 둘러본 일이 있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일에 매우 큰 회의를 갖게 되었다. 새로 지어진 집이 한결같이 너무도 불편 없는 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을 짓는 데는 고급으로 짓건 낮은 단가로 짓건, 형성하는 재료와 인력의 투입에 따라 기본적으로 큰 돈이 드는 것이다. 그리고 건축이 잘되기 위해서는 투여될 자원을 전체 목적에 잘 부합되고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한 구상이 필요하며 그것이 설계 과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설계가 면제되는 일을 축복으로 여긴다.

농촌 주택을 짓는 건축주들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미처 준비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하에 일을 시작하게 되니 가급적 건축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 것이다. 그러나 설계를 생략하고 설계비 지출을 않아도 되는 것이 집을 짓는 비용면에 있어서 이득을 가져오진 못한다. 건축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접 투여되는 공사비이다. 그러므로 그 자원이 제대로 가치를 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 것일 것이며 그럴려면 합리적인 계획에 의해야 한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미리 대상을 인지하고 그 관계들을 가치있도록 적재적소로 관련시키는 일이며 영화 제작을 위한 시나리오와도 같은 것이다. 그리고 건축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 것은 결과적으로 목표한 투자 성과도 거두지 못한 것



이다. 시행자는 농촌주민에게 절차의 간소화를 강조하기에 앞서 설계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은 가치 창출에 가장 기여되고 가장 경제적인 일이 된다는 사실을 홍보해야 할 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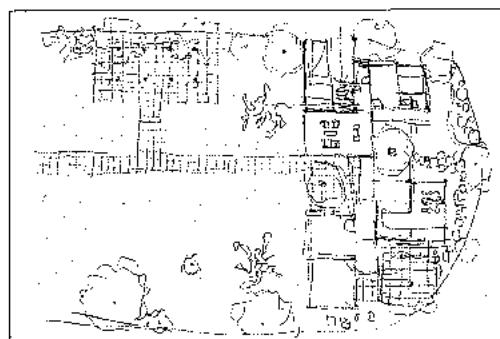
## 인간과 주택

지하철을 타고 가다 앞에 앉은 어른과 중년 들이서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어른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사는 집값에 대한 이자 비용을 계산해 보니 그 돈이면 매 일매일 고급 호텔에서 좋은 서비스를 받으며 잘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문득 정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주거에 대해 막대한 돈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따져보면 사람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지출을 하는 것이 주거비용이다.

인간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쓰는 공간이라 는 것은 결국 인위적인 셀타의 부피를 뜻한다. 인간의 신체가 쾌적하고자 요구하는 조절된 기후공간의 필요에 의해 그 공간의 크기단위로 돈을 지불하는 끝이다. 그런데 그 막대한 공간의 비용을 들이며 지은 집이 정작 쾌적하지 못하다면 큰 손해가 아닐 수 없다. 장농은 비싸다고 아끼면서도 그보다 훨씬 많은 비용을 들여 지어지는 집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한다면 잘못 지어진 집에 대해 새로 산 냉장고가 불량품을 눈속임한 물건이었을 때처럼 속아서 분한 마음을 갖듯이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집에 대해서 만큼은 잘못 지어져도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처럼 덤덤하게 생각하는 듯 하다.

주택은 인간이 사회 활동을 통해 획득한 것들을 쓰며 가족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곳으로서, 인간이 사회적 관계 이전에 본연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주택안에서 영위하는 먹고, 자는 것은 생명체의 기본적 생존 모습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위에 나타나기 이전에 자연위에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가치로도 여려가지 행복을 추구 할 수 있지만 그 나열될 수 있는 의미들이란 시대와 사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쾌적이야말로 인간에게 변함 없는 행복의 조건이다.

생태적 존재조건으로서 인간과 결부된 건축은



공간적 수요의 대응만이 아닌 건축자체가 보여지는 형상의 멋과, 빛의 투과 과정 그리고 조망되는 시선을 통해 각각이 독특한 이미지의 세계로 된다. 하나의 방은 우주의 일부로서 전체 우주와 대응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인간과 건축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그 자체에 우주의 신비로움이 담겨진다. 인간이 건축을 한다는 것, 좋은 건축안에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좋은 자연의 축복을 누리는 것과 같은 행복한 일이다.

과거에 궁궐을 지을 때는 완벽한 양식을 이루며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였다. 각 개인이 원하는 공간을 쓸모에 맞게 선택되고 수요에 쉽게 충족되어지는 이 시대 사람들은 자본주의 가치관에 젖어서 과거 궁궐을 지을 때 지니던 고상한 가치를 각자의 집에 추구하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궁궐을 짓는 일보다 각자의 집이 더 중요한 의미로 취급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궁궐은 통치 기능을 갖는 곳이지만 주택은 인간적 자아실현 장으로써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갖추게 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밝은 햇살과 맑은 바람 주변의 자연을 향수하는 넓은 시야가 펼쳐지고 조용한 둑에서 새소리를 들을 수 있음으로써 인간의 본성안에 있는 품성을 지녀갈 수 있어야 한다.

## 건축과 의뢰자

화가는 캔버스 위에 직접 물감을 칠하여 자신의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문학가는 자신의 생각을 직접 글로 써서 발표한다. 그러나 건축은 건축가 혼자서 할 수 없다. 우선 의뢰자가 있어야 하고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현대의 대부분 건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축가가 직접 짓지 않고 별도의 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도로 되어 있어서 건축가의 의도는 도면을 통해 의사표를 전달케 된다. 하지만 시공자에게 건축가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는 일은 매우 적다. 또한 건전하지 못한 자본주의 속성에 의해 건축정신이 모질게 훼손되고 있다. 많은 경우 건축가가 일을 할 때 의뢰자의 요구와 자신이 생각하는 사고의 차이에 의해 심적 괴로움을 겪고 있다. 그처럼 건축가가 다른 순수한 예술인처럼 마음껏 창작을 하지 못하고 때로는 타의에 의해 작품을 망가트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즉 건축예술은 사회의 불건전한 지향성에 의해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 그러한 환경에서 뜻있는 몇몇 건축가들만이 건축가로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선을 지키려 마치 민주화 운동을 하는 민주투사처럼 활동하고 있는 듯 하다. 때로 건축가를 현실 물정을 모르는 환상가로 치부하는 일도 있다. 르꼬르뷔제는 자신의 건축의 문제는 항상 의뢰자와의 문제였다고 하며 「반대하는 사람은 지옥까지 쫓아와 반대할 것이다」며 비통해 하였다. 건축은 천재가 하기에는 너무 지루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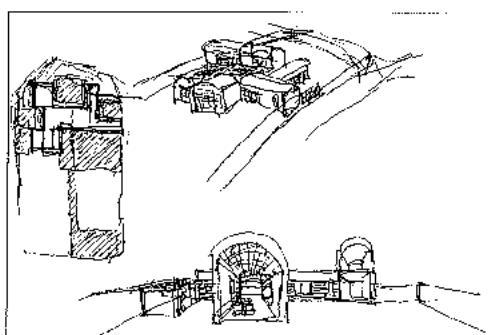
사회적 관계가 많은 작업인가 싶다.

## 대중과 건축작품

뜻있는 분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건축에 대한 인식은 크게 개선되어 보이지 않는다. 나는 건축의 질이 향상되려면 무엇보다도 대중의 인식 속에 건축이 인간의 삶에 정신적 풍요로운 환경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 본질적인 이해속에 고상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 가운데 어찌보면 유독 건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우리보다 소득이 적은 나라보다도 낮아 보인다. 나는 그 주된 이유가 과거 정부가 추진한 팽창지향적 경제개발 정책의 물결을 타며, 건축이 재산증식의 수단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80년대 중반까지 당시의 중년 이후 연배들은 이사를 재산 증식 수단의 하나로 다녔던 세대이다. 그리고 이른바 농부인 봄에 의한 부동산 열풍으로 건축은 그 자체의 고유 의미보다는 일확천금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져 왔다. 그리하여 대중이 건축을 대하는 태도는 작품성은 고사하고 건축이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관련하여 지켜져야 할 건전한 준법성과 윤리의식을 져버리면서까지 미구 지으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준법 정신에 비춰볼 때 상대적으로 건축에 관해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풍토였다. 그리고 그러한 좋지 않은 풍토는 우리 사회내에서 건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해 왔다.

태초에 생존을 위해 인간이 자연과 관계맺는 방식으로부터, 인간과 건축 그리고 인간사회 형성과 결부된 도시는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인간사회가 양적 인 건설에 치중하여 생태와 정서에 관한 중대한 의미를 간과해온 사이,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이 사는 환경을 점차 척박하게 만들어가는 꼴이 되었다.

우리가 금강산을 찾아가는 것은 금강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며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것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을 따로 재현할 수 없다. 하나의 건축은 경관좋은 자연이 감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개



가 독특한 감동을 유발하는 심미적 대상이 될 수 있다. 건축은 기후에 대응하는 쉘타로 일차적인 기능이 충족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실제로 인간에게 기여하는 것은 좋은 균형을 갖춘 사물이 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정서 작용이다. 그것은 흔한 자연 사물을 보석과 같은 축복스런 상태로 되는 일로서 회화나 음악, 조각과 같은 예술적 힘을 발산하게 된다. 하지만 그러한 결과는 건축의 가치를 올바로 추구할 경우에만 얻어질 수 있다. 사실 과거 오랜 역사동안 건축은 고귀한 이미지로 인식되어온 전통이 있었으나 근대이후 자본주의 속성에 의해 점차 희석되어지는 경향이다.

좋지 않은 자연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좋은 자연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한 것처럼 좋지 않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집에 대해 똑같은 투자를 통해 비교적 좋은 상태로 되게 하려는 인식을 잘 갖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이 좀 더 나은 삶의 가치를 추구해 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 생명체인 인간이 원초적으로 생존과 결부된 자연의 기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축 또한 그렇게 의식해야 할 중대한 인간 환경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알려 하지 않아서 설계자와도 많은 대화를 원치 않는다. 정부의 표준 설계도면을 적용할 때 설계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게 되기라도 하면 그것을 공짜로 득을 보게 된다하여 신나는 일로만 생각하지 설계를 꼼꼼히 할에 의하여, 투여된 자원이 보석처럼 될 수도 있고 쓰레기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막대한 돈을 들인 집이 아무런 쓸모나 볼품도 없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사회에서 건축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는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아는 건축집지에 관계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집을 지은 경험을 나에게 얘기하며 농촌주택도 좋은 건축기를 만나서 잘 지을 수 있는 캠페인을 벌여 나가고 싶다고 하였다. 참으로 좋은 생각이라고 맞장구를 쳐 주었다.

앞으로 건축의 가치가 올바로 인식되어 그 가치를 공유하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건축을 제대로 실현하기가 너무도 힘겨운 처지이다. 건축가의 아이디어와 자본의 투자가 상승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한 건축은 오늘과 같은 딜리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인간의 고상한 가치가 물질적 이기에 의해 자주 배척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축은 다양한 가치를 지니는 까닭에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려는 유혹이 뒤따르며 그 욕망에 힘을 끌 위험이 큰 분야이다. 사회는 건축가를 가급적 현실문제에 억매이게 하지 말고 꿈을 키우고 보다 나은 인간사회를 위해 그 꿈을 그리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 인·허가 비리 척결에 있어 건축사의 역할

## The Role of Architects in Exposing Unlawful Registration and Licensing

리인철 / (주)세공간 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In-Cheol

### 생각1. 공화심(共和心)과 좋도록주의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위위심(爲爲心,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 위위심이 자기 만족에만 국한되면 이기심(利己心)이고 타인을 위해서만 성립된다면 이타심(利他心)이 된다. 이기심이 지나치면 도덕이 무너져 혼탁한 사회가 초래되고 이타심만 강조된다면 자기희생이 전제가 되므로 행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체주의사회(全體主義社會)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적인 도덕성이 동시에 유지되려면 이기심과 이타심이 잘 조화되는 공통분모적인 중庸(中庸)의 마음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공화심(共和心)이라 한다. 사람이 사회를 떠나 존립할 수 없는 존재라면 나와 나를 포함한 사회가 균형적으로 화합하는 공화심은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윤리개념이다.

그런데 공화심의 탈을 쓰고 마치 나와 타인을 위해 최선인 것처럼 위장한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주의주장(主義主張)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 「좋도록주의」라 한다. 이 사회가 너와 나만 존재하는 이원적(二元的)사회라면 「좋도록주의」는 아무 비판없이 최선의 덕목일 수 있지만 이 사회가 너와 나만이 아닌 다수의 제3자가 포함된 공화체(共和體)라면 「좋도록주의」는 어쩌면 이 사회를 망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라 할 수 있다.

### 생각2. 대중적이면서도 자기표현을 해야 하는 건축사

건축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적 문화인 의·식·주 3대 문화중 주생활문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며 실 행적 실체이다. 또한 오늘날의 건축은 단순한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써 도시미관을 좌우하는 거의 절대적인 핵심체이며, 자연의 파노라마 속에서 그 시각적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동적인 수단이다.

사람들의 의식은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에 영향을 주고 새로지어진 건축물은 다시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 사람들의 의식이 건축사조(建築思潮)를 놓았고 건축사조는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해 왔다. 이러한 반복되며 변화되는 현상이 건축문화

사(建築文化史)이며 한시대의 건축문화는 그 시대의 생활상이나 이념 등이 조영(照映)되기 때문에 그시대의 총체적인 문화를 비추는 거울도 될 수 있다. 다양한 기능과 심미안적 차별성을 요구하는 현대건축에 있어서 이것을 요구하는 주체는 대중이요 사용자들이지만 이들을 선도하는 이는 건축사다.

건축사의 철학적 사고나 안목 또는 노력여하에 따라 건축물을 편하고 아름다운 조형물로 창작할 수도 있지만 처치곤란한 괴물덩어리로 만들 수도 있다. 편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을 설계하려고 하는 건축사는 자기표현을 하는 진정한 예술가이지만 처치곤란한 괴물덩어리를 설계하면서 그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건축사는 악덕 사업가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는 대중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도 건축설계를 통해 자기표현을 해야만 한다.

### 생각3. 건축사의 자기표현을 방해하는 요소인 「좋도록주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개념을 한정시키는 요소는 크게 4가지이다. 첫째는 주변환경을 포함한 대지형상이고, 둘째는 설계프로젝트의 사업성, 즉 건축주의 요구조건이고, 셋째는 건축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농지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각종 법규이다. 그런데 건축사의 설계개념을 한정시키는 네번째 요소는 무엇일까?

그 네번째 요소는 바로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의 처분권행사이며 여기에 부가하여 건축심의위원의 선결적인 심의방향이다. 건축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은 건축 인·허기에 관한한 공익을 전제로 없는 법을 만들어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을 평계로 불법적으로 기부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축심의위원과 짜고 법에도 없는 불필요한 건축심의를 상정하여 건축물의 총수나 규모를 마음대로 조정하여 건축주의 사업계획을 바꾸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공무원의 그릇된 처분권행사의 배경은 좋은게 좋은 것이라는 「좋도록주의」이고 좋도록주의의 목적은 뇌물이다.

법에도 없고 이론적 근거도 없는 단순히 “자연 경관과 어울리게 설계하라” 하며 시간을 질질 끈다. 공무원의

시간끌기에 지친 설계자나 건축주가 그 공무원에게 “좋은게 좋은 것 아닙니까? 얼마 안되지만 성의니까 받아주세요”라고 하며 뇌물을 주고 그 공무원은 뜻이기는 체하며 그 뇌물을 받는다. 공무원의 유도로 「좋도록주의」가 성립되는 순간이다.

좋도록주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건축허가신청 부지 현장에도 안가본 심의위원의 가공할만한 심의결과가 기다린다. “스카이라인이 심하게 훼손되니 건물총수를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낮출 것” ……

이렇게 행정상 ‘기속처분권’과 ‘기속재량처분권’을 ‘자유재량처분권’화 하며 이것을 「좋도록주의」와 합성하는 것이 건축 인·허가 비리의 원리(原理)인 것이다.

### 생각4. 건축사가 건축 인·허가 비리척결에 앞장서야 하는 이유

건축사에게는, 건축사가 건축활동을 하는 기반은 건축주에게 있으므로 건축주를 만족케 하는 이타심이 있고 또한 자기표현을 극대화하여 건축물을 예술창작품으로 빛어냄으로써 자기완성을 하려는 두렷한 이기심이 있다.

그런데 건축은 건축주와 건축사를 포함한 대중 및 그 시대문화의 영향을 주는 실행적 실체이므로 이타심과 이기심이 잘 조화된 공화심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화심의 탈을 쓴 「좋도록주의」는 공무원의 처분권을 오용(誤用)케 함으로써 건축사의 창작의욕을 충폐화시키며 건축주의 사업을 망치고 결국 이 시대의 건축풍토를 해치는 건축 인·허가 비리의 근원이므로 이를 잘 알고 있는 건축사가 스스로 「좋도록주의」를 타파함으로써 건축 인·허가 비리 척결에 앞장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필자가 이산시청의 건축 인·허가 부정부폐에 대하여 언론에 공개한 것은 나를 회생시키려는 이타심이지만 그 회생은 결국 우리 건축계의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음으로써 건축사의 건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건축문화를 제고하는 공화심에 기인된 것이므로 우리 건축사들의 동참을 기대한다.

# 아카시아 포럼이란?

## Introduction ARCASIA Forum

지난 호에서 개괄적으로 설명한 아카시아(ARCASIA)에 대해서 이번 호부터는 목적이나 연혁 및 중요한 행사 등을 설명한다. 먼저 지난 호에서 잘못 표현된 것을 바로잡는다. 아카시아 학생건축상은 ARCASIA Students Prize(아시아건축상은 Award일)이다. 이번 우리협회가 주최하는 제10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의 주제는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Technology, Tradition in Architecture)'으로 수정되었다. 지난 2월 피·카시(P. Kasi) 아카시아 신임의장(Chairman ARCASIA)의 우리협회 방문시 다각적으로 행사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아카시아 자체가 아시아에서의 일인으로 굳이 아시아를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중자를 모아 수정한 것이다. 그리고 친교행사 항목은 주최국에 따라서 조금씩 달리 구성한다. 개막식과 환영만찬을 함께 하기도 하고 구분하기도 한다. 또한 무정의 밤과 폐회만찬은 문화의 밤(Cultural Evening)을 별도로 넣고 폐회만찬에 무정의 밤을 함께 하기도 한다. 이번 대회에는 개막식에 환영만찬을 걸들이고, 문화의 밤에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 무엇을 보여주고, 폐회만찬 시 무정의 밤 행사를 함께 함으로써 참가국들의 장기자랑을 끝으로 공식일정을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아카시아 학술토론회(ARCASIA Forum)를 중심으로 회원국 및 지역구분, 연혁 등을 아카시아의 규약(Arcasia Constitution) 및 정관(Arcasia Bye-laws), 그리고 점검표(Checklist)를 참고로 하여 소개한다. <필자주>

아카시아(ARCASIA,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는 아시아지역의 회원국건축사협회의 회장들로 구성되는 협의회(Council)을 실제회의에서는 이사회라 하고 전체를 지칭할 때는 협의회라고 해둔다. 이 이사회는 아시아지역에서의 건축이라는 직업에 영향을 주는 사안들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집단적인 방향을 제시하거나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마다 모인다. 아카시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민주적 비탕 위에서 우호적, 자적, 예술적, 교육적, 과학적인 유대관계를 기르기 위해 아시아지역의 각국 건축사협회의 결속
- 회원협회간에 직업적인 연결, 또는 상호협력 및 조력의 촉진 및 유지
- 회원협회의 건축가/건축사들의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참여
- 사회 속에서 건축가/건축사의 역할 인식의 고취
-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가/건축사의 개발 및 교육의 장려
- 건조환경(the Built Environment)이라는 분야에서 연구 및 기술적 진보의 증진

지난 호에서도 간략히 언급했듯이 아카시아는 1967년 인도 뉴델리에서의 영연방건축가협회(CAA, Commonwealth Association of Architects)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연방건축가협회 회원국 중에서 아시아에 위치한 6개국(이들은 후에 아카시아의 창설멤버가 된다)은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흥콩이었고 이들에게는 환경설계 및 통일성에 관한 일종의 지역센타의 필요성이 절실했다. 당시 환경 및 기술증진 센터(CETA,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Technical Advancement)와 아카시아설립협의회(ARCASIA Formation Council)라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 최초의 설립협의회(1969~1974)는 1970년 9월 CAA의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장래집회와 아카시아를 공식적으로 ARCASIA, the Architects Regional Council Asia로 부르기로 결의했다.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모임이기를 원하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각회원국들간에 긴밀한 활동관계를 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이 구성되었다. 지금의 많은 회원국들은 이미 국제건축가연맹(UIA)의 회원이다. 1970년 인도네시아(IAI)가 참관인 자격으로 참석하였고, 1972년 방글라데시(IAB)와 타일랜드(ASA)가 회원이 되었고, 1974년 필리핀(UAP)이 참관하였다가

1977년 정식회원이 되었다. 홍콩에서 최초의 설립협의회 결성한 지 10년 후인 1979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아카시아규약(the Constitutions for ARCSIA)과 아카시아건축교육위원회(ABAE, ARCSIA Board of Architectural Education)가 승인(Sign)되었다. 이때 참석한 회원협회는 다음과 같다.

- 홍콩(HKIA,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 인도네시아(IAI, Ikatan Arsitek Indonesia)
- 말레이시아(PAM, Perbuan Akitek Malaysia)
- 타일랜드(ASA,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 싱가포르(SIA,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 필리핀(UAP,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

이리하여 아시아건축사협의회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이 새로운 아시아각국의 건축사협회회장(또는 대표건축사)들의 협의회/이사회(council)에서 두문자(頭文字) "ARCSIA"는 그대로 고수하기로 했다. 1980년 10개국 협회가 규약에 서명(Endorse)을 했고 그해 8월 제1회 아카시아이사회(the First Council Meeting of ARCSIA)와 제1회 건축교육위원회(ABAE)가 방콕에서 열렸다. 이로서 타일랜드가 각회원국들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할 연례회의(Regular Annual Meetings) 주최국 우선 순서가 되었다. 1981년부터의 연혁에 대해서는 이번의 아카시아 학술토론회(ARCSIA Forum) 및 다음 호에도 계속될 아시아건축사대회(ACA)에 포함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981년이후에는 정기적으로 회의가 열리고, 회원국은 대개 참관자로 참석했다가 이듬해나 몇 년 후 승인을 받아 정식회원국이 되어 1997~1998년 현재 15개국의 건축가/건축사협회가 회원이며 1998년 베트남(VAA)이 입회승인 되었다. 점점 협의내용이나 발표내용이 다양해진다.

## 회원협회 및 사무국 조직

### ■ 회원협회(ARCSIA Member Institutes 1997~1998)

- 방글라데시(IAB, Institute of Architects, Bangladesh)
- 중국(ASC, Architectural Society of China)
- 홍콩(HKIA, Hong Kong Institute of Architects)
- 인도(IIA, Indian Institute of Architects)
- 인도네시아(IAI, Ikatan Arsitek Indonesia)
- 일본(JIA, Japan Institute of Architects)
- 대한민국(KIRA,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미카오(MMA, Macau Institute of Architects)
- 말레이시아(PAM, Perbuan Akitek Malaysia)
- 몽골리아(UMA, Union of Mongolian Architects)
- 파키스탄(IAP, Institute of Architects, Pakistan)
- 필리핀(UAP, United Architects of the Philippines)
- 싱가포르(SIA, Singapore Institute of Architects)
- 스리랑카(SLIA, Sri Lanka Institute of Architects)
- 타일랜드(ASA, Association of Siamese Architects)
- 베트남(VAA, Vietnam Architects' Association): 참관자자격

회원협회는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 다음 3개의 구역으로 구분하고 신규회원국은 위치가 맞는 구역에 속하게 된다.

### ■ 3개 구역(ARCSIA Zones)

- Zone-A: 방글라데시, 인디아, 파키스탄, 스리랑카
- Zone-B: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타일란드, (베트남)
- Zone-C: 중국, 대한민국, 몽고, 일본, 홍콩, 미카오

### ■ 의장단의 구성(Office Bearers)

의장단의 구성은 학술대회인지, 건축사대회인지,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운영되나 기본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아카시아의장(Chairman ARCSIA)
- 아카시아부의장(Deputy Chairmen ARCSIA)
- Zone-A Zone-B Zone-C
- 서기(Honorary Secretary ARCSIA)
- 회계(Honorary Treasurer ARCSIA)
- 전임의장(Immediate Past Chairman)
- 고문- I (Advisor- I )
- 고문- II (Advisor- II )
- 교육위원회 의장(Chairman ACAE)
- 주최국의장 및 아시아건축상 의장(Convenor ACA/FORUM & Convenor ARCSIA Awards)
- 뉴스레터 편집장(Editor ARCSIA Newsletter)
- 잼버리 의장(ARCASIA Student Jamboree Convenor)
- 펠로우쉽 의장(ARCASIA Fellowship Convenor)

## 아카시아 학술토론회(ARCSIA Forum)

### ■ 아카시아 학술토론회

아카시아 학술토론회는 이 지역에 가장 적합한

당대(當代)의 건축적인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토론하는 하나의 장(場)이다. 이는 아시아라는 상황에서의 건축과 환경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아시아식 “생각사출기(Catapult of Minds)”로서 역할을 하고자 하는 저명한 건축가나 사상가들의 회합이다.

아카시아학술토론회(Forum)가 처음부터 아시아건축사대회(ACA)와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열렸던 것은 아니었다. 앞에 주요연혁에 이어서 1981년부터 1987년까지의 연혁을 보면 최초의 학술토론회(1982년)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워크숍의 형태로 행사를 치렀다. 1981년 3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차 아카시아 워크숍이 열렸다. 필리핀이 작성한 컨설팅 업무를 위한 윤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대한 문서를 후에 1983년에는 10개국 모두가 서명을 했고 이 문서는 1981년 국제건축가연맹 바르사바대회에서 거론되었었고, 같은 해 CAA 나이로비회의에서 그리고 공학회 아시아연합 및 국제기술사연맹에서 발표되었다. 계획 및 주거 아시아협회(The Asian Association for Planning and Housing)는 이미 이 문서를 받아들였고, UIA도 1987년 이 문서를 받아들였다.

1981년 8월 홍콩에서의 제2차 아카시아 워크숍은 주로 실무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의제들을 논의했다. 유한책 입파 협업; 자국내의 실무체계; 건축가의 유동성; 건축가의 역할과 실무규약 등이다. 1982년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드디어 제1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the first ARCSIA Forum)가 시작되었다. 1984년 필리핀 마닐라에서의 제2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는 아카시아 최초의 대규모 국제대회인 제1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1, the first Asian Congress of Architects)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때 우리협회(KIRA)가 참관자격으로 참석했고 그 이듬해인 1985년 인도 봄베이 이사회에서 11번째의 아카시아회원으로 입회승인이 되었다. 198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제2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2)와 제3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가 함께 열렸다. 1987년에는 인도네시아건축사협회(IAI)의 주관으로 발리에서 제4차 아카시아학술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앞서 이사회에서 그때부터는 건축사대회와 학술토론회를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기로 했고 이듬해 1988년 우리협회(KIRA) 주관으로 열렸던 ACA-3부터는 짹수 해에는 건축사대회를, 홀수 해에는 학술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 주제 및 개최(Theme, Venue, Date)

아카시아 점검표(ARCSIA Checklist)에 의하면 주제(Theme)는 반드시 아시아 상황에서의 디자인 문제들 중에서(Amongst Design Issues in the Asian Context)

택해야만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그 동안의 주제들을 보면 건축사대회(ACA)의 주제는 비교적 건축사라는 직업과 사회와의 관계나 전략들, 또는 환경개발의 차원에서 아시아 건축가/건축사들의 역할 및 건축의 기여도 등에 관한 것들이 반면에 학술토론회(Forum)의 주제는 아시아라는 상황에서의 건축 및 도시의 주체성 내지는 고유성을 중심으로 무언가 생각을 하는 것들을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토론회 주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건축에서의 기술과 전통”이다.

연사(Speaker)들은 매회 3~4인에서 6~7인 정도이며 토론자들이 별도로 있다. 연사로 그 동안은 회원국들의 건축가나 사상가들이 초청되었었으나 최근 들어 세계화의 추이에 따라 서구에서 유명건축가를 초청하는 경향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한다. 8차 토론회(1995 싱가포르)에서 렘 쿠하아스(Rem Koolhaas)와 9차 토론회(1997년 일본)에서 영국의 니콜라스 그림肖(Nicholas Grimshaw)가 초청된 외에는 아시아의 건축가들이 연사였다. 한국인 건축가로는 서울포럼의 김진애박사가 9차 토론회 연사로 초청받았었고 토론회가 아닌 ACA-5(1992년 파키스탄)에 성균관대학교 이상해교수가 연사로 초청 받은 바 있다.

- Forum 1 주 제: 건축에서의 혁신 (Innovation in Architecture)  
개최: 1982년 10월 스리랑카 콜롬보  
디렉터: 로날드 품(홍콩)
- Forum 2 주 제: 아시아의 주체성(Asian Identity)  
개최: 1984년 10월 필리핀 마닐라  
디렉터: 로날드 품(홍콩)
- Forum 3 주 제: 아시아건축에서의 설계경향  
(Design Directions in Asian Architecture)  
개최: 1986년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디렉터: 로날드 품(홍콩)
- Forum 4 주 제: 나의 건축(My Architecture)  
개최: 1987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  
디렉터: 로날드 품(홍콩)
- Forum 5 주 제: 아시아건축에서 사고(思考)의 양식  
(Food for thought in Asian Architecture)  
개최: 1989년 10월 타일란드 방콕  
디렉터: 로날드 품(홍콩)
- Forum 6 주 제: 아시아 상황에서 집단 주거의 신사고(新思考)  
(New thought in Mass Housing in the Asian Context)  
개최: 1991년 9월 중국 베이징  
디렉터: 로날드 품(홍콩)
- Forum 7 주 제: 사라져가는 아시아 도시들(The vanishing Asian cities)  
개최: 1993년 9월 홍콩  
의장: 지미 린(말레이시아)
- Forum 8 주 제: 아시아세계의 아시아의 도시들(Asian Cities in Asia's Century)  
개최: 1995년 11월 싱가포르  
의장: 지미 린(말레이시아)
- Forum 9 주 제: 아시아에서 미래의 건축(Architecture of the Future in Asia)  
개최: 1997년 9월 일본 도쿄  
의장: 고이치 나가시마(일본)

(글/조인숙, 본협회 국제위원, 다리건축)

## 20세기초의 한국건축

Korean Architecture of the Early Twentieth Century

윤인석 /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by Yoon In-Suk

### 한국건축 20세기의 시작

한국건축의 20세기 첫 해(1901년)는 경운궁(덕수궁)에 서양식 건축물이 세워지면서 시작되었다. 물론 그 전인 1890년대에는 이화학당의 서양식 교사와 한미전기주식회사가 세워져서 19세기 말부터 진행되어 오던, 산업과 교육분야에서 변화가 구체적인 결과로 건축에 반영되기 시작한 바 있었다.

하지만 전래의 목조기와 건축물로 이루어진 정전의 궁궐에 서양식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변화의 물결을 중앙정부에서 스스로 안으며 타 넘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었다.

종화전 주변에 세워진 건축물로는 정광현, 돈덕전, 구성현, 중명전, 환벽정 등이 있었고, 석조전이 막 건축되기 시작하였다.

이 보다 앞선 1876년 개항을 전후하여 한국에는 외래문물이 이입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건축도 포함되었다.

여기에서부터 한국건축문화는 중요한 변환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의 중요한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검정 기와지붕, 목조건축을 기본으로 하는 전래의 고유 건축문화를 형성하고 있던 이곳에 전혀 다른 세계의 문화가 갑자기 밀려 들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이질적인 건축물들은 그 유입경로가 다양한데 동아시아 각국의 사정에 따라 다르다. 그중 한국은

다음 다섯 가지의 유입경로로 나눠볼 수 있다.

① 개항초기 조계(租界)에 지어지는 외국인들의 건축물

② 그 후, 서울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외국외교 공관과 상업건물

③ 미션계통의 교회와 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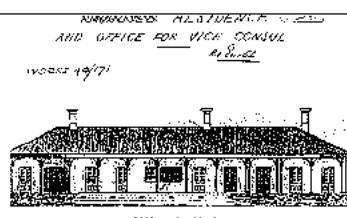
④ 일본계의 유사서양식 건축

⑤ 한국인 스스로 외래문물에서 자극 받아 새로운 시도를 한 것.

이러한 경로를 통해 이 땅에 들어와 세워진 건축물들이 서울의 경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고 있을 무렵에 20세기는 시작되었다.

이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외국으로부터 갖가지 경로를 통하여 이 땅에 선보인 건축물에서 한국의 장인들은 많은 것을 영향받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 유학생들을 파견하여 서양문물을 받아 들여서 소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배워 왔으며, 또 국내에 세워져 있는 서양식 건축물을 보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느꼈으며, 우리의 건축물에도 시도해 보기 시작하였다. 이는 민간에서 뿐 아니라 관(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외국의 기술자를 초빙하기도 하고 기술자 양성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경운궁내에 서양식 건축물들이 들어서고 석조전 같은 대규모의 건축공사를 시작한 것은 한국사회가 그 만큼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고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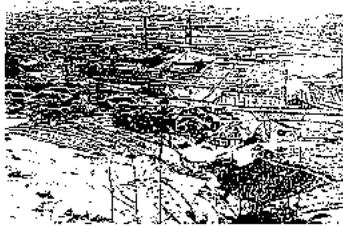
인천 영국 영사관



인천 중국조계의 주택



서울세관



탁지부건축소의 마포벽동공장



충무로입구(19세기말)



20세기초 종로

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운이 곧 닥치는 일본의 침략으로 주권을 잃으면서 그 주도권을 잃어 버림으로써 그 맥이 끊어졌다. 그저 실낱같은 정도로 이어졌다. 오늘날 생각해봐도 아쉽고 원통한 일이다. 이는 오늘날의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20세기의 서두를 장식하였던 경운궁의 서양식 건축물을 살펴보는 것을 시작으로 우선 건축물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건축의 연대기적 기록들을 들추어 보고 이러한 건축적 현상들을 빛내 낸 사람과 주변상황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새로 맞을 세기를 준비하는데 참고로 하고자 한다. 단, 필자가 다루는 것은 1950년대 말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20세기초의 건축

민간에서 이질적인 건축의 모습을 보고 이 땅의 건축기술자들은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건물의 기능이 순식간에 변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목조에 전래의 기와지붕의 형태를 떠면서 2층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기능도 도입되어 상점과 주거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까지는 없던 건축형태들이 등장하였다.

그중에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2층에 발코니가 설치된다거나 난간과 기둥의 장식은 서양식과 중국식

등 여러가지 경향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마도 사회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능이 건축에 침가되면서 오랜 동안 이어져온 이 땅의 건축적 전통이 새로운 움직임을 나타내 보이는 시기라 여겨진다. 이 시기 일본의 화양절충현상, 유사 서양풍 건축과 중국의 민족양식 건축이 우리의 이러한 현상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사회 전반적으로 주권을 스스로 가지고 있으면서 변화현상들이 생겨났지만 우리의 경우 그렇하지 못했다. 앞에서 생겨난 한양절충의 현상, 새로운 기술과 건축적 해법들을 스스로 터득하고 접목하려는 의지와 시도가 싹을 조음 주권을 잃고 일본의 체제 속으로 편입되어 버리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 사이에 세어진 건축물로는 경운궁내의 서양식 전각들을 비롯하여, 상동교회, 손탁호텔, 천주교 원효로 성당, 세브란스 병원, 인천 영화학교 교사, 경신학교, 휘문의숙 본관, 종로 YMCA회관, 서북학회 회관 등이 있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고 일본에 의한 차관 정치가 시행되자 건축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일본계통의 외래건축이 폭과 깊이를 더하여 밀려 들어 왔다. 조금 일찍 서양식 문물을 받아들인 일본인 관리와 기술자들이 통감부를 통하여 주요 부서에 포진하면서 그들의 학습내용을 이곳에 이식할 준비를 하고 마침내 정부의 충무업무를 관장하는 탁지부에 건설관



20세기초 YM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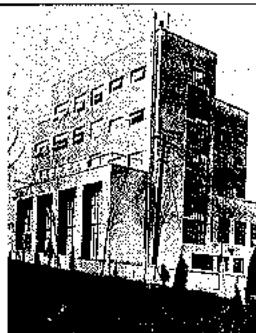
번사청



경운궁 정관헌



조선은행 본점



일본인 기독청년회관



경성중앙전화국

제 일을 담당할 건축소를 설치하여 각종 공공건축물과 항만시설물 설계와 건설공사를 주관하였다. 이 기관에 의해 당시에 세워진 건축물로는 대한제국의원, 광통관, 건축소청사, 내부청사 등이 있다. 모두 당시 일본이 이해하고 일본에서 적용, 건축해 보았던 유사서양식 건축이거나 르네상스 양식에 기초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 모습이었다. 건축재료로는 아직도 목골조에 비늘판 불임마감이거나 벽돌조였다.

이 시기에 기록할 만한 것은 대규모 벽돌제조 공장을 서울 교외에 세웠다는 점이다. 당시까지 벽돌, 특히 붉은 점토벽돌은 명동성당 건설을 위해 프랑스 신부에 의해 용산에 기마를 설치해서 제조한 적은 있었으나 대량으로 일반적인 공급을 하지 못하였다. 이때 새로운 경제활동 무대로 한국을 생각하며 발을 내디딘 일본인들이 한국의 겨울추위와 방화, 내구성을 생각하여 대량공급을 위해 마포에 건축소에서 운영하는 벽돌제조공장을 건설하였다. 당시로서는 신공법에 해당하는 호프만식 제조법을 사용한 벽돌기마가 2기 건설되어 일본인 뿐 아니라 이 땅의 벽돌공급을 일정기간 담당하였다.

### 일제 강점기의 건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고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모든 것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주

도되는 시대가 되었다. 이때부터 1945년 광복때까지 소위 관(官)에 의해 세워진 건축물은 총독부 철도국청사, 신의주역사, 조선호텔, 경서우편국, 총독부 박물관, 경성부청, 조선총독부, 총독부 도서관, 경성역사 등이 있다.

대체적인 특징은 20세기초에 르네상스 양식에서 출발한 관공서 건축물들이 재료와 양식적인 면에서 본격적인 서양식 건축물로 바뀌어 갔다. 그리고 1926년 조선총독부청사의 완공을 마지막으로 대규모 건축물에서 서양의 양식주의적 건축물의 건립은 현저히 줄어 듈다. 한국에 발을 들어놓고 경영하기 시작한 지 30년간은 각종 관공서를 전국에 세워야 했고, 그들이 이해하고 시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유사서양식을 거친 양식주의 건축물을 세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권위를 과시하는 데에도 그러한 건축물들이 어울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부터는 구미각국에서 발흥하고 전세계로 퍼져나가던 모더니즘 건축이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상공장려관으로 오늘날 무역종합전시장 같은 기능의 건물로 서울 남대문 서쪽에 건립되었다. 외관은 그 기능에 걸맞게 시대의 첨단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남대문 로터리의 곡선가로를 따라 휘어진 형태로 호피스와 전시장을 겸하고 있었다. 외관은 아무런 장식없이 기능적으로 필요한 창을 내고 곡면을 따라 발코니가 붙어



조선은행 군산지점



전주역사



상공장려관



조선시정 25주년기념 미술관



조선별령 반도호텔



조선생명보험사옥

있는 것이 동아시아 전역을 놓고 볼 때 이 만큼 완성도 높은 모더니즘 건축물은 찾아보기 힘들다.

조선총독부의 설계조직이 이 땅의 건축계를 이끌어가는 시대였는데 관의 조직으로서는 꽤 진취적인 경향의 건축을 설계하였다. 상공장려관 외에도 적십자가 조선지부, 일본인 기독청년연맹회관 같은 것들이 있다. 그리고 경성부청, 부산시청, 전남도청, 전남 평의원의회와 같은 관청건축이 있다.

이렇게 이 땅의 건축계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동안 한국인 건축가들이 성장하여 일군을 이루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했던 전통건축의 목수들이 새로운 건축물을 보고 나름대로 절충적 건축물들을 만들어 내던 상황에서 세월이 좀 더 지나면 우리 나름대로 자생적 근대건축문화가 꽃봉오리를 맺으려는 참이었는데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그 쪽이 잘려버린 채 약30년이 지난 다음이었다. 총독부에서 운영하던 경성 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서 서양식 건축교육을 시작한 지 3년만에 첫 한국인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그 중 두각을 나타낸 사람이 박길용이었는데 그는 조선총독부에 실무경험을 쌓은 후 독립하였다. 그의 대표작은 화신백화점으로 당시 일제치하에서도 한국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던 종로의 큰 네거리에 의풍당당하게 서 있던 이 건물은 장안의 큰 백화점으로서 한국인 자본가에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하여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를 던져주는 건물이었다. 박길용의 설계사무소는 당시의 한국인 건

축가들이 모여서 사국애기도 하며 수탁된 일감들을 나누어 맡기도 하고 협동으로 일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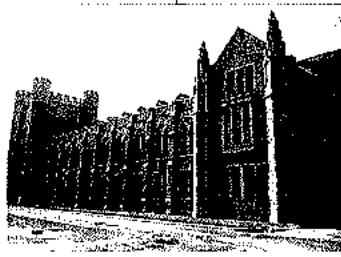
당시 건축계 구성을 보면, 관·민·학계 공통적으로 일본인들의 주도하에 10% 안팎의 한국인 건축가 또는 기술자들이 분투하고 있었다.

박길용의 뒤를 이어 박동진, 김세연, 장연체, 김순하, 유상하 같은 사람들이 경성고공 졸업후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서부 등의 관조직을 거치면서 실무경험을 쌓았고 박인준, 강윤 같은 사람들은 미국, 일본 등지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한 사람의 건축가로서 활동하였다. 당시 건축계의 구성을 볼 때는 미약한 존재였으나, 광복후 이들 10%의 한국인 건축가, 기술자들은 일본인들의 철수 직후 이 나라의 건축·건설행정을 비롯하여 건축계 전반을 이끌어 나가는 중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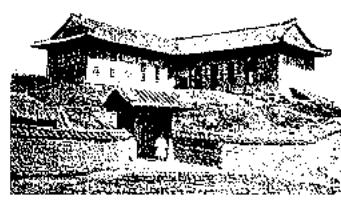
박동진은 보성전문학교 본관, 도서관, 중앙중학교 본관 같은 민족자본가의 육영재단 건축물을 주로 설계하였는데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석재미감의 디자인에 능숙하였다. 강윤은 일본의 관서고공을 졸업한 후 당시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 건축가 보오리즈의 설계사무소에서 입소해서 기독교 계통의 건축물 설계를 통하여 경험을 쌓은 후 보오리즈 설계사무소의 경성지사 책임자로서 귀국하여 역시 미선계통의 건축물을 설계하였다. 그 중 이화여대의 교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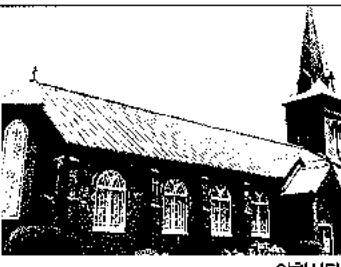
대영성서공회



보성전문학교 도서관



장대현 교회



Methodist Church



Taehwa Hall



Pyongyang Normal School

보오리즈의 경향이 보이고 있다. 1930년대에 건축한 기독교 태화관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모였던 태화정을 헐고 새로 지은 것이데 태화정의 기와지붕 재료들을 재활용하느라 고 채플과 오피스, 복지시설의 기능을 가진 건물 몸체에 기와 지붕을 올려 한국적 정취를 풍기는 것이었다. 오늘날 흔히들 이야기하는 버내컬러 건축의 대표적 걸작으로 평가할 만한 것 이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전반적인 건축의 형태는 모더니즘, 특히 국제주의적 양식의 건축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잡지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세계적 조류를 감지하고 설계를 하였다.

한청빌딩, 종로백화점, 동일은행 남대문지점, 임가장 빌딩, 영보빌딩, 동경건물회관 등이 한국인 건축가들이 설계한 국제주의적 양식의 건축물이다.

1940년을 전후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시작한 일본에 의해 전시체제로 들입함으로써 주목할 만한 건축물은 많이 세워지지 못했다.

단 일제말기에 들어서면서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던 일본의 건축계에서 휘몰아치던 제관양식의 건축물들이 세워졌다. 즉 기능주의적 건축물에 일본식 기와지붕을 올리는 건축물이 한국에도 세워졌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태화 기독교 사회관과는 다른 이념이 강력하게 주입된 것이었다.

### 광복후의 건축

1945년 8월! 광복! 어찌보면 준비안된 상태로 독립한 한국의 건축계는 일본인이 돌아간 후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의 인원으로 그것도 고도의 기술보다는 하위직의 일을 맡았던 경험을 토대로 새나라 건설에 혼신하였다.

즉 광복 다음달 당시에 활약하던 건축인들이 모여 「조선건축기술단」을 결성하였고 대단히 의욕적인 사업을 펼쳤다. 우선 「조선건축」을 발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건축용어 제정 및 배포, 한국 건축사 연구, 국민주택현상공모 사업을 행하였다. 더욱이 단체는 후에 「대한건축학회」로 발전·계승되어 우리나라 학술단체중에서 가장 일찍 결성된 학회로 기록되고 있다.

광복후 6.25직전까지 세워진 건축물을 간추려 보면 성북경찰서, 용산 제3아파트, 용산 모터풀, 종로국민학교, 종로구청사 등의 관이 설계조직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동도극장, 영락교회, 경성여자고등학교 별관, 이화여자대학교 과학관 등이 민간의 건축가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광복후 큰 포부를 가지고 새나라 건축계 이룩에 매진하던 것도 1950년 6월 25일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중단되었고, 1953년 휴전후 전쟁복구 작업으로부터 건축계의 활동은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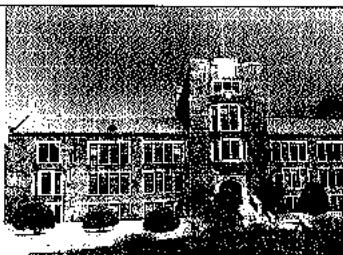
Sebrans Hospi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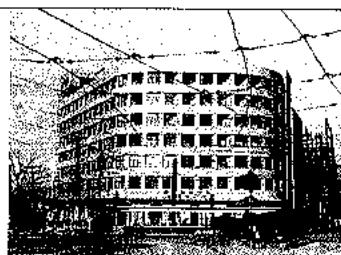
Samdong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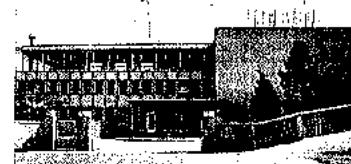
Ewha Women's University Main Building



연희전문학교 본관



Usom-Korea Office



중앙방송국

1950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된 건축은 당시의 복구자금 출처(미국)와 건축적 성향에 영향 받은 바 있어 서라 여겨지는데, 1930년 자리잡았던 합리주의, 국제주의적인 건축양식에 연결된 것에 1950년대 미국에서 퍼져 가고 있던 모더니즘의 경향이 넓게 자리잡아 가고 있었다.

1950년대 전반에 걸쳐 세워진 건축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풍빌딩, 식탄공사, 중앙방송국(김태식), 제일제당 부산공장(구조사, 1953), 한국문교서적인쇄공장(김윤기, 1954), 성균관대학교본관(김태식, 1954), 인하대학교공학관(정인국, 1955), 인천판유리공장(UNKRA, 1955), 전남대학교본관(김성주, 1955), 신신백화점(이천승, 1956), 국제극장(종합건축, 1957), 명보극장(김중업, 1957), 부산대학교본관(김중업, 1957), 정신여자중고등학교과학관(김정수, 1958), 덕성여대특별교사(김태식, 1958), Usom-Korea Office(나상진, 1959), 한독약품본관(이광노, 1959), 청량리역사(김홍균, 1959), 메트로호텔(이희태, 1960) 등이 있었다.

이들은 주로 위에서 언급한대로 당시의 합리주의적, 기능적, 국제주의적 모더니즘의 건축물이다. 물론 이 시대에 세워진 건축물은 대부분 여기에 준하는 디자인의 건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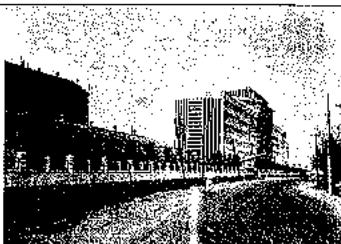
그러는 가운데 과거의 양식주의적인 건축도

더러 나타났는데 영락교회(박동진, 1958), 남대문교회(박동진, 1955), 이화여대강당(강윤, 1956), 동국대석조관(송민구, 1958), 경희대학교본관(1956), 한양대학교본관(1954)과 같은 건물이다. 대부분 종교건축과 교육기관의 건축물들로 이러한 기능의 건축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고 있었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예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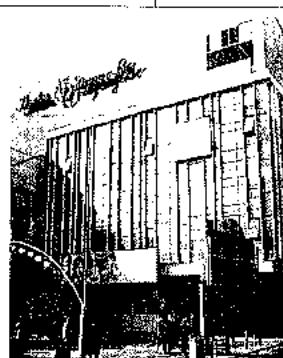
### 반세기 후에 이루어지는 자기 성찰

19세기 후반 개항한 이 나라에 외래 건축물이 들어와 기존·전래의 건축문화 풍토에 뿌리를 내리며 갖은 시행착오와 시도를 거듭하면서 한 세기를 가까운 세월에 다다랐던 이때, 한국인 건축가들이 이루어 놓은 한국적 모더니즘의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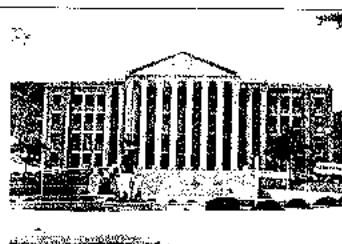
한편 다음의 새로운 10년이 펼쳐지는 1960년대에는 한국인이 자아와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대가 시작되면서 건축에서도 전래·전통적 건축에 대한 공부와 탐구가 시작되었다. 이는 역사속에서 하나의 경향이 한쪽 끝까지 뛰어 나갔다가 다시 그 반대의 자리로 돌아 가는 현상의 하나로 보아도 좋을 것이며, 40년간 일제에 의해 우리에 대한 성찰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받은 바 있어, 때 늦은 감은 있지만 본격적 논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동일산업주식회사



명보극장



경희대학교 본관

## 근대적 이념형을 찾아서

In Search of a Modern Ideal Form

정인하 / 한양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Jung In-Ha

한국의 근대건축사는 어려웠던 사회여건 때문에 단절과 왜곡으로 점철되었다. 자생적으로 근대건축을 배태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 근대건축이 태동하던 시기에 식민지상태였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수용할 수조차 없었다. 당시 거의 모든 나라들이 유럽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근대건축을 일정한 시간 격차를 두고 수용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서구건축에 관한 모든 정보가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고, 이런 상황은 한국의 근대건축을 매우 기형적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것은 주로 당시 일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발생했다. 즉 일본자체가 서구문명을 수용하던 입장이었고, 또 그것의 전모를 피악하지 못한 채 기술적이고 실용적인 것만을 선별해서 받아들이던 상황이었다. 더욱이 1930년대 이후 일본사회에 군국주의와 전체주의가 팽배하면서, 서구의 근대건축을 배태시킨 사회주의적 이념과 근대정신을 제대로 수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본의 이런 경향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다. 일제시대 한국의 근대건축은 서구 건축의 양식을 모방하고 있었을 뿐 그것에 내재된 정신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서구건축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버렸고, 따라서 한국의 건축가들은 근 30년 이상을 국제적인 건축조류에서 완전히 밀려난 채 변방에서 고립되어 있었다. 한국건축과 서구건축의 직접적인 만남은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한국사회가 건축을 실현할 만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지 못했고, 따라서 제대로 건설에 투자할 여건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3년동안의 내란으로 인해 다시 건축의 공백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서구의 근대건축이 서구로부터 한국에 직접적으로 도입된 것은 전쟁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라고 생각한다. 이 시기부터 한국건축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띠며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게 된다.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한국건축계의 지형도를 간략하게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6.25 이전부터 사무실을 유지했던 곳은 김태식 건축사무소 정도이고, 개인으로 보자면 박학재, 이희태, 강봉진, 홍순오 정도가 해방 직후부터 설계실무에 꾸준하게 종사한 사람들�이었다.”(송률,

한국 현대건축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119쪽) 그리고 전쟁 직후 1953년에 이천승과 김장수의 합작으로 종합건축이 설립되었고, 그리고 신건축문화연구소,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등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1955년 이광노는 페이(I.M. Pei) 사무실에서 일년간 머무르다 귀국하면서 무애건축사무소를 개설하였다. 1956년 건축가 김종업이 르 고르뷔제 사무실을 그만두고 귀국하여 서울에 자신의 사무실을 열었다. 그리고 그해에 김종성은 미스 반 데 로에가 있는 I.I.T.에 입학하기 위해 한국을 떠났다. 1959년 일본에서 공부하던 김수근이 국회 의시당 현상설계의 당선을 계기로 귀국하여 강병기, 박춘명과 함께 설계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상이 196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건축계를 개략적으로 그려본 모습이다. 이 시기동안 건축가들에 의해 지어진 건물들을 살펴보면, 학교시설과 상업 시설이 주를 이루었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된 기능적인 건물이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이후 한국건축은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과 양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이 글이 갖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점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글에 내재된 여러 한계 때문이다. 역사가들이 과거의 사실들을 기술할 경우 그들을 어떤 관점, 어떤 위치에서 바라보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와의 시간적 거리가 그다지 크지 않아서 과거전체를 바라볼 수 없을 경우 더욱 그렇다. 지금의 시점에서 1960년대 이후의 건축을 조망한다는 것은, 전체 숲을 보지 않고 그 숲의 전체지형을 논하는 것과 흡사하다. 그만큼 오류를 범할 확률이 높으며, 그 평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을 쓰면서 계속해서 불안감이 엄습해 왔는데, 그것은 넓은 숲속에 난 오솔길을 몇가지 과학적 방법론에 의지한 채 위태롭게 걸어가면서 거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관적으로 기술할 때 느껴지는 그 아슬아슬함 때문이었다. 전체에 대한 통찰력을 고사하고 그나마 그 숲속에서 길을 잊지 않으면 근거가 될만한 정확한 방법론과 기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타푸리나 프램턴이 현대건축을 기술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통해만 과거의 건축현상들을

기술하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먼저 한국의 현대건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이 글은 역사를 단선적이지 않고 복수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과거의 역사서술에서(헤겔의 역사철학이 그 대표적인 예지만) 역사가들은 하나의 시점에서 원근법적으로 조망되는 방법을 흔히 추구해왔다. 거기에는 기원과 끝이 있다. 그 조망의 끝은 마치 퍼스펙티브의 소실점처럼 하나의 목적을 가지는 폐쇄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퍼스펙티브에 소속되지 않는, 즉 그것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은 타자(他者)로 취급되어 배제되고 억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역사연구는 이런 정확한 시점과 달혀진 목적을 거부하고 있다. 과거의 달혀진 역사서술은 한 명의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식 역사기술은 복수의 주체들이 역사적 공간에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는 열려진 장으로 취급한다. 다만 각 시대들은 각기 강조점들이 마치 주름을 만드는 것처럼 솟아오르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역사는 하나의 장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주름들의 지형도라고 간주되는 것이다. 이런 지형도를 가르는 것은 각각의 사건이나 현상 사이에서 발생하는 매듭과 분절, 그리고 충돌에 의한 경계선이다. 그 경계선들은 특수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역사적으로 다수의 계보를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런 계보들을 역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이 경우 종래의 기술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기준에 주로 의존했던 방식이 시대구분과 그에 따른 건축가들의 세대별 구분이었다. 물론 역사에서 시간의 의미는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그것을 서술하는 사람의 입의로 재단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시간적으로 동질하게 채워져 있고, 표면이 매끄러운 역사서술이 갖는 허구성이 계속해서 제기되기 때문이다.

한국의 현대건축이 갖는 정확한 성격과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 축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축이고, 또다른 하나는 건축의 본원적 가치라는 축이다. 한국의 현대건축은 이 두가지 축을 중심으로 중심적인 씨와 줄이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 이 가운데 시간의 축은 비교적 짧은 시간을 갖는 1960년부터 1990년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동안 일어난 다양한 건축현상을 함축적으로 정의할 만한 말을 끄집어 낸다면 '근대적 이념형을 찾아서'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이 30년의 기간동안 서구에서 몇 백년을 걸쳐 진행시켜온 근대 프로젝트가 한꺼번에 진행되면서 전에는 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엄청난

서구문명을 수용하면서 건축가들은 한편으로는 서양의 근대건축을 한국적 토양에 알맞게 수용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한편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건물유형들을 디자인해야만 했으며, 또다른 한편으로는 도시의 팽창과 주거난에 대응하기 위해 엄청난 물량의 주택과 도시공공시설들을 건설해야만 했다. 물론 이런 급격한 변화가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붕괴라는 초유의 참사를 불러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지만 건축가와 건축인들이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보여준 노력을 인정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면모를 일신하고 완전히 근대적 사회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건축은 이 기간동안 건축가의 개성적인 미적 탐구의 대상으로, 제도적 장치로서, 디자인 방법과 설계 프로그램의 구현물로서, 특수한 직분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는 것으로서 하나의 둘을 형성해 나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30년의 기간은 앞으로 전개될 한국건축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여겨진다.

이 기간은 매우 동질해 보이나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미세한 균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1960년을 중심으로 그 전과 그 후 시기를 구분하는 주요 동인은 주로 건축계 외부에서 일어났다. 1961년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정권은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시행했고, 이것은 급속한 도시인구의 팽창과 이에 따른 도시개발을 촉진시켰다. 1960년대 한국건축은 어떤 경우이든 이런 당대의 정치, 경제적인 상황과 연계되게 된다. 문화적으로 볼 때 극도로 파상적이고 경직된 태도를 취하였던 군사정권의 문화주체들은 전통적인 형태에 기반을 둔 건축을 요구하였고, 이것은 한국건축의 정체성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이 논쟁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었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전통건축이 다양한 측면들이 건축들에 의해 탐구되었다. 강력한 경제개발에 따른 효과가 건축분야에 전달되기 시작한 때는 196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하고, 대도시의 도심에 대규모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이것은 새로운 건축기술의 도입과 그에 따른 다양한 미적 효과의 실험이 이어지게 되었다. 도시인구 인구팽창에 따른 주거난과 도시 하부구조의 취약성은 매우 민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김수근을 제외하고는 건축가들이 이 문제에 직접 나서지는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 건축가들이 가지는 한계라고 생각한다. 김수근의 경우도 1960년대 여의도 도시계획과 세운성이 설계를 통해 나름대로 서울 도시계획에 참여했으나 그 결과는 별로 신통치 않았다.

1970년대 중반부터 몇가지 변화가 감지되는 데 중동건설 붐을 타고 건설회사의 시공기술이 한단계 상승해서 건축가들의 디자인 의지를 보다 충실히 구체화할 수 있었

다. 또 서울의 강남개발로 대변되는 대규모 주거단지들이 전국의 대도시 곳곳에 지어지게 되었다. 소득의 향상으로 각 가정에 싱크대와 욕조시설과 같은 위생설비가 일반적으로 보급되었고, 아파트가 새로운 주거시설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 대규모의 고층건물들이 도심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자가 1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무실들이 속속 등장했다.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가지 중요한 변화로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발주한 건물의 설계가 대부분 연고(緣故)에 의해 특정인에게 의뢰되었던 반면 이 시기에 이르러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들은 현상설계를 통해 설계자가 결정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물론 이 현상설계의 심사가 공정치 못하고 또 여기에 참석한 심사위원들의 자질이나 안목이 불충분하여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지만 많은 건축가들에게 대형 프로젝트를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점에서 이런 제도적 장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

이와 유사한 변화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의 개최를 전후하여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이 시기는 거의 30년 이상 지속된 군사정권이 마감되고,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사회는 20년 이상 지속된 경제성장의 파실을 즐기는 분위기였고, 경제개발을 통한 성장보다는 부의 분배와 평등의 이념이 사회전반의 기류를 관통하였다. 건축계의 경우 김수근과 김중업을 비롯한 많은 건축가들이 이 시기를 전후로 태계하면서 보다 젊은 건축가들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민간협'의 창립과 40대 건축가들을 주축으로 한 4.3그룹의 대두는 이런 변화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들 건축가들은 이전의 선배건축가들이 가지는 중심 지향적인 구심성과 경직된 사고틀에서 벗어나서 보다 원심적이고 중심으로부터 이탈된 그리면서도 분명한 차별화는 일어나지 않는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한국의 현대건축을 구성하는 두 번째 측은 건축이 갖는 본원적 가치들인데 이들은 다양하게 나타난 건축현상을 명료하게 이해시켜 준다고 생각한다. 즉 '건축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은 나름대로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의 디자인을 통해 그것을 강조하려 했다고 보고, 건축의 본원적 가치를 드러내면 건축이 가지는 다양한 측면들은 자연히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건축은 흔히 예술과 기술을 합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건축이 가지는 독특한 가치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다른 조형예술과 비교하여 건축은 분명히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그것은 하나의 장소와 지역에 그 뿌리를

굳건히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다. 미술이나 조각작품은 아무 곳에 전시되어도 무방하지만 건축작품을 위해서는 '바로 그곳'이라는 장소가 필요하다. 건축에서 장소성, 풍토성, 토착적 정서를 포함하는 지역주의(Regionalism)를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격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현대건축의 경우 지역주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특징짓는 핵심개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역주의를 바라보는 태도는 건축가마다 달랐는데 이것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시각에서 바라다보며 이들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거의 건축형태를 별다른 비판없이 주로 모티브로 취하려는 수용적 태도이고, 마지막은 토착적인 지역주의로 부를만한 것으로 주로 벽돌과 경사지붕을 이용하여 유기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이다. 시대적으로 구분해 보면 1960~1970년대까지는 주로 형태적인 면을 두고 많은 논쟁을 벌린 반면 1980년대 들어와서는 공간이나 재료의 물성과 같은 문제들이 건축가들에 의해 보다 자유롭게 논의되었다. 20년간의 논쟁을 통해 '그 시대 가장 뛰어난 건축이 새롭게 전통을 창조한다'는 생각이 건축가들 사이에 하나의 합의점으로 도출되었고, 이것은 더 이상 추상적인 논쟁보다는 건물자체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건축가들의 관심을 돌리게 한 것이다.

두번째로 건축은 사람의 삶을 물리적으로 건설하는 구축성(Tectonic)을 가지고 있다. 구축성의 문제는 최근 학계에서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은 구조적인 부재들이 부분에서 어떻게 전체로 통합해 나가고, 재료의 물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구조체와 재료의 문제를 건축미학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가장 건축적인 가치와 연관된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재료의 물성이나 구조체의 구축방식은 단순한 실체로 머물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표상되고 있다. 따라서 건축의 구축성은 건축의 가장 근본적인 작동요소면서 동시에 미적으로 승화될 수 있는 표상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런 경향을 대변하는 건물들은 주로 고층건물이나 대형공간을 필요로 하는 체육관시설에서 주로 나타났다. 이들은 새로운 공법의 사용이 어떤 유형의 건물보다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서양과는 달리 한국의 현대건축에서 건축디자인을 뒷받침할 만한 구조나 시공기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서 취약함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다. 건축 디자인과 관련하여 건축가의 의지를 충실히 실현시켜줄 정도로 기술력이 향상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김중업이 막구조의 개념으로 설계한 주한 프랑스 대사관의 지붕이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은 이런 사실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 준다. 마찬가지로 김중업이 설계한 삼일로 빌딩은 미스 반 데 로에의 시그램 빌딩의 모티브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지만 미스의 건물

과 비교하여 기둥의 두께가 너무나 굵어서 실내에서의 느낌이 전혀 다르다. 이것은 고층건물에 대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설계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한국의 건축가들에게 빼어난 네르비, 베르나르 라파이유, 오토 프라이, 피터 프라이스와 같이 고도의 창의력을 가진 구조전문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은 비극적인 현실이다. 기술력의 부재는 고층건물의 설계에서 많은 외국건축가들을 참여시킨 데서 잘 드러난다. 실제로 롯데호텔과 롯데월드, 프라자호텔, 교보빌딩, 대생빌딩, 국제빌딩, 중앙일보 신사옥, 종합무역센터, LG 트윈타워, 한솔빌딩, 동부그룹사옥과 같이 한국에서 대표적인 고층건물들이 외국인에 의해 설계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혀 기술력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의 건축인들이 기울인 노력을 평가받을 만하다. 1950년대 커튼월의 도입, 1960년대 노출 콘크리트의 사용, 1960년대 말 PC 콘크리트를 이용한 고층건물의 설계, 1970년대 벽돌의 사용, 1980년대 케이블 구조와 막구조 개념의 도입은 한국의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기술성을 대변한다.

세번째로 건축은 동시대의 지배적인 생각들을 제도화하는(*Institutionalize*) 기능을 가진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는데 하나는 동시대 생활양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건축물로 구체화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건축의 주제, 즉 프로그램에 따라 그 가능성이 지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두 가지 건축현상이 발생한다. 하나는 기능주의라는 매우 애매하지만 건축에서 매우 유용하게 작동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발생하고, 또 다른 하나는 건축 프로그램에 따라 독특한 건물 유형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건축은 다른 예술분야와는 달리 기능에 의해 형태의 많은 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물론 미스 반데 로에나 현대의 하이테크 건축가들은 다양한 기능들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공간을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건축가들에게 프로그램은 디자인을 풀어나가는 중요한 열쇠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건축의 각 유형들은 독특한 기능들을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1960년에서 1990년까지 한국에서 지어진 수많은 건물들에서 각각의 유형들이 갖는 형태적, 공간적 특징들이 눈에 띈다. 미술관의 경우 전시실과 사람 이동의 체계화라는 측면이 강조된다. 즉 전시실의 기능적 형태, 동선체계의 구축, 전시기능과 이동공간의 상호관계가 건축적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았다. 종교건축은 성스런 공간과 세속적인 공간의 구분을 통해 전이공간이 디자인의 핵심개념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예배공간에 대한 빛의 처리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학교건축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유니트의 결합과 외부공간과의 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나,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너무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런지 뛰어난 작품이 드물었다. 물론 몇몇 대학

캠퍼스와 시설들은 예외지만 말이다. 병원건축의 경우 복잡한 기능의 분리와 상호관계설정이 중시되어 조형적인 면 보다는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스포츠 시설은 대규모 공간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가 중요하게 대두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막구조와 스페이스 프레임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사무소건축의 경우 서비스 시설과 서비스 받는 시설의 관계, 일면의 구성, 도시적 맥락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국의 건축가들이 어떻게 해석했느냐가 건축역사의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네번째로 건축은 항상 다른 건물, 혹은 주위 환경을 속에 위치하기 때문에 항상 도시적 맥락을 가지고 그에 따른 스케일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건축이 도시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체면서 동시에 도시는 건축의 설계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건축과 도시의 문제가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경향은 1970년대 유형학이라는 방법론을 낳았고, 이것을 통해 건축이 도시에 조화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건축이 가지는 사회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건축과 경제, 삶의 방식, 권력, 이데올로기와 관련된다. 익명의 다수를 위한 주거단지는 이런 면을 단적으로 잘 보여 준다.

이상에서 건축만이 가지는 본원적 가치들을 언급했는데 이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계 모든 건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런 요소들이 각 시대의 독특한 건축을 발생시키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작용하느냐이다. 또 건축가들이 어떤 점을 계획해 강조하며 자신의 작품세계를 형성해 나갔느냐이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작동케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었느냐도 중요한 관건이 된다. 즉 건축이 만들어지도록 추진시키는 동력이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가 그 시대의 건축의 지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동인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를 가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굴절되고, 강조되고, 접합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런 점들이 명확해질 때 우리의 건축역사는 보다 분명한 의미로 다가올 것이다.

## 감성과 인식의 시대

The Age of Sympathy and Recognition

김병윤 / 백제예술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Kim Byung-Yoon

지난 80년대가 끝날 조음에 다가오는 90년대는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으로, 또한 자성과 반성으로 새로운 세기에 대비하려는 청량한 목소리들이 들려주는 기대와 꿈으로 가득하였다. 이미 주요한 세계적 흐름과 맥을 같이 하게 되었고, 나름대로 한국적 지역성 또는 정치성이라고 해도 좋은 측면의 구현이 이루어져가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돌보이는 점은 건축미학에 대한 인식과 비평세대의 단단한 틀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저널의 신생도 큰 몫을 담당하였고, 경제적 성장은 도시를 채우는 건물의 높이로도 알 수 있을 만큼 건축의 물량적 신장이 크게 도래하였다. 올림픽을 치른 저력 또한 가세하여 세계시장의 일면을 엮겨온 듯한 느낌을 들게 하였다. 포스트 모던의 쟁점이 뜨거웠던 만큼 그 충동적 사고에 의한 표질감을 나타내는 형식들이 만연하게 되었었다. 절진적인 개혁의 올바른 정신을 잊어버린 과대 망상의 사고가 부른 기형의 신도시들, 일률적인 슬라브 블록의 Apartment들을 산재하게 남겨 놓으면서 쓰러지는 거대한 몸집의 건설회사들, 그 전초를 마련한 시대였다.

다가올 재앙을 아는지 모르는지 게걸스레 번식하였던 불신의 초상들이 빈지르하게 치장한 시대의 끝에서도 기대는 새로운 세기의 준비로서, 또한 변혁을 꿈꾸는 세기 말 징후의 벨 에포크를 동상하며 각자의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다듬기에 여념이 없었다.

### 이합집산(離合集散)의 시대

두 김으로 불려지던 거장 건축가의 작고 이후 많은 젊은 새로운 세력권의 건축가들이 운집하는 현상을 낳게 되었다. 독립이란 매력적인 환경이 군소 설계집단들의 양산을 가져왔고, 자신의 언어로 구축된 환경을 만들고자 많은 젊은 건축가들이 스스로 어려운 상황으로 자신들을 몰고 나갔다. 커다란 우산의 집스러움을 벗어나 속속 자신만의 환경으로 움직여 나갔다.

가장 눈에 띄는 운집은 90년대 초반 4.3그룹이란 이름으로 결성된 건축가 모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대체

로 젊은 건축가들로 그간 저널을 통해서나 여타의 활동들로 지명도가 있는 건축가 14명이 모이게 되었다. 이들의 활동은 스스로가 평가하고 자리 매김을 하면서 동시대건축의 정신에 대한 공감과 새로움에 대한 탐색으로 완만한 영향력을 나타내었고, 이들은 92년 12월 동충동 인공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가짐으로써 세기말의 문을 열었다. 전시의 개념도 종래와는 다른 조형성을 자신의 건축적 어휘와 맞춰 새로움을 자아냈다. 이들의 전시에 대한 이후의 평가는 다소 낭소적이어서 동질의 언어가 없다는 점과 뚜렷한 집단성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듯 했다. 명분과 현저한 지표에 대한 제시면에서 전시는 분명 그들만의 잔치였다고 해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던 결성이었고 모임이라면 처음부터 대단한 이상을 지녀 사업구상부터 꿈꾸던 여타의 모임들과는 성격부터가 달랐고, 이는 4.3만의 독특한 결손과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그 개성과 의식에 집중케 된다.

이들이 던진 메시지는 작게는 수학증인 많은 젊은 건축인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크게는 이들의 비집단적 소명의식이 건축계의 전반에 소위 새로운 정신성을 담지하고자 함에 기여하였다고 본다.

### 쇄신을 위한 건축운동

쇄신을 가장 큰 염원으로 결성된 운동이 확산되어 청량제 같은 차방이 시작된 건미준 (건축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은 이미 구조적 개혁에 대한 물두에서 집권의 이상만을 예정하던 기존의 모든 체계에 대해 새로운 변화를 촉구하는 건축운동이었다. 건축계의 쇄신과 정화작업을 요구하던 젊은 건축가들은 과정상에서 중진의 파워를 얻어야 했고, 대대적인 힘을 의식한 모임은 기득세력에 동조를 구해 모임은 분명한 이상을 지난 텍스트를 배포하면서 고루 스며들었다. 정당한 팻말을 거절할 수 없는 계몽차원에서 건미준의 입장은 면죄부처럼 달리게 되었다. 처음의 기세라면 자정을 거친 후에 대대적인 실천이 따랐을 것인데 이미 문제를 느낀 소수 집단은 이러한 입장이 필요치 않는 상황이었고, 정회를 요하는 집단은 이 마크라는 새 건축운동 입장이 우산이 되어 주었다. 스스로

거대한 자기막을 쳐버린 결과가 되어 버린 것이다. 시의적절한 선언과 행동강령들은 불비처럼 여러 곳에 스며 들어 보이지는 않았으나 곳곳에서 해갈에 도움이 되는 밀거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 땅에 굳건히 서는 건축가로서 쇄신과 자정의 목소리를 담은 건축가들의 건축운동은 건축교육과 행정쇄신 면에서 변화를 유도하는 기본 여건을 마련하였다고 본다. 다양한 명칭들을 지닌 유사한 정의 집합들 '새건축', '건발협', '민간협' 등 모두가 건축의 정의구현을 위해 일어선 건축운동의 모체들로서 세기말의 변혁정신과 상통한 면을 지닌다. 이들이 건축가들의 권익보호란 미명하에 이루어진 이 편협한 이미지를 스스로 벗을 수만 있었어도 좀 더 장기화되었을 것이나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 변화를 겨냥한 표출

새로움에 대한 기대가 커짐으로 여러 시도들은 정리화되어 나타났다. 가회동 삼청동 일대가 오랫동안 한옥 보존지구로 묶여서 그 제한 때문에 찾은 입씨름을 벌이다 결국 풀리게 되자, 이 지역에는 그간 못 다한 설움에 보상이라도 하듯 우후죽순처럼 기대하지 않았던 건축성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비교적 보존의사는 지니고 있으나 개발성향에 따라 변화를 하게 된 가회동 11번지 일대는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련의 건축가들이 솔선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다. 도시의 짐작주 거체계에 대한 실험적인 계획으로 제안이 이루어졌고, 북촌마을은 축제분위기였다. 한옥으로서만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점 까지 왔고, 그 이상을 보상해야 하는 현대건축의 익명성은 낮 설기도 했으나 기존의 법적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체계로 개개의 Unit Plan을 완성시켰고, 전체로서는 공동체로서의 위상, 집합체계 등의 주제를 동반하고서 이루어진 경우로서, 의미를 지닌 기록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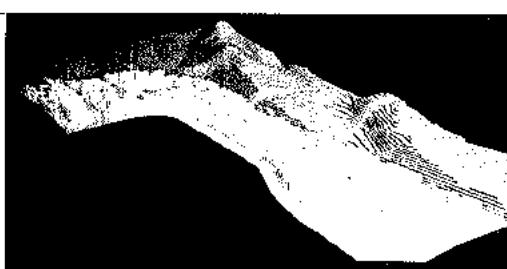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주최하고 한국건축가협회가 후원한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전시회 및 심포지엄이 새로움에 대한 징표였다고 보여진다. 21인의 작가가 선정되었고,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각각 작가에 의해 계획, 설계되어 발표

및 전시가 이루어졌다. '한국의 주거문화'라는 주제로 동시대를 대표하는 주거의 표상과도 같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 마치 슈트트가르트의 Weissenhof Siedlung처럼 규모를 이루는 주거문화의 철병들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임자를 찾지 못하는 진열장의 상품처럼 저마다 강한 건축적 사고와 조형의 자, 한국주거문화를 쇄신하려는 의사 등을 담고 있으면서도 선뜻 손에 넣지 못하는 그림의 띡이 되어 한동안 진통을 겪어야 했다. 그렇다고 해도 건축가의 사회현실에 대한 참여와 대중의식의 직접 수렴, 작가적 고민의 표출, 주거해석과 한국성의 표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주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더불어 부상하게 된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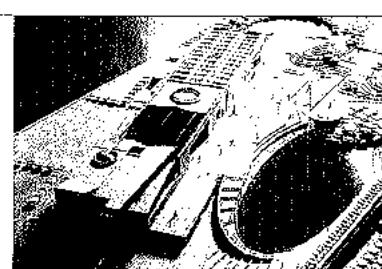
두 개의 매우 폐쇄적인 움직임이었지만 골프 클럽하우스 내의 쉼터를 4.3그룹의 인원 절반정도가 참여하여 각기 자신의 언어를 함축한 이미지가 강하게 노출된 계획을 하여 지상전을 가진 것과 대학교 강사로 구성된 조합에 그들만의 주거를 위한 공동주거를 계획하게 된 것, 이미 일본의 Nexus World란 주거군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결과로 이후 이 장르의 주거계획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졌다. 수도 없이 학생과 건축 실무자들이 Nexus World를 관찰했고, 상당 수의 해외건축가들이 자신의 언어로 구축한 건물들이 이루어진 후쿠오카의 Nexus World와 구마모토의 Art Polis는 지금도 손쉽게 많은 건축가들의 체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이벤트 장소임에 틀림없다.

공간연구소가 주관하는 '하계건축학교'가 개설되었고, 도시, 건축, 장소의 문제에 집중하여 활동적인 건축가들과 학생들이 어우러져 뿐어내는 열기는 커다란 건축수학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경기대에서는 국내 최초로 디자인 디렉터 제도를 도입하여 건축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고, 건축전문대학원으로의 교육적 발전을 가져왔다. 전국 대학을 중심으로 Workshop, 디자인캠프 등이 열렸고, 많은 해외의 건축가들이 이 땅의 문턱을 넘나들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건축교육의 기존 모드를 바꿔버린 현상은 SA, 서울건축학교가 결성되면서부터이고 그야 말로 변혁의 새바람은 이곳에 모인 젊은 건축가와 중진의 건축



분당신도시 주택설계 종합 배치도 (1993)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현상설계 당선작  
(1995/정림건축)

기들로 인해 생겨났다. 날이면 날마다 펼쳐지는 축제와 같은 세미나와 강연,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론 감도 없지 않으나, 교육의 재평가라는 관점에서 기존의 조건에서 일탈한 괴감한 면모 등은 종래에 찾아보기 힘들었던 변화의 모색이 아니었나 싶다. 국내의 건축적 쟁점을 해외의 건축적 이슈와 더불어 조성된 재인식의 교육체계는 자율과 인식의 현실체계를 강화한 교육구조였다고 본다. 끊임없이 관류하는 의식의 집단성으로 많은 건축인이 고무된 환경이 바람직하기도 하나, 분명 학교라는 명제하에서는 자신의 모드를 지닌 건축인을 배출해야만 하리라고 여기기에 언젠가는 현실구도를 반영해야하는 숙제를 지나고 있다.

한편 이념과 민족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로 일제의 잔재를 털어낸다는 차원에서 사라진 조선총독부(중앙청) 건물의 논란과 파란이 한동안 사회, 건축적으로 떠들썩하였다. 민족적 감정으로 일제의 잔재를 없애 버리고 싶어하는 역사의 자웅과 결코 지워지지 않는 수치를 그 산 증거로서 간직하고자 하는 의식파와의 논쟁은 한동안 설왕설래했으나 지우고자하는 의식이 강해서 결국 자취를 감추고 만다. 한강이 넘보아는 용산의 시민공원에 국립박물관의 건립을 위한 프로젝트가 등장되었고, 국내 초유의 국제적 현상공모가 이루어졌다. 국제적으로 명성있는 건축가들이 대거 응모하였고,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었다. 결과는 국내의 유수한 설계집단이 제시한 안이 당선되어 국내건축의 위신을 세우게 되었다. 그러나 당선안에 가해지는 비평의 내용은 긍정적이기보다는 의문부호를 많이 나타내었다. 한 시대의 건축을 정리하는 단계로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기회였었다고 본다.

민족의 한풀이는 역시 남북으로 분단된 역사에 재조명되어 이를 가로막고 있는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에 예술문화운동 작업전이 개최되었다. 해방, 역사, 생태계보존, 환경보호, 평화, 반전, 반핵 등의 지구환경보호개념과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를 예술의 흔으로 보여 주고자하는 주제하에 300여술인의 참여로 성대히 치루어졌다. 건축계에서도 6점의 작품이 주제를 상징하는 나름대로의 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초 참가의사를 밝힌 수만큼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움을 낳게 하였다. 가벼움과 무거움, 신중과 재고 등의 갈등이 이러한 대중의식이 강한 전시회에의 출품을 망설이게 했으리라 본다. 건축가들은 비무장지대의 이념이 본래의 의지대로 보존되기를 희구하는 제시로 대체로 자신의 조형의지와 이미지와 어우러져 구축된 오브제로 제시되었다. 관념과 혁구의 이상으로 점철된 전시와 토론의 마당은 예술의 현실성이 자아낸 시대극처럼 인식되기도 했던 기록이었다.

이와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세계EXPO93 도 눈길을 끌었던 대중적 편향의 전람회였다. 짧은 순간 번쩍이는 기지로 이루어진 기상의 현실이 실현되었다. 이상도 있었고,

기교도 있었으나 참다운 정신이 빠져있는 장터 같은 분위기의 축제장을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지쳐서 허탈해 하였다. 그렇게 도 온 국민의 관심사였던가. 빨들여 놓을 데가 없어 내용파악은 전혀 되지 않았던 소란장, 지금은 그 무거운 소음을 등에 진 채로 점차 녹슬어 가면서 죽어가고 있다. 축제의 Set를 위해 광분한 모습들의 시체가 즐비해 있지만 적정한 준비로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에 맞는 몸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바로 그 전해에 있었던 스페인 세비야EXPO를 기억하면서 분수를 알고 그에 대처했어야 했던 진중함이 곁여된 우리의 EXPO에 다시 한번 아쉬움과 반성의 눈길이 기야 한다.

## 비판의 기록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기억이 사라져 가는 국내의 새비람과 비평을 선도하던 그룹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이들의 쇠퇴를 아쉬워한다. '청년건축가협의회' (청건협) 가 있었고, '건축비평동인', '건축평론동우회', '간향'으로 모인 비평기그룹이 있었는데 이중 '간향' 만이 현재까지 그 의사를 '건축인' 이란 잡지를 통한 저술활동으로 맥을 이어가고 있다. '청건협'은 그들의 잡지 '청년건축 제5호'를 끝으로 쇠퇴해 갔으며, 건축언론의 활성화와 제도의 개선, 도시주거문제 등에 지대한 관심사를 갖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혁신적인 변화 모색을 시도했었다. 그들의 사회와 건축에 대한 관찰은 단지 운동이란 반체제의 혁신에 있지 않았고, 한국건축의 현실성에 도전하는 그 의식을 새로이 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도 높게 진행시켰다. 민주화운동이 최선이었던 시대의 부조리극에 휘말린 현상이기도 했으나 그 하나 하나의 관심과 관련된 분야의 요청은 의미를 지니며, 동시대 건축의 분열된 사회상과 뒤바뀐 역할 등이 아쉽게 암금으로 남겨지게 된다.

건축비평동인은 하나 같이 동시대를 이끄는 건축계의 주역들로 당시의 건축비평을 주도하지 않았나 싶다. 비평이론을 제시하였고, 한국건축비평의 지평을 열고자 하는 의식을 강하게 분출하여 저마다의 강한 어조로 비평의 말판을 다져가기 시작하였다. 미학이론과 건축역사의 배경, 서구건축 이론 읽기 등으로 중무장한 동인들의 행보는 저널을 통해서 지대한 공적을 쌓았다고 본다. 이 시점에서 등장했던 비평상도 '공간', '꾸밈', '건축과 환경' 등의 평론분야상이 있었고 상당수의 응모가 있었으나, 점차 그 수가 줄어들어 아예 중단되고 말았다. 건축비평문화의 쇠퇴, 이는 건축현실의 쇠퇴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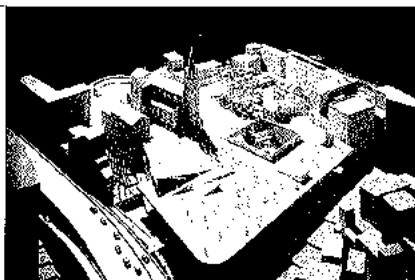
국내의 디자인 관련 분야의 혼용전문지로서 한동안 유지해 오던 '꾸밈'지를 통해 등단한 '평론동우회'는 그냥 만나도 좋은 그런 사이좋은 모임이 아닌가 싶다. 편집장은 자연 간사가 되는 그 모임을 지켜보는 것으로도 즐거운 시

절이 있었다. 90년 전까지 그들의 글은 국내지널의 말판에 수도 없이 등장했다. 이제는 대학에서 실무에서 새로운 판도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리라 본다. '건축인 30대의 꿈' 이란 '간향' 4집의 출간에서 간향동인들은 저력을 다시 과시하였고, 언제든 새로운 글판의 구성과 기반을 조성하리라 여긴다. 뜻을 같이 하는 인적구성으로 엮어내는 월간지 '건축인 POAR'는 참신하다는 평으로만은 부족한 날카로움도 지니고 있다. 단지 공존의 마당에서 관련지어야 하는 인적관계의 나약함이나 그들을 비쳐주는 시각의 여립이 다소 센 구성을 갖게 된다면 하고 기대하면서 분명 90년대의 특출한 출생이었음을 인정 아니할 수 없다. 국내건축비평의 턱이 낮은 데서 구분되는 단계를 넘어서는 단초들이 이러한 동인그룹들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면 이를 연속시키고 지속시킬 환경이 유지되어야 한다.

해외의 세미나가 국내에서 개최된 *Anywise*의 회합은 사실 서방G7의 제3세계에 대한 중재 이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국내의 연구관련 세미나와 말판의 수준이 잠시 이를 감동적으로 바라보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동시대 우리건축의 단체사활동과 각 과정들의 과제해결 및 반성이 부족한 시대상을 새삼 느끼게 해준 시각에서 이를 바라보았으면 한다.

### 자생의 틀

우리는 많은 현상공모를 겪었고, 그때마다 쓸쓸한 기억과 에피소드로 막이 내려지는 것을 목도해 왔다. 이제는 불을 훤히 밝힌 제3청사의 현상과 웬만한 건축인에게는 청량제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공모전도 그 과정이 어찌나 쓰린지 왜 그렇게도 상채기를 내어야 만 했는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억들이 되었다. 위용과 기세로 몸집을 드러내기도 전에 '전쟁기념관'은 그 권위주의적 형태, 이데올로기의 소치로 낙인이 찍혀 거센 비판의 반열에 서야만 했다. 첨지기처럼 건축만을 생각하던 작가의 심정은 살펴지지 않았고, 모두 마지막 건축이기를 바라고 규정지어 버렸다. 불모지에서 피는 꽃처럼 아니면 소각장에 편 민들레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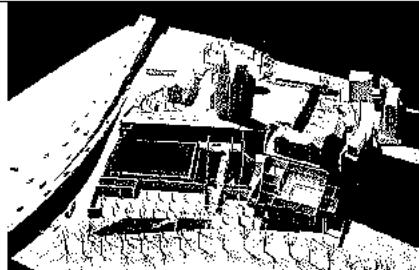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공모전  
우수작(유경인)

럼 '비평건축' 이란 터무니없는 구성의 책이 등장한 것도 이 세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그 너무나 터무니없음에도 새록새록 쓰여진 그 담긴 이야기들이 말이 되어져 감을 느낀다. '지역성의 향방과 그 발견' 이란 전시회에서도 '13인의 작가론' 이란 책에서도 전하려는 메시지가 투박하게 전달되어져 온다. 한국의 건축에서 세 도면을 찾겠다는 의지, 새 말판을 찾겠다는 의지가 결코 모자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새로운 밀레니엄이 다가온다 해서 한국의 내일의 건축이 크게 바뀔 라는 만무하다. Electronic Media의 힘을 업은 젊은 새내기들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밤새워 겪은 서방의 사고가 아무리 지대하다해도 훑먼지 날리는 건축의 판세가 급격히 달라질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나의 것에서 출시한 것인지 구분이 가야 하리라 본다. '자생의 틀', 건축 대전의 한 면모를 달리 해보고자 했던 초대작가전의 주제는 놀 향응하던 건축의 체험을 달리해 본 것이라 보인다. 자생, 스스로 키울 수 있는 힘은 시대의 안과 밖을 윤색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그 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세기말의 징후가 다시 압제로 찾아든 세기말.  
조용한 변화, 자성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공모전  
우수작(이종상안)

## 20세기 한국 건축의 조명과 전망 우리가 추구하는 건축의 미래상

The Future Vision of Our Architecture

원정수 / 안하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Won Chung-Soo

### 머리말

김수근씨와 함께 유럽건축기행중 파리의 봉피두센터 앞에 다다르자 문득 나에게 “미스터 원? 이것(봉피두센터)을 어떻게 생각해?” 하고 물었다. “불란서의 시민혁명 때 일어났던 폭동처럼, 보이는 건축역사조류의 기폭제처럼 느끼는데요!” 그리고 나서 영국과 불란서의 근대역사를 비교하는 얘기가 이어졌다.

영국의 근대화 역사는 무혈(無血)혁명으로 군주제도(君主制度)와 함께 의회정치로서 민주사회로 발전되었고, 불란서는 루이왕을 처형한 과격한 유혈(流血)혁명으로 민주 시민 정치 역사를 이루한 과정을 건축역사에 비유해보면서, 영국의 근대건축은 기준과 공준하면서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불란서는 기준을 거부하는 새로움을 추구하는 건축을 보여주는 듯한 양상의 하나로 “봉피두센터”를 바라보았다. 따라서 한국건축의 근대화 과정은 과연 어떤 것이었으며 역사적 의미와 가치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연상케 했다.

나는 외국의 새로운 건축을 앞에서 새로운 충격적 감동을 느낄 때이거나 직접 설계를 생각하면서 건축물이 건설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닥치는 사회적 물이해와 부정적인 장애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정력의 소모가 지나치게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건축역사 특성을 반드시 밝혀보아야겠다는 의욕이 솟구치는 역작용이 일어났다.

왜? 오늘의 건축적 상황이 이렇게 벌어져야만 되는 것일까? 설계에 몰두하는 과정에서 왜? 주제에 벗어난 문제에 집착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은 건축의 미학적 철학으로 고찰 또는 비평하는 논평이나 무한한 개발촉진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축의 첨단 전문기술 근거에 의한 기술 평가로 밝혀본다 해도 한국적 건축문제의 정체(正體)가 화끈하게 드러나지 않는 미묘한 느낌이다.

### 독류(獨流)었던 한국사회의 격변(激變)

20세기는 1900년에서 1999년까지의 100년으로 필자가 65년 동안 20세기의 생활을 경험하고 약 반세

기동안 건축을 체험하면서 20세기에 벌어졌던 한국건축의 역사적 흐름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급변하는 타류의 소용돌이가 격류하는 세월이었다고 고백한다.

필자가 체험한 사회적 격변이란 나라 않은 한반도 땅에서 일본을 보았고, 세계 2차 대전과 일본의 패전을 보면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고, 민주와 공산주의의 님으로 조국이 분단되고 미국과 소련의 영향을 받았고, 남북전쟁으로 가까운 친척과 친구가 희생되는 전쟁지옥의 고통을 이겨내고 초토화된 국토를 다시 건설하는 역사 원년이 시작되면서 필자도 미미한 인력의 하나로 건축계에 뛰어들었고 4·19 민주항쟁을 치르면서 5·16 군사쿠데타로 일어나는 사회변혁과 더불어 건설정책이 과감하게 촉진이 되자 국제사회까지 교류가 확대되어 중동 진출의 건설 붐이 일어나며 건축계에도 자각변동이 크게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을 체험했다.

나라를 잃었었고, 큰 전쟁을 두 번을 겪었고, 정변(政變)을 여러 번 치르면서 견디기 어려운 쓰라린 고통이라는 오늘의 IMF를 이미 수없이 맛보았다. 다시 말해서 기난과 굶주림의 역사, 전쟁으로 생명을 빼앗기고 정변이 바뀔 때마다 사상의 가치관이 뒤집히기 일수었던 혼란 가운데서도 선진국의 독점물이었던 올림픽을 치르고, 외화 만불 소득이 되자 맛했던 한풀이 건축이 봇물처럼 터지듯이 대형화, 고층화, 초호화, 최첨단 등등의 고난도의 설계기회가 열렸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건축계에 특수경기까지 밀어닥치자 해외건축가 마저 뛰어들어 높은 가지의 큰 열매를 가로채 듯 설계 수주경쟁이 과열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는 한국사회에 날벼락이 떨어지며 억구를과 천둥 번개치는 IMF가 닥친 오늘에 이르렀다.

### 유럽과 한국의 모더니즘

국제건축문화의 흐름에서 20세기가 열리면서 유럽과 미국에서는 모더니즘 건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모더니즘의 진원(震源)은 과학과 공업이 농경사회를 암도하면서 일어난 산업혁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은 국제사회에서 인류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좌우하게 된 특권을 장악한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공업과 산업의 힘으로 국력을 경쟁하던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된 국제사회는 급기야 소련의 산업 경쟁력이 침체 몰락되면서 새로운 경쟁력의 주도력이 되는 첨단 정보산업을 장악한 미국이 독주하는 시대가 열리고 이와 상대적인 국제관계는 일본과 유럽 그리고 후진성의 농경사회국가인 한국, 중국, 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사회체제로 바꾸어 뒤쫓는 양상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는 급변하고 있으며, 건축문화 역시 이에 종속된 시대조류의 흐름과 박동(拍動)에 따르고 있다.

유럽의 20세기 산업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과정은 농경사회를 지배했던 귀족사회가 몰락하고 민주사회가 정착되기까지 2세기라는 긴 세월동안 많은 피와 땀을 소모하면서 이루어진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과정이었다. 그래서 모던이즘은 공업, 양산, 조립, 이를 위한 효율추구의 건축철도의 모듈화로부터 단순미의 추상화(抽象化)를 이루면서 이를 아름다움으로 느낄 수 있는 감성(感性)의 서구인이 되어졌다. 그들은 자유인이며, 인권을 행사하는 평등한 인격의 시민이 되고, 그들은 생활의 흐름으로 빛어지는 절실한 건축을 만들었으며, 이를 모던이즘의 건축이라고 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때 우리는 논밭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며 보릿고개 가난을 속명으로 삼으면서 몇 천년의 세월동안 가난을 초월한 채 인간의 가치관과 인생관의 깊은 철학에 마음을 의지하는 인격, 인간으로 지탱할 수 있는 환경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 갑자기 불어닥친 서구의 바람은 피할 수 없는 돌풍이며, 지금도 우리에게 거세게 불고 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는 농경사회를 탈피하여 산업사회와 시민의식으로 틀바꿈되어지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첨단, 정보화사회로 진입하는 21세기의 세계까지 손을 벌친 채 한국인의 둠과 마음과 거동은 원시, 농경, 산업, 정보시대가 혼재된 사회에서 정치, 경제, 문화의 한국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서구의 건축이 우리를 개화시킨 건축이라고 하며, 해방후 그리고 6.25 동란으로 잣더미가 된 황량한 금수강산을 재건하는데 당시의 한국적 상황에서는 모던이즘 건축의 등장이 마치 전염병을 물아내는 신비의 살충제 D.D.T처럼 괴력을 발휘하였던 것처럼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에 전염된 모더니즘이 영향으로 황량하고 복잡한 환경의 한국적 현대 도시상을 남겨놓은 부정적 시각이 많아지고 있다.

### 한국적 건축문화의 싹

건축문화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는 사회적 시대 배경을 앞서 밝힌 바는 서구에서 발달된 20세기 전반기의 모던이즘은 그들의 역사적 전화과정에서 자생된 문화조류인데 반해서 한국의 20세기에서 일어난 격변을 해쳐나가는 과정은 서구에서 일어난 그들의 역사에서 전수받아 한국의 시대적 격변을 치유하려는 양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국이 광복되자 6.25 전쟁으로 초토화된 상황은 건축의 문화를 의식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Less is more”的 명언을 남긴 미국의 모던이즘과 비교하면 빈곤과 미래의 희망을 포기한 생존의 본능에서 건축과 건설을 일으켜야 하는 당시의 한국적 상황은 최소의 투자가 아닌 봉사를 모면하는 축조술에서 집을 만들어야하는 분위기에서 단순하고 간결한 서구 모던이즘 건축에 관한 정보는 단지 그림의 떡으로 읽혀지고 모방하고 있었다고 회상된다. 이때 골류제 건축이 둔어진 채 금의환향하는 김중업씨와 일본의 단계신화(丹下神話) 열풍을 몰고 온 듯하게 금의환향한 김수근씨의 등장은 한국적 근대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시대적 드라마였다고 본다. 당시 생존경쟁의 원시본능에서 빛어지는 듯한 건축적 상황에서 부여박물관의 왜색시비(倭色是非)가 발달되면서, 건축작품 속에서 작가의 사상을 밝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가 생명의 분신임을 깨우쳐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격렬하게 입장에서 왜색임을 증명, 증언하면 김중업씨의 건축에도 골류제품에서 한국전통의 재조명, 발굴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콘크리트로 빛어지는 기둥과 지붕의 곡선이 부각되기 시작하고 김수근씨는 검은 전돌과 벽돌에 물들하면서 한국전통문제 그리고 공간의 의미를 새기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현대 건축계는 시대적 사명과 역사적 의미를 새겨보는 자작의 계기가 되었다고 회상된다.

1967년 건축사법이 발효되는 산고(產苦)는 컸지만 신세대의 건축가를 양산하는 계기를 만들고 이들의 건축창작 열기가 번지기 시작되면서 건축계의 세대별 단층이 형성되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 더구나 건설기업으로 중동진출이 시작되자 건축계의 분위기와 판도가 바뀌는 계기가 되면서 건축가의 개인적 사색으로 작품 창작생활에 몰두하던 상황에서 대규모 단위의 건축, 도시 규모의 설계를 소화해야 할 소위 협동체의 대규모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건축창작설계의 경쟁시대가 도래했고, 그 인적구성도 한국의 국적으로 제한할 수 없게 되고 아울러 건축가의 사상적 갈등이었던 한국적 전통계승 또는 한국적 고민에서 표출된 왜색시비, 골류제 신앙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게 되는 듯하면서 한국적 탈 모던이즘의 양상이 된다. 한편 외국건축이 직수입되는 현실에서 외국 열풍으로 물어 들어오는 기회를 그들은 실험 건축장으로 즐기고, 신세대의 램 음악 열풍 같은 새로운 건축이 벌어지면서 20세기가 마감되거나 21세기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 미래의 전망

건축경력 반세기를 치르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가운데 한국 건축문화의 변천 양상과 한국정치풍토의 변천 양상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미래를 바라본다.

조국이 광복되자 농경문화의 어진 백성들은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 선각된 정치인을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으로 모셨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독재자로 몰락되고 한국에서 자생된 무력지도자로 바뀌었다. 이들도 고통과 향락의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고 비로소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성숙된 지도자가 정치를 펼치는 20세기의 흐름에서 농경문화의 어진 백성들은 어느덧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 서구사회의 민주시민과 같은 공동체사회의 한국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건축인인가?

모던이즘 열풍과 외국건축의 선진문화를 전수하듯 한 건축가의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한국적 토양에서 일어난 사상적 갈등 속에서 건축을 깨닫는 세대,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위주의 시대조류인 글루타기에서 성장한 건축인들과의 세대교체… 여기에 대응하여 건축문화 화생을 부르짖는 새로운 건축세대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차로 밝은 전망을 예상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어가고 있는 건축계가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적 20세기의 흐름이라고 보여진다.

건축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환경을 서로 둘 어내는 산물이다. 한국인이 우리 국토에서 생존하기 위한 환경을 빚어낸 결과가 오늘 우리의 건축일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본질을 가장 깊이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문헌으로 터득된 정보와 이론보다 그들을 대하여서 쓰라린 후회를 깊이 터득한 건축적 체험의 축적이며, 이를 다음 기회는 반드시 실패의 되풀이 없이 반영하며 희망을 밝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흔히 20세기는 모던이즘에서 시작되어 포스트 모던이즘, 해체주의 등으로 암기하며 다원론, 은유법, 독창적 개성을 주장하며 시시각각으로 각양각색으로 급변하는 건축으로 과열경쟁은 주체와 객체의 주제가 제외된 한국적 세기 말 현상의 건축양상이 보인다.

아름답다던 금수강산 자연경관 환경은 대형 고층건물로 전국이 매몰되고 산수화 한 폭의 그림같은 한국 고유의 땅에 어지럽게 뿌려놓은 해체성 건축재료의 누적으로 국토에서 신음하는 소리로 들게 된다.

미래는 첨단이라는 능력을 동원하여 푸른 자연으로 되돌려 놓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건축이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주인공인 인간의 이상적 생존권이 안주되는 건축을 창조하는 목표가 우리의 미래상일 것이다.

## 20세기 한국건축의 조명과 전망

### 우리의 모더니티 - 20세기에 남겨논 문제들

The Modernity of Our Own-The Unsolved Problems of the Twentieth Century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by Jo Sung-Ryong

20세기에 들어서서 조선조 600년의 왕조시대가 끝나고 서구열강과 일본 중국의 패권주의의 각축장으로 변한 대한제국 말기의 상황과 일제 강점기, 해방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의 변화는 타자에 의한 강제적 아니면 타의적인 것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 특히 국토개발의 부문에서 살핀다면 군사정권 수립 후에 일어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물론 근대화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며, 우리의 20세기처럼 타의에 의하여 서구화 근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정확한 평가는 역사학자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국토를 복구하고 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해외 건설에 진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하면서 70년대에는 공업 단지건설, 중동 건설

특수(特需) 봄이 일어났다. 이어서 서울 강남지역의 초 대규모 개발과 그 영향으로 온 국토는 건설현장이 되다시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건축의 20세기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때 보지도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생겨난 여러 현상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잿더미에서 일궈낸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무적인 찬사가 따르는 경제성장은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사실 '꿈'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먼 나라 얘기 같은 올림픽도 치르고 세계박람회도 열었다. 선진시민이 되는 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는 듯 하였다. 그래서 웬만한 갈등은 접어두고 오직 앞 길만을 쳐다보며 매진하였다.

계량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기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주택보급률도 높아지고 개인의 주거공간이 늘었었을 뿐 아니라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기관이 확장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개발

선진국에서 민주주의 사상으로 선각된 정치인을 나라의 지도자 그리고 대통령으로 모셨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는 독재자로 몰락되고 한국에서 자생된 무력지도자로 바뀌었다. 이들도 고통과 향락의 새로운 경험을 맛보게 하고 비로소 우리의 정치풍토에서 성숙된 지도자가 정치를 펼치는 20세기의 흐름에서 농경문화의 어진 백성들은 어느덧 달라지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진 서구사회의 민주시민과 같은 공동체사회의 한국인이 되었는가? 그리고 건축인인가?

모던이즘 열풍과 외국건축의 선진문화를 전수하듯 한 건축가의 활동이 있었는가 하면, 그리고 한국적 토양에서 일어난 사상적 갈등 속에서 건축을 깨닫는 세대, 그리고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위주의 시대조류인 글루타기에서 성장한 건축인들과의 세대교체… 여기에 대응하여 건축문화 화생을 부르짖는 새로운 건축세대의 움직임을 통해서 점차로 밝은 전망을 예상하는 새로운 세대가 이어가고 있는 건축계가 성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한국적 20세기의 흐름이라고 보여진다.

건축은 주체인 인간과 객체인 환경을 서로 둘 어내는 산물이다. 한국인이 우리 국토에서 생존하기 위한 환경을 빚어낸 결과가 오늘 우리의 건축일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본질을 가장 깊이 터득할 수 있는 것은 문헌으로 터득된 정보와 이론보다 그들을 대하여서 쓰라린 후회를 깊이 터득한 건축적 체험의 축적이며, 이를 다음 기회는 반드시 실패의 되풀이 없이 반영하며 희망을 밝히는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흔히 20세기는 모던이즘에서 시작되어 포스트 모던이즘, 해체주의 등으로 암기하며 다원론, 은유법, 독창적 개성을 주장하며 시시각각으로 각양각색으로 급변하는 건축으로 과열경쟁은 주체와 객체의 주제가 제외된 한국적 세기 말 현상의 건축양상이 보인다.

아름답다던 금수강산 자연경관 환경은 대형 고층건물로 전국이 매몰되고 산수화 한 폭의 그림같은 한국 고유의 땅에 어지럽게 뿌려놓은 해체성 건축재료의 누적으로 국토에서 신음하는 소리로 들게 된다.

미래는 첨단이라는 능력을 동원하여 푸른 자연으로 되돌려 놓은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곧 건축이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주인공인 인간의 이상적 생존권이 안주되는 건축을 창조하는 목표가 우리의 미래상일 것이다.

## 20세기 한국건축의 조명과 전망

### 우리의 모더니티 - 20세기에 남겨논 문제들

The Modernity of Our Own-The Unsolved Problems of the Twentieth Century

조성룡/ 조성룡도시건축

by Jo Sung-Ryong

20세기에 들어서서 조선조 600년의 왕조시대가 끝나고 서구열강과 일본 중국의 패권주의의 각축장으로 변한 대한제국 말기의 상황과 일제 강점기, 해방후의 이데올로기 대립과 분단,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지는 동안의 변화는 타자에 의한 강제적 아니면 타의적인 것이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근대화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근대화, 특히 국토개발의 부문에서 살핀다면 군사정권 수립 후에 일어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면서 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물론 근대화 시점에 대한 여러 가지 시각이 존재하며, 우리의 20세기처럼 타의에 의하여 서구화 근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정확한 평가는 역사학자들의 몫으로 남을 것이다.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하게 된 국토를 복구하고 60년대 월남전에 참전하면서 해외 건설에 진출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하면서 70년대에는 공업 단지건설, 중동 건설

특수(特需) 봄이 일어났다. 이어서 서울 강남지역의 초 대규모 개발과 그 영향으로 온 국토는 건설현장이 되다시피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한국건축의 20세기를 생각할 때, 그 어느 때 보지도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겪었던 지난 30여년 동안의 변화 속에서 생겨난 여러 현상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잿더미에서 일궈낸 한강의 기적'이라는 고무적인 찬사가 따르는 경제성장은 우리의 어려웠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사실 '꿈' 같은 일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먼 나라 얘기 같은 올림픽도 치르고 세계박람회도 열었다. 선진시민이 되는 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오는 듯 하였다. 그래서 웬만한 갈등은 접어두고 오직 앞 길만을 쳐다보며 매진하였다.

계량적인 개념으로 볼 때 이 기간의 발전은 괄목할 만한 것이었다. 주택보급률도 높아지고 개인의 주거공간이 늘었었을 뿐 아니라 도로와 지하철 등 교통기관이 확장되었으며, 사회의 모든 분야가 그렇듯 도시기능이 확대되고 개발

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러한 발전에 따라 60년대 이전의 절대 궁핍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분명 20세기 말의 획기적인 진보에 틀림없다.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어려움을 견디며 이 만큼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의욕과 땀으로 일궈낸 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열정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눈부신 발전 과정에서 경제 논리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만큼 정치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와 후유증이 도처에 나타나고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절대 궁핍으로부터 벗어났다고 바람직한 사회가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이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마치 제야(除夜)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해 묵은 사건과 갈등을 잊고 새 출발을 다짐하는 따위의 태도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 현실에 마주 서서 냉철한 머리와 의지로 풀어가야 할 숙제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21세기가 시작되는 아침에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남겨질 땅이므로 깊지만 치부를 들어내 놓고 들어다 보며 미래와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함께 궁리해보려고 하는 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다.

### 공공시설의 문제

70년대 후반에 시작된 여러 가지 국가 공공시설의 계획은 고도 경제성장의 기운과 함께 국민의 문화의식과 문화국가의 자존심을 건 아심적인 기획에서 추진되었다. 세종문화회관, 독립기념관, 예술의 전당, 과천 현대 미술관, 국립박물관, 경부고속전철 등과 지방의 문화 시설들이 여러 정권을 거치며 이룩되었다. 경제성장이 진행되는 동안 소홀하기 쉬운 문화 부문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들 프로젝트들은 문화 자체의 발전을 위한 순수한 목적보다 나름대로 정치적인 목적에 강하게 작용된 것으로써 그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충분한 사전 계획과 프로그램 수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상의 위치나 규모, 그리고 건립시기에 있어 문제점이 노출되어 단지 파시와 실적위주로 추진된 중요 건설 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문화를 향수할 권리는 국민에게 있고 국가와 지식인은 이를 위하여 그 무엇보다도 '공익'을 우선으로 생각하여야 했다. 또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기념비적' 상징성 추구의 위험에 주의하여야 했다(한 외국잡지는 위에 들은 몇 개를 가리켜 '대통령의 프로젝트'라 빙정하였다).

### 거품 속의 호황, 실종된 정체성

80년대 물림픽 준비를 앞두고 도래한 고도 경제 성장 시대는 국가나 국민으로 하여금 선진국 사회로 들어가는 환

상적인 비전을 갖게 하였고, 전통문제에 매달려 정체성을 찾으려는 노력까지 곁들여 도시 공간의 본질적인 템색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공공시설뿐 아니라 정치 권력의 비호 아래 재벌기업에 의해 추진된 수많은 개발 기획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민간 분야에서도 토지 투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토초세 제도의 압력에 못 이겨 싸구려 상업시설이 급증하게 된다. 그 뿐만이 아니라 80년대 중반부터 때마침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 미국식 포스트모더니즘의 파도에 무분별하게 휩싸여 우리의 자연이나 도시문맥과는 전혀 상관없는 요란한 건물들이 도시와 산하를 메워갔다. 헌강 상류를 위시하여 전국토가 위락시설과 상업시설로 물살을 끓고 있다.

마치 광맥을 잡은 듯 둘 땐 분위기 속에 거대화, 고층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8,90년대에는 대기업들이 우리의 기술 낙후성을 이유로 아무런 대책 없이 외국 건축가의 설계를 그대로 수입(외국건축가의 이름도 공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해 들어오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나타났다(무조건 막아보자는 뜻이 아니다. 우리보다 먼저 80년대 일본은 외국 건축가들의 각축장이었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수행된 프로젝트는 〈간사이(關西) 국제 공항〉이나 〈토쿄(東京) 포럼〉처럼 국제설계경기에 의해 선정된 몇 개의 공공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소규모의 상업 건물이었고 그것도 외국건축가의 명성을 등에 엎고 철저하게 상업적인 가치를 표방하였던 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해 환란이후로 주춤해지긴 하였지만 국가단체와 재벌기업이 국내 건축기를 불신하고 일부 대규모 설계 조직들이 이러한 풍조를 이용해서 설계 시장을 독점하려는 분별없는 행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도시의 황폐-거대한 주거단지

70년 중반 이후의 주거단지 건설은 도시의 새로운 구조를 바꾸고, 도시의 풍경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대 사건이다. 주택 부족률을 줄이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작된 달동네 재개발, 도심 재개발, 한옥보존지구의 해제, 주택 200만호와 신도시(진정한 의미의 신도시가 아니라 베드 타운이다) 건설뿐 아니라 90년대 초의 준농림지역의 규제를 철폐하면서 논두렁에 고층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전국토의 초고층아파트시대를 열었다.

그 동안의 고층 주택환경에 대한 아무런 사회학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시장경제에 맡기기보다 정부가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관련된 법령(주택건설촉진법)과 공급제도(분양가 제한 등)를 획일적이고 근시안적으로 운용하면서(공동주택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차별화 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도시환경과 사회적 현상에서 본다면 오히려 더 나쁜 쪽으로 변질된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개발 주체인 건설회사의 주거문화에 대한 물이해와 이에 타성적으로 협동해온 건축사(기)의 무지가 대책 없는 오늘의 문제를 낳았다. 더구나 무계획적인 개발 계획으로 인하여 자자와 인력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더하여 만성적이며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부정으로 대규모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아직도 그 위험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무엇보다 접어두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 국제적인 이벤트와 도시 정비

80년대 초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 86년 아시아 대회와 88년 서울 올림픽을 유치하고 대전 엑스포, 광주비엔날레를 진행한 사건은 아마도 20세기의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국민적 화합을 이루어낸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도 국가적인 저력을 과시한 예이라.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국민 체력향상에 기여하였음은 긍정적으로 평가 할 일이 있다. 그럼에도 서울에 중요 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여, 사후 관리에서 결국 허점을 들어내 문제를 야기시키고, 급조한 도시 문화시설, 아직도 수준 이하인 공공시설, 도로와 인프라 스트럭처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으므로 소기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말하기 힘들다. 첨예하게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 상황 아래서 아시아 대회나 올림픽대회가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올림픽이나 국제적 이벤트를 개최하였던 대부분의 도시(미국이나 서구 대국들은 비교하기 어렵더라도, 이를테면 비르셀로나나 세비야 같은 도시들)들이 문화적 이미지를 강하게 표방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롭게 변신할 수 있었던 예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그리고 우리 건축인들은 이 좋은 기회를 허망하게 놓쳤다.

### 건축가의 직능과 단체

정치 사회적인 영향과 압력이 건축인들을 옥죄고 있었지만 과연 그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1960년대에 건축사라는 전문 직능이 생겨나고 따로 세계건축가연맹의 산하단체로서 한국건축기협회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건축가, 건축사로 나뉘어서 혼란스러운 직능 체계를 가진 나라도 없으며(다만 일본의 경우가 형식적으로 우리와 유사하나 내용에서는 사뭇 다르다) 벌써 몇십 년 동안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여 사회의 이해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직능상으로 차별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어려운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면허만 얻으면 쉽게 설계 사무실을 치리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직능상의 경쟁력을 약해지고 국가나 기업, 심지어 시민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워주는 “설계 기술자”로 전락해버렸다. 의사, 변호사 운운하지만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직능적인 자격과 전문인으로서의 자질을 우선 쌓아야 했다. 프로페셔널리즘이 강조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최근의 국제건축가연맹이 제시한 직능기준에

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건축사(기)가는 건축 설계 기술자가 아니라 ‘공익’과 ‘공정성’을 기본 정신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전문 직능인(Profession)’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축사(기)의 도덕과 윤리의 회복이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사회로부터 자자와 보호를 이울려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협회 또한 건축사(기)의 권익과 책임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진정한 단체로 거듭 태어나야 함에도 지금까지 처럼 정부기관에 예속된 관변단체로 그 본래의 역할을 방기(放棄)하고 있어서는 방법이 없다. 또한 아무 쓸모 없이 집단적인 이기심에 의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구심성을 마련하지 못하는 이유도 냉철하게 분석해 보아야 할 일이다. 나아가 협회는 구성원인 건축사(기) 그 자체이므로 요구만 하고 불신하는 태도를 버리고 참여하여 목적하는 바를 이루어내야 한다.

### 건축 교육, 건축가 교육

건축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은 100여 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건축가 양성을 위한 설계교육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대학은 얼마일까? 거의 대부분이 공과대학에 들어가 있는데다가 커리큘럼과 교육 년 수는 국제건축기연맹에서 제시하는 5년제 전문과정에 턱없이 모자란다. 그럼에도 설계 중심의 획일적인 건축 교육 시스템이다 보니 공대에서 우선으로 해야 할 공학·기술교육조차 설계시간에 밀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한편으로 시스템 엔지니어를 양성할 공학 과정도 충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고 있다(사실 설계교육보다 이 쪽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대학의 10~20분의 1정도만 건축대학으로 바꾼다면 ‘건축가 교육’을 전달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을 터인데 그 동안 파행적으로 비대해진 체제를 추스르기가 어려운 까닭에 쉽게 바뀌어지지 않는다. 설계를 실무하는 건축가가 대학에서 설계교육을 맡아야 할 터인데도 획일적인 교수 임용 규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그 반대로 대학교수의 설계 실무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설계교육의 큰 걸림돌이다. 대학교육이 이러한 진데 평생 끊임없이 재충전하며 사회와 기술의 변화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건축사(기)의 재교육은 꿈도 꾸지 못한다. 개인의 자질이 퇴행하는 일을 보완하는 방법도 없으려니와 국제적 변화에 무감각해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 설계 경기의 난맥과 퇴행

60년대 이후 공공건축에 대한 설계경기(현상설계)가 시행되었다. 남산도서관, 부산 역사, 국회의사당 등 당시로서는 중요한 국가 시설들이 이 방식을 통하여 건축가와 안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올림픽시설을 준비하던 80년대의 대규모 프로젝트의 설계경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후 크고 작은 공

공·민간 건축의 설계경기가 이어졌지만 비범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기보다는 행정 편의의 방편으로, 또 새로운 도시건축에 대한 도전이나 실험이기보다는 무난하고 평범한 제안을 선택함으로써 이 제도가 갖는 장점, 즉 새로운 제안, 신인 건축가의 발굴이라는 점에서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실무 경험이 없는 심사위원구성 때문에 평이한 방법으로 제대로 된 심사를 기대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일부 경기 참가 건축가들의 비윤리적인 태도와 발주기관의 무지한 횡포에 안이하게 대응하려는 태도가 맞물려 대부분의 설계경기가 파행적인 결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서글픈 우리의 자화상이다. 사업 시행자측의 안이하고 이기적인 설계경기 치첨과 운영으로 쓸데없는 시간과 물자를 낭비할 뿐 아니라 경쟁 건축가들을 혼란시켜 극도로 나쁜 풍토를 조장하고 있음도 간과하지 못 할 일이다. 텐키 시스템 등 실적 위주의 평가 방법도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효율적일 수 있으나, 신인 건축 인들이 참여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요인이 된다.

### 20세기를 넘어서

우리에게 20세기는 무엇인가?

우선 서기력으로서의 20세기와 21세기의 차

이는 무엇일까?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이라는 올해, 4332년과 1999년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세기말이라든지 밀레니엄은 서양인들이 정해놓은 시간의 개념이며 그래서 우리의 시간 개념과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확대되는 시대에 바깥의 변화에 대하여 무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90년대에 이르러 인터넷과 정보 통신, 위성방송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하고 일반 상용화되면서 우리의 사회와 인간의 삶은 이제 국경이나 나라의 개념을 어느 부분 수정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우리는 정보화 사회에 들어 서 있다. 정보화 사회, 지식사회로 일컬어지는 새 시대의 정신은 무엇일까? 위에 열거한 산적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묘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하나의 원칙이 아니라 다양한 사고를 존중하고, 개인의 이익보다 사회와 공공의 이익이 추구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큰 명분을 추구하는 일보다 작은 부분의 전문화된 지식과 관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실천하는 자세가 인정 받는 사회가 되어야만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문제를 끌어 안고 새로움으로 출발 할 수 있는 슬기와 지혜와 용기를 바라며.

### 20세기 한국건축의 조명과 전망

## 지나온 20세기와 새로운 21세기를 내다보며

*Looking Back on the Twentieth Century, and Looking Forward to the Next One*

민선주 / 위기건축사사무소

by Min Sun-Ju

“나는 내집이 사방으로 봉쇄되어있고 창문은 꽉 막혀있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모든 땅의 문화가 최대한 자유롭게 내집 주변에 부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나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든 내 밭이 땅에서 떨어져 부유하게 되기를 거부한다.”

〈마하트마 간디〉

무턱대고 본 원고청탁을 수락한 후, 내용을 준비하려다보니 20세기를 뒤돌아보고 21세기를 내다본다는 것이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원고보다 더 어려운 과제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먼저 왜 이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야할 것이며, 그러한 글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본 주제를 맡은 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급한 마음에 인터넷으로 교보문고에서 제목에 20세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책자들

을 찾아보니 117권이 등록되어 있었다. 시간을 내어 관련 서적들을 훑어보았다. 20세기 중반에서부터 쓰여진 글들이 다양한 분야별로 서술되어있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20세기 초반부터의 사실들을 나열한 방식으로 쓰여있었다. 필자는 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20세기의 건축적 사건들을 열거하기보다 디자이너로서 원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그와 같은 의견들을 수렴해 보기로 작정하였다. 특히 이번 글에서 쓴 방식은 필자가 원하는 내용을 다른 분야의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 전하고, 필자는 그 글 조각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첫 이유는 글을 읽다보니 인용하고 싶은 구절이 너무 많아진 것이고, 둘째로는 우리가 건축 내에서 논하는 내용들이 문학의 타 분야에서도 같이 거론되는 사항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글의 방법은 하버드대의 조지 베어드교수가

## 건축실무 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 표준안

### UIA Accord on Recommended International Standards of Professionalism in Architectural Practice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 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 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ssion)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 (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축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편집자 주)

UIA(국제건축가연맹; International Union of Architects)는 1948년 6월 28일 스위스의 로잔느에서 설립된 전 세계적 건축가들의 모임이다. 유네스코의 협력단체로서 가장 많은 회원국을 가진 단체이며, 회원 지부구성은 각 국의 건축가단체로 되어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건축가협회가 1963년 10월 제9차 멕시코 총회에서 가입이 승인되었다. 국제건축가연맹(UIA)은 국적, 인종, 종교, 교육, 건축이념 등을 초월하여 건축가들간의 자유로운 교류를 용이하게 하고, 또 심화시킴으로써 건축가들이 그 이념과 개념을 비교하고 상호의 경험에서 이익을 추구하며, 지식을 넓히고, 건축가 상호간의 우정과 이해와 존경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금년 UIA 총회는 6월 23일부터 4일간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것이며, 이때 건축실무전문화에 관한 UIA 국제표준안을 채택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UIA 산하에 건축설계실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를 두어 위원회가 마련한 「건축업무의 프로페셔널리즘 국제표준안에 관한 UIA 협약 발의안에 대한 결의안」을 UIA 이사회와 만장일치로, UIA 총회에서 채택하도록 추천하게 되었다. 그 결과를 토대로 UIA 총회에서는 추후 UIA와 PPC의 계속적인 작업지도방침으로서 협약상의 여러 규정들을 제정하고 있는 바 이번에 소개되는 협약안은 1999년, 제21차 UIA 베이징 총회에 상정될 의제로 그 최종 문건으로의 계속적 개발에 회원 지부들의 협력과 참여 의뢰와 함께 전 지부에 보내지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가들의 프로페셔널리즘 국제 표준안

에 관한 기본 방침의 골격으로 인정됨과 동시에, 본 작업의 진행단계에 따른 WTO(세계무역기구)와 기타 여러 국제기관 및 기구들의 계속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있다.

이 정책 문건이 UIA와 UIA 회원국들에 의해 채택될 경우 본 위원회가 각 회원국의 건축 등록 / 면허 / 증명 기관 및 UIA 각 회원국 인정 기관들이 보다 상세한 지침안 작성을 위한 하나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본 작업이 추후 진행되면서, UIA 각 회원국의 자주성이 존중될 것이고, 각 회원국의 동등성 원칙 및 회원국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요구조건들이 추가될 수 있는 융통성이 허용되리라 본다.

또한 본 협약은 「프로페셔널리즘의 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여, 일련의 정책 의제들로 이어지며 각 정책의 제는 주제 정책의 정의(正義)에 이어, 정책의 배경과 그 방침에 대한 기술로 이어진다.

아울러 합의나 조정 등에 대한 상호인정을 위하여 합의된 지침이라는 관점에서, 본 협약이 각국 정부와 협상 주체들, 또는 건축 서비스에 대한 상호인식 협상에 들어가는 그 밖의 주체들에게 실제적인 지침이 되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지침은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각 회원국의 자율적 의지에 따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이다.

본 지침 문건들은 인정의 합의를 놓고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의 협상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정을 이루어내는 가장 보편적 방법은 양지간 합의에 이르는 것이었으며, 이는 가츠(GATS) 제7조에서도 허용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어 왔다. 협상 당사자간에는 교육 및 시험의 수준, 경력의 요구조건, 제반 규제사항 등에서의 상호 차이점이 있으며, 이는 모두가 다자간의 만족스런 인식도달을 자극히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다. 양지간 협상은 두 개의 당사국 간에 관련된 주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춤으로서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다른 문제들에 대한 합의 도출도 가능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상호 인정으로 확대하게 될 것으로 본다.

## ◇ 건축 설계 업무의 프로페셔널리즘 국제 표준 안에 관한 UIA 협약

### 1. 프로페셔널리즘의 제 원칙

건축 설계적 종사자들은 프로페셔널리즘, 표준(이행), 성실성 및 능력 발휘에 진력함으로써 건축환경 및 소속 사회와 문화 복지의 발전에 긴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재능을

사회에 제공한다. 프로페셔널리즘의 제 원칙은 법령은 물론 건축행위를 규정하는 윤리규범 및 규칙 등으로 제정되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1) 전문성

건축가는 교육, 훈련 및 실무경험 등을 통하여 개발된 체계적인 지식과 기술 및 이론을 갖는다. 건축교육, 훈련 및 시험의 과정은, 건축기가 일정 건축업무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그가 적절한 업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납득할 만한 표준을 충족시켰음을 일반인에게 확신시킬 수 있는 구조로 짜여져야 한다. 더욱이, 여러 건축가 전문 단체들의 대부분 회원들, 특히 UIA 멤버들은 예술 및 과학으로서의 건축학에 대한 각자의 지식을 유지·발전시킴은 물론, 기존의 건축학적 성과체계를 존중하고, 그 성장에 기여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 2) 자주성

건축가는 그 의뢰인과 사용자들에게, 개인의 이익을 초월하여, 전문적 조언을 제공한다. 예술과 과학으로서의 건축을 추구해 나감에 있어 건축가는 이상적이고 타협에 의하지 않는 전문적 판단이 다른 어떤 동기보다 우선한다는 이념을 견지해야 한다.

건축가는 또한 자신의 전문업무를 규정하는 법률의 정신과 그 내용을 포용하고, 자신의 업무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 3) 봉사

건축가는 자신의 건축주와 사회로 인하여 행하는 업무에 자신을 돌보지 않는 높은 수준의 헌신을 수반한다. 건축 관계자들은 유능하고, 건축주를 대신하여 편견 없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할 책임이 있다.

#### 4) 의무

건축가는 의뢰인에게 제공한 독자적인 조언 및 필요시 행한 중대한 조언에 대하여, 그리고 사회와 환경에 자신의 업무행위가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책임을 인지한다. 건축가는 자신과 함께 일할 컨설턴트들이 교육, 훈련 또는 경험에 의하여 특정 관련 기술 분야에 자격을 소지한 자들일 경우에 한하여 전문 업무수행을 맡는다.

UIA는 각 회원국과 본 위원회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위해 프로페셔널리즘의 원칙과 전문적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상호인식이 건축 전문직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함은 물론 공공의 이익과도 합치된다는 입장을 지지하고자 한다.

UIA의 원칙과 표준이 목표하는 것은 건축가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실무를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근본적

인 전문 요구조건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려는데 있다. 이 표준에서는 각 국가별 상이한 교육적 전통을 간파할 수 있으므로 이 특수 여건으로 인한 요인들의 반영을 허용한다.

## 2. 주요 정책의제(건축설계 업무)

### 1) 정의

건축 설계 업무는 도시계획 및 설계, 공사(Construction), 확장, 보존, 복구 또는 단일 건물이나 건물군(群)의 개조 등과 관련된 전문 용역의 제공으로 구성된다. 이 전문 용역은 도시계획(Planning) 및 토지이용계획, 도시 설계, 기획설계, 실시설계, 모형, 도면, 시방서 및 기술 관련도서, 기타인들(컨설팅 엔지니어링, 도시 계획가, 조경 건축가, 기타 전문 컨설턴트)에 의해 준비된 기술문건들의 조정 등을 비롯하여 시공 경제성, 계약관리, 공사 감독 및 프로젝트 관리 등을 포함한다.

### 2) 배경

건축가들은 고대로부터 예술과 과학으로서의 건축 설계 업무를 수행해 왔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축 업무는 폭넓은 성장과 변화를 거듭해 왔다.

건축가의 직무 범위는 확대일로에 있고, 건축 주들의 요구사항과 기술적 진보는 보다 복잡해지고 있으며 사회적 생태학적 요구는 점점 더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용역과 설계 및 공사 과정에 관여하는 많은 당사자들 간의 협력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

### 3) 방침

건축 설계 업무의 내용을 이상에서 정의된 대로 UIA 국제 표준의 개발에 사용키로 한다.

## 3. 건축가

### 1) 정의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관습상의 「건축가」라는 호칭은 항상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로서 본인이 활동을 하고 있는 관할지역내에서 공적으로 건축업무 수행에 필요한 등록 / 면허취득 / 증명의 과정을 필한 자인 동시에 공정하고 속 가능한 개발과 복지 그리고 공간과 조형 및 역사적 상황에 의한 사회 거주지의 문화적 표현을 지지하는 일에 책임이 있는 자에 한정한다.

### 2) 배경

건축가들은 대규모의 부동산 개발, 건축물 그리고 건설재정부분에 위탁을 하는 일 보전, 설계, 건설, 시설, 재

정, 규칙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협조하는 환경을 운영하는 일에 속하는 공적 또는 사적부문의 일원이다. 건축가들은 다양한 여건과 조직 안에서 일한다.

예를 들어 건축가들은 독립적으로 또는 민간 사무소나 공공 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다.

## 4. 건축가의 기본조건

### 1) 정의

건축가로서 등록 / 면허 / 자격의 기본조건은 지식과 기술, 능력이 인정된 교육 · 훈련을 통하여 이뤄져야 된다고 아래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격 있는 전문적인 건축실무를 위해서는 실증활안한 지식, 능력, 경험을 숙달한다.

### 2) 배경

1985년 8월 최초로 각 나라가 한데 모여 모임을 갖고 건축가의 기본적인 지식과 능력 등을 명시하였다 (Directive 85/384 EEC of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심미적이며 환경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기술적인 요구 두 가지다 만족시키기 위한 건축디자인 창출 능력
- 건축이론, 지식, 관련예술, 기술, 인문과학에 관련된 충분한 지식
- 건축디자인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순수예술에 관한 지식
- 도시디자인, 도시계획의 정확한 지식과 설계과정을 포함한 기술의 정확한 지식
- 인간과 건물, 건물과 환경관계에 대한 이해와 건물에 대한 공간, 인간에게 필요한 건물과 공간의 비율
- 건축 전문직에 대한 이해와 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
- 작품의 조사방법의 이해와 디자인 개요준비의 이해
- 건물디자인에 관련된 구조적인 디자인, 시공, 토목문제의 이해
- 물리적, 기술적 문제의 정확한 지식으로 내부안전도와 기후에 대비한 빌딩의 기능에 대한 지식
- 비용 요소와 빌딩규제 부당에서 빌딩소유자의 요구조건에 상응하는 필요한 디자인 기술
- 산업, 조직, 규제의 정확한 지식과 디자인 개념을 건물로 도입하고 통합된 설계를 총체적인 계획으로 도입시키는 과정에 대한 지식
- 사업재정과 비용절감에 대한 정확한 지식

### 3) 정책

UIA는 UIA 국제기준법의 발전을 위하여 위에

기술한 최소의 자격조건 제시안을 채택하여 주어진 건축프로그램 과정에서 중점을 두어 보충되도록 촉구한다. 건축가의 기본 조건이 건축 전문직으로서의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UIA는 이를 지속적으로 채고, 보충할 것을 촉구한다.

## 5. 교육

### 1) 정의

건축교육에 있어서 건강, 안전, 생태학적인 균형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기술방식과 요구사항을 포함한 건축 디자인 지식과 능력을 이수할 것을 확실히 보증해야 한다. 또는 건축을 위한 연마된 분석력이 있고 창의력 있는 생각으로 문화, 지식, 역사, 경제, 환경적인 정황을 이해하여 사회에서의 건축가의 역할과 책임의식을 갖는다.

### 2) 배경

건축교육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례대로 4~6년의 정규적인 학문 교육을 받는다(일부 국가에서는 실무경험/훈련/인턴쉽 기간이 따른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변화가 계속되어 왔다(부업경로나 업무경험 등).

### 3) 정책

UIA는 건축가의 교육을 신입/인준/승인 받은 대학에서 신임 / 인준 / 승인 받은 건축 프로그램으로 정규 수업받는 것을 원칙으로 5년이나 학제로 정할 것을 주장한다. 하지만 다양한 교수법과 지역적인 상황에 맞도록 동등법내의 융통성을 협용한다.

## 6. 신임 / 인준 / 승인

### 1) 정의

건축프로그램이 인정된 학력기준에 적합하도록 재정되는 과정이므로 정확한 교육적인 기초를 확립하고 보강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2) 배경

독립된 조직에 의해 인준기준과 신임 / 인준 / 승인의 과정에서 건축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통합되어 조정되도록 돋는다. 경력 실사 기준은 법이나, 일부국가에서는 국내의 능력보증심사와 외국 모니터에 의해 조화되어 향상될 수도 있다.

### 3) 정책

외부 관계기관이 5년이나 간격으로 대학에 신임 / 인준 / 승인하는 과정이다. UIA는 국가의 관련 고등교육 기관과 협의하여 건축가의 전문교육이 학문적으로 조직화되고, 일

관성 있는 지식을 통하여 이루어진 실무를 바탕으로 한 결과 지향적인 내용으로 발전시켜 이 과정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지도한다.

## 7. 실무경험 / 훈련 / 인턴쉽

### 1) 정의

등록 / 면허 / 자격에 앞서 건축교육기간중이나 전문학원 수여에 따른 건축 실습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 2) 배경

등록 / 면허 / 자격 신청자는 실무훈련을 통하여 학문적인 부조화를 보충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을 통합시켜야 한다.

### 3) 정책

등록 / 면허 / 자격에 앞서 인정할만한 경험 / 훈련 / 인턴쉽 과정을 통하여 건축가로서 갖추어야 할 건축학 위 실무기간을 최소 2년으로 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동등법내에서 융통성을 요한다.

## 8. 전문 지식과 능력의 실증

### 1) 정의

국가 관계 기관은 건축가로서 등록 / 면허 / 자격을 위한 신청자에게 일정 수준의 지식과 능력 실증을 요구한다.

### 2) 배경

신청자가 얻은 필수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훈련/인턴쉽을 거친 후에 종합적인 건축 실무에 있어서 최소의 능력과 지식을 실증받은 후에만 건축가의 지식과 능력을 일반에게 확증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격은 심사나 다른 증거에 의해 실증되어야만 한다.

## 9. Procurement 건축가의 조달

### 1) 정의

위임받은 건축서비스에 의한 과정

### 2) 배경

건축가는(경영법에 의해) 자신의 이익 이전에 고객과 사회의 지대한 이익을 옹호해야 한다. 자신의 자원으로 공공의 요구조건에 맞도록 직무실행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나 위탁된 직무 비용규모와 일치되도록 보상 받아야 한다. 건축가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택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인 WTO의 일반조달합의문(General Procurement

Agreement)과 EU의 Service Directive와 같은 국제법이 있다. 하지만 요즘은 공공작업이나 개인작업을 함께 있어서 기관만을 기초로 하여 선택하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가격원칙에 선택기준을 두는 건축가는 사회적, 경제적인 건축환경의 가치가 디자인과 타협되어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절감된다 고 그럴듯한 이유를 듣는다.

### 3) 정책

건축환경을 생태학적인 면에서 발전시키려면 사회 단체에서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인 가치를 두어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그 사업에 가장 알맞는 건축가 선정을 위한 건축가 임명 조달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의 영역을 정의하는 완본 개요에 의거한 협상지도
- UIA 지침서에서 제시한 QBS(a qualification based selection)절차
- UNESCO/UIA 국제경기 지침서에 정의된 원칙에 따라 국 가당국이나 전문 건축협회에 의해 승인된 건축설계경기

## 10. 윤리와 행동

### 1) 정의

윤리와 행동강령은 건축가의 실무 경영에 있어서 그 행위에 지침이 되도록 기준이 제정된 것이다. 건축가는 실무에 있어서 각 관할 구역의 윤리 행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배경

윤리행동법은 전문, 건축의 이익을 종신 시킬 뿐만 아니라 서민과 일반 사회복지를 실행시키기 위한 기본 목적을 둔다.

### 3) 정책

현 UIA 자문위원회의 국제 윤리법은 윤리행동 조약 정책을 위한 권고된 조약과 지침서로서 UIA 베이징 이사 회와 총회에 의해 채택될때까지 유효하다. 새로운 제안법의 완 본이 부록 B에 부착되어 있다. UIA 회원지부는 윤리행동법이 각 나라에 도입되기를 장려하며 가능한한 전문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국제법이나 자국의 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도록 조장한다.

## 11. 지속적인 직업 발전

### 1) 정의

지속적인 직업 발전은 건축가의 지식과 지속적인 능력을 유지하고, 방향 시키고 늘려가도록 하는 평생동안의 학습 과정이다.

### 2) 배경

회원 등이 현재의 기술을 유지하고,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데 시간 투자를 하도록(보통 1년에 최소한 35시간) 요구하는 전문 학회와 관리 기관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업무 방법 변해 가는 사회적, 생태학적 상황에 발을 맞추는 것은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 전문 연구소들이 회원들의 결속력을 새로이 다지고 유지하는데 있어서 지속적인 직업 발전이 필요하게 된다.

### 3) 방침

UIA는 각 부서의 회원들에게 멤버쉽의 의무로서, 대중의 요구로서 지속적인 직업 발전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한다. 건축가는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유능해야 하며 행동 규약은 “기본 사항”과 여기서 비롯되는 갖가지 변수 하에서 건축가로 하여금 다양성 속에 하나의 기준을 유지하게 해야 한다. 그와 동시에 UIA는 등록 간접을 위한 지속적인 직업 발전 과정을 더하고 각 나라간의 상호 관계를 촉진시키고, 이런 주제에 관한 방침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안해야 한다.

## 12. 업무 범위

### 1) 정의

토지 이용 계획, 도시 계획, 건물 설계 등과 관련된 설계와 운용에 대한 규정이다.

### 2) 배경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도시 계획과 건설 환경은 점점 복잡해졌다. 건축가는 점점 더 넓어지는 도시를 미적, 기술적, 법적으로 고려해서 다루어야 한다. 법적, 기술적, 업무적인 요구가 서로 부합하고 사회의 필요와 요구가 확실히 만족되려면 건축 설계에 대한 합동 연구가 필요함이 입증되었다.

### 3) 방침

UIA는 윤리와 행동 규약의 조항에 한정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업무의 범위를 계속 넓혀나가도록 격려하고 고무시키며 영역확장을 해나가기 위해서 이에 상응하는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는 확신을 주려 한다.

## 13. 업무형태

### 1) 정의

건축가가 건축 업무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범위

### 2) 배경

전통적으로 건축가는 개인별로 공동으로 공공 또는 개인 연구소에 고용된 상태로 업무를 해왔다. 요즈음에는 업무의 요구사항들이 다양하게 결합된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서 허용되지는 않지만 무한 또는 유한 책임 회사, 협동 작업, 대학에 기지를 둔 프로젝트 사무실, 공동 건축 등이다. 이런 협동 형태에는 다른 분야의 일원도 포함될 수 있다.

### 3) 방침

건축가는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안에서 법적으로 합당하다면 어떤 형태의 업무라도 허락되지만 일반적인 윤리와 행동 규약을 따라야 한다. UIA는 업무 형태와 다양한 각 지방의 상황에 2차의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역할을 확장시킨다고 생각되는 정책과 기준을 발전, 수정시켜 나갈 것이다.

## 14. 주최국의 업무

### 1) 정의

주최국의 업무는 거축가 개인이나 어떤 건축가 협회가 한 프로젝트를 받아 설계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고 싶거나 위임장을 원할 경우 또는 스스로를 위해서보다는 한 국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것이다.

### 2) 배경

건축가들이 눈에 띄게 유통성이 있고 외국 관할 구에서 활동할 능력이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각 지방의 환경과 사회적, 문화적 요소, 생태학적, 법적 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도 있다. 전문 연구소의 회원들은 관례적으로 알려진 기준을 유지하리라는 기대를 받는다. 이것은 전문 연구소가 퍼뜨린 행동 규약을 신봉하고, 멤버쉽의 요구 즉, 지속적인 직업 발전을 이뤄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3) 방침

전문 연구소가 없는 나라에서 UIA는 전문 건축가들에게 대중의 요구에 맞추어 그런 연구소를 만들도록 고무시켜야 한다. 전문 연구소는 자기 회원들이 UIA의 국제적인 기준, 최소한 UIA-UNESCO의 교육헌장, UIA의 국제 윤리와 행동 규약만이라도 맞추고: “기본 상향”(현재는 물론 앞으로도)의 목록에 나와 있는 지식과 기술에 뒤쳐지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건축가들이 봉사하는 점을 확신시켜야 한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나라에서 한 프로젝트를 받아 건축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가는 필요할지도 모르는 법적, 환경적, 문화적, 세속적 요소들을 적절히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건축가와 공동으로 일하게 된다. 협동의 조건은 UIA의 민족적 기준과 지방법에 대한 관계자가 결정해야 한다.

## 15. 지적 소유권 / 저작권

### 1) 정의

지적 소유권은 특히, 저작권, 상표의 세 가지 법적 영역을 포함한다. 이것은 설계자, 발명가, 저자, 생산자가 자신의 아이디어, 설계, 발명, 원작자의 작품,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 확인 등에 대한 권리(때로는 어떤 국가법의 보증을 받아서)를 뜻한다.

### 2) 배경

건축가의 설계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나라가 많지만 그 보호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건축가가 예비 고객과 함께 아이디어나 발상을 논의하고 고용되지는 않은 체로 나중에 그 고객이 건축가의 아이디어를 보수도 없이 도용하는 걸 깨닫는 경우 드물지 않다. 어떤 측면에서 건축가의 지적 소유권은 국제적인 모조품 무역을 포함해서, 지적 소유권의 무역과 관련된 면에 대한 할의라고 한다(TRIPS). 1955년 9월 16일 세계 저작권 총회 도한 국제적인 의의가 있다. 유럽에서는 1886년에 제 2차 빠른 조약이 대부분의 국가에 맺어졌다.

### 3) 방침

UIA 회원 지역의 국가법은 건축가의 권리와 책임에 손해를 입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축가가 작품의 지적 소유권과 저작권의 소유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여 받아야 한다.

## 16. 전문 건축연구소의 역할

### 1) 정의

전문가들은 보통 일련의 기준(즉, 측정이 가능한 교육, 도덕, 전문가로서의 기준)을 결정하는 관리 기관의 통제를 받는다. 규칙과 기준은 대중의 이익과 회원들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만들어진다. 어떤 나라에서는 예 의해 회원들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일은 필수적인 교육수준, 훈련, 기준, 수양을 갖춘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남긴다. 연구소는 건축의 진보와 지식의 발전을 위해 회원들에게 양히 알려진 기준 “공공의 이익 보호”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설립되었다.

### 2) 배경

한 나라가 직할 보호 쪽이든 기능 보호 쪽이든 (양쪽 다거나 어느 쪽도 아니든)간에 거기에 따라 전문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은 꽤나 다양하다. 어떤 나라에서는 이런 기능들이 분리되기도 한다. <자료제공: 건축3단체 국제교류협의회>

# 프랑스 건축이론의 전통과 20세기의 건축(3)

The Tradition of Theory in French Architecture and the Architecture of 20th Century

##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김미상\* / 경기대 건축대학원 강사  
by Kim Mi-Sang

### 목 차

1.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① 장식 (la Décoration)
2. Jacques-François Blondel의 건축이론:  
② 배치 (la Distribution)
3.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①
4. Etienne-Louis Boullée의 건축이론 ②
5. E-N Ledoux의 건축이론 ①
6. E-N Ledoux의 건축이론 ②
7. J-J Lequeu의 건축이론
8.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9. 고전주의 건축과 자주적 건축  
(Architecture Autonome)
10. Beaux-Arts의 합리주의
11. Le Corbusier의 건축사상에 나타난  
합리적 건축의 전통
12. Epilogue: 21세기와 건축이론

Boullée는 1728년 건축가의 아들로 태어났다. 처음에는 미술교육을 받았으나 후에 18세기 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 건축가 Jean-François Blondel과 Legeay(르제)의 제자가 되었다. 그는 아버지 때문에 저지당한 회화수업에 언제나 회한을 품고 있었는 듯 하다. 스승 Blondel로부터는 최종적으로 합성된 고전주의를 전수받은 반면 Legeay로부터는 새로운 미학, 즉 로마에 있던 Académie de France의 재원자들(在院者: Pensionnaires)과 Piranesi나 Quatremère de Quincy(까트르메르 드 켙시)와 같은 '고고학자'들이 거대한 기념물을 찬양하던 새로운 취향에 의하여 형성된 Monumentalism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Legeay는 화기수업을 받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건축 분야의 제자들에게 Project를 제작할 때 부조의 효과 및 음영과 양궤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하도록 강요하였다. 거대주의를 꿈꾸는 그의 정신은 1765년 발행된 Peyre(1730~1788)의 *Livre D' Architecture*(건축서)에 수록된 정신에 비교할 만하다. Peyre는 '프랑스적인 건축을 위한 투쟁에 사용될 그리스와 로마건축으로의 회귀'를

\* 본명 김현식

주장하기 위하여 화려한 장식을 버리도록 주장하였고 이제부터 예술가들이 모방하여야 할 것으로 고대 로마의 거대한 기념물인 육장과 궁전을 모범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미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Boulée는 Rocaille 양식의 어떠한 자취조차도 반대하는 고전주의자로서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는 Saint-Roch(생 로크) 교회의 건축을 완성하였으며 1762년 Hôtel de la Monnaie(오델 드 라 모네)의 계획을 제안하였고 이 때부터 Académie에 참여하였다.

Boulée는 Peyre가 <Machine Immense: 거대한 기계>라고 명명한 Palais Bourbon(부르봉 궁)의 복구 계획안에서 이미 감지할 수 있는 거대화를 감지할 수 있지만 Hôtel Alexandre(오델 알렉상드르 1763)나 Château de Chaville(샤빌 성 1764)에서 볼 수 있듯이 Jules Hardouin Mansart의 계승자이자 <Grande Manière: 거대화 수법>의 옹호자인 Ange-Jacques Gabriel(앙주 - 작끄 가브리엘)의 기풍 하에서 거대화의 계획을 위하여 작업하였다. Hôtel de Monville(오델 드 몽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파괴되어 사라진 Hôtel de Brunoy(오델 드 브루노아)에서는 전환적기적인 혼적을 발견할 수 있다. Boulée는 개인의 건축을 위하여 규정된 모든 Convenance의 규칙들에 반하여 파사드에 Péristyle을 채용하여 Hôtel de Brunoy를 Temple de Flore(땅뜰 드 플로르: 꽃의 사원)로 변형시켰다.

이 시기 이후 Boulée는 원형 오페라계획(1781), 공공 도서관(1783), 궁전계획(1785) 등과 같은 1780년부터 1790년 사이에 있었던 대규모 공공 건축에 전념하기 위하여 단골 손님들을 버렸다.

1778년 Contrôleur Général des Bâtiments des Invalides et de l'Ecole Militaire(앵빌리드 및 사관학교의 건축 총감독)가 되기 이전인 1775년 그는 Trouard(트루아르)를 계승하여 2년 동안 Intendant des Bâtiments du Comte D'Artois(퐁뜨 다르루아의 건물감독)에 임명되었다.

정치적으로는 공화주의자였으며 1791년 2월 De Wailly(드 웨일리), Bronginart(브로니아르), Moreau(모로)와 같은 인물들과 함께 Académie의 개혁을 위한 계획 발의 하였으나 그 역할 후 Institut가 설립되며 1795년 12월 그곳의 일원이 되었다.

은퇴하여 집에 거하며 과거의 계획안과 자기의 예술에 관한 반성들을 정리하는데 시간을 보내다가 1799년 2월 4일 자기 집 rue des Fossée-Montmartre 38번지에서 사망하였다.

일찍 시작된 교육직의 소명은 Boulée로 하여금 실제 건축작업보다도 논문을 만드는 일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이끌었다. 비록 세워진 건물은 거의 없지만 1953년에야 처음으로 출판된 그의 책 *Essai sur l'Art*(예술소론), 그 삽화로 썩어지도록 만들어진 100여장의 Dessin들, 그리고 *Considération sur l'Importance et l'Utilité de l'Architecture*(건축의 중요성과 유용성에 관한 고찰)과 같은 저작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의 작품의 본질을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전해 준다.

건축분야에 있어서 계몽주의 세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풍미하였던 상대주의적 시각은 비트루비우스의 법칙을 재심판하였다. 그와 병행하여 고대에 관한 새로운 해석 및 이전에 비하여 한결 높아진 고대의 지식은 루이16세의 통치하의 건축가들로 하여금 주법에 관한 일상적 공론을 무시하고 비례의 개념을 차수의 것으로 대치하는 체계적인 연구를 더욱 더 다지게 되었다. 이런 분위기 하에서 Laugier와 마찬가지로 Boulée는 건축언어의 간신에 대한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Laugier는 la Cabane Primitive(원시 오두막)으로부터 출발한 개념보다는 제작을 위한 법칙을 마련한 반면 Boulée는 아마도 Alberti의 *De re Aedificatoria*로부터 영향을 받은, 건축하기 위하여 발견되어야 할 상상의 관념적 법칙이어서 개념이 제작보다 우선하는 법칙을 마련한다. Condillac으로부터의 영향 및 자연에 관한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이루어진 발견들



그림1) Piranesi 감독 (1760~1765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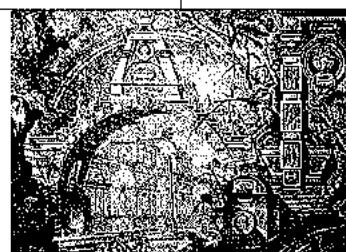


그림2) Legeay, 건축적 환상



그림3) Ch. De Wailly,  
로마의 판테온 내부 상상도 (1756).  
<그림1>의 Piranesi와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에 힘입어 Boullée는 자연의 모방에 관한 건축 논문을 재건하였다. 왜냐하면 자연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아이디어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Boullée는 회화적 미학과 건축적 미학이 긴밀히 연결된 그가 친히 명명한 *(Théorie des Corps) 신체이론*이라는 것에서 형태의 분류를 제의한다. 즉 건축에 있어서 Image들을 산출케하는 기술은 신체의 인상(Effets des Corps)으로부터 유래하며 그것이 바로 Poésie를 구성하는 것이다. 육중한 신체로부터 가벼운 신체를 구별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 위에 일으켜지는 양궤들의 효과이다. 그리고 예술가로 하여금 적합한 Caractère를 그 작품에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오로지 신체의 연구로부터 나오는 올바른 적용에 의해서이다. (*Considération sur l'Importance et l'Utilité de l'Architecture*). 자연의 효과들을 건축에 부여하기 위하여 건축은 상징적이 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자연의 효과들이 지난 우리의 신체와의 유사성에 의하여 신체의 본질로부터 유래하는 고유성(Propriété)은 우리의 감각을 움직일 힘이 있기 때문이다. '신체의 효과가 그 양궤로부터 오기' 때문에 건축가는 양궤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추구하여야 한다. Boullée에게 있어서 빛은 건축의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장려한 인상은 양궤가 투영하는 그림자의 연출에 의해서만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 Caractère

1933년 Emil Kauffmann은 Von Ledoux zu Le Corbusier(Ledoux로부터 Le Corbusier까지)라는 저서를 통하여 - 비록 그 내용 가운데 Le Corbusier 및 그 주변에 대한 언급은 제독 외엔 전혀 찾아볼 수 없지만 - 당시 모더니즘에 있어서 Le Corbusier에 의하여 시작된 새로운 건축운동의 근원은 Ledoux로부터 시작된다고 제시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이 전통이 적어도 Le Corbusier 이후 Louis Kahn에까지 이어지며 그 내용은 현대 건축의 논쟁 거리가 되는 사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안다. 이것에 의하면 건축의 형태는 자발적인 것이며 본질적으로 내재적인 뜻이 있어 의미심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Kaufmann은 Three Revolutionary Architects, Boullée, Ledoux, and Lequeu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저서를 통하여 계동주의 건축으로부터 모던 건축의 이론적 기원을 찾고 있다. 그에 의하면 Boullée와 Ledoux는 고대의 양식적 모방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건축가와 관련된 인물상, 기능, 직업관 등의 견지에서 볼 때 급진적인 혁명을 이룬 신고전주의 건축의 탁월한 창건자들이다. 제목에서 언급된 소위 '혁명적 건축'

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18세기부터 진행된 그 형성과정에 대하여 정통해야 하는데 건축사가 Kruft는 제목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의 소지와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이 역사적 현상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그것을 단이(單離)된 하나의 움직임으로 파악하게 하였고 그 결과 '혁명적 건축'은 과거로부터 단절된 것이고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가까운 모던 건축의 출처로서 잘못 해석하도록 인도하였다는 것이다. Kruft의 지적에 의하면 Kaufmann의 책 속에서 '혁명주의적 건축(Revolutionary Architecture)' 이런 명칭으로써 다루어지고 있는 건축사상들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Révolution)과 관련된 표현이 아닐 뿐더러 그 운동의 혁명당원들(Révolutionnaires)에 의하여 전개된 것도 아닌 훨씬 더 오래 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혁명<sup>1)</sup>의 과정을 다루도록 빌미를 제공하였다.<sup>2)</sup> 사실상 이 건축적 움직임, 이러한 사상은 혁명가들의 것이 아니라 혁명후 일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던 왕정주의자들의 작품이다. 어찌 되었든 우리는 건축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혁명적' 요소들을 정치의 대변동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떤 사상, 생각들은 엄정한 정확성과 이성으로써 극단적으로 정련되고 합리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후에 혁명적 건축가들이 그것에 따라 건설했으며 어느 정도 그들에게 전수되고 한결 더 과장하게 된 18세기에 연연히 흐르고 있었던 이론적 논의의 다양한 흐름들에 정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암시하였듯이 Boullée는 소수의 건물과 개인 주택의 인테리어만을 남겼다. 그가 보유하고 있던 다수의 건축 행정직과 1급 간부로서 Académie D' Architecture에 입회함은 그를 1781년 건축업무로부터 은퇴할 수 있는 자력을 마련케 하였으며 전혀 있음 직하지 않으며 공상적이어서 실행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순수 계획안들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Boullée의 중요성은 주로 그가 저술한 *Essai sur l'Art*와 1781년부터 1793년 사이에 이 책과 연관하여 저작한 Design들에서 찾을 수 있다. 1793년 그의 뜻에 따라서 그의 원고와 그림은 프랑스 정부에 중여되었다. 그의 논문은 1953년 최초로 인쇄되었는데 더 많은 일군의 그림들은 Florence에서 발견되었다. 현재 Boullée에 관한 저술들은 그 논문의 중요성과 자료의 재발견으로 인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Essai*는 건축에 대한 Boullée의 생각을 잘 전

1) 이하 '프랑스 혁명'을 '혁명'으로 기술했.

2) Kruft, Hanno-Walter: *A History of Architectural Theory*, Zwemmer/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London/New York, 1994, p. 158.

달하는 그의 제구(題句)로써 시작된다: 'Ed io Anche Son Pittore' (그리고 나 역시 화가다). 이 격언은 Boullée가 그가 자기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Correggio로부터 빌어온 것으로 단순히 Boullée가 화가로서 수업을 하였음을 암시하는데 그치지는 않는다. 그는 건축을 입체의 외양을 가진 일종의 그림으로서 소개하고 있는데 건축적 효과를 설명함에 있어 그림이란 뜻의 'Tableaux' 와 상(像)을 의미하는 'Images' 를 사용하고 있다. Boullée가 제시하고 있는 건축은 교훈적이고 도덕적인 의도 하에 계획된 것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노력들로서' 대중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그는 건축에 내재한 '시정(詩情)'을 내보이는 데에 특히 열중한다. 그는 시적인 Caractère를 가지고 건축을 주장하였다. 특히 공공 건물에 있어서 그리하다.

그렇다. 나는 우리의 건물들, 무엇보다도 공공 건물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가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 건물들이 우리 감각에 제시하는 Images들은 건물들에 할당된 용도와 흡사한 느낌을 우리 속에 불러 일으켜야 한다.<sup>3)</sup>

건축이 감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Boullée의 역설은 '르 까뮈 드 메지에르 (Le Camus de Mézières)' 에 의하여 얼마 전(1780)에 심화된 이론과 일치한다. 18세기 초엔 가능한 실행을 의미하였고 Laugier에게 있어서는 구조적 논리를 의미하는 Usage라는 술어는 Boullée에 이르러 Caractère에 매우 가까운 것이 되며 때때로 동의어가 되곤 한다. Boullée는 입체의 성격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에 미치는 효과, '그것들이 우리 신체 시스템과의 유사' 를 정의할 입체(Solid Bodies)이론의 필요성을 논리상 인정한다. 사실상 그는 '입체들의 배치를 통하여 그림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 서술하고 있듯이 건축은 바로 입체의 회화적 힘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므로 Boullée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체의 회화적 효과를 탐구하는 것이며 건물 그 자체는 '제2의



(그림4) Legeay, 총에 밀에서 본 건축물과 폐허의 경치, 당시 De Wailly 및 Piranesi에 의하여 전파된 기대 건물에의 상향이 발견된다.

예술' 이 되고 만다. 그가 가리키는 입체는 단지 규칙적인 기하학적 물체들을 가리키는데 그 규칙성과 대칭성 때문에 '질서의 이미지' 를 전한다. 이런 점에서 Boullée는 왜 스스로 자신을 '화가' 로 묘사하였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Boullée는 선대 이론가 Perrault의 이론에 숨어있는 새로운 법칙들을 자기의 이론에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Régularité(규칙성), Symétrie (대칭), 그리고 Variété(다양성). 그는 이것들이 함께 모여 비례(Proportion)를 구성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Perrault와의 임시적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Boullée의 비례개념은 17세기에 확립된 비례론과는 공통점이 전혀 없다: '나는 입체의 비례를 통하여 규칙성, 대칭성, 다양성으로부터 일어나는 하나의 효과를 이해한다'. 따라서 비례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산술적 관계가 아니라 - 그것의 미가 Perrault가 구분하였듯이 'Positive' 나 'Arbitrary' 에 상관없이 - 오히려 그러한 효과를 산출하는 요소들의 조합이다. Boullée가 정의한 이 조합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Régularité는 형태의 미를 산출하고, Symétrie는 형태의 질서와 단결성, Variété는 우리의 시각상 다양하게 변하는 국면, 시각들을 발생시킨다. 입체의 조화 즉 비례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생긴다.

Boullée에게 가장 완벽한 형태는 그가 '완전함의 이미지' 라고 기술한 구체(球體)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것은 완벽한 대칭과 규칙성을 가장 고도의 Variété(다양성)로 연합시킨 것으로 Platon의 미개념과도 상통한다. 건축사가 Peter Collins에 따르면 Boullée의 몇 가지 미학적 아이디어는 아마도 Lord Kames와 같은 당대의 철학가들로부터 유래하였는지 모른다. 그는 Elements of Criticism(비평의 요소 1762)에서 Lord Kames가 구체를 가장 만족스러운 형태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체는 최상의 단일성에 결합된 최대의 다양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성(Simplicity)은 찬미되었는데 그것은 단 하나의 인상적인 일격을 마음에 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학적 사상은 후에 19세기 Beaux-Arts 미학에까지 연결이 되어 깊게 발전한다.

Boullée는 비례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미 중의 하나', 그리고 자연을 따르는 것으로 반복하여 기술하였다. 그의 비례 개념은 Perrault의 비례와 대칭에 관한 구분을 해석하여 설명한 것으로 여기서는 진실한 의미에서의 비례는 제외되고 현대적 개념의 대칭개념으로 곧바로 이행한다.

3) 'Oui, je le crois, nos édifices, surtout les édifices publics, devraient être, en quelque façon, des poèmes. Les images qui ils offrent à nos sens, devraient exciter en des sentiments analogies à l'usage auquel ces édifices sont consacrés.' in Essai, p. 47.

한마디로 Boullée에게 있어서 질서는 Symmetry로부터 유래 하며 그 결과 비례는 규칙적이고 대칭적인 물체와 양계 사이의 조화로운 질서라는 애매한 개념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 라운 용어의 변화를 발견하게 된다. 고대로부터 Proportion은 항상 인간의 신체를 근거로 하여서 Human Scale의 아이디어를 수립하였는데 Boullée에서는 Proportion의 개념이 소멸됨과 아울러 Scale의 아이디어는 자동적으로 건축으로부터 역사 사라지게 된 것이다. 이것은 Boullée의 사상의 변천 중 다음 단계에 있어서 심오한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Boullée는 Blondel 밑에서의 수업을 통해 건 물기능을 표현하는 Caractère의 개념에 정통하게 되었는데 그에 더해 자신의 새로운 개념을 부기하였다. 그는 선대 건축가, 이론가와는 달리 규칙적 입체와 그것들이 인간의 감각에 미치는 효과를 Caractère로 기술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인상이 되었던 이와 같은 오브제로부터 발생하는 효과를 Caractère라고 부른다.'<sup>4)</sup> 그러므로 그는 Caractère를 각 건물의 결정적 차 이를 구성하는 건축적 용도의 표현에 연결시키기보다는 규칙적인 입체의 효과를 기리킴으로써 형식주의적 자세를 취한다. Boullée는 입체의 규칙성과 Symmetry를 자연 법칙의 진수이자 요약이라고 생각하였고 그의 디자인은 '자연의 위대한 그림 (Grands Tableaux de la Nature)'을 창조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서 자연이 활동하도록 하는 유일한 예술은 바로 건축이었다.

자신의 대사원 계획에서 Boullée는 신에게 경 의를 표하기 위하여 '인상적인 그림'을 추구한다. 사원의 크기는 '가장 인상적이고 훌륭한 존재물의 이미지를 제안하여야 한다.' 그것은 우주의 반영이다.

## Monumentalism

Boullée는 그리스 문학에 대한 당시의 열광 및 로마의 유적에 대한 관심과 흥미로부터 영향을 받았는데 로마에 있는 프랑스 아카데미의 작업으로부터도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 폐허가 된 유적을 그리는 동판화가 Piranesi의 작품은 이러한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이때부터 거대한 크기의 웅장한 건축에로의 갈망은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는 정치적 필요성과 연결되고 있었다. Boullée는 건축예술의 위엄을 통하여 기념주의를 과학자들의 훌륭한 건강과 도덕적 성격과도 같은 덕목으로 연결함과 아울러 어떠한 창조적 문학도 Monumentalism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역설하였다. 그의 시대는 과학의 시대였기 때문에 객관적 기준이 평가에 있어

서 절대적 권위를 갖게 되었다. 객관적 기준의 보편적 양식에 다다르는 방법으로서 그는 과거 고대건축의 권위에 의존하였다. 거대한 무덤과 같은 건축에서는 때때로 그리스 양식을 참조하고 있지만 대체로 로마양식을 참조하는데 이는 아마도 거대화, 기념비성을 나타내기에 적합한 양식이기 때문일 것이다. 고대 로마의 건축에서 그는 고전주의적 건축이 지녀야 할 특징들을 발견하고 있는데 그 요소로서 신성한 디자인 법칙인 대칭성, 그리고 구심성, 내향성을 그의 건축에 도입하였고 형태언어의 측면에서 볼 때 피라미드, 육면체, 구(球)와 같은 이상적인 유클리드 기하학적 양체를 채택하여 위엄있고 위계적인 질서를 추구하였다. 프랑스 계몽주의시대 이후의 지성인들이 보이고 있는 극도의 질서 및 합리성으로 경도됨을 Boullée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는 불규칙적인 것을 경시하였고 절대적인 미학을 추구함으로 그의 건축언어가 Platon적인 질서를 표방하게 되었다.

Boullée의 눈에는 무한공간(Immensity), 미 그리고 Symmetry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거대성은 필연적으로 미와 연관된다는 것이 사실이다.' 대규모의 크기는 '고도의 질(上質)'과 동일하게 생각된다. 이런 효과를 고양 하기 위하여 Boullée는 그리스인이 사용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원주의 열을 채용하는데 전반적 효과를 위하여 조명의 효과적 사용을 주장한다. 주범의 채용과 같은 전통적 견해는 그의 디자인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그가 주장하는 Caractère의 상징성에 속하게 되었다.

Boullée의 디자인들은 모두 다 그 크기나 외관에 있어서 기념비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 기능은 '현정된 인물의 기억을 영존 시키기 위한 것'인 무덤, 장례신전 등의 매장 기념물은 그의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무미건조한 봉우리와 부동성의 슬픈 이미지'를 하고 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건축의 시성'에 다르기 위하여 특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디자인의 예시와 그에 관한 해설의 절정은 Newton에게 현정된 기념물에서 발견된다. 씩어진 설명은 성가의 형태를 하고 있다: '고귀한 정신이여! 거대하고 심오한 천재! 신성한 존재! Newton... 당신은 땅(지구)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발견한 것으로 당신을 포장하는 아이디어를 착상하였다...' 이 계획안에서 거대한 구체는 지구 및 Newton의 발견물을 상징한다. 이 Cenotaph(기념묘)는 낮에는 Dome에 뚫린 구멍들로 인하여 구체 내부에 밤과 같은 하늘이 재현되고 밤에는 그 내부는 거대

4) 'Et j'appelle caractère l'effet qui résulte de cet objet et cause en nous une impression quelconque.' in Boullée, E.-L.: *Essai*, p. 73.

한 등으로 밝혀지도록 계획되었다. 건물의 외부주위로 조성된 나무의 원들은 Augustus나 Hadrian의 로마제국의 장제신전의 전통을 재현한다. Boullée는 자신이 계획한 디자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우리가 보듯이 이 위대한 그림의 효과는 자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Boullée는 그의 디자인은 당시의 기용한 구조적 가능성을 지나친 것을 제안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는 그것이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실제적으로 유골이 없어서 빈 Objet이므로 아무런 기능성이 없는 Newton의 기념물은 건물이 그 목적성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하학적 아이디어는 점점 더 순수하게 발달할 것이라고 하는 Boullée의 의향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것이다. 계몽주의는 Newton에게서 정신적 지표를 발견하였는데 Boullée의 Newton의 기념물은 개인으로서의 Newton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한정된 것이다. 거의 종교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계몽주의의 Newton에 대한 숭상은 1732년 Alexander Pope가 그의 묘비에 쓴 글 귀가 예증한다:

자연과 자연의 법칙은 암흑 속에 제시되었다:  
하느님이 기라사대, Newton이 있게 하여라!

그리고 모든 것이 밝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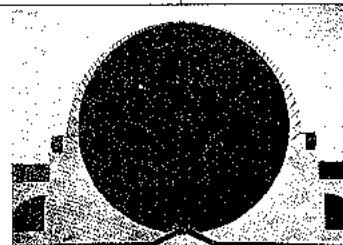
*Essai*에서 Boullée가 설명하는 축성과 다리는 *Caractère*의 학설을 광고 포스터와 같이 처리하는 방법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의 계획안에 따르면 축성물은 정복하기 어려운 모양을 한 군인들과 외벽에 방패들을 묘사함으로 '힘의' 이미지를 꼭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종류의 건축은 *Caractère*, *Parlante* 그리고 - 위협 등의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상상력을 건설 가능한 것 또는 편리한 것에 한정하는 것을 경멸하였다. 그리고 구체의 형태를 한 몇 개의 건물을 Newton 기념관 또는 전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Opera House 같은 *Utilitas*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재료나 기술로는 건설될 수 없는 것이었다. Boullée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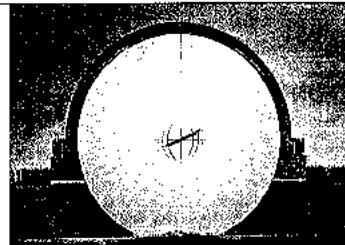
매력은 다음과 같은 그의 디자인의 방법에서 발견된다. 기하학적 형태를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것, 실지적용의 훈적, 가능성에 전혀 없는 아이디어의 표현, 기념비적 그리고 초인간적인 스케일의 디자인. Boullée의 디자인은 제작을 요하는 것이 아닌 묘사 그 자체로서의 건축이다. Boullée에게 있어서 기념비성은 과대방상주의 종류가 아니라 그 거대함이 건축에 표현된 자연의 장엄함의 표현이다. 계몽주의자들을 표상하는 이러한 세계관을 인식함이 없는 Boullée에 대한 모든 언급은 형태와의 공허한 계임이 될 것이다. Boullée가 채용한 형태에 친숙하나 그 아이디어와는 정통하지 않은 20세기의 많은 건축가들은 바로 이러한 실수의 먹이가 되곤 한다. 그의 디자인들은 Tableaux(그림)에 머무르는 것이며 Boullée의 건축론은 실제와의 연결을 잃은, 유행하던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극단적으로 연역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전반적인 건축세계를 서술한다면 형식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요소가 융화되어 있는 환상적 또는 공상적인 비사실적인 관념적 착상의 단계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5〉 Newton 기념묘(Cenotaph), Elevation



〈그림6〉 Newton 기념묘(Cenotaph), 단면, 낮



〈그림7〉 Newton 기념묘(Cenotaph), 단면, 밤

협회소식 / 103
건축계소식 / 104
현상설계 / 108
해외잡지동향 / 112
법령 / 118
전시리뷰 / 122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4
게시판 / 126

## 협회소식 KIRA news

### 1999건축사예비시험 시행계획 발표

3월 15일부터 20일까지 원서교부·접수

우리협회는 지난 2월 26일 1999년도 건축사예비시험시행 일정을 공고했다. 오는 5월 9일에 실시하게 될 예비시험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3월 15일(월)부터 20일(토)까지(평일 오후6시, 토요일 오후 1시까지)이며, 시험장소는 오는 4월 27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될 예정이다.(본지 126쪽 참조)

### 이사회 개최

제10차 아카시아포럼 개최 계획  
승인의 건 등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99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월 19일(화) 14시에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2회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개최일시: 99. 3. 26(금) 10:00
- 장 소: 본협회 강당
- 제2호의안: 제10차 아카시아포럼 개최 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제3호의안: 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운영에 관한 유권해석 승인의 건
- 제1안을 승인키로 의결함(건축사업부 및 보수기준 제1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상주공사감리대상 건축물의 경우 설계비 및 감리비 모두에 제1호에 의한 기준보수액의 일정률을 가산한다).

#### 〈협의사항〉

- 제1호: 정관개정 방안에 대한 협의
- 시도건축사회의 의견수렴 후 법제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차기 회의시 정관개정방향에 대해 재협의키로 함.
- 제2호: 한국건축문화대상 행사개선(안)에 관한 협의
- 99한국건축문화대상은 협회가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인 행사계획을 홍보편찬 위원회에서 마련토록 함.
- 제3호: 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의제에 관한 협의
- 원안대로 시행키로 함.
- 제4호: 협회 가입 일의화에 관한 협의
- 국가간 건축사상호인증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을 회장에게 위임하고 건축3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건교부에 건의키로 함.
- 협회임의가입화에 따른 제반적인 사항은 추후 지속적으로 이사회에서 협의키로 함.(폐회 17:20)

## 건축법중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5895호(99년 2월 8일)  
건축물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등

건설교통부는 각종 규제 폐지로 국민편의를 도모해 건축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을 개정, 지난 2월 8일 공포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는 100평 이상의 건물을 지울 때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그 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 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 현장관리인제도 등의 규제 폐지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건축물 건축시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택지개발예정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지구·재개발구역 등에서의 건축물 건축시와 정북방향에 접한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으로 띄워서 건축 가능 등(본지 118쪽 참조)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중 규칙중개정령 공포

건설교통부령 제172호(99년 2월 18일)  
PQ대상 2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건설교통부는 3월 1일부터 입찰참가자

격사전심사(PQ)대상 용역이 1억5천만 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에 대한 교육훈련의무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신규교육이 강화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지난 2월 1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설계 등 PQ용역입찰의 경우 종전에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5개 내지 7개의 업체에 한하여 용역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발주기관이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모든 용역업체에 입찰참가자격을 주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 기회를 확대했다. 또한 건설기술자와 감리원의 교육훈련 의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신규교육기간을 종전 2주 이상에서 3주 이상으로 확대하되 기술사와 감리원인 건축사는 2주이상, 외국인은 1주이상을 받도록 해 교육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도시공원법시행령개정안 마련

도시공원지역내 건축규제 완화해 단독주택 3층까지 허용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2일, 현재 도시공원으로 지정돼 장기간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공원지역의 단독주택 등도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안에서 최고 3층까지 증축이 허용되는 등의 내용의 도시공원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법제처의 심의가 끝나는 대로 시행키로 했다. 도시공원으로 끊여있는 단독주택과 목욕탕, 음식점 등 균형생활시설을 기존 건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최고 3층(유치원 등 보육시설은 2층)까지 증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증축이 허용되더라도 건폐율20%, 용적률 100%의 자연녹지 건축규제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지역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했다.

## 건교부, 건축조례 인터넷서비스

전국 242곳 최신자료 공개자료실에

건설교통부는 99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국 242개 건축조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누구나 신속하게 전국의 건축조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고 지난 3월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금까지 건축주가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령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사전에 파악해야 하므로 해당 자체를 직접 방문해 자료를 얻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자체의 건축조례를 찾아볼 수 있게 돼 건축주들이 현지에 출장해야 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앞으로도 지자체의 건축조례가 개정되는 경우 바로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를 수정·보완해 최신자료를 계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muct.go.kr> (도시건축심의관 공개자료실)

## 서울시 건축조례중 일부 개정

일반주거지역내 판매시설 확대

서울시는 일반주거시설에서의 판매시설 허용범위를 확대해 너비 20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바닥면적 2천㎡이하인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키로 했다. 시는 지난 2월 9일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심의했으며,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오는 3월중순경 시의회에 상정, 빠른시일내에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국제 아이디어 설계 경기

프랑스 르리엥 캐로먼 해저 이용  
강석원(前 건축기획회장, 그룹가 건축)회원  
심사위원으로 참여

- 참가자격: 전세계 건축, 조경, 도시계획 전문가들(각 나라에서 실무 자격증 취득) 또는 그 그룹(설계 사무소 또는 교육 재단)
- 심사위원
  - 프랑스 측: Jean Yves Le Drian(로리엥 지역 대표), Mr. Metairie, Mr. Gilles, Mr. Le Meur, Mr. Keraudran, Mr. Nevannen(지역 공공기관 대표), Alain Villaret(국방성 프로젝트 대표)
  - 건축가: William Alsop(영국), Alexandru Beldiman(루마니아), UIA 대표, Stefano Boeri(이탈리아), Jordi Garces(스페인), Henri Gaudin(프랑스), 강석원(한국), Paolo Mendes da Rocha(브라질), Peter G. Rowe(미국), Axel Sowa(독일), Jade Tabet(레바논), Stefan Lungu(루마니아), R. Raci Bademli(터키)
- 상금: 총액 50만 프랑
- 일정
  - 설계경기 발표 1999. 1. 2.
  - 참가등록 마감(팩스 포함) 1999. 3. 15
  - 참가자 질의 기간 마감 1999. 4. 15
  - 질의 응답지 발송 1999. 4. 30.
  - 작품 발송 마감 1999. 5. 28.
  - 로리엥 작품 접수 마감 1999. 6. 4.
  - 심사 1999. 7. 5.
  - 심사 결과 발표 1999. 7. 9.
- 제출서류
  - 참가자들은 다음을 통해 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도시 계획의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도록 한다.
  - 보고서: 설명문, 면적표, 예상 시공비
  - 도면(4개의 A<sub>0</sub> 패널에): 계획과 시설 활용도 구성의 컨셉 디자인그램(희망 스케일에 따라), 배치도(스케일 1/1000), 1층 평면도 및 기타층의 부분 평면도 (스케일 1/1000), 단면도, 입면도, 디테일 도면(희망 스케일에 따라)
  - 공식 언어는 영어, 불어이다.

### - 평가기준

- 대지에의 접근성(바다/도로), 도시, Base, 항만 사이의 관계
- 사용자의 다양성(사업자, 로리엥 거주자, 관광객, 교육자, 연구가 등) 측면에서 대지의 향후 성격 예측
- (자연) 보존성에 따른 건물 사용 양상
- 유조 탱크(Bunker)의 역사적 형태성 강조
- Bunker을 조화시킨 적합한 조경 계획과 색채 구성
- Bunker의 옆면과 윗면 등의 표면에 대한 이용
- 해저 Base 지역과 인근 도시와의 통합
- 공사비 산정

### - 문의

Service des Marchés - Hotel de Ville-56100 LORIENT(France)  
전화 (33) 2 97 02 22 64  
팩스 (33) 2 97 02 21 83  
이메일 marches@mairie-lorient.fr

- 신청서와 함께 2,000 프랑의 참가비 ("Madame le TPM de Lorient" 수신의 Check 또는 Banktransfer)를 동봉할 것

받아왔다.

이번 공모전은 부산광역시 기장면 바닷가에 있는 약 1,820평(약 551평) 규모의 대지가 설계 대상으로 주어졌다. 이 지역은 대도시인 부산과 어촌사이에 위치하여 도시에 일터를 두고 전원에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공간으로, 전국의 건축 설계사, 건축관련 전공자(전문대, 대학원생 포함)들이 참가한 가운데 1월 29일 부산에서 열린 1차 심사를 통해 입상작 30점을 선정한 후, 1월 31일 서울에서 열린 2차 공개 프리젠테이션 심사를 통해 당선작 및 가작을 선정했다. 심사는 김병현(장건축)씨와 이종호(스튜디오 메타)씨가 맡았다.

공모전 주최측인 월간 이상건축은 우수작 10점 당선자에게 2월 20일부터 7박 8일 일정의 미국목재 및 목구조 주택 시찰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입상작 30여점을 포함한 상위 36개작을 모은 전시회가 3월중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 우수작

- 유온정(인하대) All for one, one for all
- 이제현(성균관대) The Three Old Persons
- 구자홍(단국대) 개(個)에서 전체로(Parts to Whole)
- 이승근(숭실대) From on the Next Doors and Neighborhoods and Nature
- 조병규(건국대 대학원) 삶은 지속된다
- 정병균(울산대) 離應空間(Correspondence Space)
- 오서연(숭실대) Concept of Dwelling
- 곽건섭(수원대) Varieties in Unity
- 김용만(홍익대) 열 어덟 세대를 위한 집합주택 계획안
- 조종현(건국대 대학원) Sharing-with, In and Out

## 탈도시 아이디어 공모전

### '목조연립 주택' 심사결과 발표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대표: 안경호)에서 후원하고 월간 이상건축에서 개최한 제5회 탈도시 주택 아이디어 공모전('목조연립주택')의 최종 심사결과가 지난 1월 31일 우수작 10점을 포함한 30점의 입상작이 선정, 발표되었다.  
미래 주거의 형태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탈도시 주거의 개념과 환경 친화적 건축재료인 목재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공간 활용의 방향 제시를 위해 마련된 탈도시 아이디어 공모전은 지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총 289점의 작품이 접수되어 건축관련 전공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공개 심사 광경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99년도 1학기 특강 및 답사일정

3월 4일부터 5월 12일까지

### - 특강일정

- 3월 4일(목) 오후 3시~6시: 양평이야기
- 3월 10일(수) 오후 3시~6시: 신도시의 주거건축(권문설)
- 3월 31일(수) 오후 3시~6시: 하이데거와 거주의 의미(최상욱)
- 4월 21일(수) 오후 3시~6시: 광주 가톨릭대학과 환경건축(김 원)
- 5월 12일(수) 오후 3시~6시: 대중 가요 속의 도시(이영미)

### - 답사일정

- 3월 10일(수) 오후 1시: 일산신도시 주거단지
- 4월 23일(금)~4월 24일(토): 광주 가톨릭대/소쇄원/명옥현/운주사

문의: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02-958-2770)

## 인덕대학, 특별강연회

“엔지니어링과 건축” 주제로

인덕대학 건축과에서는 “엔지니어링과 건축”이라는 주제로 99년 1학기 특별강연회를 연다.

3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이번 강연은 3월 22일 건축가 함인선(인우건축)씨가 ‘건축에서의 구조와 미학과의 관계’, 4월 14일 건축가 류춘수(이공건축)씨가 ‘멤브레인(Membrane)건축과 월드컵’, 5월 27일 기술사 김성식(공영토건)씨가 ‘건축설계에서 엔지니어의 역할’ 이란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 서울건축학교 신입생모집

건축가세미나와 기획연속강좌 등

이 시대 이땅에 굳건히 활동할 미래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한 서울건축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한다.

서울건축학교는 4년제대학에서 교육을 이수한 국내외 학생들과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열려 있으며, 설계교육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들이 가진 창조적 능력을 개발하고 올바른 자질과 덕목을 갖추도록 하며 변하는 이 시대, 이 땅, 이 세계에서 새로운 건축 문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연간 3회의 스튜디오 과정(2월/5월/9월~3쿼터제)이며, 스튜디오는 학기, 학년의 구분없이 담당튜터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된다. 연도에 관계없이 매 쿼터마다 입학생을 선발하며 졸업은 졸업설계를 포함하여 총 6개의 쿼터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 ▷ 응시자격

- 설계사무소경력 3년이상인 자
- 4년제 정규대학졸업, 또는 준하는 학력 인정자
- 국내외 대학원에서 건축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인정자

### ▷ 모집인원/ 15명내외

### ▷ 원서교부 및 접수

구 분	원서교부	원서접수
제3쿼터 1998/1999년도 (5.14~7.11)	4.6(화) ~24(도)	4.12(월) ~24일(토)
제1쿼터 1999/2000년도 (9.7~11.6)	7.5(월) ~24(토)	11.1(월) ~27(토)
제2쿼터 1999/2000년도 (2000.2.10~4.8)	11.1(월) ~27일(토)	11.16(월) ~27(토)

### ▷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 자기소개서(A4규격 2매 이내)
- 4년제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학사학위 등록증 사본/대학원수료, 졸업증명서 또는 석사학위 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작품집(포트폴리오)

문의: 서울건축학교 02-763-0471

## 실내디자인학회, 심포지엄

4월 2일 「21세기 미래 실내디자인  
- 실내디자인과 감성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세종문화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외장공사협의회, 한  
국실내건축가협회, 한국실내디자인학회  
공동으로 오는 4월 2일(금) 오전 9시부  
터 오후 6시 20분까지 세종문화회관 국  
제회의실에서 “21세기 미래 실내디자인  
- 실내디자인과 감성디자인”이라는 주제  
로 한·일 심포지엄을 연다.

「미래디자인에서의 인테리어디자인의 양  
보」에 대해 고하라 지로(일본인테리어학  
회장)이 발제강연을 하고, 이순오(고려대  
산업공학과)교수가 「감성공학적 디자인  
요소변환지원시스템의 구현」에 대해, 고  
한우(한국표준과학연구원인간공학연구  
그룹 그룹장)씨가 「감성측정 및 평가기  
술개발 - 주거 및 사무환경제시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에 대해, 그리고 스게  
기하루(일본)교수가 「감성을 중시한 공  
간디자인의 계획수립과 개발사례」에 대  
해 각각 발표한다. 주제발표에 이어 오후  
4시 15분부터는 김개천(이도건축소장),  
오영근(호서대디자인학부 교수)씨와 일  
본의 대학교수 등이 참석해 21세기 “실  
내디자인의 준비”라는 주제에 대해 페널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의: 02-564-2598

##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특강

3월 12일부터 5월 22일까지

### 특강

구분	강 사	내 용	서울캠퍼스	수원캠퍼스
1	김원식(경기대강사)	모더니즘이후의 실증적 건축미학		3월 12일
2	헬렌 박(건축가)	Surpeal Aperture (초현실적 음시)	4월 10일	3월 26일
3	정보원(조각가)	도시와 예술	4월 24일	
4	신동훈(건축가/토론회)	존재방식으로서의 건축		4월 16일
5	박효순(에너지연구소 연구원)	유럽의 성당건축	3월 27일	4월 2일
6	Paul Blazek(건축가)	루이스 칸의 예술(The art up of Louis I Kahn)	5월 8일	5월 7일
7	곽영호(건축가/환경그룹)	지구촌 문명시대를 대비한 21세기 한국건축의 기본방향	5월 22일	

### 세미나

구 분	강 사	내 용	일 시
1	민선주(건축가/위기건축)	멀티미디어 건축	3월 17일(수) 10:00
2	천외령(건축가/계원조성예술대)	Pop Architecture	4월 7일(수) 10:00
3	박기준(K.D.A. 소장)	건축과 인테리어의 관계	4월 9일(금) 17:00
4	김관석(건축가/아르텍건축)	나의 건축 답사	4월 16일(금) 17:00
5	김원식(경기대 강사)	모더니즘이후의 실증적 건축미학	4월 21일(수) 10:00
6	Ken Min(S.K.M. 서울소장)	Recent Work	5월 14일(금) 17:00

문의: 경기대학교 건축대학원 교학부 02-390-5245

## 건축신간안내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

### ◆ 지진은 왜 일어나는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보도가 자주 눈에 띈다. 강도가 약해서 별 피해는 없었지만 점차 지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언제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지는 예측하기 어려우며, 일단 지진이 발생하면 엄청난 재난을 가져온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이러한 무서운 대재난을 몸소 경험하였다. 이 책은 판구조론과 지진 정치기와 같은 지진과 화산의 거동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명백하고 간단한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또한 100개 이상의 실례를 들어 일반 독자와 전문가를 위해 기술적인 문제들을 명확하게 해 주고 있다. 매티스 래비, 마리오 살바도리 지음/222쪽/1만원/도서출판 기문당(02-2295-6171)펴냄



## '99건축문화의 해 후원금 모금

### 건축인에게

안녕하십니까?

1999년은 건축문화의 해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건축계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건축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우리의 삶과 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했으며, 건축환경의 본원적 가치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99건축문화의 해'를 기해 건축인 모두가 힘을 합쳐 건축본연의 위상을 찾고 새로운 세기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모범을 보일 때 외부의 이해와 협조도 가능할 것입니다.

• 기금액:

• 보내실 곳: 주택은행 488401-01-003195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① 귀하가 내시는 기금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② 기금을 납부하신 분의 명단은 '99건축문화의 해 홈페이지([www.arch99.or.kr](http://www.arch99.or.kr))'를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위 원 장 이 광 노

'99건축문화의 해 조직위원회 서국강로구 동승동 1-117 예총회관 501 Tel 762-6090~1 Fax 762-80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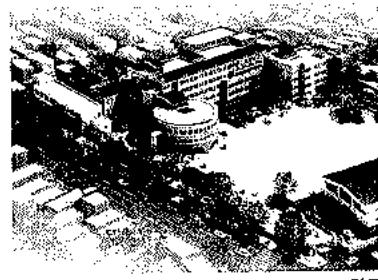
##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전남여고 교사 재배치

전북지방 경찰청 청사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 ▶ 당선작 /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 (강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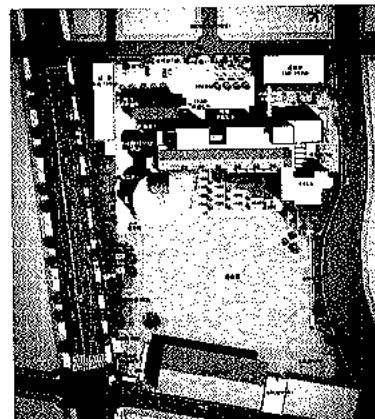
조립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39-12 외 3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방학지구, 학교 시설지구
대지면적	21,272㎡
연면적	14,387㎡
건축면적	5,445㎡
용적률	67.6%
건폐율	25.5%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적별돌치장쌓기, 일부화강석
학급수	33학급
설계담당	김병현
설계	강찬수, 김홍주, 선재규, 안태 경, 양동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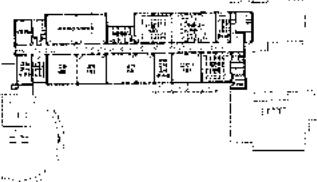
#### 설계개념

기존의 전남여자 고등학교는 1928년 건립된 본관을 비롯하여 최근 신축된 정문 안내실을 포함 근 70여년에 걸친 나이 만큼 건축적 흔적을 가지고 있었고, 비슷한 나이만큼의 교육인 히말라야시다 등 보존 해야 할 수목이 신재되어 있었다. 과학관, 신관, 체육관 등 기존시설을 일부의 보존을 고려한 배치개념이 요구되었고, 일제 학생독립운동의 발원지였던 상징적 의미의 해석과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고등학교 2002년 시행)에 대비한 교과교실형으로의 교실배치가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다. 국내 기준 사례가 거의 없는(현재 일부 고교에서 시험운영 중인) 분각적인 교과교실형 학교인 관계로 이론적 근거보다 평면분할 등 공간 배치에 대한 개념정리가 가장 난해한 문제였으며, 현장 답사시 느꼈던 70여년된 본관이 주는 강한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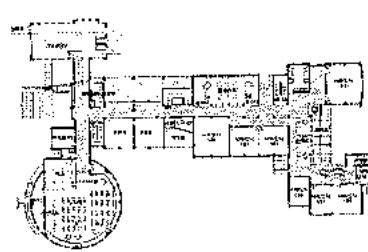
는 계획안이 결정되기까지 내내 논쟁거리가 되었다. 시설의 노후화와 안전을 이유로 한 재배치 계획으로 인해 다시 한번 건축적 유산중 하나를 훈적없이 자워야 하는가 하는 논의 끝에 철거 예정인 기존 본관 일부를 존치시켜 시간적 단절감을 메워 주기로 결정하고 현 학생독립운동 기념관으로 재구성하게 되었다. 다양한 크기의 교실을 요구하는 교과교실형 프로그램에 대비하고 동선이동을 줄이기 위해 대형강의실과 Home Base를 중심으로 좌·우측에 교과교실군을 구분하여 배치하였고 서측 25m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차단을 목적으로 식당동을 도로측에 배치하였다.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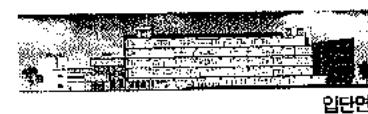
5층 평면도



2층 평면도



동축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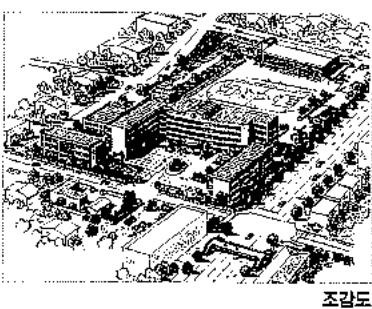
입단면도

## 전남여고 교사 재배치

The New Lecture Hall Layout  
of Chunnam Girl's High School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1928년에 건립된 전남여자고등학교 교사의 재배치를 위해 실시한 현상설계경기의 결과가 지난 1월 23일에 발표됐다. 이번 현상설계경기는 교과교실형 학교 설립을 위한 것으로 총 11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당선작으로는 (주)한길종합건축사사무소(강찬수)안이 선정되었고, 영창건축사사무소(문출성)안은 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

### ▶ 우수작 / 영창건축사사무소(문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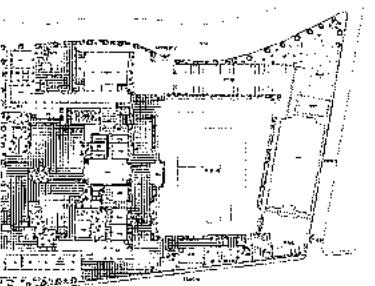
조감도

대지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39-12, 139-8, 137-1, 139번지
지역지구	학교시설지구, 일반주거지역, 주차장정비, 방화지구
대지면적	21,272㎡
건축면적	재배치: 2,558.55㎡
연면적	재배치: 9,483.78㎡
건폐율	25.81%
용적률	64.10%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외장재료	적벽돌 치장쌓기, 에폭시본타일
주차	71대
조경면적	3,272㎡
부대시설	운동장, 주차장, 휴게시설, 옥외 음수대, 급식소



5층 평면도

3층 평면도



배치 및 1층 평면도



정면도



단면도

### 전북지방 경찰청 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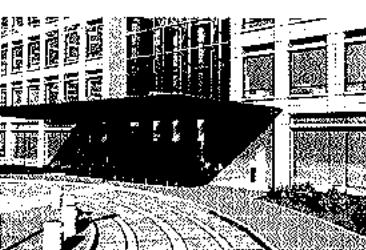
The Police Bureau of Chunbuk Province

전북경찰청이 실시한 전북지방 경찰청 사의 현상설계경기의 결과가 지난 98년 12월 26일에 발표됐다. 총 10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김우성) + (주)세원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철)안이 당선작으로 선정되었고, (주)길건축사사무소(이길환)안과 타임건축사사무소(양남철)안은 우수작과 기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 ▶ 당선작 / (주)아키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김우성) + (주)세원종합건축사사무소(이영철)



조감도



투시도

대지위치 전주시 완산구 호자동 2가 359-

2번지 일원

대지면적 24,387㎡

건축면적 4,033.63㎡

연면적 16,485.5㎡

건폐율 16.54%

용적률 42.33%

규모 지하1층, 지상7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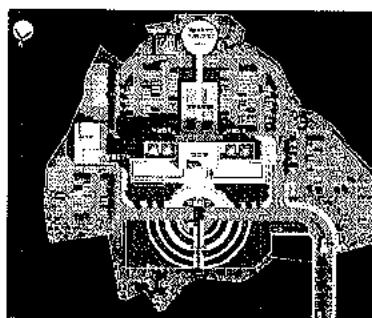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외장 화강석, 컬러복층유리, AI\_쉬트

설계팀 이종택, 노세종, 권익환, 김봉호, 하정국, 우지성, 최희영

### Design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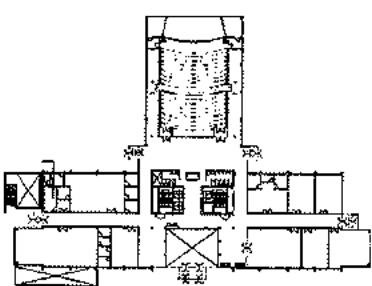
공공청사로서의 합리적 기능의 수용과 경찰의 공공성, 공정성, 투명성, 청렴을 표현할 수 있는 의장계획, 그리고 역사적인 도시에 미래지향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계획 구현을 목표로 계획설계에 임하였으며, 특히 경사진 대지레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및 차량 진출입계획을 수립, 제안하여, 페적한 전망광장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새로운 1000년을 시작하는 데에 전북 치안행정의 중추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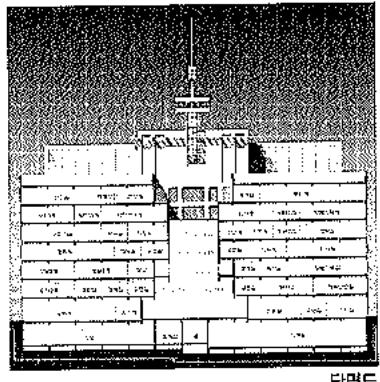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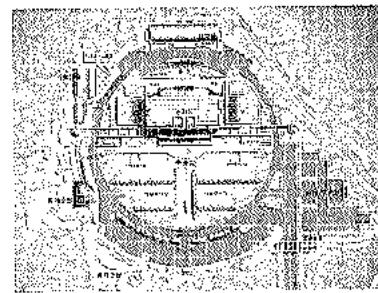
단면도

#### ▶ 우수작 / (주)길건축사사무소(이길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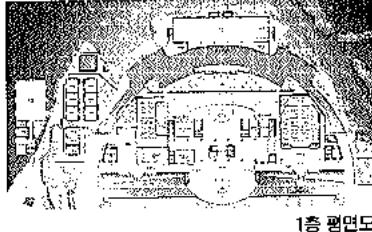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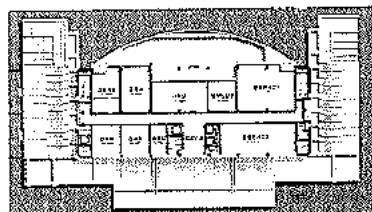
대지면적	24,387m <sup>2</sup>
도시계획조건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건축면적	4,605.5m <sup>2</sup>
연면적	16,083.1m <sup>2</sup>
규모	지하1층, 지상9층
건폐율	18.89%
용적률	47.7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부분철골구조)
주차대수	360대
부대시설	출입구 2개소 경비실, 숙영동 1개소, 초소동2개소, 무기고 동1개소, 차고/창고동
주외장재	알루미늄 패널, 화강석잔다듬, THK12mm지정착색 복층유리
설계	이길환, 양남철, 김원중



배치도



1층 평면도



단면도

대지위치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43 외 1필지(홍릉공원내)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풍치지구
대지면적	건축계획 부지면적-1,161m <sup>2</sup>
건축면적	878.22m <sup>2</sup>
연면적	12,877.97m <sup>2</sup>
건폐율	0.85%
용적률	1.04%
건물규모	지하2층, 지상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화강석버너구 이, 적삼목

이 계획안은 홍릉이라는 특이한 장소성을 가진 대지에 건물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땅이 갖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홍릉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최대한 보존하기 위하여, 지하2층에서 지상2층까지 단형의 매스를 구성하여 공원에서 인지되는 거부감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단형테라스에는 인공지반을 조성하여 조경을 함으로써, 건물이 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울려 자연과 인공(건물)이 상호 융합되어 일체가 되도록 하였다. 이는 안(indoor)과 바깥(outdoor)의 관계를 동일시하여 건축(Architecture)과 조경(Landscape)의 통합을 꾀하고자 하였다.

건물로의 진입은 전면도로(6m)의 경사를 이용하여 차량출입구를 지하1층으로 직접 진입시키고, 지상1층 필로티 하부에서 보행자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공원으로 열려진 필로티 하부 진입마당은 도로에서 몇단의 계단을 통해 방향을 바꿈으로서 진입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여 보다 풍부한 진입공간의 체험을 느끼도록 하였다.

1층과 2층 공용홀에서 공간의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해 1, 2층을 오픈하였으며, 각종열람실과 공용공간은 공원쪽으로 큰 창을 두어 개방감을 부여하였고, 주택가의 쪽으로는 작은 창을 두어 주택가의 프라이버시를 보존하도록 하였다.

공원쪽으로 열려진 열람실 부분은 테라스 상단에 처마를 두어 태양의 직사광이 열람실에 직접 투사되지 않고, 테라스 인공지반에 반사된 2차광(간접광)이 실내에

#### 동대문구 정보화 도서관

Dongdaemoon Information Library

**동대문구가 실시한 정보화 도서관의 현 상설계경기의 결과가 지난 98년 12월 15일에 발표됐다. 1차 총 45개 작품이 접수된 이번 현상설계경기에서는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노윤경+이창주)인이 당선작에 선정되었고, (주)아카·탑건축사사무소(최용구)와 (주)태우종합건축사사무소인이 우수작과 기작으로 각각 선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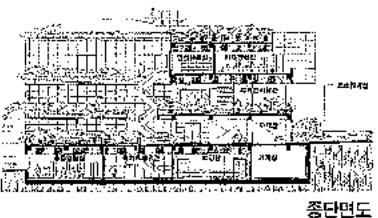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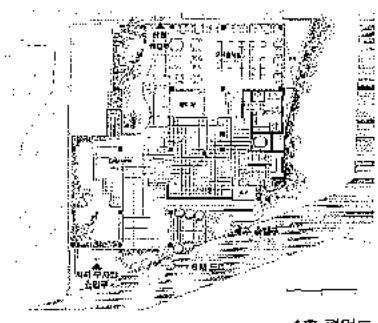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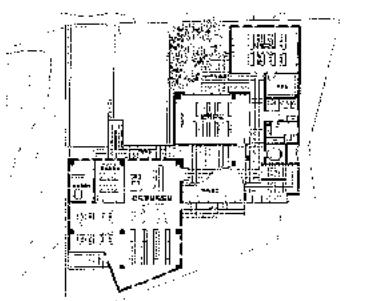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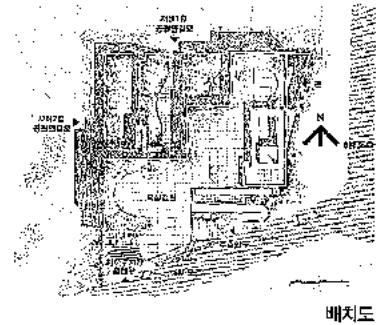
#### ▶ 당선작 / (주)우리동인건축사사무소 (노윤경+이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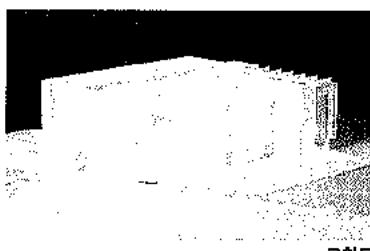
모형도

투입되도록 하여 도서관에서 직사광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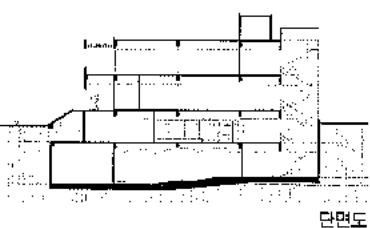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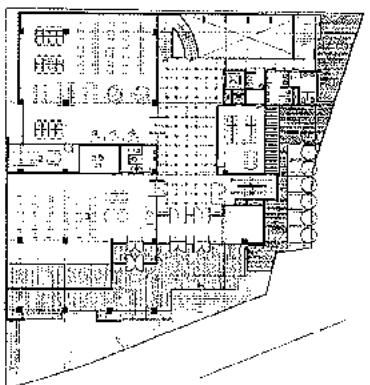
공원쪽의 매스에는 노출콘크리트와 적삼목 등을 사용하여 흥륭의 자연수림과 조화되도록 하였으며, 전면도로 주택가쪽은 화강석을 사용하여 인공(주택가)과 자연(흥륭)의 대비속에서 상호조화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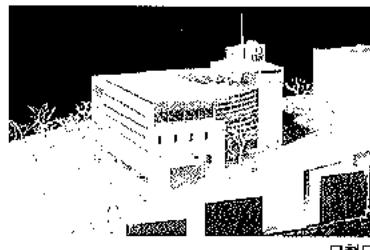
### ▶ 우수작 / (주)아키·탑건축사사무소 (최용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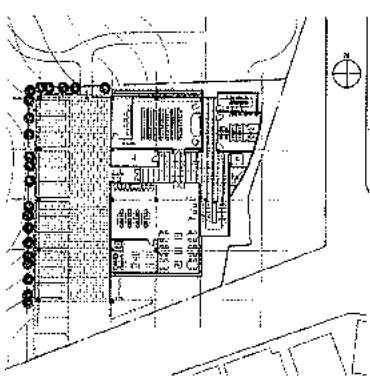
건축면적	865.63m <sup>2</sup>
연면적	3,097.58m <sup>2</sup>
건폐율	1.13%
용적률	2.20%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1층, 지상3층
외부마감	화강석버너구이, 컬러복층유리
설계팀	오승현, 권기돈, 추선임, 최태환



### ▶ 가작 / (주)태우종합건축사사무소



건축면적	787.66m <sup>2</sup>
연면적	2,988.85m <sup>2</sup>
건폐율	1.05%
용적률	2.31%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규모	지하2층, 지상3층
외부마감	알루미늄페널, 화강석버너구이, 컬러복층유리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rchitecture  
 World Architecture  
 a+u  
 신건축

## The Architectural Review

1999년 1월호

이번호는 유명  
 건축가들에 의  
 해 새로운 건  
 물군이 지어지  
 고 있는 베를  
 린 Potsdamer  
 Platz를 소개  
 하였다. 렌조



피아노의 Debris 지구, 헬무트 안의 Sony 지구, 니콜라스 그림绍의 베를린 상업지구 등이 자세히 다뤄졌으며, 인테리어는 최근에 개항한 체랩 록 공항의 케세이퍼시픽 승객전용 라운지가 소개되었다.

### ■ Potsdamer Platz

독일 재통일의 상징이 되는 지역인 Potsdamer Platz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급변하는 20년대를 대변하였으며 뉴욕 타임스퀘어 계획의 모델이 되었다. Hilmer와 Sattler의 마스터플랜에 기초하여 조성된 이 지역의 대지는 벤츠사와 소니사 소유로 얼마전 협상공모를 통해 유명건축가들에게 실험의 장을 제공했다. Potsdamer Platz는 거대한 중심 건물로 둘러싸인 반달모양의 대지가 되었는데 리차드 로저스의 안은 의회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렌조 피아노의 안이 벤츠사의 대지에, 헬무트 안의 안이 소니사의 대지에 지어졌다.

#### ▶ 렌조 피아노의 Debris 지구



렌조 피아노의 Debris 지구

테라코타와 유리로 만들어진 공공건축물로서 그 마감은 인간적 스케일에 맞춰 조작되었다.

대지 중앙에 있는 Marlene Dietrich Platz는 과거와 현재의 연계에 초점이 맞춰서 조성되었으며, 독일의 이상화된 비전이 형상화된 보행자 영역으로 디자인되었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균형적인 구성에 의해 쇼핑갤러리의 아케이드가 만 들어졌다.

새로운 Potsdamer Platz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규범은 에너지 절감과 도심지 건설 공사시 공해의 최소화로써, 건물의 외피는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개폐 가능한 유리창의 설치 등 냉난방설비가 고려되었다.

#### ▶ 헬무트 안의 Sony 지구

Debis Area의 북쪽에 위치하였으며, 정적이고 엄격한 Hilmer와 Sattler의 마스터플랜보다 동적이며, 형태적 공간적 기술적으로 새로운 비전과 질서를 보여주는 안을 제안하였다. 특별한 장소성을 부여하기 위해 헬무트 안은 거대한 반 공적인 영역을 타워뒤에 두었다. 그것은 정교한 인장구조의 지붕으로 덮여 있으며, 임시 대회장의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 공간은 비, 바람으로부터 차단되며 포럼내부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임시 대회장과 같은 원형지붕구조, 거대한 트러스, 포럼 등은 이 장소를 전부한 역사양식이 혼재한 지역으로부터 구별짓는다.

#### ▶ 니콜라스 그림绍의 베를린 상업지구



니콜라스 그림绍의 베를린 상업지구

Hans Stimmann의 재건축시 지침에 의해 가능한 최대한의 불륨을 제한한 그림绍의 안이 당선되었다. 아치형의 지붕은 그러한 의도에 의해 채택되었다. 위쪽의 층들은 아치에 매달려 있는 구조를 취하며, 아래 두 레벨은 수직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운 구조이다. 이 레벨은 공공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가로쪽에 대하여는 긴

갤러리를 형성한다. 거대한 아트리움은 평면의 중앙에까지 빛을 끌어들이며 온실을 형성한다.

그 밖에 ▶Platzschke, Klotz & Partner의 Adlon Hotel ▶조르지오 그라시의 A+T 지구 ▶GMP Von Gerkan, Marg의 Lehrter역 ▶Axel Schultes의 독일 대사관 ▶GMP Von Gerkan, Marg의 Dresdner 은행 등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 ■ 인테리어 - John Pawson의 척 랩콕 공항 라운지 인테리어

Pawson은 캐세이퍼시픽사의 라운지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일본식 전통 또는 초기 미스나 바리간 양식의 영향하에 고전적이고 정적인 단순함을 이루었다. 캐세이퍼시픽사는 승객 유형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것에 맞춰 디자인 컨셉을 주문하였다. 보다 부유하며 젊어진 승객과 특히 비즈니스 여성의 기호에 맞춰 디자인이 전개되었다. 재료는 감각적 의도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주 재료인 회색 화강암은 운빛의 볼트지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 Pawson은 재료의 물성을 나타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건축을 빛, 단순한 형태, 재료로 환원하는 것에 의해 풍부함을 얻어내고 있다.

### Architectural Record

1999년 1월

이번호는 10년에 걸쳐 지어지면서 건축가의 이론이 실제 건축화하는 과정이 드러난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과 쿠알라룸푸르시의 랜드마크가 될 Cesar Pelli

& Associates의 Petronas Towers를 자세히 다루었다. 그 밖에 주위환경에 활력을 부여하는 5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소개하였으며, 건물 사례 연구로 개발업자들과 건축가가 공동으로 개발한 상품으로서의 주거를 다루었다.

#### ■ 근작소개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리베스킨트의 베를린 유태인 박물관

88년 현상설계의 당선에서부터 99년 1월 개관에 이르는 설계 시공과정을 개관하였다. 리베스킨트는 베를린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역사적인 형태인 다윗의 별을 조작하여 콘텍스트와 함께 평면 스터디를 하였다. 외벽 표면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선의 개구부는 내부 기능이나 공사 과정의 논리를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는데 열망, 성취 대 역할, 비극으로 대변되는 베를린의 삼반되는 역사가 건물의 패션에 직접적으로 쓰여져 있다. 형태와 패턴의 제스처는 정교한 과정을 거치진 않았지만 수학적 공식에 의해 나타나며, 타워와 보이드 공간은 건물의 주된 기념적인 요소가 된다.

▶Cesar Pelli & Associates의 쿠알라룸푸르 Petronas Towers

Cesar Pelli의 Petronas Towers는 쿠알라룸푸르의 대문으로 작용할 랜드마크로서 건축주는 높이보다는 비례의 아름다움을 우위에 두는 것에 동의하였다. 서구건축가가 이슬람적인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Cesar Pelli & Associates의 쿠알라룸푸르 Petronas Towers

인 기준의 초고층빌딩과 차별을 두고 있으며, 둘째 봉의 상업시설과 콘서트홀이 88층 트윈 타워의 공동 포디움에 수용된다.

통합에 저항하기 위해 '부드러운 튜브'의 구조로 되어있는데, 바깥쪽 링의 16개 기둥이 아치형태의 빔에 의해 연결되어 있으며, 위로 갈수록 가늘어지도록 설계되었다.

#### ■ 주위환경에 개성을 부여하는 5개의 소규모 프로젝트

▶Michael Willis의 샌프란시스코 Hallidie Plaza 엘리베이터는 유명한 Powell가의 케이블카가 반환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2개의 펀치드 스테인레스스틸 곡면이 승강기 샤프트를 감싸고 있어서 각도에 따라 승강기가 보이기도 하고 불투명한 면이 되기도 한다. 또한 곡면이 겹치는 부분은 물결무늬를 만들어낸다. 그 밖에 ▶Cox Sanderson Ness의 호주 Ballarat시의 관광안내센터, ▶Clare Weisz Architect의 뉴욕 유태인 박물관의 안내센터 ▶Puge + Scarpa의 산타모니카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Ford Farewell Mills의 아틀랜틱 시티 등대 등이 소개되었다.

■ 건물유형연구 - Production Housing 상품으로서 개발되는 미국 교외 주택을 특

집으로 디뎠는데, 다음 소개된 네 개의 주거 사례는 개발업자에 의한 주택이 경제적 투자의 의미뿐 아니라 혁신적 디자인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명의 시카고 건축가가 개발업자와 공동으로 개발하여 중서부 지역과 기후에 적합한 일리노이주 Prairie Cropping 단지를 설계 하였는데, 규격화된 디테일을 가지는 4~6개의 프로토타입의 주거를 제안하여 입주자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켰다. 그 밖에 전통적인 교외 주거지에 현대적인 언어로 잘 조화를 이룬 Artech, Inc의 테네시주 Bellevue 우드사이드 단지, 도시 주거들에게 차고와 뒷마당을 제공한 새로운 형태의 타운하우스인 Booth Hansen Associates의 시카고 이스트워터 플레이스 단지, 집을 처음 짓만하는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타겟을 맞춰서, 콤팩트하고 소규모 집들로 구성된 Looney Ricks Kiss Architects의 테네시주 멤피스하버타운등이 소개되었다.

## Architecture

1999년 1월

이번호는 휴스턴 Fifthward 지역 재개발 조합에서 저소득층에게 대량 공급할 주거 유형 개발안



들의 채택과 그 안들이 담고 있는 주거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였으며, 근작으로 리차드 로저스의 보르도 법원, Schwartz/Silver Architects의 보스톤 뉴잉글랜드 수족관, Hardy Holzman Pfeiffer Associates의 나이아가라폭포 미, BOORA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Autobistro, Dan Solomon

의 LA, Vermont Village, Ten Architects의 멕시코시티 RR 주택 등을 자세히 다루었다.

■ 휴스턴의 Fifthward 지역 재개발 조합  
40년대의 지역적 건축의 방갈로와 현대적 조화를 이루는 주택 100채를 91년 이래로 지어왔는데, 이는 건축주에게 보다 넓은 선택의 제공과 혁신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근에 이 조합이 건설기로 한 모델중에는 콘텍스트의 고려를 제외할 만큼 혁신적인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다. Taft Architects의 안은 기존의 네 개의 벽으로 구성되는 공간개념을 전복시켰다.

이처럼 의외의 안들이 환영을 받고 있는데, Saitowitz가 제안한 Modernist Box를 유동적이고 운동적으로 변형한 Bell의 글래스하우스가 그러하다. Mark Wamble의 Binderhouse에는 브랜드 네임 제조회사의 사출성형 부재로 이루어진 가변적인 Klip Binder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 ■ 근작소개

▶ 리차드 로저스의 보르도 법원



리차드 로저스의 보르도 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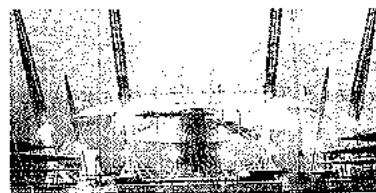
19세기 신고전주의 양식 법원의 부속동을 계획한 로저스는 고전주의 공식을 그니름대로 적용시켰다. 육중하고 폐쇄적인 기존 건물이 법의 권위를 상징한다면 새롭게 부가된 건물의 투명성과 가벼움은 현대 법원의 개방성을 상징한다. 법정은 원추형태의 독립된 실의 열로 이루어졌는데, 영구히 둘러싸여져야 하는 것을 이처럼 톡剔시킨 것이 이 건물의 디자인 전략이다. 그리고 이 실은 투명한 외피에 싸여져 자유로이 서있는 오브제로 다루어졌다.

그 밖에 ▶Schwartz/Silver Architects의 보스톤 뉴잉글랜드 수족관 ▶Hardy

Holzman Pfeiffer Associates의 나이아가라폭포 미, 이민국 ▶고속도로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인 BOORA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Autobistro ▶Dan Solomon의 LA, Vermont Village ▶Ten Architects의 멕시코시티 RR 주택 등이 소개되었다.

### ■ 기술적 정보

▶ 리차드로저스의 런던 Millennium Dome 입장구조 지붕



리차드로저스의 런던 Millennium Dome 입장구조 지붕

Millennium Dome은 2000년을 최초로 맞는 그리니치 반도의 밀레니엄 축제에 관광객들을 위한 거울의 외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설계되었다. 이 돔의 기본적인 구조 개념은 단순한데, 스틸의 마스트에 부착된 인장 케이블에 의해 형성된 반구형의 캡으로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David Brody Bond의 역사적인 뉴욕 퍼블릭 라이브러리 도서실의 재보수 ▶도시의 온난화 방지를 위한 건축적 조치등의 기술적 정보가 다루어졌다.

### ■ 기타

▶ 현대의 종교시설의 예를 보여주는 Kerns Group Architects의 볼티모어 United Methodist Board of Child Care Chapel과 DeBartolo Architects의 뉴욕 First Assembly of God ▶LA를 형성하는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힘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큰 반향을 일으켰던 City of Quartz, 1990를 통해 도시 역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한 Mike Davis와의 인터뷰 ▶르꼬르뷔제 최초의 제자로서, 30년대에 미국에 이주하여 삶의 철학적 방식으로서 모더니즘을 탐구해온 건축가 Albert Frey를 재조명하는 글이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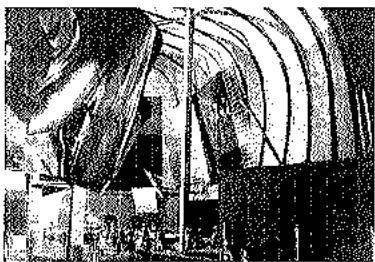
## World Architecture

1999년 2월호

기술 정보로  
프랭크 게리  
의 모델링 도  
구인 CATIA  
를 소개함과  
동시에 그가  
준비 중인  
Experience

Music Project에 이 프로그램이 적  
용되는 과정 등을 살았으며, 아베라  
아 반도에 위치한 스페인과 포르투  
갈의 건축환경을 이번호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포르투갈의 대표적 건  
축가이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알바로 시자의 스케치와 작업  
활동을 소개하였으며, 그의 최근작  
인 Santa Maria Parish 교회, 99  
년 6월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  
Porto의 Serralves 박물관과 암스  
테르담 스테델릭 미술관 증축 등을  
소개하였다. 사례연구로는 새로운  
유형의 교도소 건물을 다루었다.

### ■ Frank Gehry의 모델링 프로그램 - CAT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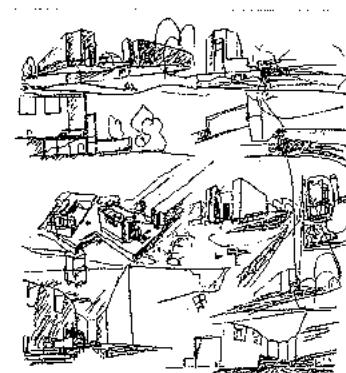


Frank Gehry의 모델링 프로그램 - CATIA

Frank Gehry의 최근작인 Experience  
Music Project에서도 빌바오 구겐하임  
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정형의 곡면벽으로  
이루어졌는데 설계에서부터 재단에 이르  
는 과정에 항공기 제작 프로그램인  
CATIA를 사용하였다. 게리 특유의 디자  
인을 만들어내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  
려움은 3차원의 입체를 2차원의 드로잉

으로 옮기는 것이다. CATIA의 사용은  
조각적 입체의 구현 뿐 아니라 곡면을 몇  
번 회는가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  
에, 공사 단가 계산에까지 응용된다. 비행  
기 설계와 건축디자인에 있어서 CATIA  
사용의 차이점은 건물설계시 지진에 대  
비하여야 하는 것이고 잦은 설계변경에 대처하여야 하는 것이다.

### ■ 지역 특집 - 스페인과 포르투갈



일바로 시자의 프리핸드 스케치

포르ту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Porto  
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알바로 시자의  
Santa Maria Parish 교회, 99년 6월  
에 개관하기로 되어 있는 Porto의  
Serralves 박물관과 암스테르담 스테델  
릭 미술관 증축 등을 소개하였다.

알바로시자는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어 있  
는 유럽의 건축환경을 비판하면서 건축  
가의 설계과정은 시공시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의 디자인은 사  
이트의 방문과 자주 출판되었던 그의 프  
리핸드스케치로부터 시작되며, 이 작업  
은 그의 프로젝트에 대한 최초의 대면으  
로부터 비롯된다. 그의 빠른 스케치는 충  
분한 이해와 시각화를 통해 직관과 정확  
한 조사의 변증법적 관계를 정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 ■ 사례연구 - 교도소

전세계에 걸쳐서 건축가들이 교도소 건  
축에 눈을 돌리고 있다.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이 가능함에 따라 건축가들은 새 기  
술을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주  
는 디자인에 있어서 그들의 권위를 회복  
해 나가고 있다. 건축적으로 새로운 교도  
소는 프로그램 개선과 놀랄 만한 비용절

감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 STV Silver & Zilkkind의 이스라엘의  
벽없는 교도소는 새로운 유형의 교도소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는 사회로의 적응과  
계도를 위하여 바깥세계와의 차이를 적게  
두려는 건축가의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 Phillips Smith Conwell Architects  
의 호주 브리스bane Woodford  
Correctional Center ▶ Tarmac  
Professional Service의 영국 리버풀  
의 Altcourse 교도소

## a+u

1999년 2월

이번호에서는  
특집으로 '상  
파울로의 건  
축가들 - 브  
라질 근대건  
축의 제2세  
대'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상파울로 건  
축의 특징을 설명하는 마리아 베아  
토리스 데 카스트로의 예세이와 함  
께 리나 보 바르지, 파울로 멘데스  
다 로차의 여러 작품들이 소개되었  
으며,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린  
건축 비엔날레의 리포트 등이 게재  
되었다.



### ■ 특집: 상파울로의 건축가들 - 브 라질 건축의 제2세대 -

▶ 상파울로 근대건축의 아이덴티티 형성  
대규모로 유입된 이민자들에 의해 싱파울  
로는 다양한 종류의 문화가 공존하는 분  
위기를 수용하는 장이 되었다.

1922년 '근대 예술주간'이라는 이벤트  
는 전통으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였으  
나, 브라질 도시의 특이성을 변호한 리노  
레비의 저서 「Estado de São Paulo」

는 앞으로 더욱 굳어져갈 네셔널리즘의 기반이 되었으며, 그레고리 와르샤위스키가 유럽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 최초의 건물을 세웠을 때 그것은 '도리에 반한 파격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1929년 세계대공황과 계속되고 있던 브라질의 내분은 前衛輪을 리오데자네이로로 옮기게 된다. 주도니 산업을 커피에만 의존하고 있던 상파울로는 뉴욕증시 폭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공업을 기반으로 한 경제의 재편은 연방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난 도시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상황은 상파울로의 근대 운동의 특징을 만들어내었으며, 새로운 건물들이 연방위원회에 의해 통합되었던 리오와는 달리 상파울로의 예술가들은 사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문화적인 주도체제를 조직화시켜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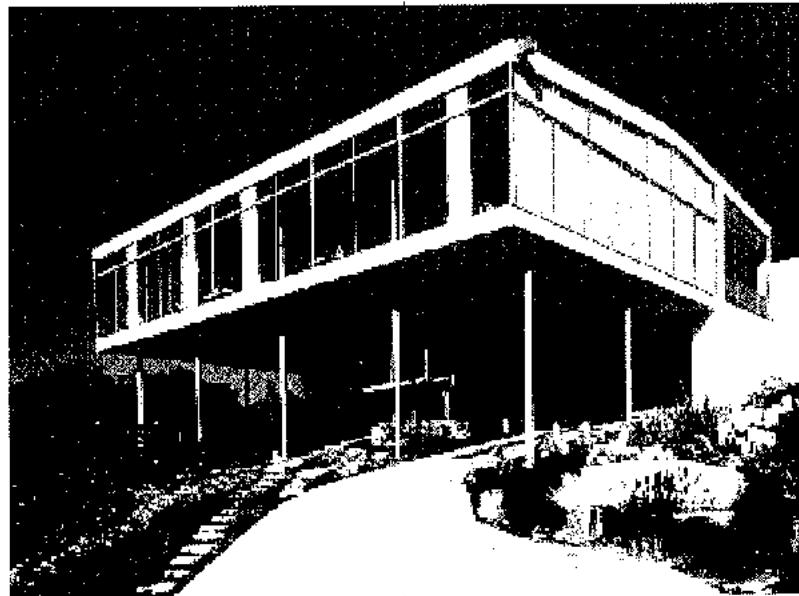
불안정한 도시의 성장은 새로운 미-모더니즘-의 확산을 가져다 주었고, '상파울로 派'라 알려진 작가들의 활약이 돌보였다. 1950년대는 상파울로가 문화적 고양의 최정점에 이른 시기로 이러한 활기 넘치는 국면에 그 배경을 서로 달리하는 건축가들이 모이기 시작, 문화적 도가너로서 상파울로의 아멘티티는 더욱 높아갔다.

#### ▶리나 보 바르지(Rina Bo Bardi)

리나 보 바르지는 1946년 브라질에 온 이탈리아 건축가이다. 그녀는 유럽의 근대 운동과 브라질 문화의 진보적인 융합을 강하게 묶는 다면적인 건축 활동에 학수하였다.

브라질에서 최초의 그녀 작품은 그녀 자신의 저택이다. 아틀라스 산맥의 산림의 경계부를 대지로 하여, 글래스의 상자가 매우 가는 기둥에 의해 떠 있는 "글래스 하우스"가 바로 그것인데, 랜드스케이프에 출렁한 조화를 이루고, 산림과 공생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브라질과 함께 그녀가 발전시키고자 했던 사물과의 관계성에도 관련된다.

그녀를 브라질 건축계의 간판 무대에 옮리게 한 것은 1957년 상파울로 미술관의 디자인이었다. 그녀는 프리퍄트 콘크리트에 의한 인상적인 구조를 만들어 내었는데 긴 상자모양의 갤러리를 들어



바르지의 글래스 하우스

올림으로써 그 밑의 해방된 공간은 가로와 연결되는 점점이 되고 있다.

이는 브라질 도시 재건에 책임을 맡고 있는 근대 건축이 공헌할 수 있는 능력, 정밀한 구조, 기하학적인 형태라는 상파울로 작품군들에 의해 전개된 테마에 가장 가깝게 접근한, 심플하면서 기념비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다.

이번호에 소개된 그녀의 작품들은 앞서 설명한 두 개의 작품과 Valéria P. Cirelli 저택(1958), Popular Art Museum(1959), Espírito Santo do Cerrado 교회(1976~1982), SESC-Pompéia 공장 레저 센터(1977), Benin 커뮤니티 센터(1987), Misericórdia Slope(1987), 상파울로 신 시청사 프로젝트

(1990~1992) 등이다.

#### ▶파울로 멘데스 다 로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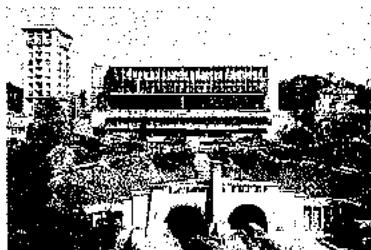
(Paulo Mendes da Rocha)

파울로 멘데스 다 로샤는 상파울로에서 학습한 선배 건축가 조안 바티스타 빌라노바 아르티가스의 강한 영향을 받았다. 아르티가스와의 공감대속에 그는 상파울로의 특질이나 혹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을 취하면서도 모순되지 않는 작품을 만들어냈다.

각각의 디자인은 전통으로부터의 해방의 출발이 되는 기술, 장소와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야하는 건축가의 책임, 대지와 건축의 관계성이라는 상파울로 건축의 테마를 재기하는 그의 시적인 비전으로부터 발생한 독자적인 해답인 것이다.



바르지의 SESC



바르지의 상파울로 아트 뮤지움

이번호에 소개된 그의 작품들로는 Brazilian Sculpture Museum(1986~1995), 국립 상파울로 화화미술관(1993~1998), D. 패드로 2세 공원 버스 스테이션(1996) 등이다.

## 신건축

1999년 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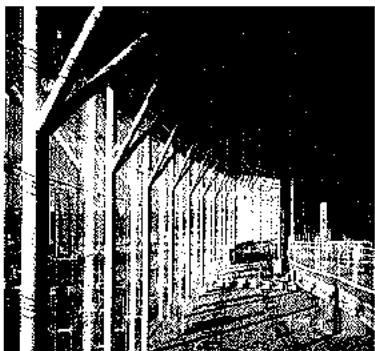
이번호에 소  
개된 작품으  
로는 나이가

타 시민예술  
문화회관(설  
계: 하세가와  
이쓰코 아틀  
리에), 히자  
야마 혼마찌  
의 아틀리에(설계: 무라카미 토오  
루), 노츠하루町청사(설계: 이토오  
도요), 50M-역삼(櫟森)미술관(설  
계: 히데아키 카즈라+A·I·R) 등  
이며, 현재 '전후 모더니즘의 궤적-  
단계계조와 그 시대'에서는 후미히  
코 마키와의 대담이 소개되었다. 특  
집으로는 '젊은 건축가들에게 듣는다 -  
앞으로 와야만 할 시대의 시나리오'



### ■ 작품

▶ 나이가타 시민예술문화회관(설계: 하  
세가와 이쓰코 아틀리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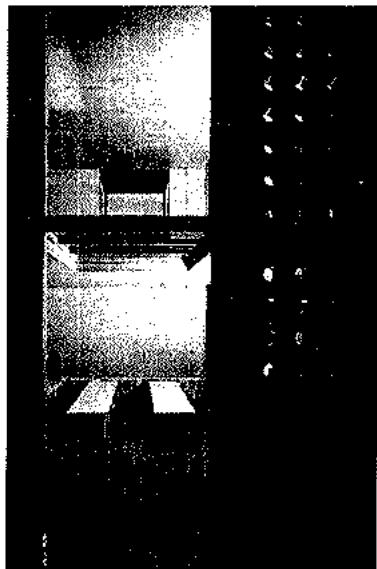


나이가타 시민문화회관

다양한 시설이 함께 들어선 이 거대한 시  
설을 설계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기  
위해 작가는 'Islands Hopping'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이것은 섬과 섬 사이  
를 자유롭게 뛰어 넘나드는 것으로 시  
설물들이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에서 저기로 뛰어 넘나들 듯이 자유로이

다니며 때로는 연결되고 때로는 단절되  
는 상황을 상상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  
작가는 다도해와 같은 이미지를 머리속  
에 그렸었다. 더블 스킨으로 된 유리 외  
피는 이동식으로 된 천공된 알루미늄의  
스킨이 차양의 역할을 하면서 크고 작은  
극장들을 하나로 묶고, 주변의 시설물들  
과는 브릿지로 연결되어 그의 초기 개념  
을 반영하고 있다.

▶ 히자야마 혼마찌의 아틀리에(설계: 무  
라카미 토오루)



히자야마 혼마찌의 아틀리에

건물의 대지는 서쪽으로는 전차가 다니  
는 철로를, 동쪽으로는 자연림의 사면을  
양쪽 모두 가깝게 면하고 있고, 남쪽과  
북쪽으로는 인근의 건물들이 마찬가지로  
가깝게 들어서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은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하여 닫혀진 형태  
로 설계되었고, 적합한 곳만을 열어 공간  
을 꾸민다는 논리로 완성되었다. 순수한  
공간의 구성을 드러내기 위해 복잡  
한 디테일을 삼가고 마무리의 완성도를  
매우 높였다.

▶ 노츠하루町청사(설계: 이토오 도요)  
완만하게 경사진 슬로프에 걸쳐 들어선  
건물은 집무공간을 2층 높이의 집무 공  
간을 마련 오픈 플랜으로 계획하였다.  
'관청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주민에의 서  
비스이며 이 서비스를 행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다. 따라서 이들의 움직임을 가  
장 편리하게 해 주는 것이 주민에게도 즐  
거운 일이 된다는 생각에서 설계를 하였

다'라는 작가의 말이 눈에 띈다.

▶ 50M-역삼(櫟森)미술관(설계: 히데아  
키 카즈라+A·I·R)



역삼 미술관

건물은 해발 약 750m의 목초지에 홀로  
자리잡았다. 건축주는 화가와 공무원 부  
부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이곳으로 이주  
해 올 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당분간  
주택으로 쓴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지방  
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을 상정하여  
계획하였다. 따라서 현재는 주거시설과  
갤러리가 연결된 형태이나 향후 모두 미  
술관으로 쓰일 것을 감안한 설계안으로  
완성되었다.

### ■ 젊은 건축가들에게 듣는다 - 앞으 로 와야만 할 시대의 시나리오

일본의 젊은 건축가 19명에게서 앞으로  
올 시대에 대비한 자신의 모습을 듣는 자  
리가 마련되었다. 애당초 정해진 주제는  
伊東豊雄의 「탈근대적 신체상-비평성  
없는 주택은 가능한가」라는 텍스트를 어  
떻게 읽고 있는가에 대한 토론이었으나  
이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서로 달라 결과  
적으로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들을 피  
력하는 것으로 꾸며졌다.

▶ 연재: '전후 모더니즘의 궤적 - 단  
계계조와 그 시대' - 후미히코 마키  
후미히코 마키와의 대담이 이루어진 이번  
연재에서 그는 '무엇인가를 항상 깊게 탐  
구해보는 非마이스터적인 태도'를 강조하  
였다.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라이벌이라  
며 항상 탐구하는 자세를 잊지 않는 자세  
를 보여주었으며 다양성 있는 건축에의  
자신의 의견도 피력하였다. 아울러 단계  
전조의 영향력과 그에게서 독립하기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다.

## 법령 laws & ordinances

### 개정건축법

법률 제5895호(99. 2. 8)

#### □ 공포한 날( 99. 2. 8)부터 시행되는 사항

미관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 대지안의 공지규정 삭제 (제50조)

- 현행: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용도에 따라 2~4m를 띄어 건축
- 개정: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띄어 건축하도록 함

#### ○ 지하층 설치의무 폐지 (제44조)

- 현행: 면적이 330㎡이상의 건축물은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설치
- 개정: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 건축허가 유효기간 연장 (제8조제8항)

- 현행: 건축허가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하되 부득이한 경우 3월의 범위안에서 유효 기간을 연장
- 개정: 유효기간을 1년까지 연장

#### ○ 상업지역내 일조권 적용 배제 (제53조)

- 현행: 공동주택은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일조기준을 적용
- 개정: 일반상업지역 · 중심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은 일조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 ○ 자투리땅에서의 건축허용 (제49조)

- 현행: 용도지역별 최소대지면적에 미달된 경우에 허가를 제한
- 개정: 도로, 공원설치 등으로 이미 발생한 자투리땅에서는 대지규모와 관계없이 건축을 허용

#### ○ 도시미관 등에 의한 건축허가제한 폐지 (제8조제4항)

- 현행: 건축물이 도시미관이나 주변환경에 불합리한 경우 허가를 거부
- 개정: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도시

#### ○ 비상급수설비의 설치의무 자율화(제58조)

- 현행: 연면적 5천㎡이상인 건축물은 비상급수시설을 설치
- 개정: 건축주가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 건물의 축소 조정 (제57조)

- 현행: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은 비상용승강기를 설치
- 개정: 비상용승강기 설치대상으로 높이 41m 이상인 건축물로 축소함

#### ○ 중간감리보고 절차 생략(제21조제5항)

- 현행: 건축주는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
  - 개정: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감리 중간보고서와 감리완료보고서를 일괄 제출하도록 함
- \* 중간감리: 기초철근배근시, 옥상철근배근시, 매 5개층 슬라브 철근배근시 마다

#### ○ 건축자재 사용의 자율화 (제42조)

- 현행: 3층이상,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은 KS자재의 사용을 의무화
- 개정: 건축주의 자율에 맡김

#### □ 공포후 3개월이 지난날(99. 5. 9)부터 시행되는 사항

#### ○ 건축허가기준의 통합고시(제8조제9항, 제10항)

- 현행: 건축허가시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80여개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국민입장에서는 건축허가의 가능성이나 진행과정을 예측할 수 없음

건설교통부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각종 규제 폐지로 국민편의를 도모해 건축민원 발생의 소지를 없애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건축법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2월 8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건축법을 요약, 정리한 것임.

- 개정: 건축허가와 관련된 모든 법령의 건축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도록하고, 고시되지 않은 내용은 건축허가시 검토하지 못하도록 함

#### ○ 대형건축물의 허가절차 간소화 (제8조제1항)

- 현행: 대형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의 사전승인후 허가
- 개정: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대형건축물을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처리

#### ○ 용도변경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제14조)

- 현행: 세부용도를 10개시설군으로 분류하여 10개시설군간의 용도변경은 허가
- 개정: 5개시설군으로 축소하고, 피난, 구조기준이 약한 시설군에서 강한 시설군으로 변경시에만 신고하도록 하며, 근린생활시설 등 동일 용도군내의 세부 용도(약국·다방·음식점 등)는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지 않고 영업허가 신청

#### ○ 미관심의제도의 폐지 (제4조 및 시행령 제5조제3항)

- 현행: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하는 경우 개별건물에 대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 심의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정한 심의기준 없이 심의위원이 주관적 판단에 따라 심의함으로써 사유재산권 침해

\*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 분류기준 변경

10개 시설군	5개 시설군	안전기준
주거시설군, 관광집회시설군, 영업·업무시설군,	1: 영업및판매시설군	고
판매유통시설군, 숙박시설군,	2: 문화및집회시설군	
교육시설군, 공장산업시설군,	3: 산업시설군	↑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군,	4: 교육및의료시설군	
의료및요양시설군,	5: 주거및업무시설군	저
여객운송시설군		

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  
- 개정: 시·군·구에서 도시미관을 결정하는 건축물의 위치·규모·색채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별도의 심의는 폐지

#### ○ 도로지정절차의 간소화 (제35조)

-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 개정: 주민이 수년간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동의 절차없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의 투명화 (제51조)

- 현행: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너비의 1.5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높이 산정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많은 민원 발생
- 개정: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하여 건축물의 높이 기준에 대한 투명성 확보
- \* 최고높이 미지정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현행 규정 적용

#### ○ 신고대상 건축물의 확대 (제9조)

- 현행: 바닥면적 합계가 50㎡이하로 증축,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함.
- 개정: 증축·개축의 경우에는 85㎡까지, 대수선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신

고하도록 하여 절차 간소화  
※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감리하지 않아도 됨

#### ○ 지하층 인정기준의 통일 (제2조제1항제4호)

- 현행: 지하층의 인정기준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용도로 각각 달리 정함
- 주택: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담해층 높이의 1/20이상인 층
- 기타 건축물: 2/3이상인 층
- 개정: 용도와 관계없이 지하층을 바닥면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담해층 높이의 1/20이상인 층으로 통일

#### ○ 일조기준 적용 방향의 합리화 (제53조)

- 현행: 건축물의 일조기준은 정북방향의 대지경계선에서 일정거리이상을 뛰어 우도록 함
- 개정: 택지개발지구 등 신개발지나 앞 뒷집간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방향에서 뛰어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 남쪽방향으로 뛰어 건축할 수 있는 지역
  1. 택지개발예정지구
  2. 대지조성사업시행지구
  3. 국가산업단지
  4. 주택지조성사업시행지구
  5. 재개발구역
  6.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
  7. 주거환경개선지구
  8. 북쪽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등

#### ○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복도 설치허용 (제50조의2)

- 현행: 건물과 건물간의 연결복도 설치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개정: 도로를 건너거나 건물과 건물을 잇는 연결통로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 \* 다른 건물로의 직접 이동이 쉽도록 하 고, 유사업종간의 기능을 연결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

## 건축관계법령 개정 주요내용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5864호, '99.2.8)

- 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상수원지역 등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적정처리가 시급한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지역의 기존 건물 소유자에게는 2년 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나.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결과 설치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시공한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기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 하지 아니한 상태로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서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함

- 라. 식품접객업·숙박업 등의 영업을 하는 자가 상습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당해 영업에 관한 협약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영업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1999.8.9.)

※ 다른 법령의 개정: 건축법 제6조제3항 중 오수정화시설 또는 분뇨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국회 의결되어 1999년 2월 8일 개정 공포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주차장법, 주택건설촉진법, 하수도법,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임.

### 주차장법 (제5902호 '99.2.8)

- 가. 민간노외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요금과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나.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시설물의 주차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법정 주차 시설 외에 부설주차장의 추가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 다. 기계식주차장의 안전도인정·안전도 인정취소·사용검사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함

※ 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 주택건설촉진법 (제5908호, '99.2.8)

- 가. 주택정책에 관한 주요한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이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되어 있거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택정책심의회위원장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함
- 나. 주택사업자들이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제3채권자들이 사업대지를 압류 하여 임주예정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사업주체가 임주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대지는 제한물권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부기 등기하도록 의무화하고, 부기등기일 이후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여 사업자부도시 임주예정자들을 보호함
- 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절차

<p>가 복잡하고 사업계획승인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이를 폐지하여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함</p> <p>라. 주택건설사업에는 도로, 상하수도의 설치가 필수적이나 주택사업자들이 이를 설치하므로 설치가 자연되고 부담이 가중되어 시장, 군수가 설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함</p> <p>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한 주택을 분양 받은 자는 일정기간 당첨된 지위나 주택을 전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폐지하여 분양받은 자들의 생계곤란에 따른 불편을 해소함</p> <p>※ 시행일: '99.3.1.부터 시행</p>	<p>4.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준공검사</p> <p><b>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제5827호, '99.2.8.)</b></p> <p>가. 시·도 및 외국인투자종합지원실 등 의 각종 기관에 공장설립 대행센터를 설치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행정절차 및 서류작성 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하도록 함</p> <p>나. 공장설립의 승인, 공장건축, 제조시설 등의 설치 및 공장가동에 이르기 까지 필요한 관련 인·허가 등의 절차를 각 단계별로 일괄하여 의제 처리함으로써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함</p>	<p>※ 시행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1999.8.9.)</p> <p>※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제18조제4항으로 본다.”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인·허가 등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p> <p>제18조제4항 본문 중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면,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을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로 한다.</p>
<p><b>하수도법(제5868호, '99.2.8.)</b></p> <p>가.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부대시설에 관하여도 함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인가절차를 간소화함</p>	<p>나.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하여 배수설비를 설치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되,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p>	<p>국가기술자격법(제5890호 '99.2.8)</p> <p>가. 국가기술자격자의 (건축사는 해당 아님)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기술자격취득자로 하여금 등록 및 매 5년마다 간신등록을 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p>
<p>※ 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p>		
<p>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농도가 낮은 폐수는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폐수 배출자에 대하여는 배수설비의 설치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p>		
<p>※ 시행일: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 (1999.8.9.)</p>		
<p>※ 다른 법률의 개정: 건축법 제18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마.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설이 확대됨에 따라 설립·분양 및 관리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p>	<p>※ 시행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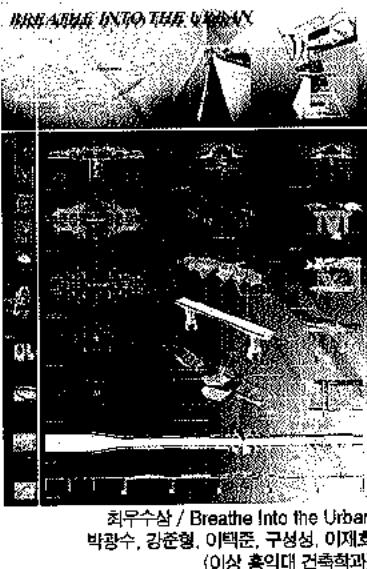
## 제1회 막구조디자인공모전

「이상건축」주관  
데이비드 웨이크필드 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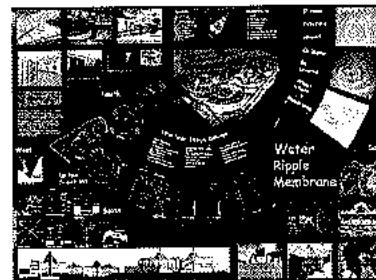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가 후원하고 이상건축(대표: 강철희)에서 주관한 제1회 막구조디자인공모전(1<sup>st</sup> Membrane Design Competition)의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과 전시회가 지난 2월 5일에 서울역 문화관 제1전시실에서 있었다.

막구조에 대한 이해증진과 참신한 아이디어, 디자인 개발 및 활용으로 한국 막구조 건축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된 이번 공모전의 심사는 영국 텐시스사의 대표이자 막설계 전문가인 데이비드 웨이크필드(David Wakefield) 박사가 맡았고 최우수상 2점, 장려상 3점, 특선 5점, 입선 다수 등이 선정되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 이어 데이비드 웨이크필드 박사의 특별 강연회(주제: Membrane Structures)가 함께 있었다. (문의: 02-831-8631 이상건축)



최우수상 / Breathe Into the Urban  
박광수, 강준형, 이택준, 구성성, 이제호  
(이상 총인대 건축학과)



최우수상 / Water Ripple Membrane  
양진석, 이정민, 이재원, 안영욱, 박동훈  
(이상 충남대 건축학과)

강은 도시의 얼굴이고 힘이다. 파리의 세느강은 낭만적인 관광지이자 도시행정의 중심이다. 자리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강의 이러한 개발은 합리적이다

서울은 한강을 가지고 있다. 지상교통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다리가 하나 둘씩 놓이기 전까지는 한강은 그저 관념적 차원이 아닌 사람들의 삶 자체였다.

하지만 서울이 강남·북을 비롯해 주변의 위성도시까지 거느린 메트로폴리스가 되어 버린 지금, 한강은 과연 사람들에게 있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

옛날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던 강의 추억들 - 할아버지와 손주의 물장난, 아낙들의 물질과 웃음소리, 사공의 노젓는 모습 - 이 하나 둘씩 지워져 이제는 스치는 무의식 속에나 만나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인 관계로서 자연과 사람, 자연과 도시, 인간과 도시를 엮여주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강남과 강북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하나의 도시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으로 본 계획은 다리를 단절이 아닌 만남의 매개공간으로 승화시켜 현재의 수평이동 수단만 쓰이고 있는 한강의 다리를 풍요로운 문학의 공간, 즉 거리로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다.

테마파크를 위한 전시공간, 휴식공간을 연계적으로 창출함에 있어서 막의 구조적 역할과 그 형태 디자인의 효과적인 조화를 꾀하였다. 막의 특성상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바람과 비, 눈 등의 자연현상을 고려하였으며, 또한 하이테크적인 구조, 시공기술과의 조화와 연결을 도모하였다. 대지의 특성상 시에 진입하는 대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이미지도 중요하게 다루었다. 내부와 외부와의 모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막에 자연적 공간을 만들기 위해 내·외부에 물과 나무를 자연적 요소를 부여하였다.

테마파크의 주제에 맞게 동선을 효율적으로 분할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연속성을 주었다. 또한 전체적 건물의 내·외부를 연결시켜 형태의 연속성과 통일성을 꾀하였다. 그 형태는 자연적 요소에서 유추하였다.

막구조에 있어서 전체적 형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막이다. 그 쓰임(적용)이 지붕이든 벽이든지간에, 그 형태를 유추하는 과정에서 막의 특성상 자연요소와의 밀접한 관계를 떠올렸다.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와 동화를 위해서 그 형태를 자연에서 유추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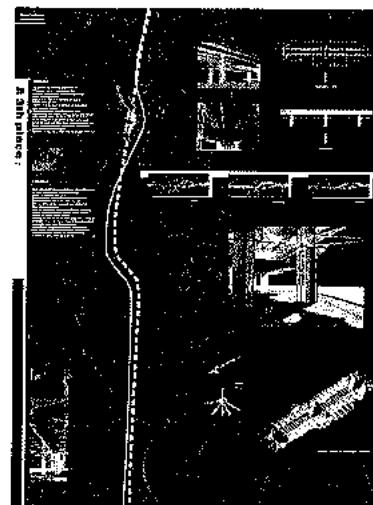
떨어지는 빗방울에 의해 생기는 강이나 바다의 잔잔하면서 격렬하기까지 한 파문(Water Ripple)에서 그 형태를 유추하였다.



장려상 / Synapsis  
최현(신아건축사사무소), 안창현(한양대 건축공학과),  
유은희(A-stone건축), 제태영((주)동현건축),  
정혜숙(산업대 건축공학과)



장려상 / Church Connecting People to Heaven  
강희정, 김현정, 전주현, 고명선  
(이상 고려대 건축공학과)



장려상 / A 3rd Place  
송기진, 엄민호, 김각성, 이해연, 김지훈  
(이상 국민대 건축학과 대학원)

도시에 이식된 인자(Factor)는 새로이 제안된 기본단위(Unit)의 결합을 통해 건축적인 공간을 형성해 간다. 이 기본단위(Unit)들은 미시적으로는 개개가 의미와 기능들을 담고 있음과 동시에 결합, 확장을 통해 개별적인 공간의 완결성을 갖춘 구조를 형성해 나간다. 또한 이 새로이 제안된 구조단위들은 Membrane의 경량적, 가변적인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한걸음 더 나이가 자유로운 내부 공간구성의 기능을 담고 있어서, 우리들의 도시적인 이식 작업에 있어서 한층 더 타당성을 가진다고 보여진다. 즉 정형화된 도시 빌딩군속에서 자유로이 이식될 공간구성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Membrane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개념의 흐름은 도시적인 접근방식에 있어서의 거시적인 접근방식과 구조단위의 접근에서 보여지는 미시적 접근의 상호보완 관계에서 작업되어졌다. 현재의 도시에 리노베이션적인 재구성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반 투광성의 막을 이용하여 빛을 걸러 수용하는 신성한 예배공간을 형성한다. 이는 예배하는 사람들의 하늘과의 교감을 촉진한다. 또한 막구조의 구조형태의 자유로움을 이용하여 시점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입면을 보여준다. 교회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계단을 따라 올라오며 입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예배당의 지붕, 즉 반 투과막의 위치에 따른 형태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한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예배당이 다 보일 때쯤 넓게 오픈된 공간인 광장이 나타나며 예배당은 모습을 완전히 드러낸다. 긴 징이 완화되며 동시에 예배당에 비해 하찮은 인간의 존재를 느끼며, 겸허함을 갖고 신의 공간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된다. 조금은 좁은 긴 복도를 지나 예배당에 들어서면 시각에 장애가 전혀 없는 탁트인 대 예배공간이 펼쳐진다.

예배당은 반 투과막으로 덮여 있다. 지금까지 진입경로를 통해 감정의 정회를 겪은 사람들은 막을 통과한 빛을 느끼며, 때로 비가 올 때에는 대자연의 위력을 느끼며 더욱 더 하늘과 가까워졌음을 느끼게 된다.

#### 최우수상(공동수상)

1. Breathe Into the Urban  
박광수, 강준형, 이택준, 구성성, 이재호  
(이상 홍익대 건축학과)
2. Water Ripple Membrane  
양진석, 이정민, 이재원, 인영욱, 박동준  
(이상 충남대 건축공학과)

#### 장려상

3. Synopsis  
최현(신아건축사사무소), 안창현(한양대 건축공학과), 유은희(A-stone건축), 제태영((주)동현건축), 정혜숙(산업대 건축공학과)
4. Church Connecting People to Heaven  
강희정, 김현정, 전주현, 고명선(이상 고려대 건축공학과)
5. A 3rd Place  
송기진, 엄민호, 김각성, 이해연, 김지훈  
(이상 국민대 건축학과 대학원)

#### 특선

6. Membrane Tree  
박병준, 이은경(이상 (주)경진건축사사무소)
7. 열림  
안영웅, 박노원, 임형준(이상 홍익대 건축공학과)
8. Tide Scape  
최재영(전남대 건축학과 대학원), 심재현, 김준택, 김홍일(전남대 건축학과)
9. Rib Analysis  
이은정, 서제원, 정세영(이상 홍익대 건축공학과)
10. 표면무한부피소실  
김형균

## 통계 statistics

### 설계도서신고현황

99년도 1월분

####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월분(98.1) 6백9십3만1천8백10㎡ 보다 73.0%(5백6만2천8백21㎡)

감소한 1백8십6만8천9백89㎡의 실적을 보임.

#####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월 누계분 6백9십3만1천8백10㎡ 보다 73.0%(5백6만2천8백21㎡)

감소한 1백8십6만8천9백89㎡의 실적을 보임.

##### 다. 전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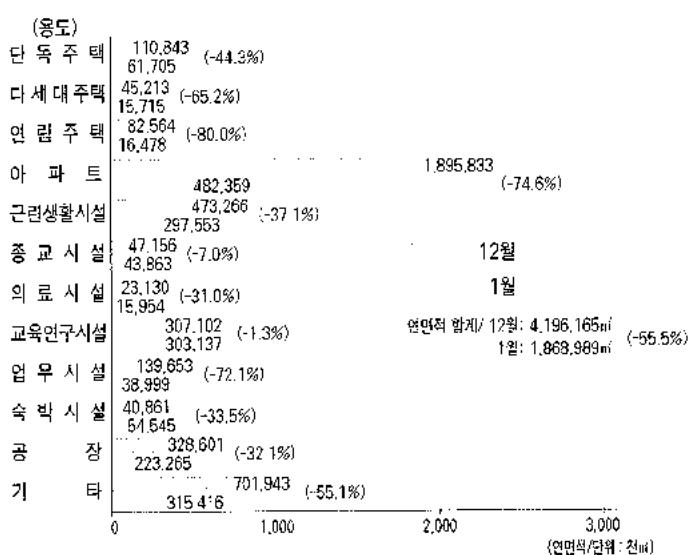
전월 12월분(98.12) 4백1십9만6천1백65㎡보다 55.5%(2백3십2만7천1백76㎡)

증가한 1백8십6만8천9백89㎡의 실적을 보임.

####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 분		1998년도	1999년도	증 감	비율(%)
증가지역	대 구	81,798	105,449	23,651	28.9%
	평 주	56,020	65,592	9,572	17.1%
	전 북	34,557	59,239	24,682	71.4%
	전 남	37,974	90,807	52,833	139.1%
감소지역	서 울	3,537,819	799,071	(2,738,748)	-77.4%
	부 산	813,158	56,993	(756,165)	-93.0%
	인 천	240,478	65,632	(174,846)	-72.7%
	대 전	154,942	14,466	(140,476)	-90.7%
	울 산	55,050	16,025	(39,025)	-70.9%
	경 기	1,168,021	284,961	(883,060)	-75.6%
	강 원	82,461	63,228	(19,233)	-23.3%
	충 북	318,096	41,213	(274,883)	-87.0%
	충 남	54,092	39,061	(15,031)	-27.8%
	경 북	130,672	100,261	(30,411)	-23.3%
	경 남	150,624	55,489	(95,135)	-63.2%
	제 주	18,048	11,502	(6,546)	-36.3%
	합 계	6,931,810	1,868,989	(5,062,821)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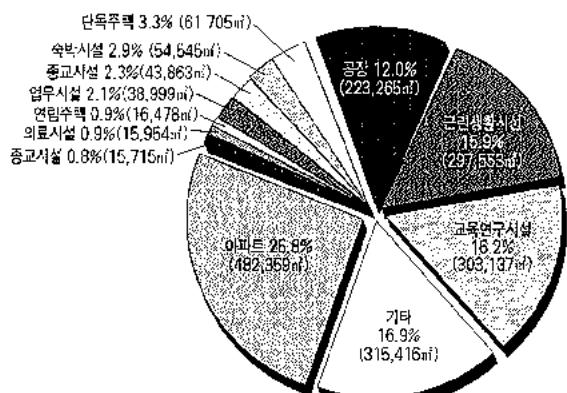
####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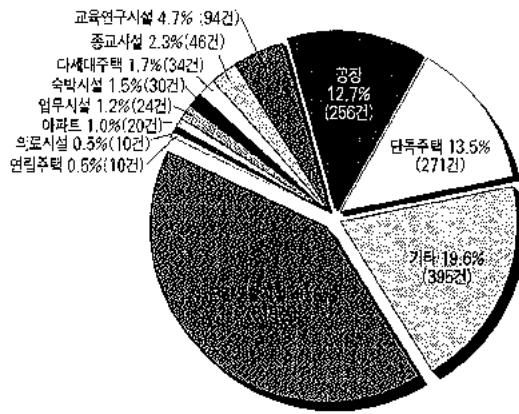
####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월분)

구 분	1998년			1999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용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1,420	1,489	424,356	271	292	61,705	(1,149)	(1,197)	(362,651)	-85.5	
다세대주택	368	406	213,009	34	35	15,715	(334)	(371)	(197,294)	92.6	
연립주택	57	60	76,452	10	10	16,478	(47)	(50)	(59,974)	-78.4	
아파트	53	239	2,678,698	20	20	482,359	(33)	(219)	(2,196,339)	-82.0	
근린생활시설	1,675	1,735	827,364	819	863	297,553	(856)	(872)	(529,811)	-64.0	
종교시설	72	100	62,887	46	47	43,863	(26)	(53)	(19,024)	-30.3	
의료시설	14	14	17,564	10	10	15,954	(4)	(4)	(1,610)	-9.2	
교육연구시설	96	111	221,181	94	102	303,137	(2)	(9)	81,956	37.1	
업무시설	49	60	460,093	24	24	38,999	(25)	(36)	(421,094)	-91.5	
숙박시설	131	135	674,104	30	30	54,545	(101)	(105)	(619,559)	-91.9	
공장	413	523	307,346	256	304	223,265	(157)	(219)	(84,081)	-27.4	
기타	704	846	968,756	395	469	315,416	(309)	(377)	(653,340)	-67.4	
합 계	5,052	5,718	6,931,810	2,009	2,206	1,868,989	(3,043)	(3,512)	(5,062,821)	-73.0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9년 1월분)



연면적 (총 1,868,989㎡)



건수 (총 2,009건)

용도별 합계 현황(1월분)

구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단독주택	217	235	54,979	51	54	5,883	3	3	843	271	292	61,705
다세대주택	32	33	15,332	2	2	383	0	0	0	34	35	15,715
연립주택	10	10	16,478	0	0	0	0	0	0	10	10	16,478
아파트	19	19	482,162	1	1	197	0	0	0	20	20	482,359
근린생활시설	648	684	242,855	148	156	29,141	23	23	25,557	819	863	297,553
종교시설	28	28	33,945	17	18	6,943	1	1	2,975	46	47	43,863
의료시설	3	3	9,550	6	6	3,498	1	1	2,906	10	10	15,954
교육연구시설	23	24	133,534	70	77	169,261	1	1	342	94	102	303,137
업무시설	13	13	34,556	11	11	4,443	0	0	0	24	24	38,999
숙박시설	20	20	51,088	8	8	2,865	2	2	592	30	30	54,545
공장	99	121	118,721	154	180	101,410	3	3	3,134	256	304	223,265
기타	259	313	240,570	132	152	62,957	4	4	11,889	395	469	315,416
합계	1,371	1,503	1,433,770	600	665	386,981	38	38	48,238	2,009	2,206	1,868,989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월분)

구분	1998년			1999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축사회											
서울	773	779	3,537,819	249	251	799,071	(524)	(528)	(2,738,748)	-77.4	
부산	526	776	813,158	52	85	56,993	(474)	(691)	(756,165)	-93.0	
대구	44	44	81,798	73	73	105,449	29	29	23,651	28.9	
인천	125	132	240,478	96	96	65,632	(29)	(36)	(174,846)	-72.7	
광주	59	73	56,020	106	125	65,592	47	52	9,572	17.1	
대전	178	178	154,942	35	35	14,466	(143)	(143)	(140,476)	-90.7	
울산	62	62	55,050	41	42	16,025	(21)	(20)	(39,025)	-70.9	
경기	2,121	2,348	1,168,021	431	512	284,961	(1,690)	(1,836)	(883,060)	-75.6	
강원	169	190	82,461	170	177	63,228	1	(13)	(19,233)	-23.3	
충북	192	248	316,096	110	121	41,213	(82)	(127)	(274,883)	-87.0	
충남	133	120	54,092	94	94	39,061	(44)	(26)	(15,031)	-27.8	
전북	56	56	34,557	45	45	59,239	(11)	(11)	24,682	71.4	
전남	76	82	37,974	167	169	90,807	91	87	52,833	139.1	
경북	225	260	130,672	151	176	100,261	(74)	(84)	(30,411)	-23.3	
경남	253	302	150,624	139	153	55,489	(114)	(149)	(95,135)	-63.2	
제주	55	68	18,048	50	52	11,502	(5)	(16)	(6,546)	-36.3	
합계	5,052	5,718	6,931,810	2,009	2,206	1,868,989	(3,043)	(3,512)	(5,062,821)	-73.0	( )=마이너스

## 대한건축사협회 1999년도 제1회 임시총회 공고

게시판 bulletin board

### 일 시

1999년 3월 26일(금) 10시

### 장 소

본회관 대강당

## 1999년도 건축사에비시험 시행 공고

건축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건축사에비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9년 2월 26일  
건설교통부장관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1. 응시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에비시험 대상자<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li><li>2. 전문대학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2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li><li>3. 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에서 건축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및 교육법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4년이상의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을 가진 자</li><li>4. 건축에 관하여 9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li></ol></li><li>○ 건축사법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의한 건축사시험 대상자</li></ul>
2. 시험과목 시험일자 시험장소	<p>가. 시험과목: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계획 - 객관식 선택형</p> <p>나. 시험일자: 1999년 5월 9일</p> <p>다. 시험장소: 1999년 4월 27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p>
3.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	<p>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1999. 3. 15 ~ 3. 20 (09:00 ~ 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p> <p>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p> <p>• 서울건축사회: (02) 581-5715~8 • 대구건축사회: (053) 753-8980~5 • 광주건축사회: (062) 521-0025~6 • 울산건축사회: (052) 266-5651 • 강원건축사회: (0361) 254-2442 • 충남건축사회: (042) 256-4088 • 전남건축사회: (062) 365-9944 • 경남건축사회: (0551) 246-4530~3</p> <p>• 부산건축사회: (051) 633-6677 • 인천건축사회: (032) 437-3381~4 • 대전건축사회: (042) 485-2813~7 • 경기건축사회: (0331) 247-6129~30 • 충북건축사회: (0431) 223-3084~6 • 전북건축사회: (0652) 251-6040 • 경북건축사회: (053) 744-7800~2 • 제주건축사회: (064) 752-3248</p>
4. 제출서류	<p>가. 출원시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사에비시험 응시원서(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 1부</li><li>• 컬러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상반신 반영함판): 2매 (응시원서 부착 제출)</li><li>• 응시수수료: 23,000원(응시원서대: 2,000원 별도)</li></ul> <p>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응시표사본, 주민등록표초본, 학력증명서 각 1부</li><li>• 경력증명서 1부(단, 해당자에 한하여, 경력제출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합격예정자 발표시 공고함)</li></ul>
5. 합격예정자 발 표	<p>가. 합격예정자 발표: 1999년 5월 20일 11:00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p> <p>나.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접수기간: 1999. 5. 26 ~ 5. 29 (단, 토요일은 13:00까지)</p> <p>※ 건축사자격시험 및 특별전형시험 시행계획은 건축사에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별도 공고할 예정입니다.</p>
6. 응시자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의 경력인정기준일은 시험시행 전일(99.5.8)까지로 하며, 경력과 학력은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li><li>○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을 지참하지 못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표를 제교부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및 반영함판 사진 2매를 지참하고 시험시행전까지 응시표를 제교부 받아야 함)</li><li>○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09:30분)까지 응시표 및 주민등록증(여타증명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 좌석에 착석하여야 하며, 시험 개시후에는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습니다.</li><li>○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의 대여를 일체 금지하며, 시험장의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li><li>○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li><li>○ 응시원서상의 기재 오기 누락 및 연락불능의 경우와 제출서류 미비 또는 시험답인지의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여, 시험답안지는 열람, 확인할 수 없습니다.</li><li>○ 응시자격의 결격사유 또는 혐의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li><li>○ 부정행위를 한 자는 시험을 무효로 하며, 건축사법 제15조의 2규정에 의하여 향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li><li>○ 시험당일 시험장내에는 치량 진입이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합니다.</li><li>○ 기타 자세한사항은 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응시안내서를 참고 바라며,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팀(581-5711~4)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500-4131)로 문의 바랍니다.</li><li>※ 본 건축사에비시험은 건축사자격시험과 별도 분리 시행하는 것이니 착오 있으시기 바랍니다.</li></ul>